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1 계획수립의 배경

- 토지이용 등 여건변화로 2025 광양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 재검토 필요
- 국토종합계획 및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등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광양시의 미래상 재정립 필요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는 녹색도시 실현 및 도시발전의 기본방향 정립 필요
- 동서통합지대 조성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발전구상 모색

1.2 계획수립의 목적

- 국토·도시공간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 및 상위계획 수용과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시발전 미래상 재정립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제시
- 국제자유무역도시 실현을 위한 광양시 도시관리 전략 마련과 남중권 중추 도시로의 위상 구축
- 온실가스 저감, 환경친화적 도시개발방안 등 자원·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으로 친환경 도시관리체계 확립

1.3 계획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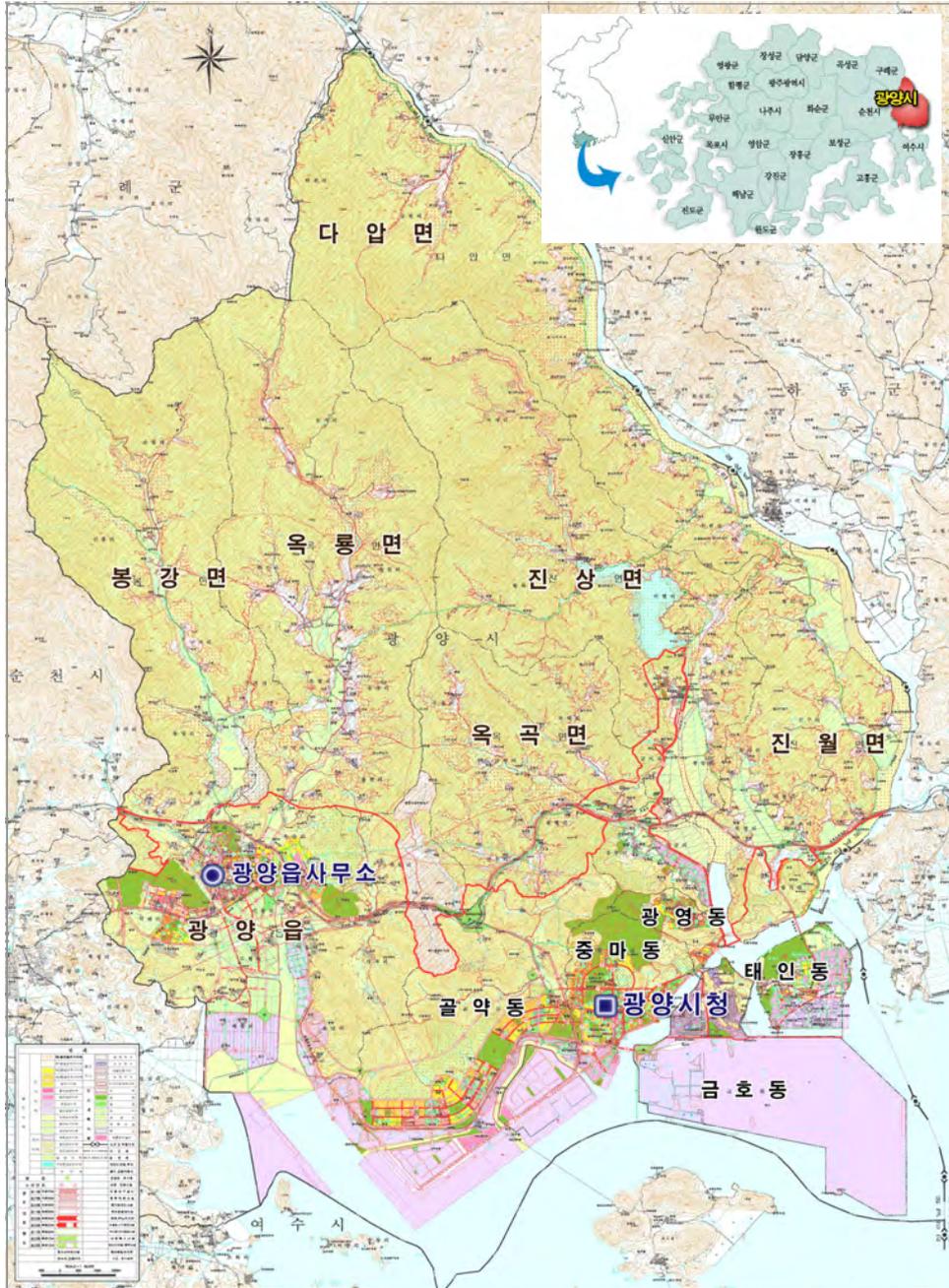
공간적 미래상의 정립, 도시발전의 기본방향 및 의사결정의 지침

- 물적·공간적 계획과 환경·사회·경제 등 비물적계획의 종합 및 조정
- 지역미래상을 반영하는 공간 및 토지이용의 규정
- 도시가 지향할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
- 정책전략의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 및 이슈를 발굴하여 각 부문 정책 및 계획과 종합하여 조정

2. 계획의 범위

2.1 공간적 범위

- 위치 : 광양시 행정구역 전역
- 면적 : 497.647km² (육지부 460.061km², 해면부 37.586km²)¹⁾



(그림 I - 1) 광양시 위치도

1) 육지부 및 해면부 면적은 2013. 12. 31. 기준임

2.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3년
- 목표연도 : 2030년

< 표 1 - 1 > 단계별 계획기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 계획기간	2013~2015년	2016~2020년	2021~2025년	2026~2030년

2.3 내용적 범위

■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분석

- 광양시의 성장과 변천 및 특성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여건변화 분석

■ 도시기본구상

-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목표·지표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 부문별 계획

- 토지이용계획(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용도지역 관리방안 및 비도시 지역 성장관리방안 등)
- 기반시설(교통·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 도심 및 주거환경(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경관 및 미관
- 공원·녹지
-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고용, 산업, 복지 등)

■ 계획의 실행

- 재정확충 및 자원조달
- 단계별 추진전략

제2장 도시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1. 도시현황

1.1 도시계획 연혁

① 광양읍 도시계획 연혁

○ 1970년 3월 최초 도시계획결정 고시 이후, 동광양시와 통합 이전 1994년 4월에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 표 I - 2 > 광양읍 도시계획 연혁

고 시 일	내 용
1970. 3. 6	◦ 도시계획 결정
1976.12. 7	◦ 도시계획 변경결정
1984. 5.10	◦ 도시기본계획 승인
1985. 8.27	◦ 도시계획 변경결정
1986. 3.18	◦ 도시계획변경결정(도시지역확장)
1986. 7. 5	◦ 도시계획 변경결정
1988. 3.19	◦ 도시계획 변경결정
1991. 3.12	◦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1991. 5. 3	◦ 도시계획 변경결정
1993. 3.15	◦ 도시계획 변경결정(재정비)
1993.12.27	◦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1994. 4.27	◦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② 동광양시 도시계획 연혁

○ 1982년 4월 광양만 산업기지개발구역 고시를 시작으로 1987년 10월 동광양 도시기본계획 승인, 1994년 12월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 등을 통해 도시계획 수립

< 표 I - 3 > 동광양시 도시계획 연혁

고 시 일	내 용
1982. 4. 2	◦ 광양만 산업기지개발구역 고시(94.46km ²)
1982.11.22	◦ 도시계획 결정 (1.29km ²)
1986. 5.17	◦ 산업기지개발계획 변경(98.36km ² , 광영주거지역 포함)
1986. 7.15	◦ 광양항 배후도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48.778km ²)
1986.12.31	◦ 광양만 배후 도시기본계획 승인 (48.778km ²)
1987.10.15	◦ 동광양 도시기본계획 승인 (107.55km ²)
1990.12.10	◦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107.55km ²)
1991. 7. 5	◦ 도시계획 변경결정(48.78→81.66km ²)
1991.10.12	◦ 도시계획 변경결정(재정비)
1993. 9.20	◦ 도시계획 변경결정(81.66→85.03km ²)
1994. 1.17	◦ 도시기본계획 변경(「컨」 부두전용도로)
1994.12.16	◦ 도시계획결정고시(3.371km ²)

③ 통합광양시 도시계획 연혁

- 1995년 동광양시와 광양군을 통합하여 광양시를 출범한 이후 1999년 7월 광양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2008년 1월 2025 광양도시기본계획 승인

< 표 I - 4 > 통합광양시 도시계획 연혁

고시일	내용
1999. 7.27	○ 통합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2001. 1. 5	○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14.985km/광양읍, 봉강·옥곡·진상·진월면 일부)
2002.12.13	○ 광양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2008. 1.22	○ 2025 광양도시기본계획 승인
2009. 7.13	○ 2015 광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1.2 도시특성

① 공간적 특성

- 광양시는 전라남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의 섬진강을 경계로 경상남도 하동군과 접해 있어 영호남 문화교류의 중심지 역할 수행
- 행정구역상 북측으로는 구례군, 동측으로는 경상남도 하동군, 서측으로는 순천시와 인접
- 지형여건상 동측은 섬진강, 남측은 광양만, 그리고 북측은 백운산이 입지
- 주요 도시와의 공간적 거리로 서울특별시와는 320km, 광주광역시와는 80km, 순천시와는 20km 이격
- 주변지역에 경전선, 전라선, 광양항, 여수공항 및 사천공항 등이 입지하여 육·해·공의 복합운송망체계가 구축된 교통요충지에 입지

< 표 I - 5 > 광양시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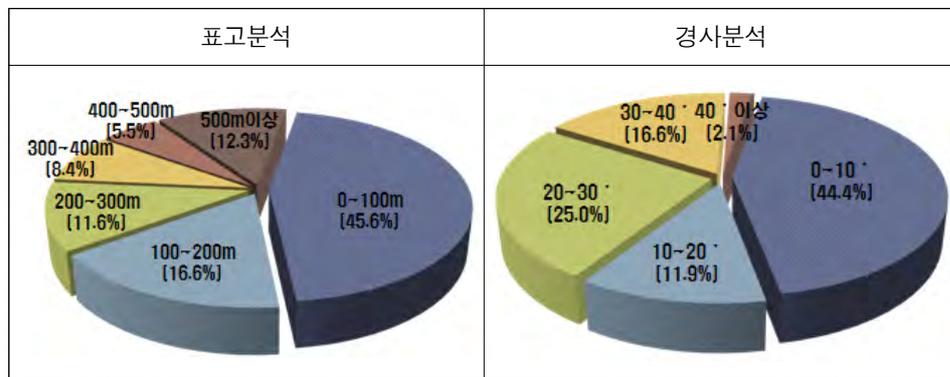
시청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km)
		지명	극점		
			동경	북위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중동1313번지)	동 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27° 47' 09,85"	35° 00' 25,61"	동서간 :23.9km
	서 단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127° 31' 29,08"	35° 04' 04,46"	
	남 단	광양시 금호동	127° 47' 00,29"	34° 53' 00,49"	남북간 :32.7km
	북 단	광양시 다압면 하천리	127° 37' 23,60"	35° 10' 46,61"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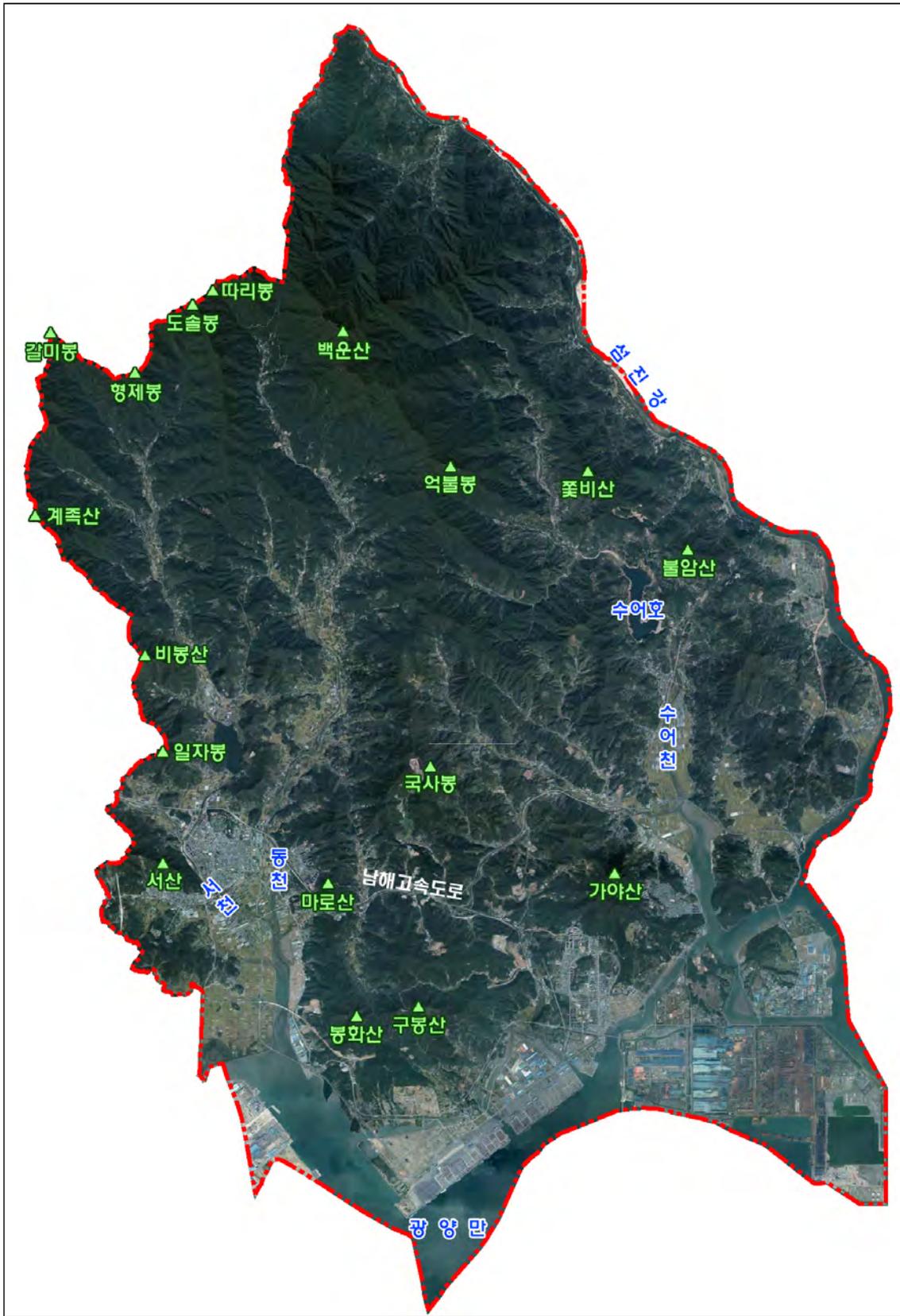
2 자연환경

가. 지형·지세

- 광양시의 전반적인 지형은 소백산맥의 지맥인 백운산(1,222m)을 필두로 갈미봉(519m), 형제봉(881m), 도솔봉(1,123m), 파리봉(1,153m) 등 동서로 늘어선 일군의 산들이 구례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비봉산(554m)은 순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억불봉(1,008m), 쫓비산(538m), 불암산(430m), 국사봉(532m) 등이 남쪽으로 뻗은 급경사의 지맥으로 광양만을 향해 자연스럽게 형성
- 중마동지역은 남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북측은 고지대이고 남측은 해발 497m의 가야산과 473m의 구봉산 남향 구릉지가 광양만의 해안선을 따라 동서축 방향으로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기존시가지는 “배산임해형” 지형을 형성
- 광양읍지역은 남측에 광양만이 입지하여 있으며 동측의 마로산(227m), 서측의 서산(253m), 봉화산(398m), 북측의 일자봉(408m)이 기존시가지를 둘러싼 “배산임해형” 지형을 형성
- 구릉성 산지 및 평지와 농촌밀집취락지가 광양만에 인접한 육지부와 함께 지방도와 하천을 따라 “U”자형으로 입지하여 향후 도시개발이 “U”자형의 형상을 따라 개발될 것으로 전망됨
- 해안변은 간척이 용이한 간사지가 널리 분포되어 있고 침강작용에 의하여만의 입구가 깊으므로 항만개발이 용이한 지형적 요건을 구비
- 광양만은 여수, 여천, 광양 및 남해고속도로로 위요된 지역으로 동서 직선거리 약 25km, 남북 직선거리 10km이며 특히, 공유수면의 수심이 15m 이상으로 형성되어 대형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기에 적합한 천혜의 항만입지 조건을 구비
- 표고는 100m 미만이 전체의 45.6%를 차지하고, 경사도는 20° 미만이 전체의 56.3%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2) 광양시 표고 및 경사 현황



(그림 1 - 3) 광양시 지형·지세 현황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나. 수계

- 광양시의 수계는 섬진강과 진상면 어치에서 발원하여 섬진강으로 합류되는 수어천, 읍지역을 흐르는 동천, 서천 등 4개 대수계로 구분
- 섬진강은 발원지 주변에 지리산, 백운산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산들이 널리 분포되어 수질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수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수어호는 광양시, 광양제철, 울촌산단의 생활 및 공업용수로 이용
- 계획구역 내에는 여러 개의 저수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중 수어호와 백운저수지의 저수량이 많으며, 그 외 소규모의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이용
- 광양시 관내 하천개수상태를 살펴보면, 국가하천인 섬진강은 기개수연장이 33.10km로서 개수율 100.00%를 나타냄.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서는 각각 94.58%, 84.36%의 개수율을 보임
- 또한, 광양시 관내 위치하는 하천중 소하천 1차(1998.12), 소하천 2차(2001.12), 수평천(1995.01), 인덕천(1997.12) 등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수립이 10년이상 경과되어 조속한 계획수립이 필요함

< 표 1 - 6 > 광양시 하천 개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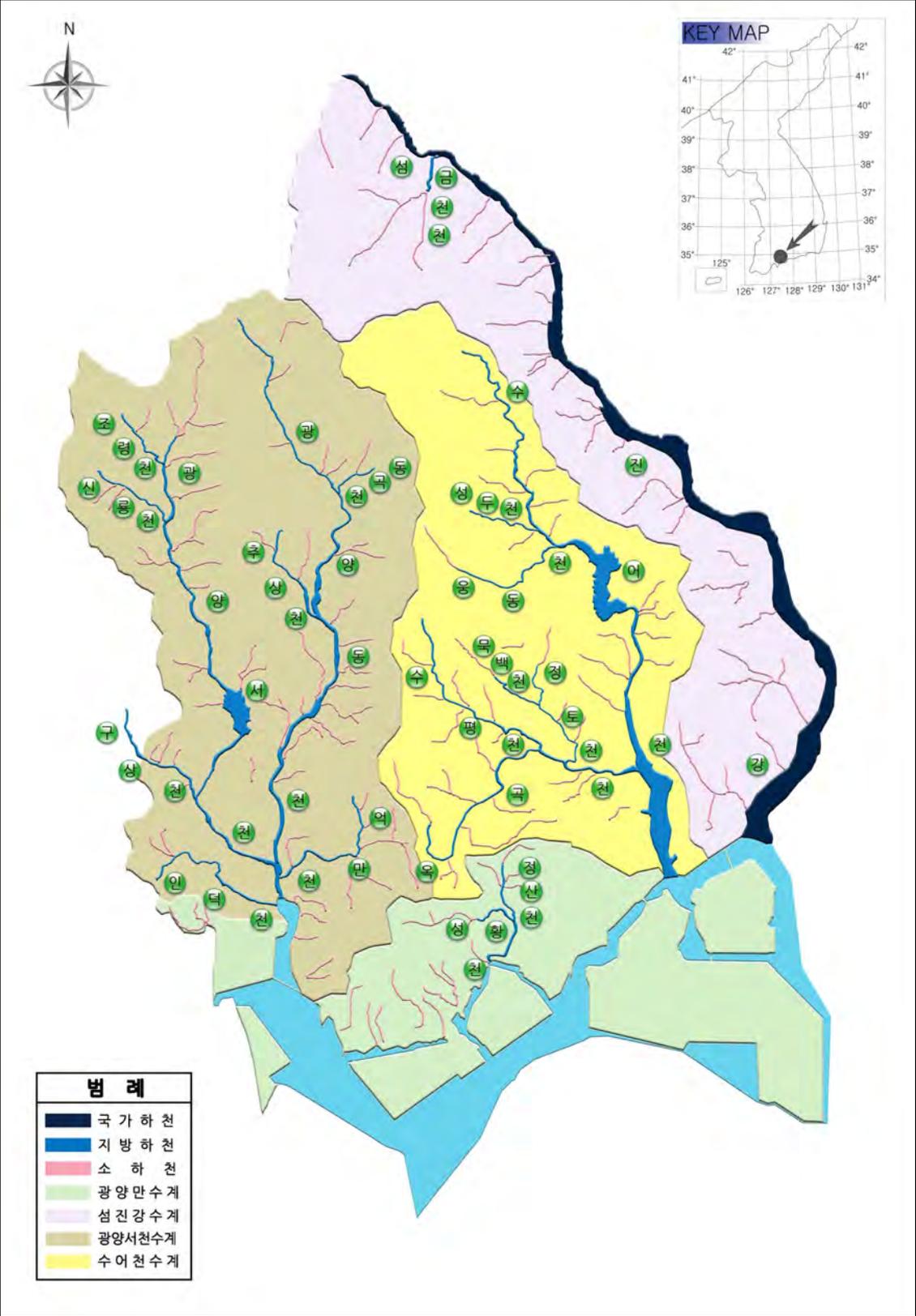
구분	하천수(개소)	총연장(km)	개수율(%)	비고
합계	175	364.39	92.98	
국가하천	1	33.10	100.00	
지방하천	19	127.55	94.58	
소하천	155	203.74	84.36	

자료 : 광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2013)

< 표 1 - 7 > 광양시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하천등급	하천명	수립연도	수립기관	비고
국가하천	섬진강	2009. 11	국토교통부	2009년 보완
지방하천	서천, 구상천, 신흥천, 조령천	2008. 07	광양시	하천기본계획 변경
	동천, 추산천	2003. 07	광양시	
	수어천, 성두천, 웅동천	2003. 07	광양시	
	인덕천	1997. 12	전라남도	
	억만천	2010. 02	전라남도	
	금천천, 성황천, 정산천	2003. 07	광양시	
	성황천	2010. 07	전라남도	하천기본계획 변경
	동곡천	2009. 12	전라남도	
	옥곡천, 정토천, 묵백천	2003. 07	광양시	
소하천	수평천	1995. 01	전라남도	
	소하천(1차)	1998. 12	광양시	
	소하천(2차)	2001. 12	광양시	
	소하천(3차, 4차)	2009. 02	광양시	

자료 : 광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2013)



(그림 1 - 4) 광양시 하천수계 현황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다. 기상

- 지리적으로 남해안 중앙부에 위치, 해안선을 끼고 있어 난류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온화하고, 연간 평균 강수량 1,577.7mm의 다우지역으로 농작물 재배에 좋은 조건을 구비
- 과거 5년('08~'13) 간의 연평균기온은 14.2℃이며, 최고 38.9℃, 최저 -11.6℃이며 특히 겨울에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3한 4온이 뚜렷하여 정주생활의 기후조건은 비교적 좋은 조건에 속함
- 겨울철의 주풍향은 북서풍(NW)이고 그 외 빠른 풍속의 북동풍(NE)이 기록되기도 하며 태풍의 최대풍속은 1959년에 태풍 사라호의 35.5m/sec를 기록하고 있고 여름철(6월-8월)의 주풍향은 남동풍이 주류를 형성
- 2008~2013년 일기일수를 살펴보면 맑은 날이 연평균 약 214일, 흐린 날이 약 152일 정도이며,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개 낀 날은 거의 없어 항만도시로서 최적의 기상조건을 갖고 있음

< 표 I - 8 > 광양시 기상개황

연도	기온(℃)			평균습도 (%)	강수량 (mm)	평균풍속 (m/s)
	평균	최고극값	최저극값			
2008	14.5	37.6	-9.6	68.4	835.4	7.2
2009	14.0	36.6	-9.7	70.6	1,744.0	7.6
2010	13.8	35.5	-8.9	72.3	1,829.9	9.4
2011	13.6	36.6	-11.6	70.4	2,007.5	7.6
2012	14.7	37.3	-11.2	60.8	1,780.6	7.0
2013	14.5	38.9	-11.0	61.3	1,269.0	6.9
평균	14.2	38.9	-11.6	67.3	1,577.7	7.6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 표 I - 9 > 광양시 일기일수

단위 : 일

연도	맑음	흐림	강수	서리	눈
2008	215	150	197	17	-
2009	218	147	90	20	3
2010	201	164	98	-	2
2011	201	164	85	5	1
2012	214	152	131	14	5
2013	232	133	83	27	3
평균	213.5	151.7	114.0	13.8	2.3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3 인문환경

가. 인구 및 세대

■ 인구 및 세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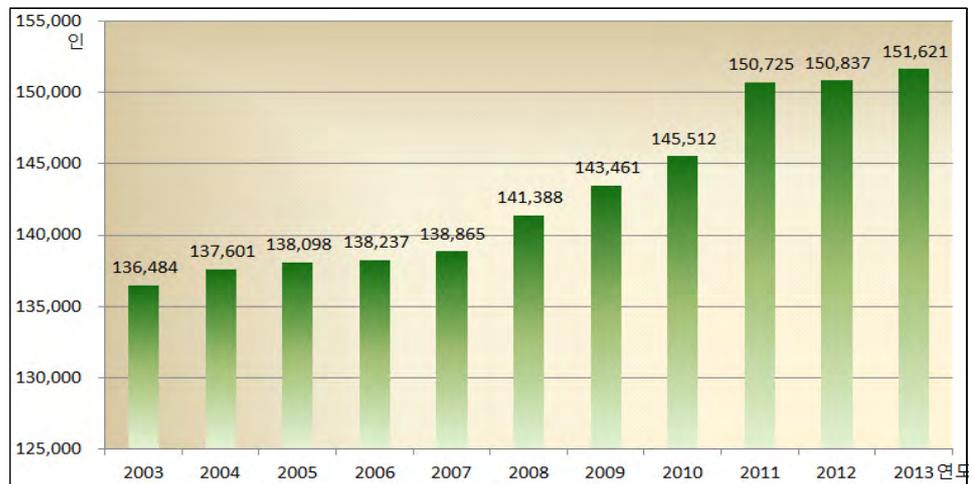
- 광양시의 최근 10년간 인구는 2003년 136,484인에서 2013년 151,621인으로 15,137인(11.1%) 증가하였고,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06%로 나타남
- 세대수는 인구의 증가와 세대당인구수의 감소로 인해 2003년 44,373세대에서 2013년 57,707세대로 약 30% 증가하였음
- 외국인인구는 외국인노동자 고용, 국제결혼 등으로 2003년 269인에서 2013년 1,375인으로 약 411% 증가하였음

< 표 I - 10 > 광양시 인구 및 세대 현황

단위 : 세대, 인, 인/km²

구분	세대	인구			인구밀도	세대당 인구수	65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 인구
		계	남	여				
2003	44,373	136,484	69,729	66,755	305.8	3.1	10,573	269
2004	45,541	137,601	70,318	67,283	308.2	3.0	11,094	541
2005	46,742	138,098	70,570	67,528	309.5	3.0	11,545	632
2006	47,707	138,237	70,607	67,630	308.9	2.9	12,025	783
2007	48,665	138,865	71,056	67,809	307.4	2.9	12,621	870
2008	50,344	141,388	72,439	68,949	311.9	2.8	13,033	1,011
2009	51,840	143,461	73,549	69,912	316.1	2.8	13,344	1,168
2010	53,423	145,512	74,789	70,723	318.9	2.7	13,614	1,169
2011	56,442	150,725	77,670	73,055	330.3	2.7	14,014	1,466
2012	57,026	150,837	77,678	73,159	330.5	2.6	14,549	1,390
2013	57,707	151,621	77,990	73,631	332.3	2.6	15,074	1,375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그림 I - 5) 광양시 인구추이(2003년~2013년)

■ 인く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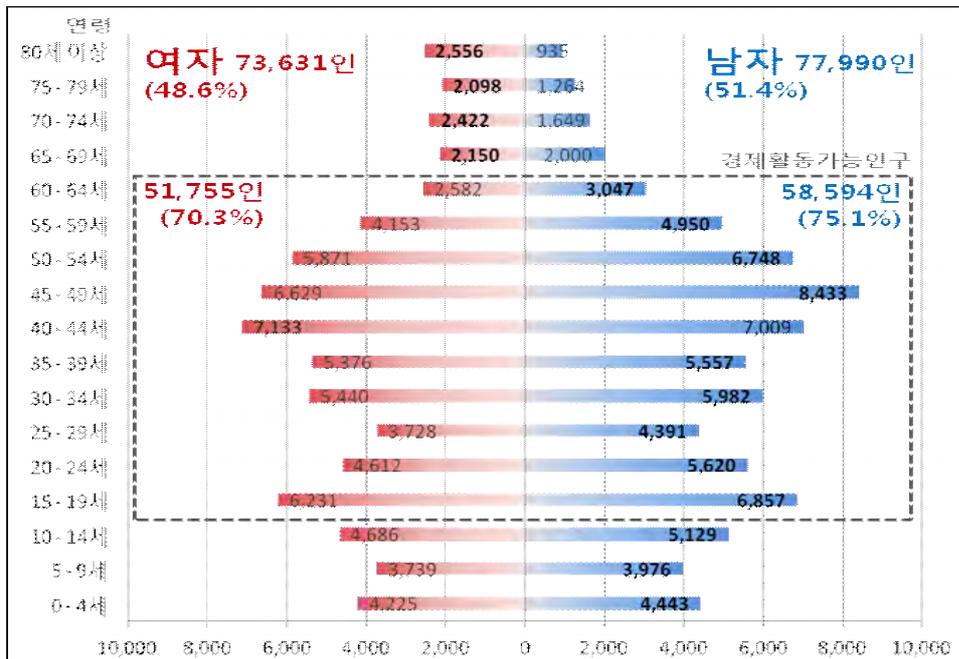
- 2013년 인くい동은 전입 17,309인, 전출 17,653인으로 전출자 수가 344인 많음
- 지역간 인くい동 중 전입은 순천, 경남, 광주, 경기 순이며, 전출은 순천, 서울, 광주, 경남, 경기 순으로 나타남



자료 : 국가통계포털 국내인くい동통계(<http://www.kosis.kr>)
(그림 1 - 6) 광양시 인くい동(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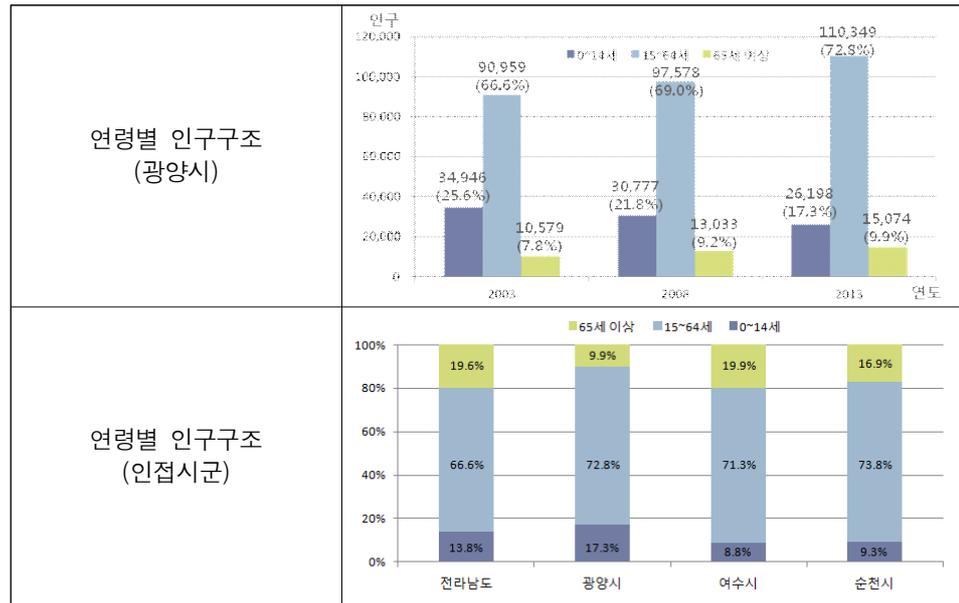
■ 인구구조

- 2013년의 성별 인구구조는 남자 51.4%, 여자 48.6%로 남자의 비율이 2.8% 높음



(그림 1 - 7) 광양시 인구구조(2013년)

- 연령별 구조는 경제활동가능인구(15~64세)가 전체의 72.8%를 차지하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3년 7.8%에서 2013년 9.9%로 완만하게 증가함
- 인접시군과 비교결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남지역 평균 19.6%, 여수시 19.9%, 순천시 16.9%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그림 1 - 8) 연령별 인구구조

■ 읍면동별 인구현황

- 광양시의 최근 10년간 읍면동별 인구는 광양읍(13.9% 증가), 중마동 57.1% 증가)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표 1 - 11 > 읍면동별 인구 현황

구분	2003년 인구			2013년 인구			증가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36,484	69,729	66,755	151,621	77,990	73,631	11.1
광양읍	42,223	21,230	20,993	48,081	24,355	23,726	13.9
봉강면	2,629	1,340	1,289	2,244	1,125	1,119	-14.6
옥룡면	3,479	1,766	1,713	3,252	1,630	1,622	-6.5
옥곡면	4,591	2,331	2,260	3,583	1,808	1,775	-22.0
진상면	4,067	2,046	2,021	3,300	1,658	1,642	-18.9
진월면	4,445	2,280	2,165	3,482	1,763	1,719	-21.7
다압면	2,284	1,145	1,139	1,933	967	966	-15.4
골약동	2,872	1,491	1,381	2,607	1,363	1,244	-9.2
중마동	33,184	16,864	16,320	52,143	26,819	25,324	57.1
광영동	14,458	7,433	7,025	13,658	7,196	6,462	-5.5
태인동	3,176	1,649	1,527	2,447	1,313	1,134	-23.0
금호동	19,076	10,154	8,922	14,891	7,993	6,898	-21.9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주민등록인구 기준

나.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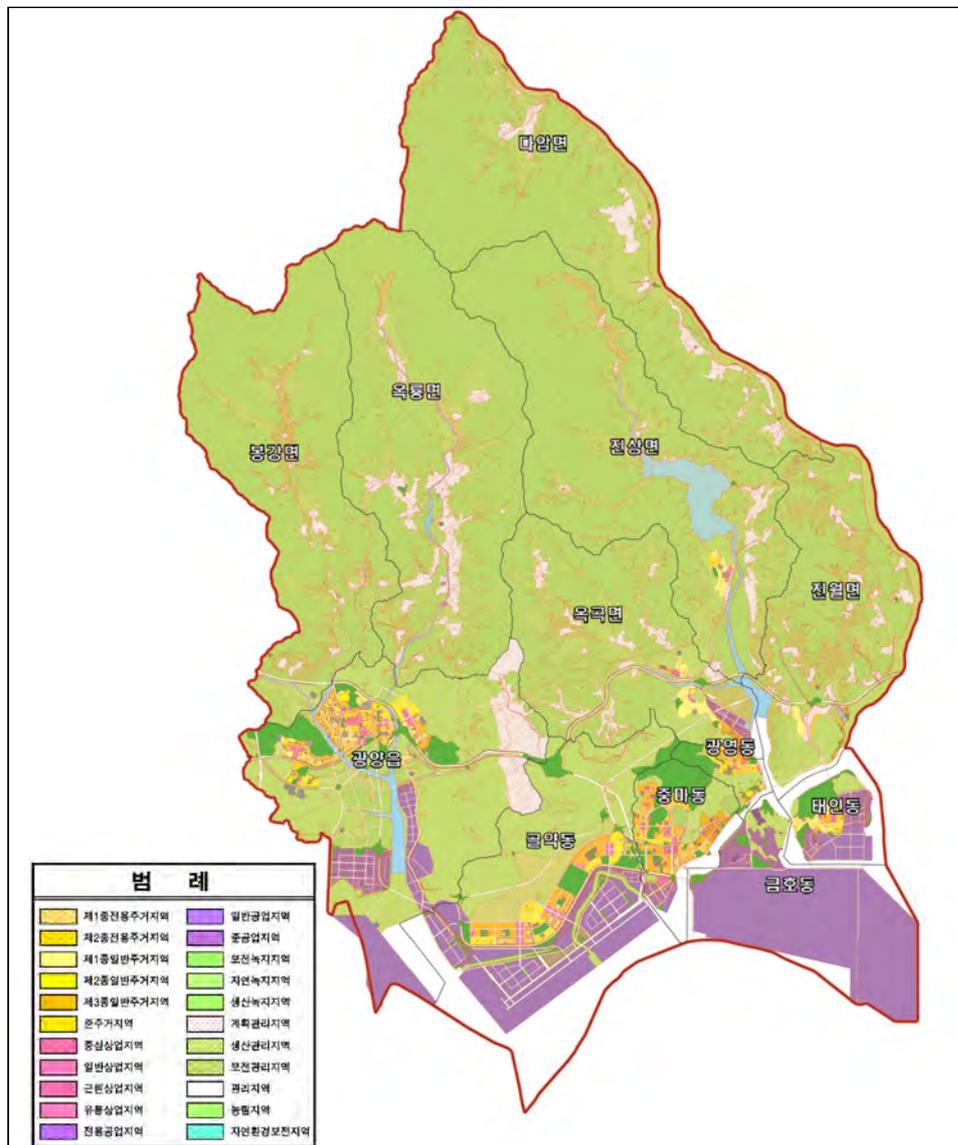
■ 용도지역 현황

- 광양시의 총면적은 497.647km²이며, 도시지역이 176.885km²로 35.5%를 차지함
- 도시지역은 녹지(47.5%), 공업(27.3%), 미지정(14.1%), 주거(9.8%), 상업(1.3%) 순으로 나타남

< 표 I - 12 > 광양시 용도지역 현황

구분	총합	도시지역						비도시 지역
		소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면적(km ²)	497.647	176.885	17.339	2.292	48.242	84.036	24.976	320.762
비율(%)	100.0	35.5 (100.0)	3.5 (9.8)	0.4 (1.3)	9.7 (27.3)	16.9 (47.5)	5.0 (14.1)	64.5

자료 : 광양시 도시과 내부자료(2013)



(그림 I - 9) 용도지역 현황도

다. 교통

■ 도로 현황

- 광양시 도로 현황은 2013년 현재 1,575.1km로 고속도로가 25.9km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는 65.0km로 4.1%, 지방도는 117.3km로 7.3%, 시·군도는 1,392.8km인 87.0%로 광양시의 주요도로시설을 담당
- 또한 광양시 도로 포장율은 총 71.0%로 고속도로 및 국도는 100%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도는 78.0%, 시·군도는 68.5%의 도로 포장율을 보임

< 표 1 - 13 > 광양시 도로현황

구분	합계(m)	고속국도(m)	일반국도(m)	지방도(m)	시·군도(m)
합계	1,575,074	25,901	65,048	117,261	1,392,767
포장	883,774	25,901	65,048	85,661	733,067
포장율(%)	71.0	100.0	100.0	78.0	68.5
미포장	360,647	-	-	24,201	336,447
미개통	330,653	-	-	7,400	323,253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년)

■ 도로시설물 현황

- 광양시 주요 도로시설물은 2013년 현재 보도육교 18개소, 터널 4개소, 가로등 6,960개소가 설치 되어 있으며, 고가도로 및 지하보도 등의 시설물은 미설치된 것으로 조사됨

< 표 1 - 14 > 광양시 주요 도로시설물 현황

구분	보도육교	터널	가로등
개소	18	4	6,960
연장(m)	539.6	1,311	-
면적(m ²)	1,705.4	23,662.2	-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년)

■ 철도 현황

- 동서철도 교통축으로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광주광역시 송정을 연결하는 경전선 철도가 여객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광양역이 운영 중임
- 또한, 광양역에서 분기하여 광양제철소를 연결하는 경전선의 지선인 광양제철선이 광양제철소와 배후도시간을 연결하여 철재류와 무연탄등의 수송을 분담하고 있으며, 역사는 초남역, 황길역, 태금역 등이 운영 중에 있음
-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하여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광양시 통과구간은 완공되었으며, 광양역 신역사가 운영 중에 있음

< 표 I - 15 > 광양시 철도 현황

노선	관내 역사	구간		연장(km)	노선형태
		기 점	종 점		
경전선	광양역, 진상역	삼랑진	송정리	300.6	복선
광양제철선	초남역, 황길역, 태금역	광양	태금	19.0	단선

■ 자전거도로 현황

- 광양시 자전거도로 현황은 금호동 외곽순환도로 4.26km, 중로1-56호선(산업로) 1.7km, 광로2-8호선(항만대로) 1.76km, 광양항배후단지진입로 2.7km, 대로1-8호선(서천변로) 2.71km등 총 43개노선 79.92km가 설치되어 있음
- 또한 자전거도로 설치유형은 대부분 자전거·보도 겸용도로이며, 자전거도로 폭은 1.2m~4.5m로 설치되어 있음



(그림 I - 10) 광양시 자전거도로 사례

■ 주차장 설치 현황

- 광양시 노상·노외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013년 현재 총 3,140개소에 68,93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건축물 주차면수가 57,467면으로 전체 주차면수의 8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도시화지역의 주차면수는 64,929면, 비도시화지역 주차면수 4,002면으로 도시화지역이 94.1%를 차지하고 있음

라. 주택

- 2013년도의 주택보급률은 110.0%로 전남평균 주택보급율 99.5%보다 높은 수준임
- 최근 10년간 유형별 주택수 변화를 보면 아파트의 비율이 5.4% 증가하였으며, 단독주택(2.7% 감소), 연립주택(1.8% 감소) 등에서 감소폭이 큼

< 표 I - 16 > 광양시 주택 현황

구분	일반 가구수	주택수							주택 보급률 (%)
		소계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건물내주택	
2003년	44,373	47,086 (100.0)	16,554 (35.2)	461 (1.0)	24,865 (52.8)	3,548 (7.5)	-	1,658 (3.5)	106.1
2013년	57,707	63,462 (100.0)	20,654 (32.5)	1,291 (2.0)	36,960 (58.2)	3,619 (5.7)	611 (1.0)	1,618 (2.5)	110.0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마. 상하수도

■ 상수도

- 주민등록 인구기준시 상수도 급수율은 94.3%로써 전남의 82.9%를 상회
- 광양읍 지역은 주암댐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중마동 지역은 수어댐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함

< 표 I - 17 > 광양시 상수도 현황

구분	총인구(인)	급수인구(인)	급수율(%)	1인1일 급수량
2013년	152,995	144,255	94.3	370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주 : 총인구는 외국인 인구 포함

■ 하수도

- 광양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2013년 현재 90%로써 전남 평균 72.9%보다는 높은 편임

< 표 I - 18 > 광양시 하수도 현황

구분	총인구(인)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도보급률 (%)
		하수종말처리 인구	폐수종말처리 인구		
2013년	152,995	138,349	2,500	12,147	90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주 : 총인구는 외국인 인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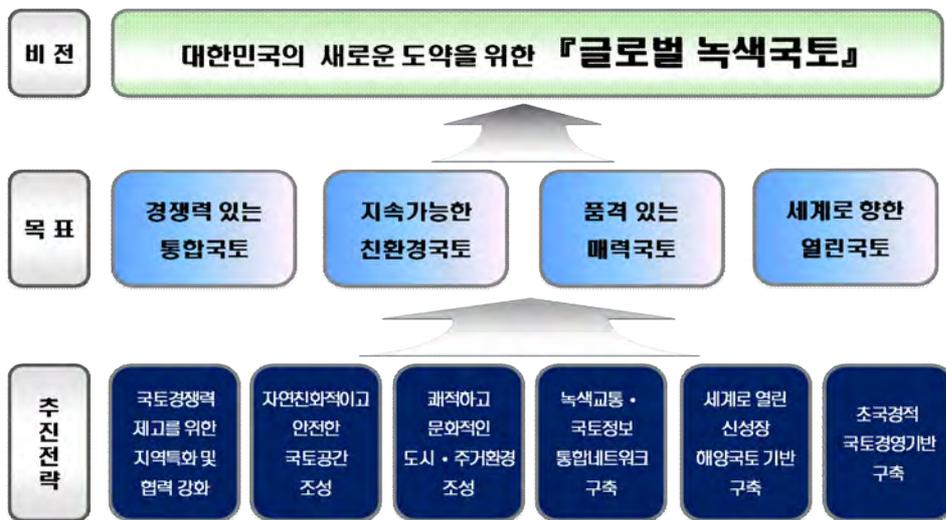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2.1 상위계획

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가. 계획의 개요

- 기 간 : 2011 - 2020년
- 기 조 :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의 실현
- 4대목표 : 경쟁력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 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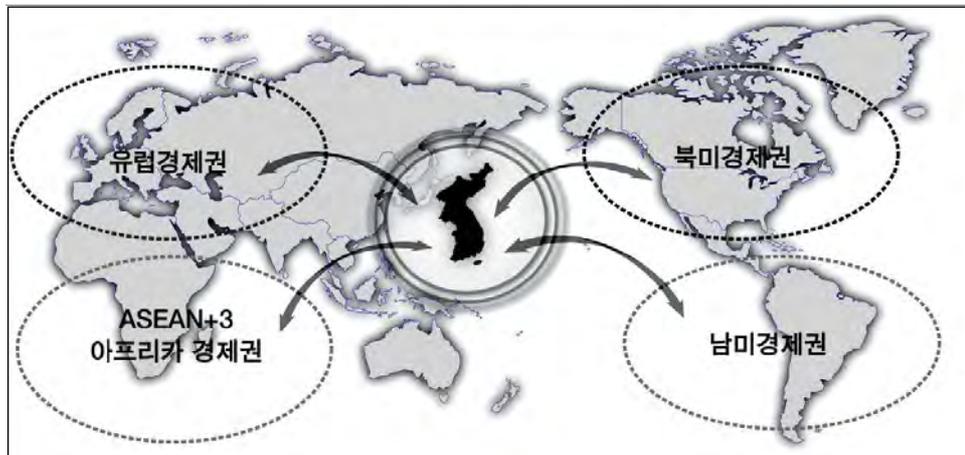
(그림 1-11) 수정계획의 기본 틀

나. 국토공간 형성방향

- 대외적으로는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협력기반 강화
- 대내적으로는 7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 육성,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

■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축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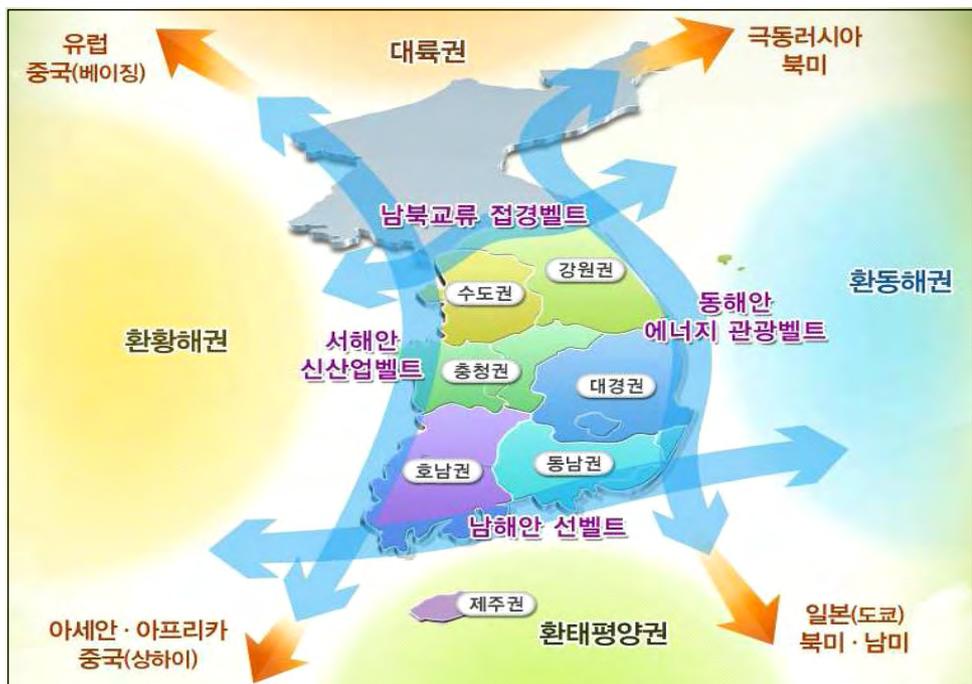
- 유라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문국가 역할과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권(환황해권, 환동해권, 환태평양권, 유라시아 대륙권)의 중추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립
-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위상 강화와 광역경제권간의 연계를 위한 대외개방적 국토발전축 형성



(그림 1 - 12) 유라시아-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

■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형성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거점역할을 하는 광역연계형 국토구조로 개편
- 행정구역을 탈피하여 광역경제권 단위의 자체역량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하고 각 권역의 중심도시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생산적·포괄적·지속적 성장을 추구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한 강 중심의 지역발전 및 하천생태 복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형 녹색국토 공간구조를 구축
- 광역경제권간 교류·연계 강화 및 녹색 국토공간 형성을 토대로 유라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개방형 녹색국토」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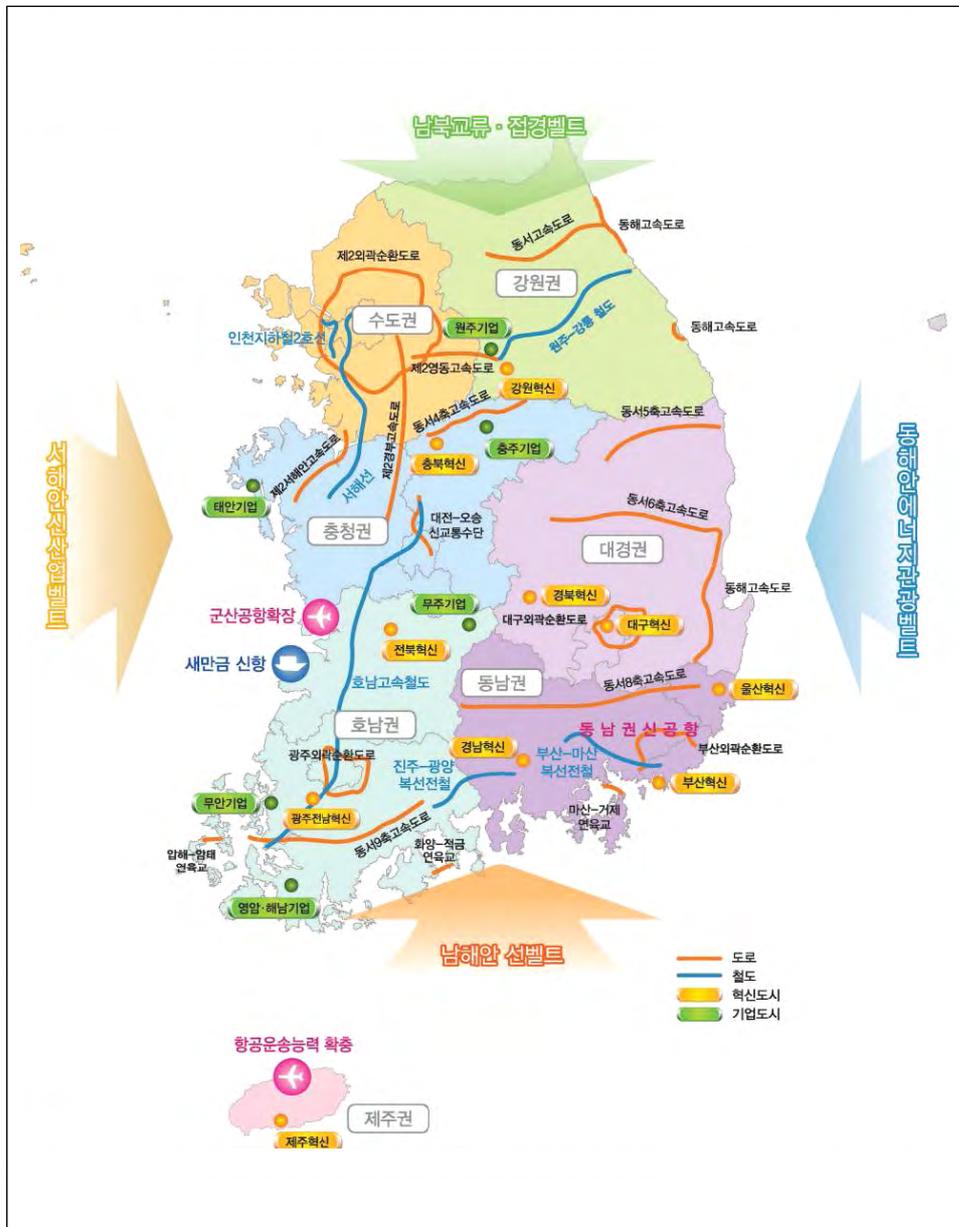
(그림 1 - 13)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다. 추진전략 및 과제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 및 협력 강화

○ 3차원 지역발전전략의 발전적 수용을 통한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 광역경제권 전략 : 특성화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 * 5+2 : 수도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강원권·제주권
-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 * 신성장거점을 육성하고 권역내 및 권역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
 -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용지 확대 및 규제 합리화 추진



(그림 1 - 14)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 초광역개발권 전략 : 개방과 협력의 촉진

< 표 I - 19 > 초광역개발권의 개발방향

구 분	개 발 방 향	
대외 개방축	동해안 광역개발권 (블루벨트)	·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및 기간산업의 녹색화 · 해양자원 및 해양 BIO산업 클러스터 육성 · 환동해권 관광·레저 거점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
	서해안 초광역개발권 (골드벨트)	·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및 물류거점 구축 · 환황해 첨단산업 및 부가가치 물류도시 육성 · 해양생태 체험형 복합레저 관광거점 구축
	남해안 초광역개발권 (선벨트)	· 항만·물류산업과 국제무역·금융거점 구축 · 남서권 글로벌 관광레저 도시 조성 · 물류·산업·휴양 복합거점 개발 · 남해안크루즈 등 선벨트 통합관광권 개발
	남북교류·접경벨트 (평화에코벨트)	· 남북한 교류협력단지 조성 · 비무장지대 생태자원 보전 및 녹색관광 육성 ·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륙 연계축	내륙초광역개발권 (내륙특화벨트)	· 해안권 및 접경벨트와 연계하여 내륙권의 산업·특화 · 자원 등의 초광역적 개발 촉진



(그림 I - 15) 개방형 초광역개발축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할 도시권 육성 및 수도권 경쟁력 강화
 - 거점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하는 도시권 육성
 - 수도권 경쟁력 제고
- 농·산·어촌을 녹색성장 기반의 새로운 발전지역으로 전환
-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전략적 성장거점 육성
-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와 문화·관광산업 기반 육성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江·山·海 통합형 국토환경 조성
- 인간과 강이 함께하는 친수 국토공간 조성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공간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인구감소에 대비한 도시경쟁력 제고 (재생사업 활성화)
- 한국형 녹색 문화도시 창조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지속가능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교통체계 구축
- 국민생활편의 증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축
- 선진 국토정보인프라 구축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해양영토 확장
-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생태계 기반 통합적 해양자원·공간관리
- 다차원 해양거버넌스 구축

■ 초국경적 국토경영기반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
- 유라시아-태평양 협력기반 강화

라. 호남권 관련계획

■ 권역의 비전 및 기본목표

비전 : 동북아의 신산업, 문화, 관광, 물류 거점

기본목표

- 녹색기술과 융합된 미래 성장산업과 전통산업 육성
- 동북아 문화·관광 거점육성
- 선진형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 인재육성 및 지식창출 기반강화
-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와 매력있는 정주환경 조성

■ 권역의 발전방향

-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성장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
 - 6대성장거점 육성 : 광주대도시권, 전주광역도시권, 새만금권, 목포권, 광양만권, 덕유산·지리산권
 - * 광양만권 :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광양컨테이너항, 광양·여천 산업단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산업 및 물류·교역 중심지역으로 육성
 - 4대벨트 특성화 : 서해안벨트, 남해안벨트, 내륙청정휴양레저벨트, 수변생태관광벨트
 - * 남해안벨트 : 목포-광양을 전통문화 중심의 해양관광·녹색벨트로 육성
 - 4대축 형성 : 광주~전주축(지식·첨단산업축), 광주~목포축(녹색 에너지산업축), 광주~광양축(전통·기간산업축), 전주~익산~군산~새만금(녹색산업축)
 - * 광주~광양만 축 : 기초·신소재산업과 부품산업 및 물류산업을 포함한 전통·기간산업축으로 육성
 - 농·산·어촌의 특화개발 :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특화산업으로 육성 및 특화산업의 국제적 브랜드산업으로 육성, 정주여건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미래 녹색성장 산업, 전통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 녹색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및 융복합산업 육성
 - 친환경생명복합 및 헬스케어산업 육성
 -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첨단산업거점 육성
 - 농·산·어촌 지역의 향토산업 육성과 산업발전 기반 구축
 - 동북아 문화해양관광 허브 및 산악휴양 복합리조트단지 육성
 - 호남광역권의 녹색산업과 문화관광 중심의 특성화 및 연계 개발
 -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선진형 교통, 정보, 물류망 확충
 - 국내외 네트워크 중심지로의 인프라 구축
 - 세계와 지역을 통합·연계하는 물류·교통망 확충
 - 접근성 증대를 위한 첨단정보인프라 구축
-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육성 및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거점 육성
 - 광주, 전주~익산~군산, 목포, 순천~여수~광양을 정주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변 중소도시와 연계한 광역도시권 형성
 - 서남권(목포, 무안, 신안) 육성과 함께 내륙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등으로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마련
 - 거점도시의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 중추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기능 및 매력도를 향상하고, 중소도시는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건설과 정주환경 조성을 추진
 - 잠재력에 기반한 도·농 연계형 녹색공동체 형성과 청정자연환경 보전·관리
 - 기초생활권으로서 농·산·어촌 개발
- 광역적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 광역적 연계와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광역권내 지자체간 협력사업 추진

②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가.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비전

- 동북아의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

■ 기본목표

- 동북아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전통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환경산업 및 친환경생명복합농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 신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 매력 있는 정주환경 및 선진 복지·교육 여건 구축

나. 공간구조 및 지역생활권 설정

■ 4권역 공간구조

- 전남 22개 시·군을 경제권, 생활권과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지역발전 공간구조



(그림 1 - 16) 전남 권역별 비전 및 특화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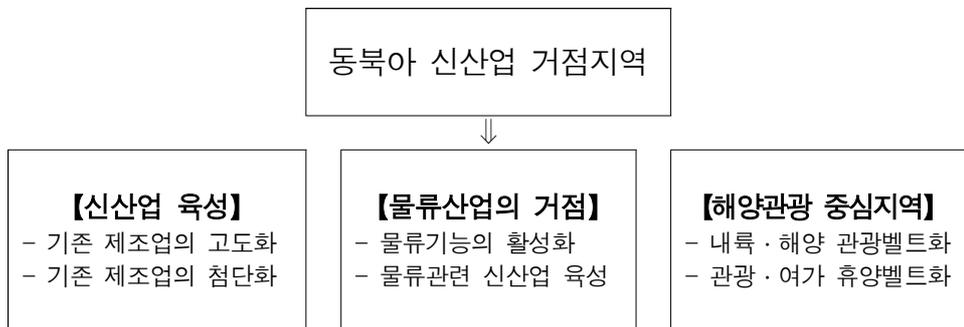
다.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발전방향

■ 비전 및 발전목표

< 표 1 - 20 > 동부권 비전

환태평양권 물류·생태관광·미래산업 개방 거점	
동북아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경제권의 생산공간 ·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역
국가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남권 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 ·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주도하는 신산업지역 · 내륙과 해양관광이 조화된 종합휴양권
지역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전략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지역 · 삶의 질이 향상된 광양만대도시권

< 표 1 - 21 > 동부권 발전목표



■ 세부 추진전략

6대 기본방향	주요 추진전략
동북아 물류거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통합하는 광역교통 및 물류시설 확충 · 권역내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 광양항 교통망 및 배후단지의 지속적인 개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활동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관산업단지 확충 · 고흥우주항공중심도시 및 사이언스파크 건설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반 조성
관광인프라를 포함한 종합휴양권 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 · 여수 화양지구 중심의 관광거점 육성 ·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특구 지정 및 활성화 · 기타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사업
농업생산의 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기반 확충 ·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산업 육성 · 농어촌 생태·체험관광마을 조성 및 정보화
쾌적하고 삶의 질이 충족된 정주공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 · 친환경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 장수벨트 구축을 통한 웰빙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혁신체계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도문화 허브도시화 전략 시행 · 광양만권 환경관리권 구축 및 관련시설 확충 · 지역해양산업 및 관련산업의 혁신체계 구축

라. 광양시 발전방향

■ 비전

- 동북아 항만물류·산업 거점도시

■ 기본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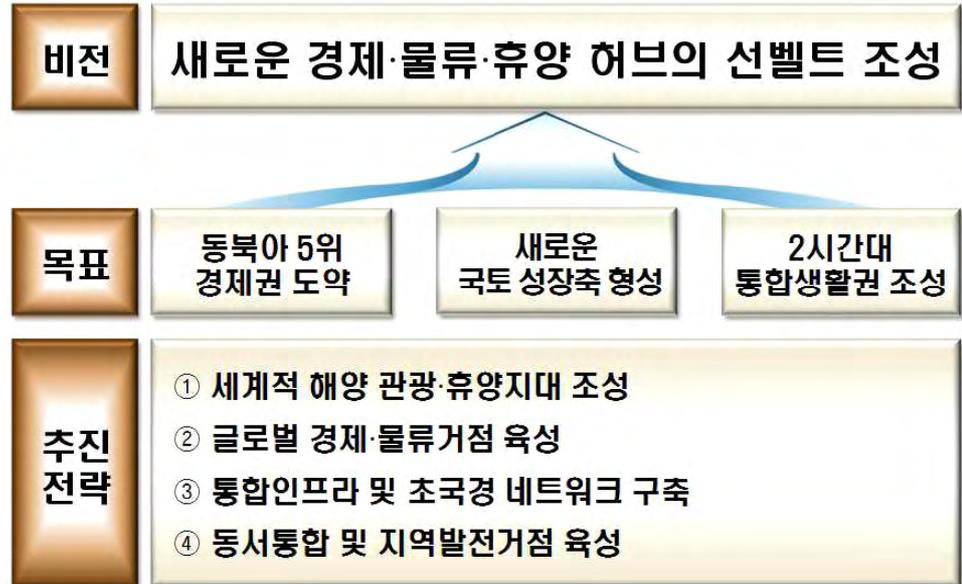
- 지역자원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
- 지역산업 특화와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 생활여건 개선과 정주환경 구축으로 삶의 질 제고

■ 발전방향

- 문화·관광·체육 활성화로 품격있는 도시기반 조성
- 세계와 경쟁하는 맞춤형 시장농업 육성
- 철강·항만기업도시 건설로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생산적 복지도시 지향
- 꽃과 숲이 어우러진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조성
- 물류수송망 구축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 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정주환경 구축

③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0)

■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전략1 :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



- 섬·연안·바다 등 남해안의 독특하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체류, 휴양, 활동성 레저가 복합된 선진국형 해양 관광 육성
- 남해안만의 고유한 특성 및 개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여타 초광역개발권과의 협력·연계도 추진
- 지역주민의 '삶'과 '삶의 공간'을 관광자원화하고 일상적 생활공간의 개선을 통해 관광객이 찾아오는 생활형 문화체험 관광 활성화
- 남해안에 산재한 지역자원을 테마로 연계하고 다른 산업과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테마관광의 시너지 효과 창출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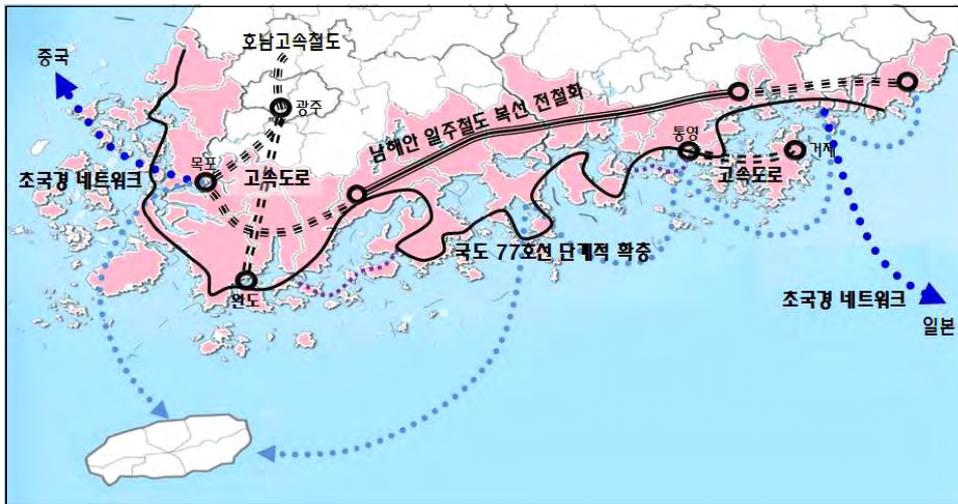
제3편 부문별 계획

■ 전략2 : 글로벌 경제 · 물류 거점 육성



-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남해안의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기존 제조업의 녹색화·첨단화를 통해 항공우주, 신소재, 로봇, 핵과학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기간산업간 융·복합화 추진
- 부산항·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사람·자본·물류를 흡입하는 포트 비즈니스 벨리를 조성하여 남해안을 동북아 국제경제거점으로 육성
- 남해안의 노후항만을 재정비하고 해양레저 및 복합도시 기능을 도입하여 남해안의 대표적 관광미항으로 조성
- 농수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농수산식품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농수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지역특화의 토대를 마련

■ 전략3 :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 남해안권을 2시간대 통합생활권으로 정착하고 동해안권·서해안권 및 내륙거점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결교통망 확충

- 해양·대륙으로 동시 진출하는 장점을 활용하여 국제교류 및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해운, 항공, 크루즈 등 국제교통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
- 동북아 주요 경제권과의 초국경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한 경제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광역경제권간의 협력도 강화

■ 전략4 :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 남해안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중권(南中圈)을 동서통합 및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동·서 통합지대를 조성
- 2012 세계여수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남해안의 해안자원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해양 휴양·관광의 명소화 추진
- 기 추진중인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신발전지역 활성화 등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4]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2006)

가. 광양만권 미래상

- 국제교류·물류·관광·산업기능이 완비된 국제적 수준의 경제자유도시 건설

나. 기본목표

- 계획권역 전체의 정체성 확립
 - 계획권역 전체의 인지도와 이미지 부각
- 개별 도시의 기능적 특성화와 연계
 - 지역간 산업기능의 적정배분을 통한 균형적 발전
 - 개별 도시의 기능적 연계, 생활권 등을 고려한 공간구조의 개편
- 통합적인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정비
 - 광역계획권과 그 주변지역간의 기반시설의 연계
 - 경제자유구역과 비경제자유구역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형성

다. 인구지표설정

< 표 1 - 22 > 광양시 인구배분 및 단계별 유입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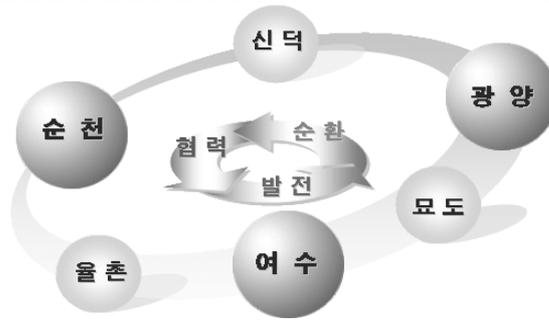
단위 : 천인

구분	생잔법 (A)	경제자유 구역 유입인구 (B)	3개시 사업 유입인구 (C)	택지개발 사업유입 인구 (D)	추정인구 (A+B+ C+D)	단계별 유입인구				
						현재 인구 (2003)	2010	2015	2020	2025
광양	137	96	73	14	320	137	210	270	310	320

라. 공간구조 구상

■ 공간구조 구상의 기본개념

- “순환”적 공간구조 구축
- 미래 “협력”의 장 육성
- 선도적 국제교류 “발전” 지역으로 육성



(그림 1 - 17) 광양만권 공간구조 구상의 기본개념

■ 공간구조 구상의 기본방향

- 광양만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공간배치
- 광양만권내 도시간 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배치
- 광양만권내 도시간 기능을 상호 연계·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배치
- 토지, 수자원, 에너지 등 자원절약적인 공간배치
- 3개시의 투자수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간배치
- 교통수요의 감축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교통체계
- 주민의 주거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배치
- 녹지와 환경, 지역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공간배치

■ 공간구조 구상

- 여수, 순천, 광양 3개시를 중심핵으로 하는 순환형 발전축에 광양읍, 신덕, 울촌, 소라, 묘도 등을 부핵 및 지역·지구중심지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하여 도시발전축을 형성
- 광양(중심핵) : 광양항 배후로서 국제교역 및 물류서비스, 배후주거기능
 - 국제물류 중심도시 : 세풍 복합물류단지 확충
 - 국제물류정보 중심지 조성 : 하포 국제물류업무중심기능 확충
 - 백운산 섬진강 생태, 문화관광, 스포츠 거점지 조성
- 옥곡, 진월(지역중심지) : 전원형 주거기능 및 문화체험 등의 기능 부여
- 옥룡, 다압(지구중심지) : 일부 주거 기능 및 관광지원 기능 부여
- 하포(지구중심지) : 국제물류업무기능 강화

5] 광양만 · 진주권 광역개발계획 변경(2008)

가. 광양만·진주권 기능 및 역할 정립

- 국제적 물류 · 교역 거점기능
-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산업기지 기능
- 남해안 관광거점 기능
- 지방거점도시권 형성으로 지역발전의 선도 역할

나. 인구지표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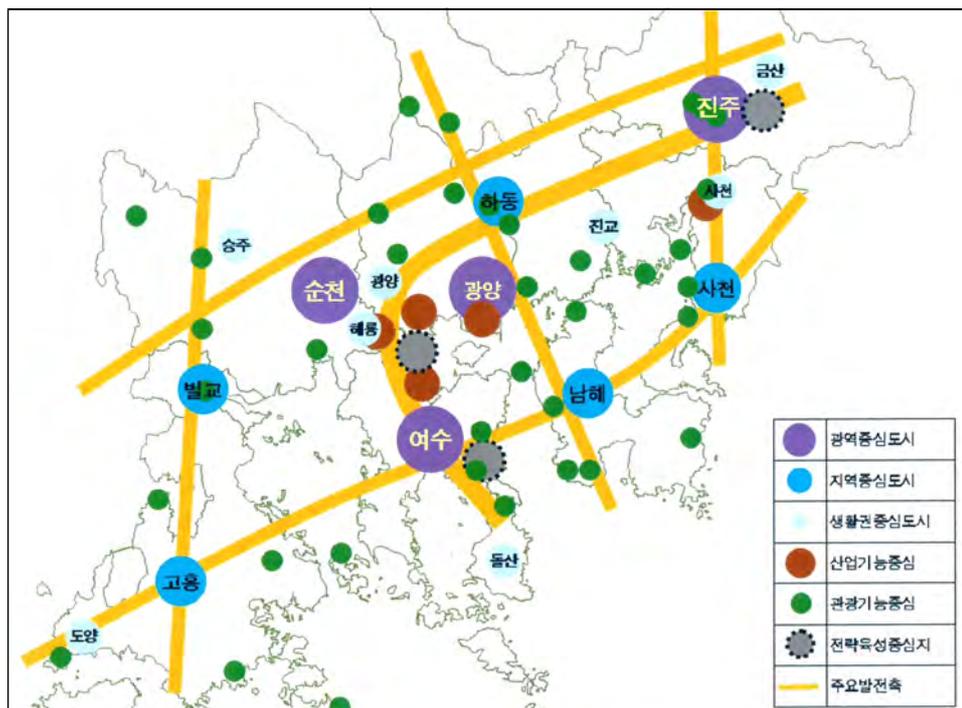
< 표 1 - 23 > 광양시 인구배분 및 단계별 유입인구

단위 : 천인, %

구분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증가율 (2005~2020)
광역권 총인구	1,291	1,532	1,568	1,609	1.48
광양	136	151	153	156	0.92

다. 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 및 구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입인구 증대를 위한 지역의 중심성 강화를 목표로 설정
- 광양시, 진주시, 순천시, 여수시를 광역권의 중심도시로 설정



(그림 1 - 18) 광역권의 공간구조구상 개념도

■ **목표1 : 광역권의 중심성 강화**

- 핵심중심지 및 핵심중심권역 설정
 - 경제자유구역 전략육성중심지와 광양시를 연계하여 국제물류·산업 핵심중심지로 육성
 - 3대 핵심중심지의 연계성 강화로 핵심중심권역 형성
- 관광중심축 및 연계축 설정
 - 내륙지역의 관광자원 연계로 관광코스화하는 방안 모색하고 내륙관광중심축 설정
 - 해양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관광코스화하여 해양관광중심축 설정
 - 섬진강 유역을 관광지로 육성하고 지리산국립공원 및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잇는 관광코스로 조성하도록 내륙-해양관광중심축 설정
- 동서교류권역 설정
 - 섬진강 유역의 내륙-해양관광중심축과 연계하여 동서교류권역을 설정함으로써 광역권의 관광명소로 육성함과 동시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교류를 촉진·확대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육성

■ **목표2 : 광역권의 균형발전 도모**

- 핵심중심권역의 중심기능 제고와 연계성 강화
- 국제물류·산업, 행정·업무·산업, 국제교류·관광 핵심중심지와 배후지역간 연계성 강화 및 고유기능 육성
- 내륙관광중심축과 해양관광중심축의 연계성 강화

■ **목표3 :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정주공간 창출**

- 역세권 및 기성시가지의 정비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신규 개발지와 기성시가지의 연계성 확보
- 자연과 문화를 갖춘 환경친화적 미래형 정주환경 조성
- 주거, 관광, 산업·업무, 교육 기능이 조화되는 복합 정주공간 조성

라. 광양시 개발전략 및 추진계획

■ **산업·문화·주거의 자족 복합도시로 육성·정비**

- 광양시는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중심지로서 향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를 조기 조성함
- 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기성시가지 기능 강화로 핵심중심지의 신산업지대와 연계한 배후주거 기능을 수행
- 광양시 경제의 견인차인 제철 연관산업, 항만물류산업 등 산업기능과 유망작목 및 친환경 근교농업 등 농업기능을 관광자원화하여 백운산권 및 지리산권 등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

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2014)

가.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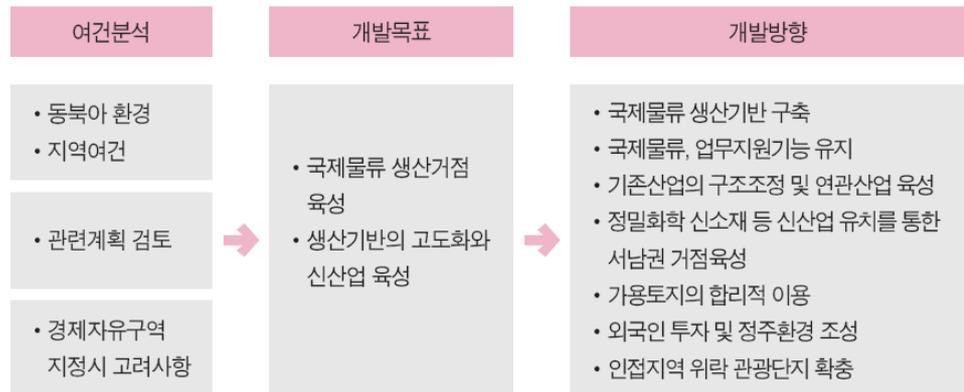
- 명칭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
- 면적 : 5개지구, 21개단지(총 77.71km²)



(그림 1 - 1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위치도

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 개발목표 : 동북아 물류 허브로의 성장
- 하위목표 : 국제물류 및 생산거점 육성과 생산기반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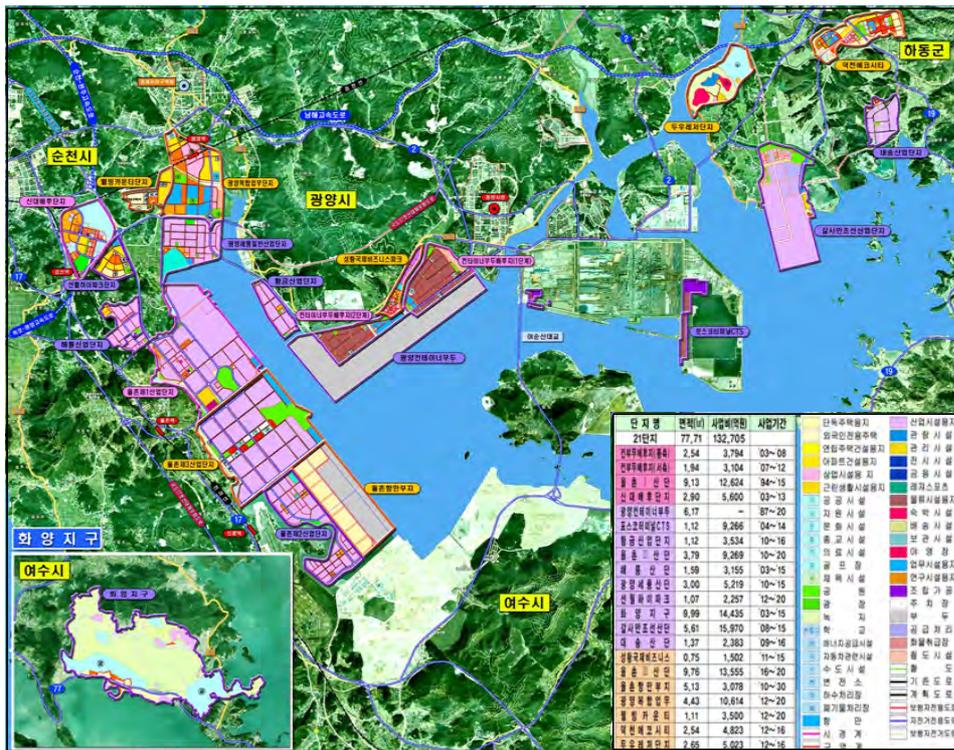
(그림 1 - 2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다. 지구별 개발방향 및 단지현황

< 표 I - 24 > 지구별 개발방향 및 단지현황

구분	광양지구	울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
개발 규모	13.64km ²	27.81km ²	14.10km ²	9.99km ²	12.17km ²
개발 개념	물류기능	생산기능	지원기능	관광·휴양기능	생산·지원기능
개발 방향	항만, 제철, 비철금속의 물류기능 유치	유화, 철강 관련산업 유치	주거, 교육, 레저기능 공급	관광·휴양·스포츠 등 기능유치	생산·주거·업무 등 복합 기능 유치
주요 시설	- 광양항 개발 - 항만배후부지 - CTS 등 개발	- 산업단지개발 - 컨테이너부두 개발	- 교육시설, 주거단지개발 - 골프장 등 레저시설개발	- 골프, 해양스포츠 - 콘도미니엄, 호텔 등	- 산업단지개발 - 주거·업무, 레저시설개발
단지	- 컨테이너부두(광양) - 컨테이너부두 배후지 - 포스코터미널 CTS - 황금산업단지 - 성황국제 비즈니스파크	- 울촌 I 산단 - 울촌 II 산단 - 울촌 III 산단 - 울촌항만부지	- 신대배후단지 - 해룡산업단지 - 세풍일반산업단지 - 웰빙카운티 - 광양복합업무단지 - 선월하이파크	- 화양단지	- 갈사만조선 산업단지 - 덕천에코시티 - 두우레저단지 - 대송산업단지

자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백서(2014.10)



(그림 I - 2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라. 단지별 개발계획(광양시 해당 지구)

■ 광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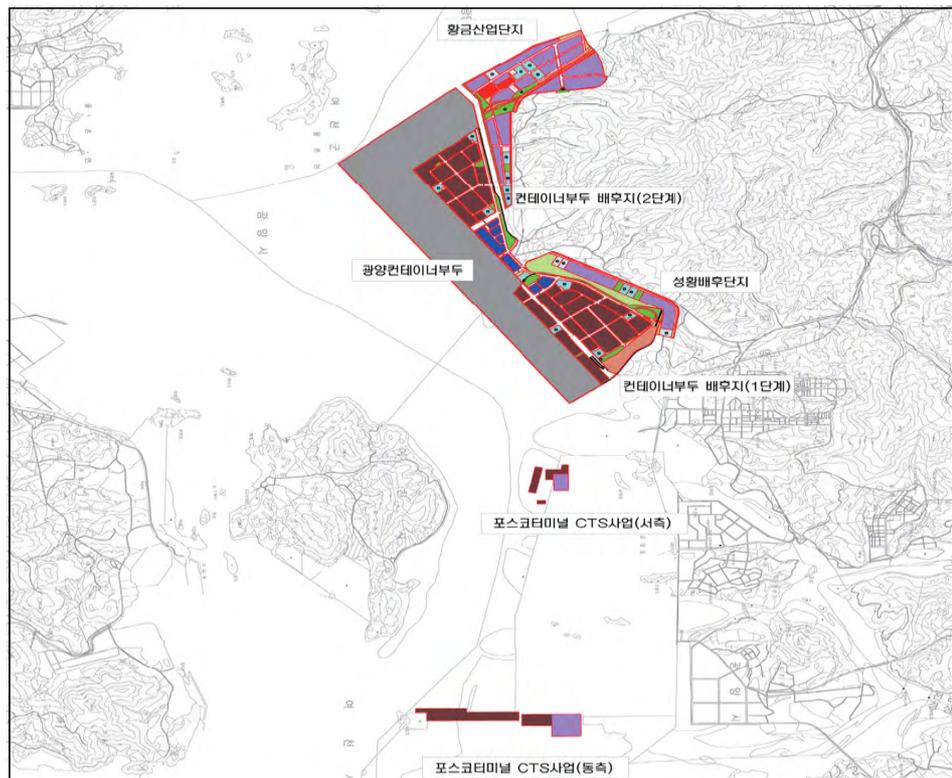
- 광양지구는 컨부두, 컨부두 배후지(1·2단계), 포스코터미널 CTS, 황금산업단지, 성황배후단지 등 6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은 광양항 개발사업의 핵심으로써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표 1 - 25 > 광양지구 단지별 개발계획

단위 : km², 억원

사업명	위치	규모	사업비	시행자	비고
계		13.64	69,177		
컨부두(광양)	광양시 황금·황길·도이동	6.17	47,977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신항만	
컨부두 배후지 (1단계)	광양시 황길동	2.54	3,794	국토부, 광양시	
컨부두 배후지 (2단계)	광양시 황금동	1.94	3,104	국토부	
포스코터미널CTS	광양시 금호동	1.12	9,266	포스코터미널(주), (주)SNNC	
황금산업단지	광양시 황금동	1.12	3,534	광양지아이(주)	
성황국제 비즈니스파크	광양시 도이동	0.75	1,502	전라남도, 광양시	

자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백서(2014.10)



(그림 1 - 22) 광양지구 개발계획도

■ 신덕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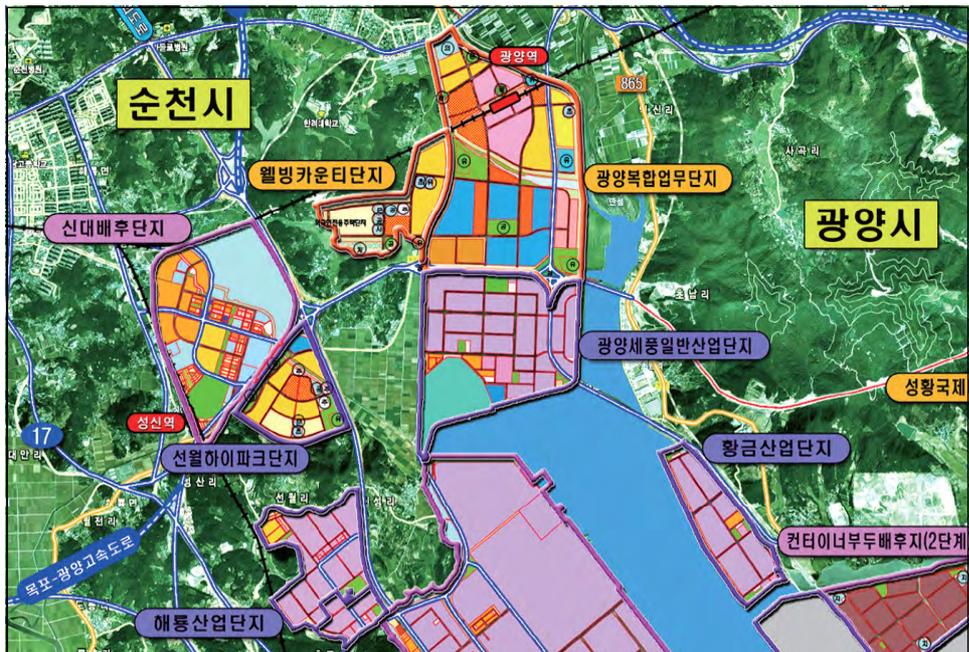
- 울촌지구의 생산기능과 광양지구의 물류기능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신덕지구는, 주거·상업·공업이 공존하는 지구로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시 광양읍 일원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14.10km²규모로 조성할 계획임

< 표 1 - 26 > 신덕지구 단지별 개발계획

단위 : km², 억원

사업명	위치	규모	사업비	시행자	비고
계		14.10	31,037		
신대배 후단지	순천 해룡	2.90	5,600	순천에코밸리	
해룡산업단지	순천 해룡	1.59	3,155	순천시, (주)대우건설	
광양세풍 일반산업단지	광양읍 세풍	3.00	5,219	세풍산단개발(주)	
광양복합업무단지	광양읍 덕례	4.43	10,614	전라남도, 광양시, 민자, 외투	
웰빙카운티단지	광양읍 덕례	1.11	3,500	전라남도, 광양시, 민자, 외투	
선월하이파크단지	순천 해룡	1.07	2,949	중흥건설(주)	

자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백서(201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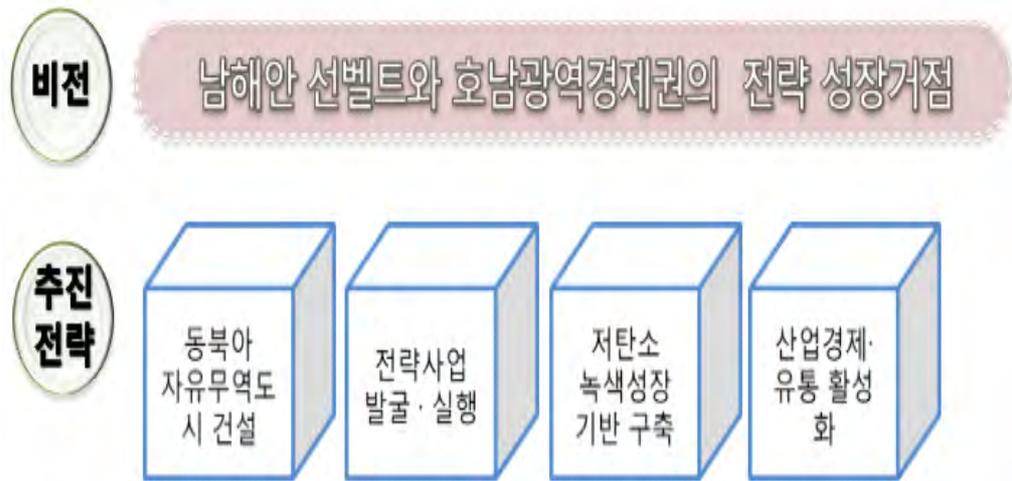
(그림 1 - 23) 신덕지구 개발계획도

7 남해안선벨트 광양지역 발전계획(2009)

가.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9년~2020년
- 공간적 범위 : 광양만권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고 남중권에 속한 순천시·여수시·하동군·남해군 등 인근 지자체 고려

나. 광양시 발전 기본구상



■ 남해안 선벨트와 호남광역경제권에서 핵심적 역할

- 광양시는 남해안 선벨트 구상에서 남해안 시대를 리드할 남중권의 핵심 거점도시이며, 또한 5+2광역경제권 중 호남광역경제권에서 전북의 새만금지역, 전남 서부권역과 함께 삼각 트라이앵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철·항만·물류를 선도하는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

- 광양시는 국제적인 물류·항만·비즈니스 관련 기능의 특화 개발을 통해 광양만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해 나아가야 함
- 광양은 광양만권의 중추도시로서, 광양컨테이너 부두 및 배후단지, 그리고 세계 일류 기업인 POSCO 광양제철소를 기반으로 하여 글로벌 자유무역 및 신산업의 생산거점으로 발전하고, 동북아의 중계무역 및 물류 비즈니스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해외로 개방된 국제 자유무역도시로 발돋움해야 함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다. 광양시 발전 추진전략

■ 중요롭고 활기찬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

- 광양시를 산업, 경제, 무역, 관광,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람과 자본, 상품, 기술 정보, 서비스 등에 부과되어 있는 각종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고, 기본적으로는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하고 자본을 투자하며 상품과 서비스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개방된 도시로 건설함

■ 연담 시·군과 연계한 전략사업 발굴·실행

- 신정부는 인근 시·군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협력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광양만권의 순천·여수·하동·남해 등 지자체와 연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함으로써 광양시뿐만 아니라 남중권의 공동번영을 구가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 광양만권의 중심도시인 광양시는 남중권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 광양제철소 및 여수국가산단의 영향으로 대기 및 수질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구조는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친환경 생태 산업도시의 조성을 비전으로 탄소 저감형·자연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 기후 친화적 녹색 산업을 도시의 신성장 동력으로의 전략적 육성, 녹색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그린시티 창조,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 거버넌스 구축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사업을 수행해야 함

■ 산업과 정주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경제·유통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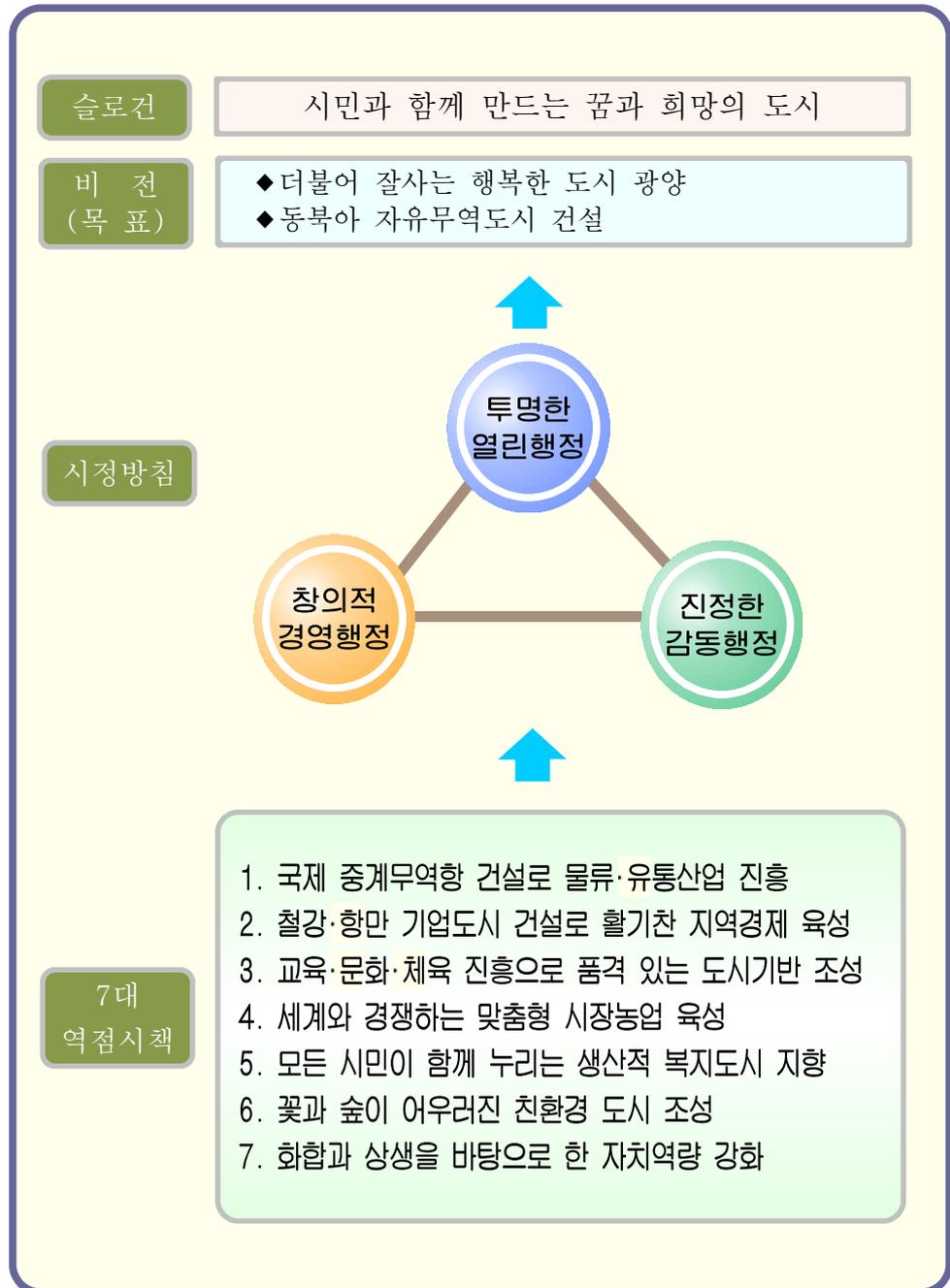
- 광양시뿐만 아니라 인근 순천시와의 관련성 및 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재래시장과 신유통업태의 경쟁관계와 적응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래시장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또한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의 필요성 검토와 함께 광양읍 중심의 구시가지와 중마동 일대의 신시가지로 이분되어 있는 도시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8 광양발전 2025 계획(2007)

가.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7년~2025년
- 공간적 범위 : 광양시 행정구역 전역(주요 개발전략은 광양만 · 진주권을 대상으로 인접 시 · 군 포함)

나. 광양시 비전체계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다. 부문별 발전 계획

■ 2012여수세계박람회 대비 관광 명소화

- 지원시설구역 지정
- 이순신대교 주변 도심관광 지구
 - 이순신대교 주변 홍보관 건립, 구봉화산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철 조각공원 및 박물관 건립, 광양항 워터 프런트 조성
- 클린(Clean)섬진강 관광지구
 - 망덕지구 관광명소화사업,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 수어댐 주변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사업
- 그린(Green)백운산 관광지구
 - 옥룡사지 정비·주변테마마을 조성, 백운저수지 일원 유원지 조성사업,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 광양 동·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국제 중계무역항 건설로 물류·유통산업 진흥

-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 배후단지 추가 지정(동·서측 배후단지, 황금·성황 배후단지)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광양항 경쟁력 강화
 - 컨부두 개발,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 광양항 개발효과 지역적 수용, 광양항 마케팅 강화, 배후 수송망 확충, 연구·교육기관 유치, 주거·물류 복합단지 조성, 첨단 정보시스템 구축(U-city, 디지털 등)

■ 철강·항만 기업도시 건설로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 기업투자유치, 지역민의 고용증대, 지역상권 강화
- 중소기업 육성지원
 -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 국제물류 및 해외시장 개척
- 지속가능한 도시균형 발전
 - 도시공간구조 및 기능 설정, 토지의 생산성 제고
- 광역 및 지역교통체계 구축
 - 기간도로망 확충, 대량운송체계 구축, 간선도로 연결 정비, 교통혼잡구간 해소, 가로망 정비 및 개선, 인간중심도로 개선, 녹색교통 구축
-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단지 지원, 건축재해 예방

○ 주거환경 개선

- 친환경 테마형 공동주택 건립, 전원주택단지 지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교육·문화·체육진흥으로 품격있는 도시기반 조성**

○ 미래가 있는 교육도시 육성

- 21세기 평생학습·명문교육도시육성, 다양한 학교시설 및 부지확충, 백운장학회 운영 활성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

○ 품격있는 문화예술 전략화

- 전통 문화예술 계승 발전, 전통문화예술진흥활성화 및 공연시설 확충, 박물관, 기념관, 공연장 건립

○ 문화예술 기반 구축

- 문화학습환경 조성, 문예기반구축 및 예술인 저변 확대, 대중음악, 오케스트라의 활동 역량 강화

○ 영상예술의 중심지

- 전용 영화관, 복합영화관 유치

○ 관광인프라 구축

- 3대거점·관광권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 체육인프라 구축

- 공공체육시설 확충, 체육 꿈나무 육성 발굴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세계 또는 전국단위 체육경기 유치

■ **세계와 경쟁하는 맞춤형 시장농업 육성**

○ 농업인력 육성 및 관광농업 활성화

○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체계 구축

- 벼 적정재배면적 유지 및 고품질쌀 생산

○ 고품질·고소득 원예작물 생산

○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확보

- 축사사육기반 확충, 고품질 축산물 생산, 악성가축전염병 근절, 친환경 축산경영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창출

○ 지역실정에 맞는 수산시책

- 지역특산 수산물의 대대적 육성 지원, 선진 양어기술을 접목한 대규모 복합 양식단지 조성, 환경과 생태를 중시하는 질서있는 수산시책 추진, 테마5관광어촌 개발

■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생산적 복지도시 지향

- 생산적 복지 실현
 -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확립,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 노후세대의 사회적 통합, 노인보호사업 확대,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여성역량 강화 및 권익신장
 -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동반자 관계 형성,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 아동복지 및 청소년 육성
 - 밝고 건전한 아동 육성, 21C를 리더할 청소년 육성,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시민건강 증진
 - 평생 건강관리체계 정립, 건강사업 인프라 구축

■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 조성

- 섬진강지킴이 및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관리
 - 섬진강환경협의회 활동 강화, 하천수질 관리 강화, 지하수 관리, 친수공간 확보
- 청정한 대기환경 보전
 - 대기관련 정책 강화, 자동차 관리 강화, 자동측정체계 구축
- 시민참여 환경보전
 - 환경교육 강화, 친환경적 도시건설, NGO등 시민참여 확대
- 상수도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 확대
 - 수도시설의 기능 향상, 원활한 수돗물 공급체계 확립, 양질의 수돗물 공급
- 쓰레기 감량화 및 폐기물처리의 현대화·종합화
 - 가로청소의 기계화, 환경친화적 소각시설 운영, 능률적 청소시스템 구축 및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을 증대 및 시민의식 고취,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자치역량 강화

- 행정혁신을 통한 시정역량 강화
 -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화, 경영행정과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시민참여의 행정협력 강화
- 건전한 자주재정 운영
 - 자주재원 지향의 세원관리(국·도비 확보 총력), 과세행정의 과학화 및 열린세정 구현,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총액인건비제 정착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
- 디지털 정보화 도시 구현
 - 행정 정보화, 산업 정보화, 생활 정보화

9] 2025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2008)

가. 도시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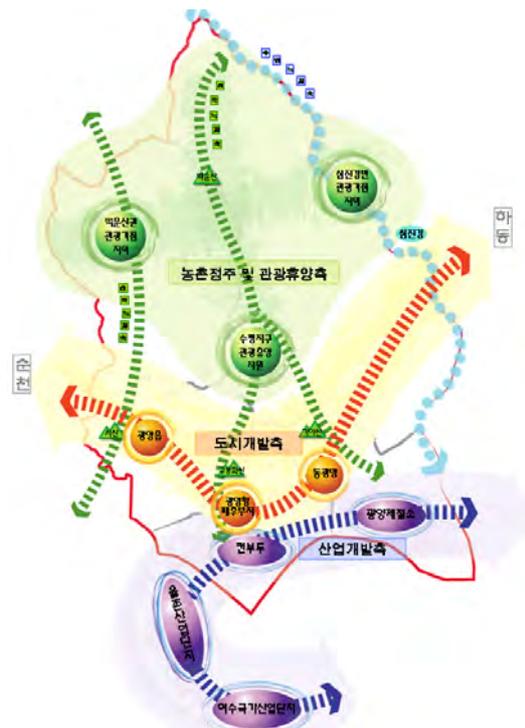


나. 계획의 목표

- 세계와 경쟁하는 동북아 국제자유무역도시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농복합도시
- 생산적 복지기반이 완비된 철강산업도시

다. 도시공간구조 설정

- 광양읍~광양항배후부지~동광양의 3심중심체계 개편
- “U”자형 도시개발축, “C”자형 산업개발축, “T”자형 농촌정주 및 관광휴양축
- 대내외적 여건변화(하포 국제 중심업무지역 확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3심 중심체계 유지, 광역적 산업개발축 형성



(그림 1 - 24) 광양시 도시공간구조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라. 인구지표설정

< 표 1 - 27 > 광양시 인구배분 및 단계별 유입인구

단위 : 인

구 분	2004	2010	2015	2020	2025
자 연 적 증 가 인구(A)	138,142	138,000	137,500	136,900	136,700
사회·경제적 증가인구 추정(B)	-	62,200	112,600	146,000	166,900
계획인구 추정	138,142	200,200	250,100	282,900	303,600
계 획 인 구 (결정)	-	200,000	250,000	280,000	300,000

마. 생활권 설정

< 표 1 - 28 > 광양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구분	중생활권	소 생활 권	행 정 구 역 명	면적(km ²)	현재인구 (2004)	계획인구 (2025)
광양 대생 활권	광양 중생활권	광양소생활권	철성리, 인서리, 읍내리, 우산리, 인동리, 구산리	5.253	20,835	36,000
		덕례소생활권	덕례리, 세풍리, 도월리	17.596	9,417	28,000
		용강소생활권	초남리, 익신리, 용강리, 죽림리, 사곡리, 목성리, 인동리, 우산리 일부	31.921	13,304	36,000
	중마 중생활권	중마소생활권	중마동	15.028	34,254	60,000
		광영소생활권	광영동	3.438	14,087	20,000
		금호소생활권	금호동, 금당동, 태인동	36.101	21,984	30,000
	황길 중생활권	성황소생활권	골 약 동	16.522	3,054	13,000
		황길소생활권	골 약 동	43.328		47,000
	수어·섬진 농촌정주 중생활권	수어 농촌정주 소생활권	옥곡면, 진상면	77.384	8,522	11,000
		섬진 농촌정주 소생활권	진월면, 다압면	129.143	6,588	10,000
백운 농촌정주 중생활권	옥룡농촌정주 소 생활 권	옥룡면	66.371	3,456	5,000	
	봉강농촌정주 소 생활 권	봉강면	55.562	2,587	4,000	

10 상위 및 관련계획의 종합

계획명	계획내용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권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의 신산업, 문화, 관광, 물류 거점 · 광양만권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산업 및 물류·교역 중심지역으로 육성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2012~2020,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권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태평양권 물류·생태관광·미래산업 개방 거점 · 광양시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항만물류·산업 거점도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2010, 국토교통부, 부산, 전남,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경제·물류·휴양 허브의 선벨트 조성 ·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해양관광·휴양 지대 조성 -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 육성 -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2006,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만권 미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물류·관광·산업 기능이 완비된 국제적 수준의 경제자유도시 건설 · 광양시 인구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32만명 계획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변경 (2008, 국토교통부, 전남,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 개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문화·주거의 자족복합도시로 육성·정비 · 광양시 주요 광역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항컨테이너부두배후지 - 성황배후단지, 용강배후단지, 신대·덕례배후단지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01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지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컨테이너부두, 컨테이너부두 배후지, 포스코 터미널CTS, 황금산업단지,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 신덕지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광양복합업무단지, 웰빙카운티단지
남해안선벨트 광양지역 발전계획 (2009, 광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안 선벨트와 호남광역경제권의 전략 성장거점 ·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 - 전략사업 발굴·실행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산업경제·유통 활성화
광양발전 2025 계획 (2007, 광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 슬로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 · 광양시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광양 -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
2025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2008, 광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동북아 국제자유무역도시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와 경쟁하는 동북아 국제자유무역 도시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농복합도시 - 생산적 복지기반이 완비된 철강산업도시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제3장 여건변화의 전망

1. 대내외 환경변화

1.1 외부환경 변화

■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 경쟁시대 가속화

- 세계화와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 광역경제권 단위의 지역경쟁력과 광역경제권 내 중심도시의 경쟁력으로 크게 구분되어지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
- 또한 정보화, 탈산업화, 탈국가화 등의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지방분권화와 탈조정화(Deregularization) 현상이 발생
- 세계화는 인력·자본·기술 등의 급격한 이동을 수반하며 국경을 초월한 도시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교통·정보통신의 발달과 자유교역의 증가 등을 통해 지역 또는 도시단위에서 세계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전
 - 지역과 도시들의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과 교류 활성화
 - 세계적 도시 브랜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도모

■ 환황해권의 부상과 서남해안 개발 가속화

- 중국의 성장으로 한반도 서남해안의 발전 잠재력 향상 및 개발촉진 예상
- 호남권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계획으로 새로운 거점 형성 가능
 - 새만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서남해안개발, 기업도시조성, 혁신도시건설 등 광양시가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위협요인 공존
- 광양시는 서남해안 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중국과 아시아를 겨냥한 경제·문화·관광 등 산업육성 전략 필요

■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사회 도래

-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용화 확대
 - 태양, 수소, 풍력, 조력, 지열,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 활성화
- 가정이나 기업, 공공시설 모든 조직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실천이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과 탄소를 흡수하는 녹지조성, 그리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술과 산업의 육성 필요

■ 저출산 고령사회의 영향

- 저출산에 따른 생산노동력 부족과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동생산성이 약화될 우려가 높음
-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간 부담문제 야기
 -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어 노인부양비 급증현상 발생
- 거동 불편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요양시설 등 종합적인 케어시설의 증가
- 노화에 대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화관련 건강의료산업, 노인 친화적인 산업, 사회서비스산업 등이 성장
- 건강한 삶을 추구함에 따라 의료·건강·여가·음식 등 관련 산업 성장
- 노령인구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예산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크게 받고, 또한 노인복지여건에 따라 향후 지역발전 좌우

■ 수도권 집중심화에 따른 지방의 성장잠재력 저하

-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블랙홀 작용으로 지방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악순환 구조
 - 국토면적의 11%, 인구 48%, 100대 기업 본사 91%, 공공기관 85%, 금융기관 67%가 수도권으로 집중
- 초고속 교통시설이 확충되면 수도권의 세력이 확대되어 수도권 포섭현상 발생
-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방 대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수도권과 차별화 된 광양의 독창적인 발전모델을 창출하고, 광역도시화, 광주·전남 경제통합 등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적 광역발전전략 추진 필요

■ 호남광역경제권의 발전 전망

- 호남광역경제권은 광주대도시권, 전주광역도시권, 목포광역도시권, 새만금권, 광양만 광역도시권, 지리산·덕유산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문화예술과 친환경녹색산업의 창조지역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친환경 녹색산업 거점 육성, 문화예술과 해양생태관광 육성, 지식창출기능 고도화, 통합인프라 구축, 녹색공동체 조성 등을 추진
- 광양만광역도시권은 기간산업과 친환경부품소재 산업 중심지로 개발

■ 섬진강 일대 ‘동서화합·창조경제 거점’ 으로 조성

- 영호남이 경계를 마주하는 섬진강 양안을 문화·관광지대, 신성장산업 벨트 등으로 조성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확정(2013.12)
- 산업육성,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섬진강 양안의 경남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을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대통령 지역공약 8대 핵심정책에 포함)

1.2 내부환경 변화

■ 인구증가의 둔화로 인해 인구정체 위기

- 광양시의 인구증가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구감소가 우려되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문제 대두
- 2009년~2011년의 인구증가율은 5.1%에 비해, 2011년~2013년의 인구증가율은 0.6%로 감소

■ 원도심과 신도심의 이원화

- 원도심(광양읍)과 신도심(중마동)의 이원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 발생
- 지역간 경쟁 및 NIMBY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통합이 저해되고, 사회기반 시설 계획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저조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도시성장의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하됨
- 또한,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의 축소, 투자의 감소 등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야기됨

■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접근성 증대

- 이순신대교, 경전선, 남해고속도로 등 입체적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타지역에서의 접근성 증대
- 광역교통망 개선, 여수엑스포 개최, 순천정원박람회 개최 등의 파급효과로 광양시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활성화 및 통행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수~순천~광양시를 연계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필요

■ 농촌인구의 감소 및 부농의 확대

-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로 인해 부농이 확대되고 있음

1.3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

■ 평면적 도시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 단기간의 급격한 도시화 진전으로 무분별한 평면적 확산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콤팩트한 도시개발, 재해관리가 도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정착
- 성장관리는 특정지역에서의 개발과 성장을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개발 수요와 환경용량을 조화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도시정책적 수단임

■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재생

-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도시경쟁력 강화와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
- 거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 및 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므로 테마거리 등 문화공간 마련, 지역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상업·문화거점 조성을 적극 추진
-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고유의 건축양식을 개발하고,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가로경관 정비, 상업정책 등 소프트한 정책과 보행자 동선 정비, 교통수단의 접근성 향상 필요
-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주민이나 사업자 등의 발의를 존중하고 관련 주체와의 충분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형성·추진해야 실질적인 효과 기대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개발

- 탄소저감형 도시시스템은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도시적 차원의 노력을 의미
- 탄소저감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도시·마을차원의 탄소저감 방안을 마련·추진
-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으로 정책과 제도, 설비 등 구조적인 접근과 생활양식 전환에서부터 녹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 열섬효과 완화를 통한 냉난방 에너지 수요 감소,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탄소를 저감하고 흡수하는 다양한 계획·기술의 발굴과 실용화 필요
- 녹색성장(Green Growth)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면서 경제적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수준 유지
-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패러다임임
- 대중교통지향형 개발방식(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에 부합한 개발방식임

- 철도역 등의 주변 보도접근이 가능한 반경 400-800m에 대중교통중심의 근린 지역을 형성
- 터미널, 역 인근의 도심지구를 중심으로 고밀개발을 추구하고 외곽지역에는 저밀도의 개발 추진

■ 도시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과 정체성 강화

- 도시정체성은 도시활성화를 위한 기초요인으로 지역의 애착심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하며 도시의 경제적·사회적·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축적되는 특성이 있음
- 도시정체성은 도시디자인의 형태로 구현되며, 조형성과 편리성을 갖춘 품격 있는 도시·지역 환경을 조성
- 특히 역사를 비롯한 문화, 경관, 산업 등과 같은 분야가 지역에 오래도록 토착화되어 있는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디자인이 차별화되어 있고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유리

■ 창조도시

- 창조도시는 도시가 갖는 유무형의 자산을 문화예술과 결합하여 도시를 발전시키려는 도시전략으로, 1980년대 이후 유럽의 도시재생정책에서 주요 전략으로 사용
- 최근에는 역사문화와 연계한 창조적 도시환경 조성이 도시이미지의 재창출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적인 수단으로 평가
 -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도시축제나 국제행사를 도시마케팅 수단으로 유치하여 쇠퇴한 도시구조 및 도시이미지 개선 등 도시재생에 활용
- 창조도시를 추진하는 시 또는 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문화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부문간의 창조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
 - 창조적 파트너십이 형성된 지역은 창조도시 전략의 추진과 성공에 근간이 되고, 창조도시전략과 연계한 도시재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민참여형 복지도시

- 시민참여형 복지도시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도시의 미래비전과 계획·집행에 참여하여 시민욕구를 시정에 반영시키는 지방분권적 도시계획수단임
- 행·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조직의 설치와 주체별 역할과 내용, 협력 등의 지원조례 제정, 전문가 파견 등의 지원전략 프로그램 마련이 선결
- 주민참여는 스스로 도시에 대한 관심과 향토애 및 공동체 의식이 고취되고 동시에 책임감과 주민역량을 증대시키는 효과 기대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WHO와 Ottawa 헌장, Agenda 21 등을 통해 건강·안전도시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

2. 주민의식조사

1.1 조사개요

■ 조사의 목적

- 광양시민 및 기업인 등이 생각하는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과제도출, 도시이미지 및 미래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30년 광양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대상

- 관내 주민 및 기업인 등

■ 설문방법

- 우편배포 후 회수 및 직접조사
 - 시 민 : 읍·면·동사무소 배포 후 회수, 광양터미널 및 중마터미널 인근
 - 산 업 체 : 방문 및 우편배포 후 회수
 - 공공기관·단체 : 방문 후 회수
 - 인터넷조사 : 시 홈페이지(공무원)

■ 설문기간

- 1차 : 2013년 10월 ~ 2013년 12월
- 2차 : 2015년 3월

1.2 배포 및 회수결과

- 합계 : 4,537부 중 3,020부 회수(회수율 66.6%)
 - 1차 : 1,179부 중 664부 회수(회수율 56.3%)
 - 2차 : 3,358부 중 2,356부 회수(회수율 70.2%)

< 표 I - 34 > 산업체 설문 회수결과

구 분		설문배포수	회수부수	회수율(%)	비고
합계		4,537	3,020	66.6	
1차	소계	1,179	664	56.3	
	시민	723	541	74.8	읍·면·동사무소 및 직접조사
	산업체	456	123	27.0	방문 및 우편
2차	소계	3,358	2,356	70.2	
	시민	500	242	48.4	읍·면·동사무소
	공공기관·단체	2,500	1,756	70.2	방문 후 회수
	공무원	358	358	100.0	인터넷

1.3 설문결과

■ 일반사항

- 총 3,020인 응답결과, 남자 53.5%, 여자 46.5%이며, 연령별 현황은 30대이하 34.7%, 40대 31.6%, 50대이상 33.7%로 나타남
- 지역별 현황은 광양읍 34.3%, 중마동 28.8%, 기타 36.9%로 집계됨

< 표 1 - 35 > 응답자별 일반현황

구분		응답수	비율(%)	비고
합계		3,020	100.0	
성별	남자	1,616	53.5	
	여자	1,404	46.5	
연령	20대	248	8.2	
	30대	799	26.5	
	40대	956	31.6	
	50대	700	23.2	
	60대	248	8.2	
	70대 이상	69	2.3	
	지역	광양읍	1,036	34.3
봉강면		36	1.2	
옥룡면		44	1.5	
옥곡면		95	3.1	
진상면		58	1.9	
진월면		41	1.4	
다압면		32	1.1	
골약동		185	6.1	
중마동		870	28.8	
광영동		218	7.2	
금호동		195	6.5	
태인동		160	5.3	
타시군 및 무응답		50	1.6	

■ 주요 응답내용

○ 현재 광양시는 어떤 모습의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각 항목별 응답)

구분		응답수(보통이상)	비율(%)	비고
1차	합계	664	100.0	
	광양만권 배후도시	561	84.5	
	안전도시(재해,범죄 측면)	528	79.5	
	첨단·산업도시	489	73.6	
	교육·전원도시	487	73.3	
	역사·문화도시	389	58.6	
	환경·생태도시	386	58.1	
	관광·여가도시	376	56.6	
2차	합계	2,356	100.0	
	경제·산업도시	1,742	73.9	
	복지·안전도시	1,171	49.7	
	교육도시	1,069	45.4	
	녹색생태도시	808	34.3	
	관광·휴양도시	655	27.8	
	역사·문화도시	624	26.5	

○ 광양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수	비율(%)	비고
합계	3,020	100.0	
편의시설 부족	1,308	43.3	
대중교통 불편	570	18.9	
관광역사 자원의 체계적 관리 부재	339	11.2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적 자원 부족	312	10.3	
정책일관성 부족	253	8.4	
낮은 재정자립도	117	3.9	
기타	121	4.0	

○ 향후 20년간 광양시는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수	비율(%)	비고
합계	3,020	100.0	
매우 발전할 것이다	406	13.4	
발전할 것이다	1,638	54.3	
보통	807	26.7	
낙후될 것이다	120	4.0	
매우 낙후될 것이다	21	0.7	
무응답	28	0.9	

○ 광양시의 발전 잠재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수	비율(%)	비고
합계	3,020	100.0	
기업 투자 유치	1,302	43.1	
교통·물류의 요충지	977	32.4	
천연자연환경	304	10.1	
풍부한 관광·휴양자원	281	9.3	
역사·문화자원	58	1.9	
기타 및 무응답	98	3.2	

○ 광양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수	비율(%)	비고
합계	3,020	100.0	
특화산업의 부족	1,162	38.5	
인접도시와의 연계 교통망 및 내부 교통망 부족	665	22.0	
노인인구의 증가	476	15.8	
개발용지의 부족	254	8.4	
농촌인구의 감소	251	8.3	
자연환경적인 규제	196	6.5	
무응답	16	0.5	

○ 앞으로 광양시는 어떤 모습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구분		응답수	비율(%)	비고
1차	합계	1,328	100.0	
	경제·산업도시	477	35.9	
	교통·물류도시	303	22.9	
	관광·휴양도시	166	12.5	
	복지도시	164	12.3	
	전원·생태도시	122	9.2	
	역사·문화도시	92	6.9	
	기타	4	0.3	
2차	합계	4,298	100.0	
	경제·산업도시	1,892	44.0	
	복지·안전도시	702	16.3	
	교육도시	613	14.3	
	관광·휴양도시	608	14.2	
	녹색생태도시	276	6.4	
	역사·문화도시	172	4.0	
	기타	35	0.8	

○ 『2025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25년의 계획인구를 30만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0년 광양시의 적절한 인구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수	비율(%)	비고
합계	3,020	100.0	
20만 이하	499	16.5	
21~25만	1,086	36.0	
26~30만	844	27.9	
31~35만	388	12.8	
35만 초과	159	5.3	
무응답	44	1.5	

3. 문제점과 잠재력 분석(SWOT)

■ 강점(Strength)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지니며, 남중해안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음
- 광양국가산단 등 국가기간 산업생산시설 입지로 경쟁력 있는 산업자원 및 국제적 규모의 항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백운산,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선국사 등 역사·문화 자원 보유
- 산업도시의 특성상 30~40대 인구비율이 높아 젊고 활기찬 도시임

■ 약점(Weakness)

- 남해안에 위치하여 수도권으로부터의 원거리 입지로 인해 지리적 한계가 있음
- 주거,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시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도시로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 광양시의 전통적인 대표산업인 철강산업에 의존적인 단순한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어 역동적인 산업·경제환경에 유연적 대응이 어려움
-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며, R&D 기능이 미흡함

■ 기회요인(Opportunity)

-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수립에 따라 신성장거점으로 도약이 가능함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남중권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남해고속도로, 완주-순천고속도로, 경전선 복선화 등 간선교통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음
- 동북아경제권의 부상과 상호연계협력관계 형성으로 광양항을 중심으로 남해안권 거점지역으로 육성이 가능함

■ 위협요인(Threat)

- 경제침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지연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관리 정책의 어려움이 발생함
- 부산항, 수도권항(인천항, 당진항 등) 활성화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 발생
-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환경문제 발생 등이 우려됨
- 면지역의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 추세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 우려

제1장 계획의 기본구상

1. 계획의 기초

■ 토지공간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토지관리의 지속가능성 담보

- 미래 세대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접근

○ 환경적 측면

-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외연적 확산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과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
-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공간구조 형성
-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여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데 주력
-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도시개발을 지양하여야 하며, 자동차에 의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토지자원의 재활용 촉진

○ 경제적 측면

- 지역의 고용 창출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 지역민의 거주성(livability)을 제고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체계 구축

○ 사회적 측면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수렴,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증진 기여
-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주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에 제약 받지 않도록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과 대중교통을 공급하고, 교육·의료·복지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력
-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초하여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도시환경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민의 자부심과 소속감 고양

공간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토지관리의 지속가능성 담보

(미래 세대의 자주적 토지이용 가능성 확보 및 현재 세대의 필요충족 개발)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 훼손과 대기·수질·토양 등 오염발생의 사전적 방지 ●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공간구조 형성 ●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촉진 및 탄소배출량 저감 주력 ●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도시개발 지양, 화석연료 사용 감소 및 토지자원의 재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한 물리적 기반 조성으로 기업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 지역민의 거주성(Livability)을 제공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세계화 및 지방화 추세에 대응하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 산업구조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수렴·반영으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사회적 갈등해소 및 통합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진 기여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및 대중교통 공급, 교육·의료·복지 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 확충 ●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제고 및 정체성 확립으로 지역민의 자부심, 소속감 고양

(그림 II- 1) 계획의 기초

2. 이슈와 과제

2.1 이슈 및 문제점

■ 인구증가율의 지속적 둔화

- 광양시의 인구증가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구감소가 우려되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문제 대두
- 2009년~2011년의 인구증가율은 5.1%에 비해, 2011년~2013년의 인구증가율은 0.6%로 감소

■ 원도심과 신도심의 이원화

- 원도심(광양읍)과 신도심(중마동)의 이원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 발생
- 지역간 경쟁 및 NIMBY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통합이 저해되고, 사회기반 시설 계획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인접시(순천시)로의 역류 현상

- 쇼핑,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도시의 기본 기능 부족으로 인해 인접시로의 역류 및 예측화 현상 발생
- 광양시의 인구규모에 부합하는 상업·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 인접시군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거점시설 설치 필요

공간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토지관리의 지속가능성 담보

(미래 세대의 자주적 토지이용 가능성 확보 및 현재 세대의 필요충족 개발)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 훼손과 대기·수질·토양 등 오염발생의 사전적 방지 ●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공간구조 형성 ●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촉진 및 탄소배출량 저감 주력 ●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도시개발 지양, 화석연료 사용 감소 및 토지자원의 재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한 물리적 기반 조성으로 기업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 지역민의 거주성(Livability)을 제공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세계화 및 지방화 추세에 대응하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 산업구조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수렴·반영으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사회적 갈등해소 및 통합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진 기여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및 대중교통 공급, 교육·의료·복지 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 확충 ●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제고 및 정체성 확립으로 지역민의 자부심, 소속감 고양

(그림 II- 1) 계획의 기초

2. 이슈와 과제

2.1 이슈 및 문제점

■ 인구증가율의 지속적 둔화

- 광양시의 인구증가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구감소가 우려되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문제 대두
- 2009년~2011년의 인구증가율은 5.1%에 비해, 2011년~2013년의 인구증가율은 0.6%로 감소

■ 원도심과 신도심의 이원화

- 원도심(광양읍)과 신도심(중마동)의 이원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 발생
- 지역간 경쟁 및 NIMBY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통합이 저해되고, 사회기반 시설 계획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인접시(순천시)로의 역류 현상

- 쇼핑,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도시의 기본 기능 부족으로 인해 인접시로의 역류 및 예측화 현상 발생
- 광양시의 인구규모에 부합하는 상업·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 인접시군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거점시설 설치 필요

■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 저조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도시성장의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하됨
- 또한,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의 축소, 투자의 감소 등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야기됨

■ 철강산업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광양시 재정구조 취약

- 철강산업의 쇠퇴에 따른 세입 감소 및 산업구조의 다양성 부족으로 세수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 미래소재·에너지산업, 관광산업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필요

■ 광양항 물동량 증가 정체

- 부산신항 및 수도권항 활성화로 인해 광양항 기능의 상대적 저하로 물동량 증가의 정체현상 발생

■ 농촌공동체의 해체

- 농촌인구의 감소 및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해 농촌공동체의 급속한 해체현상 발생

2.2 향후과제

■ 글로벌 항만 및 국제물류산업 육성

- 광양항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육성하여 광양시를 국제물류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
- 전략적인 2-Port 정책 추진으로 광양항을 국내 제2항만으로서의 입지 구축

■ 중추도시형의 지역행복생활권 형성

- 광양-여수-순천-보성-고흥을 연계한 중소 연담도시권의 중추도시생활권(전남동부 중추도시권) 형성으로 상생협력 및 주민의 광역적 수요에 효과적 대응
 - 전남동부 중추도시권 : 물류·생태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 육성
- 지역행복생활권 예산 확대에 맞춰 지역특화발전 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 필요
 - 주요 제안사업 예시 : 임진왜란 호국 교육벨트 사업, 작은영화관 조성 등
- 인접지자체와 연계한 광역적 SOC 구축과 함께 소생활권 위주의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로 통합적 사업 추진

■ 광양역세권

- 광양역세권 개발로 광양읍의 도심 기능 강화 및 교통환승체계 구축으로 친 환경적 도시네트워크 구성
- 장기적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 추진으로 압축도시 실현

■ 동서통합지대 조성

- 영호남이 경계를 마주하는 섬진강 양안을 문화·관광지대, 신성장 산업 벨트 등으로 조성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확정
-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통해 광양시를 동서화합과 창조경제의 거점중심지역으로 육성
- 첨단지식기반산업 및 문화관광부문의 교류협력, 인프라건설 등의 분야에 대해 동서화합의 상징성이 높은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 필요

■ 여수시·순천시와의 연계성 강화

- 이순신대교 개통,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사업 등 여수시와의 연계성 증가에 부합된 계획 수립
- 여수시와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광양항을 통해 유입되는 크루즈 관광객을 포함한 내·외국인 방문객의 체류시간 확대방안 모색
- 광양읍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양호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순천시로의 역외유출 방지 및 광역적 연계축 형성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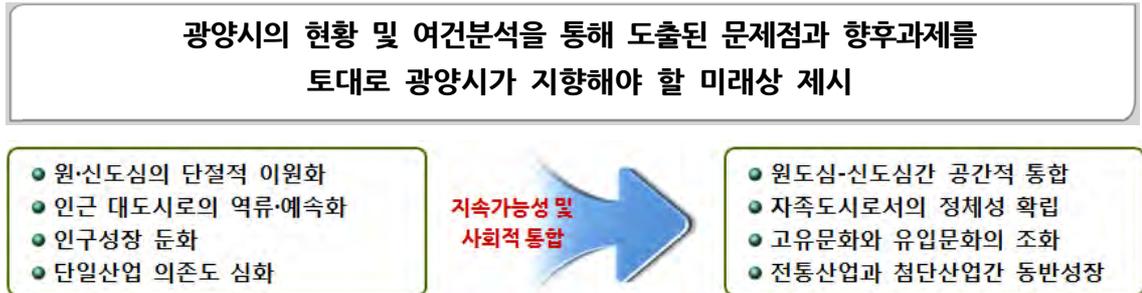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및 상생협력방안 마련
- 광양항배후지를 광양시 발전거점으로 육성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호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인구유출 방지 및 외부인구 유입 기대

■ 광역교통망 확충

- 이순신대교, 경전선복선화, 남해고속도로 등 입체적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타지역에서의 접근성 증대
- 광역교통망 개선, 여수엑스포 개최, 순천정원박람회 개최 등의 파급효과로 광양시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활성화 및 통행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수~순천~광양시를 연계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필요

3. 도시미래상과 목표 설정

3.1 광양시 미래상 설정의 전제



(그림 II - 2) 광양시 미래상 설정의 전제

3.2 도시미래상 설정

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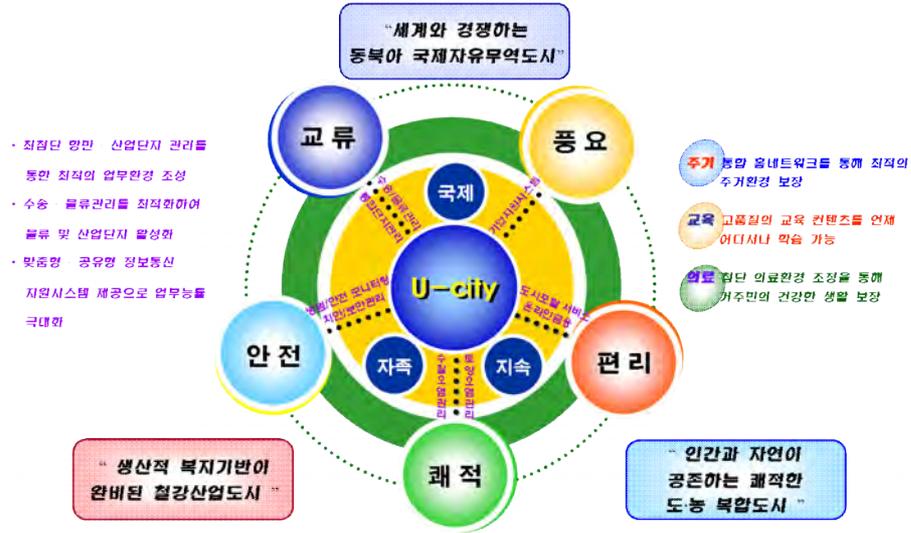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방향

- 광양시의 장래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12, 전라남도)』,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2006, 전라남도)』,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변경(2008, 국토교통부, 전남, 경남)』, 『2025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2008, 광양시)』 등에서 도시 미래상에 관한 공통요소 추출
- 또한,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광양시의 미래상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의식조사에서 제시된 도시미래상을 검토하여 도시 미래상 설정에 반영함

■ 2025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검토

- 21세기 광양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계획이념을 지속성 및 자족성, 국제성으로 설정하고 쾌적, 풍요, 편리, 안전, 교류의 5가지의 주제를 토대로 하여 광양시의 도시미래상을 제시하였음
- 미래상
 - 21세기 동북아 국제자유무역도시 광양
- 계획목표
 - 세계와 경쟁하는 동북아 국제자유무역 도시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농복합도시
 - 생산적 복지기반이 완비된 철강산업도시

“ 21세기 동북아 국제자유무역도시 광양 ”



(그림 II- 3) 「2025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미래상

■ 주민의식조사에서 제시된 미래상 검토

○ 주민의식조사(2차 조사 기준)를 통해서 본 광양시의 미래모습은 경제·산업도시(44.0%)가 가장 많고, 복지·안전도시(16.3%), 교육도시(14.3%), 관광·휴양도시(14.2%) 순으로 나타났음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를 통한 도시미래상 요소 추출

○ 광양시의 도시발전을 위한 미래상이 제시된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주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도시미래상을 검토한 결과, 물류/항만, 무역, 철강/신산업, 환경, 관광, 농업, 복지, 도시기반 등의 도시미래상 요소가 추출되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할 도시미래상의 요소는 물류/항만/무역/철강/신산업, 환경, 문화·관광, 농업, 교육·복지, 도시기반 등임

< 표 II- 1 >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미래상 요소

구분	물류/항만	무역	철강/신산업	환경	문화·관광	농업	교육·복지	도시기반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12)	○		○			○		
2025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2006)	○	○	○	○	○	○	○	○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변경(2008)	○	○	○		○	○		
광양발전 2025 계획(2007)	○	○	○	○		○	○	○
남해안선벨트 광양지역발전계획(2009)	○	○	○		○		○	○
2025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2008)		○	○	○	○		○	○
주민의식조사(2013/2015)	○	○	○		○		○	○
↓								
2030년 광양 도시기본계획	●		●	●	●	●	●	●

나. 도시미래상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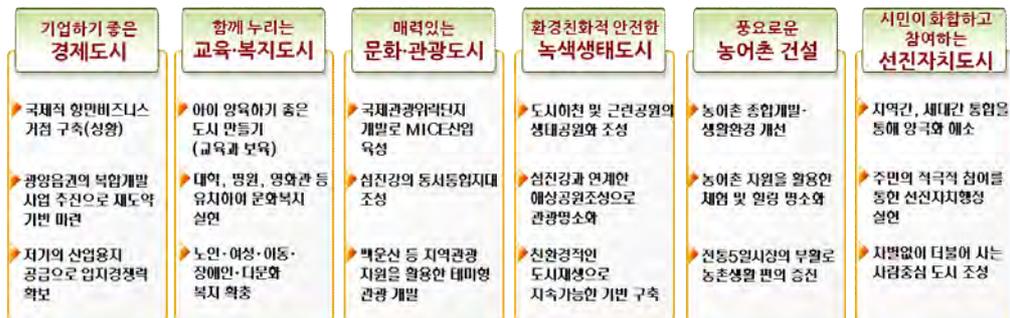
■ 도시미래상

- 2025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주민의식조사 등에서 제시된 도시미래상을 바탕으로 2030년 광양시의 도시미래상은 『시민이 행복한 경제도시, 광양』으로 설정함

■ 계획목표

-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생 등 광양시의 직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조성으로 전남 제1의 경제도시 건설
-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도시
 -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명품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우리나라 최고의 행복수도 광양’ 실현
-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
 - 시민 정신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도시 광양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
- 환경친화적 안전한 녹색생태도시
 - 미래에도 살고 싶은 쾌적한 녹색 성장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행복도시 구현
-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 3농(부강한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 선진화 구현 및 경쟁력 있는 창조농업으로 농촌 활설화 도모
- 시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선진자치도시
 -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강화를 통해 튼튼한 시정 구현

“시민이 행복한 경제도시, 광양”



(그림 11- 4) 2030년 광양시 도시미래상

2.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 국제적 항만비즈니스거점 구축

- 광양항을 중심으로 사람·자본·물류를 흡입하는 포트 비즈니스 밸리 조성을 통해 동북아 국제경제거점으로 육성
- 광양항을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복합물류중심 허브항으로 집중 육성하고, 통합물류정보시스템 도입, 에너지절약형 항만시설 확충 등 스마트항만 시스템 구축
- 항만배후단지 및 배후 산업단지와 연계되는 항만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 신규 유치 및 고부가가치 창출

■ 광양읍권의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

- 광양복합업무단지, 웰빙카운티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통해 양호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노후·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공간 확보, 역사문화와 융합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등 생활밀접형 도시 재생사업 추진

■ 저가의 산업용지 공급으로 입지경쟁력 확보

- 적정 규모의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산업입지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지원을 통해 저가의 산업용지 공급으로 산업입지 경쟁력 확보
 -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및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지원 확대
 - 익신산단 뿌리산업 특화 단지 조성, 제철 소재 및 항만 연관 산업 유치(초남, 신금, 명당 지구) 등
-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미래소재·에너지산업, 관광산업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R&D 센터 건립,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등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민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나.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도시

■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 출산장려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방과 후 보육시설 등 아동보호 기능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확충
 - 산후조리비용, 신혼부부, 임산부 무료검진 등 지원 확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활동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장려 및 인센티브 부여
 - 경력단절 여성 종합 취업지원시스템 운영
 - 여성문화대학 및 여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저출산 시대 도래에 따른 잉여 교육시설의 재구성과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광양 국제고등학교 유치, 창의예술고 설립 등

■ 대학, 병원, 영화관 등 유치를 통한 문화복지 실현

-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구시설 유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교육경쟁력 강화
 - 창조인재 양성 환경 조성사업 추진
- 종합병원, 어린이 전문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취약한 의료시설 기반 개선
- 영화관, 쇼핑몰 등 복합문화시설 도입과 문화예술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문화거점 육성
 - LF 아울렛 개장, 어린이 체험마을-테마공원 조성,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등

■ 노인·여성·아동·장애인·다문화복지 확충

- 복지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노인 및 장애인의 경제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취업교육 시스템 등을 마련
-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계획 수립 및 무장애(Barrier Free) 도시조성 추진 등 도시디자인 개선
- 단일민족의 개념에서 벗어난 다문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문화 복지 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다.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

■ 국제관광위락단지 개발로 MICE산업 육성

- 대형크루즈 입항과 연계한 관광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관광산업 육성
- 광양항 배후지 및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을 통해 MICE(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Event)산업 육성
- 마리나산업 육성 및 복합리조트 개발 등을 통해 해양레저네트워크 구축

■ 섬진강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 광양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스킨십 촉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스포츠 행사들의 공동 개최를 통해 주민화합의 장 마련
- 섬진강변 핵심 관광거점 조성으로 양안의 연결을 강화하여 동서통합의 상징지대로 조성
- 동서교류 촉진에 필요한 물질적 기반확충과 함께 정신적 화합과 유대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관리를 위한 맞춤형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개발

- 섬진강, 백운산, 지리산, 남해안 일원의 풍부한 역사·문화·경관·자연자원을 토대로 품격있는 문화예술회랑지대로 발전하기 위해 관광거점공간 조성 및 관련시설 클러스터화
 - 섬진강 문화 예술 회랑지대 조성
- 백운산의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 백운산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 사업
- 옥룡사지, 김시식지, 도선국사, 매천 황현 등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역사테마관광 개발을 통해 역사의식 고취
 -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

라. 환경친화적 안전한 녹색생태도시

■ 도시하천 및 근린공원의 생태공원화 조성

- 하천, 오픈스페이스, 녹지로의 유기적 공간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된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수립을 통해 생태공원화 조성
- 하천변 녹화계획을 통해 연속적인 녹지흐름을 유지하고 하천과 구릉지, 공공장소와의 결절점에 친수공간 조성
- 각 지역별(생활권별) 중심공원을 조성하여 개발 이용성을 증진시키고 지역별 다양한 주제를 지닌 특색 있는 공원 조성
- 폐선부지를 이용하여 거점공원과 주요시설을 연결하여 녹지네트워크 구축

■ 섬진강과 연계한 해상공원 조성으로 관광 명소화

- 섬진강과 연계하여 해상공원을 조성하여 동서통합지대 거점 지역으로 육성 및 관광자원 활용
 -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 섬진강을 활용한 캠핑, 글램핑 등 다양한 레저활동 지원 및 해양레저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입

■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으로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 보행자(교통약자) 중심의 도로체계 및 안전시설 확충, 자전거 도로 등 친환경 녹색교통 도입, 대중교통 활성화 등 저탄소 녹색교통 도입
- 노후산단 및 주변지역 재생, 항만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 핵심거점 정비 및 개발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기능 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

마.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 농어촌 종합개발·생활환경 개선

- 농어촌 문화복지시설(광장, 집회소, 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어촌 생활환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주택개량사업, 빈집정리사업)

■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힐링 명소화

- 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 등 친환경 전원도시 조성을 위한 구축 마련으로 도시민의 농촌체험 기회 확대 및 농촌인구 증가 기대
 - 창조적 농촌 마을 만들기(옥룡면 남정, 진상면 방동, 다압면 하천 등)

- 고로쇠, 매실 등 지역특산물과 백운산,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힐링산업 육성
 - 지역 농산물 코스메틱 효능 연구, 광양 매실청 이용 기능성 연구 등
- 귀농인, 귀향인 등 지속적으로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위해 지원정책 마련

■ 전통5일시장의 부활로 농촌생활 편의 증진

- 지속적인 시장현대화사업을 통해 시장환경개선 및 특색있는 시장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활용
- 농어촌 면소재지 중심 전통5일시장의 부활을 통해 생활편의 증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바. 시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선진자치도시

■ 지역간, 세대간 통합을 통해 양극화 해소

- 교육·문화·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주민간의 교류 활동 강화를 통해 주민소통 활성화
 - 시민중심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소통 및 현장 중심 행정 강화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사회지도층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대간·계층간 갈등 해소를 통해 양극화 완화

■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선진자치행정 실현

-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갈등 해소
- 지역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주민 지원체계 구축

■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조성

- 보편적 복지의 확산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 및 복지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 친환경 정주기반 조성과 생활·교육·환경 개선으로 관외 거주 종사자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지역내 소비증진을 통한 도시재정 개선으로 풍요로운 자족도시 조성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사업, 광역적 인프라 구축 등 지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균형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

제2장 계획의 주요지표

1. 인구지표

1.1 지표설정의 전제

가.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의 성격

-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는 계획인구와는 달리 장기계획의 특성상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있어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지표가 아닌 다의적 개념임
 - 또한 인구추계과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기보다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도시비전과 계획목표, 각 부문계획에서 설정한 부문별 정책목표와 계획기준 등의 상호 검증과정을 통해 설정 되는 정책계수로서 정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정책지표임
 -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는 장래 도시성장에 대비한 각종 도시기반 시설과 도시환경의 공급량 결정기준, 또는 착수계수라기 보다는 도시성장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종합적인 정책지표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지님
- 금회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장래 계획인구 지표는 광양시의 장래 미래상과 부합되고 신성장동력으로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

나. 인구추정 방법

- 인구추정 방법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제시된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 자연증가분과 사회적증가분의 구분에 의한 추정방법 등이 있으며, 본 계획에서는 향후 광양시의 개발여건, 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자연증가분과 사회적증가분의 구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장래인구를 추정함

■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

- 생산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권장하며, 추세연장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들과 시계열기간에 대하여 적합도 검증을 반드시 실시하여 최적 함수식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상위 3개의 함수식에 의한 추계치를 산술평균하여 인구추계를 함
- 생산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계청의 전국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증명함
- 모형에 의하여 인구를 추정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증가에 대한 인구를 따로 추계하여 포함하지 않음

■ 자연증가분과 사회적증가분의 구분에 의한 추정방법

- 자연증가분의 추정은 생산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사용하되, 인구의 전출입을 가감하지 않고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만 고려하여 순수한 자연증가분만 계상함
- 사회적증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를 말하며, 개발사업 이외에 엑스포 등의 행사 또는 고속철도역사 건설이나 항만개발 등을 통한 유발인구는 개발사업이 존재할 경우 이로 인하여 늘어나는 인구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따로 계상하지 않고, 다만, 개발사업이 없는 경우 아래의 방법과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함
- 인구의 유입량을 결정함에 있어 그 지역의 과거사례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인근 지역의 사례를 반영하여 비교유추하여 실제로 유발가능한 ‘가능유발인구’를 결정함
- 이상과 같이 결정된 인구예측은 불안전성을 감안하여, 각 부문계획 수립시 ±10퍼센트 내에서 해당 계획의 성격에 따라 탄력성을 줄 수 있도록 함

다. 장래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요소

- 광역경제권 거점도시로서 외부정주인구 유입 :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문화산업 등 확충
- 출산율 제고, 주간인구 및 활동인구 증대

라. 상위 및 관련계획상 추정인구

- 「2025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2025년 계획인구는 320천인이며, 「2025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25년 계획인구는 300천인으로 두 계획간 20천인의 차이가 발생함

< 표II- 2 > 상위 및 관련계획 인구지표 비교

단위 : 인

구분	발행 년도	기준 년도	목표 연도	장래 계획인구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25 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	2006	2003	2025	210,000	270,000	310,000	320,000
2025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2008	2004	2025	200,000	250,000	280,000	300,000

1.2 인구추계

가. 모형에 의한 인구추정(추세연장법)

■ 최근 10년(2003년~2013년)간 인구추이

- 2003년 광양시의 인구는 136,484인이었으며, 2013년 현재 인구는 151,621인으로 10년간 15,137인(11.1%) 증가하였음

< 표 II- 3 > 최근 10년(2003~2013년) 인구추이

단위 : 인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구	136,484	137,601	138,098	138,237	138,865	141,388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
인구	143,461	145,512	150,725	150,837	151,621	-

주) 광양시 통계연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주민등록 인구 기준)

■ 등차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P_n = P_0(1+r \cdot n) \quad r = \{(P_n/P_0)-1\}/n$$

(P_n : n년도 인구, P_0 : 초기연도 인구, r : 년 평균 인구증가율,
 n : 초기연도부터 목표연도까지의 기간)

- 최근 10년(2003년~2013년)간 인구추이를 바탕으로 등차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 연평균 인구증가율(r)은 1.11%로 나타났으며, 목표연도인 2030년 인구는 177,354인으로 추정되었음

< 표 II- 4 > 등차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단위 : 인

모형	장래 계획인구				
	현재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등차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151,621	154,648	162,217	169,785	177,354

■ 등비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P_n = P_0(1+r)^n \quad r = \sqrt[n]{(P_n/P_0)} - 1$$

(P_n : n년도 인구, P_0 : 초기연도 인구, r : 년 평균 인구증가율,
 n : 초기연도부터 목표연도까지의 기간)

- 등비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 연평균 인구증가율(r)은 1.05%로 나타났으며, 목표연도인 2030년 인구는 181,306인으로 추정되었음

< 표 II- 5 > 등비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단위 : 인

모형	장래 계획인구				
	현재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등비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151,621	154,844	163,205	172,017	181,306

■ 최소자승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P_n = a + b \cdot x \text{ (1차식)}$$

(P_n : n년도 인구 x : 경과연수 a, b : 상수)

- 최소자승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 목표연도인 2030년 인구는 181,803인으로 추정되었음

< 표 II- 6 > 최소자승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단위 : 인

모형	장래 계획인구				
	현재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최소자승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151,621	156,487	164,926	173,365	181,803

■ 모형에 의한 인구추정의 종합

- 등차모형, 등비모형, 최소자승모형 등 추세연장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 2030년의 인구는 180,154인으로 추정되었음
- 추세연장법은 과거 인구변화가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 외에 향후 계획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태적인 성장지향형 도시 인구추계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표 II- 7 > 모형에 의한 인구추정의 종합

단위 : 인

모형	장래 계획인구				
	현재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등차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151,621	154,648	162,217	169,785	177,354
등비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151,621	154,844	163,205	172,017	181,306
최소자승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151,621	156,487	164,926	173,365	181,803
평균	151,621	155,326	163,449	171,722	180,154

나. 자연적증가분과 사회적증가분의 구분에 의한 인구추정

■ 자연적증가분의 추정

- 자연증가분의 추정은 생산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사용하며, 인구의 전출입을 가감하지 않고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만 고려하여 순수한 자연증가분만 계상함
- 장래 출생성비 및 생산률 등은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의 전라남도 부분 전망치를 사용

< 표 II- 8 > 전라남도 출생성비 전망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남성비 (여자1백명당)	105.9	105.6	105.3

자료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4(전라남도 data)

주 : 남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비율임

< 표 II- 9 > 전라남도 생산률 전망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남	여	남	여	남	여
0~4세	0.99873	0.99902	0.99893	0.99918	0.99911	0.99931
5~9세	0.99952	0.99975	0.99965	0.99983	0.99976	0.99988
10~14세	0.99944	0.99967	0.99958	0.99976	0.99969	0.99983
15~19세	0.99844	0.99927	0.99878	0.99945	0.99907	0.99958
20~24세	0.99779	0.99884	0.99823	0.99910	0.99861	0.99930
25~29세	0.99659	0.99807	0.99719	0.99845	0.99774	0.99876
30~34세	0.99505	0.99757	0.99587	0.99803	0.99663	0.99840
35~39세	0.99355	0.99741	0.99452	0.99785	0.99543	0.99821
40~44세	0.99015	0.99618	0.99154	0.99678	0.99286	0.99730
45~49세	0.98312	0.99430	0.98541	0.99517	0.98759	0.99590
50~54세	0.97584	0.99260	0.97917	0.99374	0.98228	0.99469
55~59세	0.96619	0.98983	0.97083	0.99140	0.97514	0.99271
60~64세	0.95086	0.98503	0.95747	0.98729	0.96360	0.98918
65~69세	0.92478	0.97359	0.93376	0.97714	0.94226	0.98018
70~74세	0.86815	0.95017	0.88129	0.95579	0.89409	0.96091
75~79세	0.77751	0.90636	0.79513	0.91507	0.81294	0.92303
80~84세	0.64070	0.82899	0.66132	0.84099	0.68294	0.85247
85~89세	0.46047	0.70169	0.47992	0.71592	0.50121	0.73044
90~94세	0.26768	0.51821	0.28114	0.53147	0.29626	0.54554
95~99세	0.11503	0.30541	0.12053	0.31355	0.12688	0.32215
100세 이상	-	-	-	-	-	-

자료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4

○ 조성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 2030년에 163,745인으로 추정되어 2013년 인구 대비 약 12,124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표 II - 10 > 조성법에 의한 인구추정

(단위 : 인)

연령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151,621		153,587		157,191		160,439		163,745	
소계	77,990	73,631	78,815	74,772	80,363	76,828	81,745	78,694	83,159	80,586
0-4	4,443	4,225	4,213	4,209	3,842	3,607	3,940	3,721	4,285	4,060
5-9	3,976	3,739	4,061	3,826	4,206	4,204	3,837	3,603	3,936	3,718
10-14	5,129	4,686	4,242	3,966	4,058	3,825	4,204	4,203	3,836	3,602
15-19	6,857	6,231	6,477	5,890	4,239	3,964	4,056	3,824	4,202	4,202
20-24	5,620	4,612	6,454	5,082	6,464	5,884	4,232	3,961	4,051	3,822
25-29	4,391	3,728	4,464	3,647	6,436	5,074	6,450	5,877	4,225	3,957
30-34	5,982	5,440	5,439	4,987	4,445	3,638	6,414	5,064	6,432	5,868
35-39	5,557	5,376	5,647	5,493	5,406	4,972	4,423	3,629	6,388	5,054
40-44	7,009	7,133	6,301	6,368	5,604	5,476	5,371	4,959	4,399	3,621
45-49	8,433	6,629	8,460	7,352	6,228	6,339	5,549	5,455	5,326	4,943
50-54	6,748	5,871	7,216	5,930	8,294	7,303	6,123	6,303	5,468	5,429
55-59	4,950	4,153	5,678	5,043	7,013	5,878	8,094	7,249	5,995	6,264
60-64	3,047	2,582	3,611	3,162	5,454	4,983	6,776	5,818	7,858	7,187
65-69	2,000	2,150	2,511	2,452	3,405	3,106	5,186	4,908	6,488	5,744
70-74	1,649	2,422	1,547	2,196	2,296	2,377	3,149	3,024	4,842	4,796
75-79	1,264	2,098	1,404	2,236	1,320	2,073	1,993	2,259	2,775	2,890
80-84	607	1,483	721	1,615	1,064	2,005	1,026	1,879	1,585	2,067
85이상	328	1,073	369	1,318	589	2,120	922	2,958	1,068	3,362

주) 2015년 인구는 2015년 12월말 현재인구임

■ 사회적증가분의 추정

- 사회적 증가에 의한 인구예측은 광양시 내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입인구를 검토하여 추정
- 현재 분양중이거나 계획중인 산업단지의 경우 광양시에 기 입주한 산업단지 2개소(초남공단, 명당임대산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외부유입률을 조사하여 25%를 적용하였음

- 설문조사기간 : 2016. 7. 15 ~ 2016. 7. 22
- 설문조사방법 : 방문조사
- 설문조사내용 : 산업단지 내 근로자 거주지(인구이동)에 관한 사항

< 표 II- 11 > 산업단지 실유입률 조사결과

구분	설문대상 ¹⁾	응답자수	외부유입인구 ²⁾	유입률(%)	비고
합계	628	420	102	24.3	25% 적용
초남공단	209	154	32	20.8	
명당임대산단	419	266	70	26.3	

주1) 최근 10년내(2006. 7. 10우) 등록기업 중 종업원수 10인 이상 기업의 종사자수
 주2)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광양시 외”에서 “광양시”로 이전하여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는 인구

- 택지개발사업은 최근 입주완료 또는 분양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및 분양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외부유입률을 조사하여 50%를 적용하였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의 유입률을 적용하였음

- 조사기간 : 2016. 7. 19 ~ 2016. 8. 2
- 조사방법 : 광양시 건축과 및 광양읍 주민센터 협조
- 조사내용 : 분양계약자 주소 현황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현황

< 표 II- 12 > 택지개발 실유입률 조사결과

구분	총세대수	분양 및 입주세대수	외부유입 세대수 ¹⁾	유입률(%)	비고	
합계	1,500	1,442	714	49.5	50% 적용	
분양중	e-편한세상 광양	440	395	206	52.2	중마동
	중동지구 진아리채	616	603	320	53.1	중마동
입주완료	수시아아파트	444	444	188	42.3	광양읍

자료) 광양시 건축과 및 광양읍 주민센터 내부자료
 주1) 분양계약자 주소가 “광양시 외”인 세대수 및 전입신고시 “광양시 외”에서 전입한 세대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사업에 특성에 따라 각각 산업단지, 택지개발로 구분하여 유입률 적용

< 표 II- 13 > 사회적증가에 의한 유입인구 추정

구분	사업명	유입인구 추정 근거	유발인구 (인)	유입률	유입인구 (인)	유입단계
합계			312,646		115,222	
산업단지 (6개지구)	소계		16,962		4,242	
	명당산단	조성완료(분양중)	3,313	25%	828	2020년
	장내산단	조성완료(분양중)	208	25%	52	2015년
	초남2산단	조성완료(분양중)	3,722	25%	931	2015년
	신금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전남09-361)	2,867	25%	717	2020년
	명당3지구	개발계획변경(전남13-41)	3,718	25%	930	2025년
	익신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전남12-72)	3,134	25%	784	2025년
택지개발 (8개지구)	소계		81,537		40,769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광양06-25)	16,840	50%	8,420	2020년
	성황·도이지구	개발계획승인(전남09-449)	8,034	50%	4,017	2025년
	마동지구	개발계획변경(광양13-54)	4,238	50%	2,119	2020년
	중동지구	개발계획승인(전남08-325)	1,980	50%	990	2020년
	와우지구	개발계획승인(전남12-53)	10,002	50%	5,001	2025년
	광영·의암지구	개발계획승인(전남12-54)	6,828	50%	3,414	2025년
	목성지구	개발계획승인(전남09-459)	12,510	50%	6,255	2025년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00.09.21)	21,105	50%	10,553	2025년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 (9개지구)	소계		214,147		70,211	
	울촌제1지방산단 (광양시 행정구역)	개발계획변경(전남11-411)	5,346	25%	1,337	2020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서측)	광양항기본계획변경 (국토부12-897)	8,630	25%	2,158	2020년
	동측 배후지		22,503	25%	5,626	2020년
	서측 배후지		78,463	25%	19,616	2020년
	황금산단	개발계획변경(산자부13-10)	9,693	25%	2,423	2025년
	세풍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전남12-337)	22,826	25%	5,707	2025년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계획변경(지경부12-312)	39,685	50%	19,843	2030년
	광양복합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산통부14-140)	20,601	50%	10,301	2030년
	웰빙카운티단지	개발계획변경(산통부14-140)	6,400	50%	3,200	2030년

■ 자연적증가분과 사회적증가분의 구분에 의한 추정인구 종합

- 자연적증가분 163.7천인과 사회적증가분 115.2천인을 종합하여 278.9천인이 추정되었음

< 표 II- 14 > 자연적증가분과 사회적증가분의 구분에 의한 추정인구

자연적 증가(A)	사회적 증가(B)	추정인구(A+B)
163.7천인	115.2천인	278.9천인

다. 계획인구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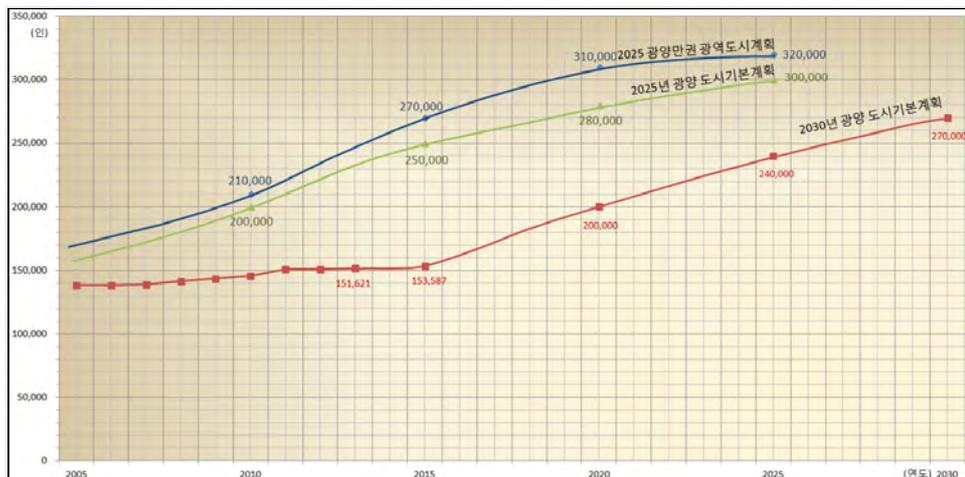
■ 목표연도 계획인구 설정

- 계획인구는 2030년의 도달인구의 의미보다는 2030년에 광양시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인구의 규모를 제안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조건과 광양시의 정책적인 목표와 의지를 반영함
- 2030년의 광양시의 내부 및 외부환경 등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하되, 우리나라 전국적인 인구구조와 인구속성 그리고 변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2030년 인구를 27만인으로 설정함

< 표 II- 15 > 계획인구의 설정

단위 : 인

구분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자연적 증가인구	151,621	153,587	157,196	160,446	163,755
사회적 증가인구	-	-	42,794	81,878	115,222
추정인구	151,621	153,587	199,990	242,324	278,977
계획인구	151,621	153,587	200,000	240,000	270,000



(그림 II- 5) 광양시 계획인구 설정

1.3 인구구조

■ 성별 · 연령별 인구구조

- 성별 인구구조는 2030년 남자 103.2인(여자100인당)으로 분석되었음
- 연령별 인구구조는 2030년 경제활동가능인구인 14세 이하가 15.0%, 15-64세의 인구가 전체의 69.0%,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1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UN이 정한 고령화사회 분류기준에 의하면 2025년 이후부터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 표 II- 16 > 성별 인구구조 추정

단위 : 인

구분	2013	2015	2020	2025	2030
총계(인)	151,621	153,587	200,000	240,000	270,000
남자	77,990	78,815	102,248	122,295	137,126
여자	73,631	74,772	97,752	117,705	132,874
성비(%)	105.9	105.4	104.6	103.9	103.2

주 : 성비는 조성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값을 기준으로 산정

< 표 II- 17 > 연령별 인구구조 추정

단위 : 인, %

구분	2013	2015	2020	2025	2030
총계(인)	151,621 (100.0)	153,587 (100.0)	200,000 (100.0)	240,000 (100.0)	270,000 (100.0)
0-14세	26,198 (17.3)	24,517 (16.0)	32,000 (16.0)	38,400 (16.0)	40,500 (15.0)
15-64세	110,349 (72.8)	112,701 (73.4)	144,000 (72.0)	168,000 (70.0)	186,300 (69.0)
65세이상	15,074 (9.9)	16,369 (10.7)	24,000 (12.0)	33,600 (14.0)	43,200 (16.0)
노령화지수	0.58	0.67	0.75	0.88	1.07

주1 : 연령별 인구구조는 조성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값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증가를 고려하여 재산정

주2 : 노령화지수는 14세이하의 유년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

■ 경제활동인구

- 광양시의 경제활동인구는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시설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짐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확대 등 2차산업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농인의 증가로 인해 제1차산업 인구의 비율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표 II- 18 >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 천인, %

구분	2013	2015	2020	2025	2030
계획인구	151.6	153.6	200	240	270
15세이상인구	115.4	137.2	176.0	206.4	226.8
경제활동인구	66.2	81.0	107.4	130.0	147.4
비경제활동인구	49.2	56.2	68.6	76.4	79.4
경제활동참가율	57.3	59.0	61.0	63.0	65.0
취업인구	64.4	78.2	103.8	125.9	142.9
고용률	55.8	57.0	59.0	61.0	63.0

자료 : 2013년 경제지표는 2013년 시정주요통계(광양시) 참고

주 :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고용률=(취업인구/15세이상인구)×100

< 표 II- 19 > 산업별 취업자 비율 전망

단위: 인, %

연도	취업자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종사자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2013	67,001	72	0.1	24,053	35.9	42,876	64.0
2015	78,200	782	1.0	28,152	36.0	49,266	63.0
2020	103,800	1,038	1.0	39,444	38.0	63,318	61.0
2025	125,900	2,518	2.0	50,360	40.0	73,022	58.0
2030	142,900	2,858	2.0	62,876	44.0	77,166	54.0

자료 : 2013년 산업별 종사자 및 구성비는 2014 광양시 통계연보 참고

주 : 콜린 클라크(Colin Grant Clark, 1905~1989)에 의한 산업분류에 의해 구분

■ 가구

- 장래 가구의 변화는 전라남도 평균가구원수 추계값을 기준으로 광양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망

< 표 II- 20 > 광양시 가구변화 전망

구분	인구(인)	가구수(호)	전라남도 평균가구원수 추계	광양시 평균가구원수 추계	비고
2013	151,621	57,707	2.34	2.6	
2015	153,587	59,789	2.30	2.6	
2020	200,000	80,000	2.16	2.5	
2025	240,000	100,000	2.05	2.4	
2030	270,000	117,391	1.96	2.3	

자료 : 2014 광양시 통계연보 및 광양시 내부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시도편(2010~2035)

2. 주요 도시지표

< 표 II- 21 > 주요 도시지표 설정

구 분		단위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인 구	계획인구	인	151,621	153,587	200,000	240,000	270,000
주 택	가구당인구	인	2.6	2.6	2.5	2.4	2.3
	총가구수	가구	57,707	59,789	80,000	100,000	117,391
	주택보급률	%	110	110	112	114	115
	총 주택수	호	63,462	65,768	89,600	114,000	135,000
상·하수도	급수보급률	%	94.3	95.0	96.0	97.0	98.0
	하수도보급률	%	92.1	92.5	93.0	95.0	97.0
환 경	진개수거율	%	100.0	100.0	100.0	100.0	100.0
	쓰레기 총 배출량	톤	144.7	150	190	230	260
교 육	계	개교	52	53	61	68	75
	초등학교	개교	30	29	32	35	38
	중학교	개교	12	14	16	18	20
	고등학교	개교	8	8	10	12	14
	전문대, 대학교	개교	2	2	3	3	3
의 료	종합병원	개소	1	1	2	2	2
체 육	종합운동장	개소	1	1	1	3	3
복 지	계	개소	4	4	8	10	12
	아동복지시설	개소	-	-	1	2	2
	노인복지시설(주거)	개소	2	2	3	4	5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2	2	4	4	5
교통·통신	자동차등록	대	68,805	70,000	91,000	109,000	123,000
	포장률	%	56.1	60	70	80	90
	우체국	개소	14	14	17	19	21
문 화	계	개소	13	13	19	24	27
	공연시설	개소	2	2	2	3	3
	전시시설	개소	-	-	1	2	2
	지역문화복지시설	개소	6	6	8	9	10
	문화보급전수시설	개소	2	2	3	4	5
	도서관	개소	3	3	4	5	6
	박물관	개소	-	-	1	1	1

제3장 공간구조 구상

1. 공간구조 진단

1.1 공간구조 변화

- 1970년에 최초의 광양읍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광양읍을 중심으로 단핵도시의 공간구조를 계획하였음
- 1982년도에 광양만 산업기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라 광양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광양제철소가 입지함에 따라 동광양 지역의 산업기능이 부여됨
- 1987년 동광양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따라 중마동 신도심이 형성되었으며 광양컨테이너부두의 입지의 기반을 마련함
- 이후,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시 출범에 따라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 광양읍의 원도심과 중마동의 신도심의 이원화된 도시구조가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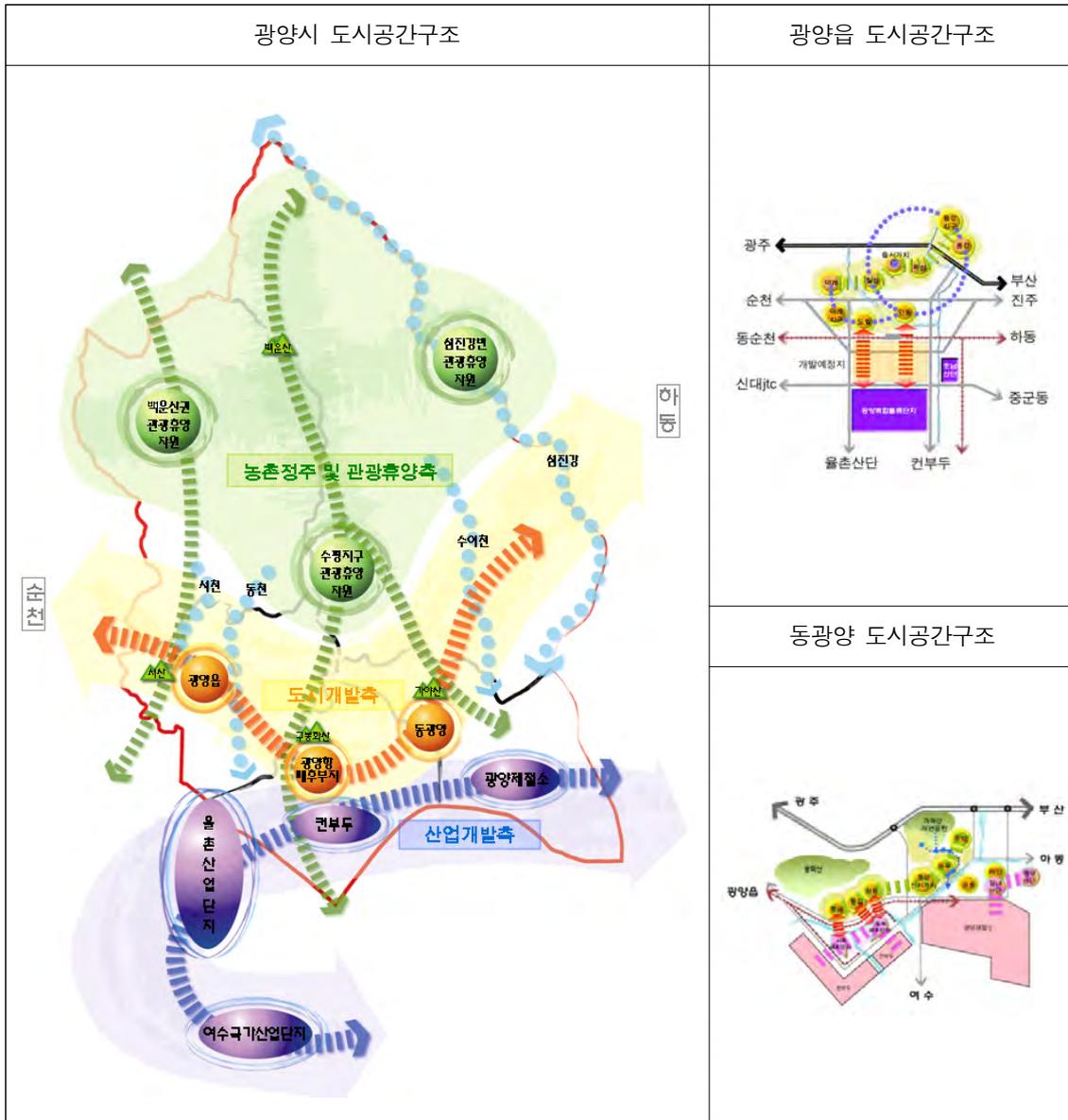
< 표 II - 22 > 광양시 도시구조의 변화

계 획		중심지 체계	내 용
1970년	광양읍 도시계획	광양읍중심의 단핵도시	읍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수립
1982년	광양만 산업기지개발계획	동광양지역 산업기능 부여	광양국가산업단지 지정 (광양제철소 입지)
1984년	광양읍 도시기본계획	1도심	
1987년	동광양도시기본계획 승인	신도심 형성	광양제철소 입지 및 광양컨테이너부두 입지
1991년	광양읍 도시기본계획 변경	1도심 시가지 확산	광양읍 도시기본계획 변경
1999년	통합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원도심, 신도심, 국제교역중심3심체계	1995년도 복합형태의 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시 출범
2008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광양읍, 동광양, 광양항배후부지 3심체계	경제자유구역, 광역교통체계 등 여건변화 반영

1.2 기정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 공간구조의 특성

- “광양읍” - “광양항 배후부지” - “중마”의 3심 중심체계를 연결하는 “U”자형 도시개발축
- 광양제철소, 울촌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C”자형 산업개발축
- 백운산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T”자형 농촌정주 및 관광휴양축
- 대내외적 여건변화(하포 국제 중심업무지역 확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3심 중심체계 유지, 광역적 산업개발축 형성



(그림 II - 6) 2025년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1.3 공간구조의 문제점

■ 도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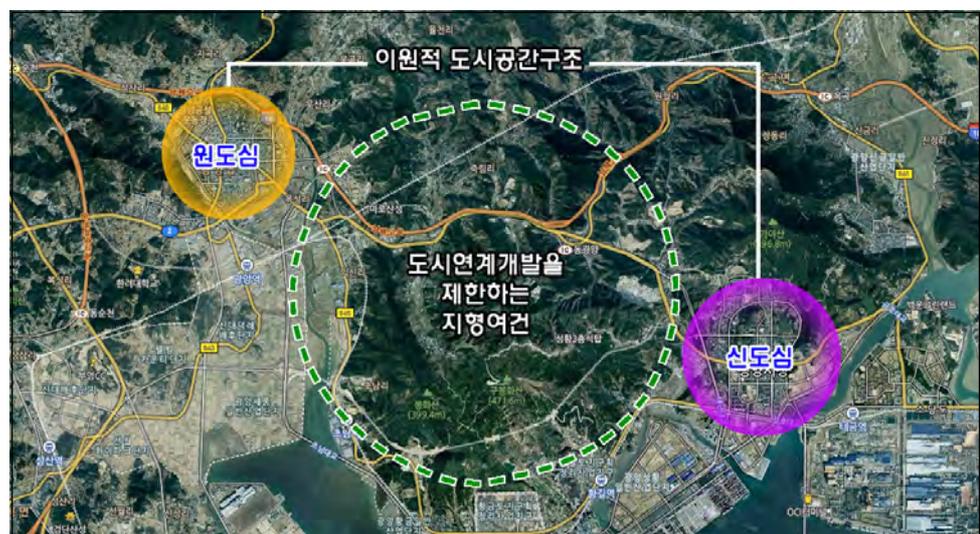
- 광양읍과 동광양의 이원적 도시구조가 통합시 이후에도 기본적인 도시의 구조로 유지되면서 원도심과 신도심 발생
- 원도심 쇠퇴의 가속화로 인해 도심기능 저하 및 사회적, 경제적 문제 발생
- 신도심 지역의 인구유입과 인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심간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도시재생사업, 광양읍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조기추진 등으로 도심기능 회복 필요

■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제한하는 지형여건

- 광양시는 지형여건상 북측의 백운산을 중심으로 험준한 산세로 인해 개발 가능지가 대부분 남측 해안을 따라 분포되어 있음
- 광양읍과 중마동의 도시축 상에 구봉산이 자리잡고 있고 광양항 배후부지를 중심으로 황금지구, 황길지구 등이 계획되어 있어 해안선을 따라 도시공간을 형성하고 있음

■ 도심의 자족성 결여

- 광양읍과 중마동의 이원적 도심 기능으로 인해 인접 도시에 비교하여 도시의 자족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음
- 다핵적 도시구조 및 도심간 이격거리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등의 통합적 설치가 어려우며, 중복 설치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 지역주민간 화합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함



(그림 II- 7) 도시공간구조의 문제점

1.4 대·내외 여건변화

■ 대외적 여건변화

- 광양~전주고속도로, 경전선 고속철도 등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인해 타지역에서 광양시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이 본격화 됨에 따라 구례, 하동 등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매화마을을 중심으로 동서통합지대의 주축 역할이 기대됨
-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광양시가 남중권 산업·물류의 중심기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감소시대 및 고령화시대 도래에 따라 압축형 도시공간구조(Compact-City) 도입 필요성 증가



(그림 II- 8)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개념도

■ 대내적 여건변화

- 이순신대교 건설로 인해 여수시와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여수시와의 연계성이 강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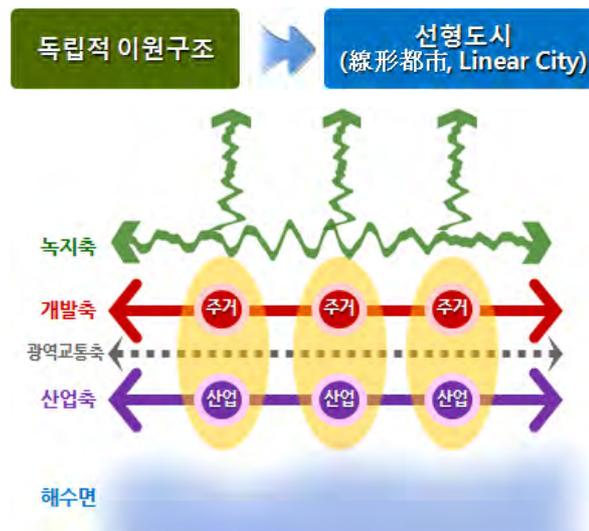
(그림 II- 9) 이순신대교

- 광역교통망 개선, 관광기능 확충 등으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광양시 내부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광양읍의 산업기능이 강화되고, 광양읍과 광양항 배후부지, 중마동을 잇는 도시축이 형성됨

2. 공간구조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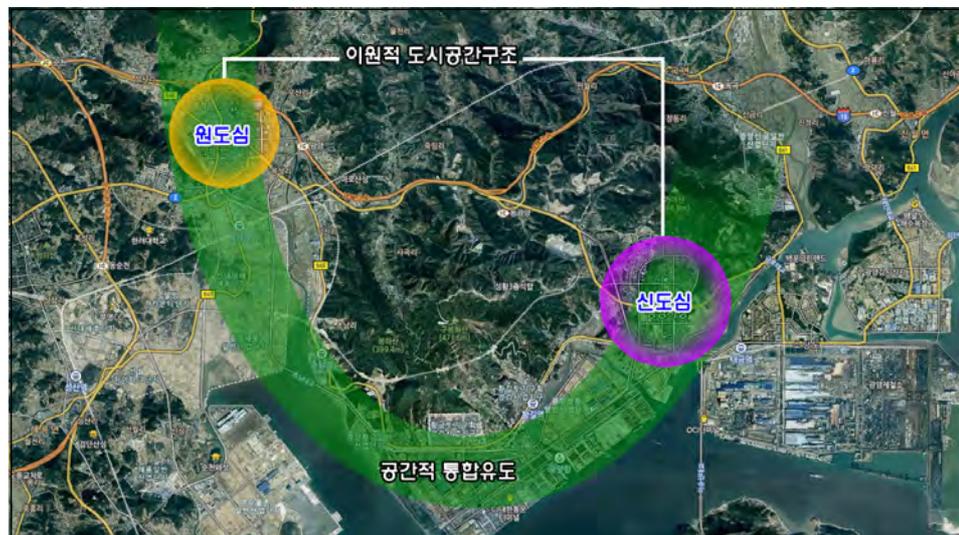
2.1 기본방향

- 산업도시의 이상적인 도시공간패턴인 선형도시 구조로 개편
 - 직장과 주거를 근접배치하여 교통거리 및 통근시간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도시 구조로 전환



(그림 II- 10) 선형도시 개념도

- 개발이 불리한 북측의 산악지형의 여건상 해안선을 따라 도시공간이 선형으로 발달되어 있어 자연순응형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함
- 해안선을 따라 도시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담개발하여 공간적 통합을 유도함



(그림 II- 11) 공간구조 개선 기본방향

1.2 도시공간구조 설정

가. 개발축 설정

■ 선형1축(광역도시발전축 및 자족거점도시성장축)

- “황금” ~ “광양” ~ “덕례”를 연결하고, 외부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신대” 지역을 연결하여 광역도시발전축 설정
- “황금” ~ “중마” ~ “광영” ~ “신금”을 연결하여 도시의 자족적 기능을 강화하는 자족거점도시성장축 설정

■ 선형2축(성장동력산업축)

- “광양제철” ~ “광양항/배후단지” ~ “세풍/울촌”을 연결하여 산업·물류기능을 강화하는 성장동력산업축 설정

■ 동서통합발전축

- 섬진강을 중심으로 “섬진강문화예술회랑지대”와 매화마을, 하동, 구례를 연계하여 영호남 문화거점으로 육성할 동서통합발전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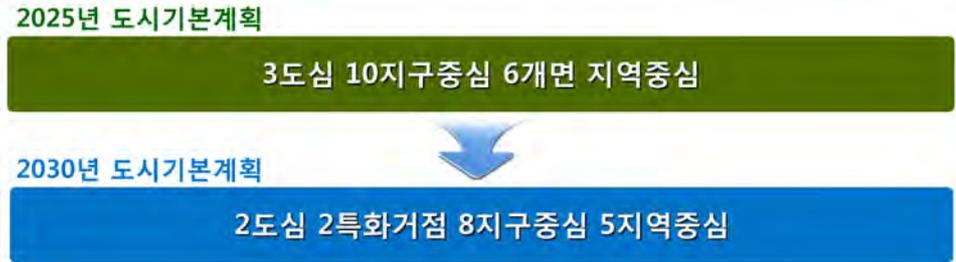
■ 보전축

- 백운산을 중심으로 자연환경보전축을 설정하고 시가지연접지역의 녹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가지연접녹지축 설정
- 섬진강을 중심으로 수환경 보호와 수변공간이용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섬진강수변축 설정



(그림 II- 12) 도시공간구조 구상도

나. 중심지체계 설정



(그림 II- 13) 중심지체계 개편방향

■ 2도심 : 광양(읍), 중마

○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도심의 자족성 증진 및 도시경쟁력 강화 도모

■ 2특화거점 : 광양항 배후거점(골약), 동서통합거점(다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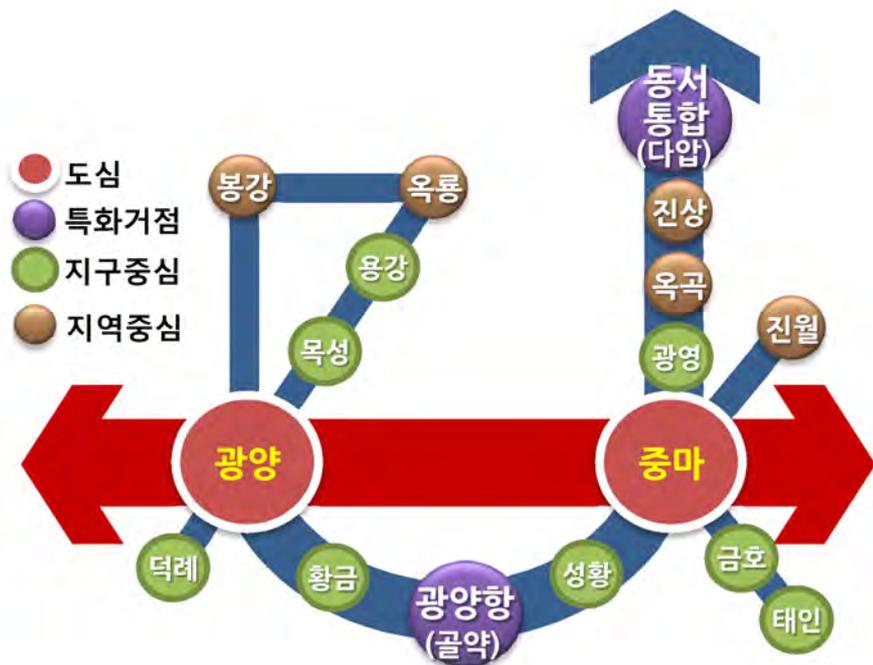
○ 광양항 배후거점(골약)을 중심으로 산업, 물류기능을 특화하고, 동서통합거점(다압)을 중심으로 동서화합과 신성장동력 육성

■ 8지구중심 : 덕례, 목성, 용강, 황금, 성황, 광영, 태인, 금호

○ 농촌지구 및 근린지구 중심의 지역별 거점으로 각 지구별 근린생활 거점으로 육성

■ 5지역중심 :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 면지역으로 농촌지역별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여 각 지역별 특화기능 부여



(그림 II- 14) 중심지체계 구상

1.3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적용방안

가. 성장한계선 설정 검토

■ 성장한계선 설정의 필요성

- 도시의 외연적 확산의 방지
 - 성장한계선 지정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Urban Sprawl) 방지
- 토지의 효율적 이용
 - 성장한계선 지정을 통해 고밀개발 유도, 미개발 시가화용지 우선 개발, 기반시설 집적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장기적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 감소
 - 도시확산에 따른 신규 기반시설 공급 억제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 감소

■ 성장한계선 설정시 관리방안

- 성장한계선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각 부분별 관리방안 제시

< 표 II- 23 > 성장한계선 설정시 관리방안

성장한계선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개발 시가화용지의 우선개발 추진 - 기존시가지의 정비 및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 시가화에정용지 물량의 계획적 개발 추진 -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입체적 관리
성장한계선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신규 편입 억제 - 신규 택지개발을 지양하여 시가지 외부 확산 방지 - 기존 시가화용지의 저밀도 개발 유도 -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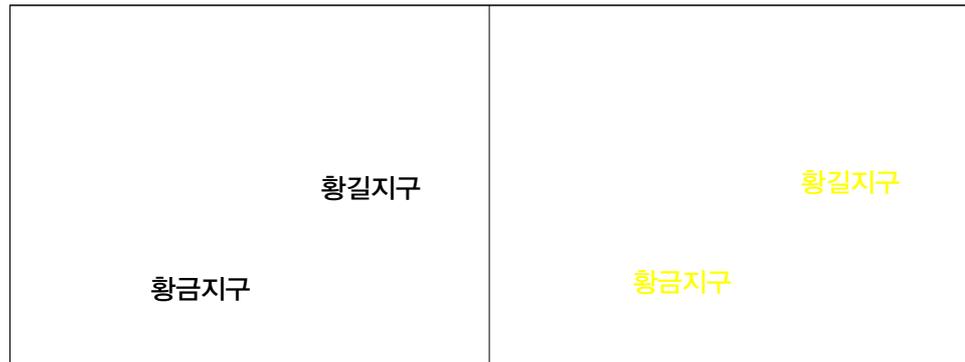
■ 광양시 여건에 따른 성장한계선 설정 방안

- 광양시 여건
 - 지속적인 산업수요 증가 및 인구 증가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수요 증가
 - 광양복합업무단지, 웰빙카운티단지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신규 시가화용지 필요
- 성장한계선 설정 방안
 - 지속적인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 현 시점에서 성장한계선 설정시 민간투자 감소, 기업유치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됨
 - 따라서, 향후 도시성장이 안정기에 접어들 경우 도시의 외연적 확산 방지를 위해 성장한계선을 설정함

나. 시가화용지 유희부지 우선 활용방안

■ 시가화용지 유희부지 우선개발

- 도시의 외연적 확산방지를 위해 시가화용지내 유희부지 우선 개발(황금지구, 황길지구 및 주변지역 등)



(그림 II- 15) 미개발시가화용지 현황

- 계획적 개발 유도
 - 대규모 유희부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적 개발로 난개발 방지
- 기반시설 준비를 통한 개발 유도
 - 도로, 상·하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 준비를 통해 유희부지 개발 유도

다. 대중교통과 집약된 거주지 연계방안

■ 정의

- 교통시스템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결절점에 고밀도 복합 토지이용을 구축하여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및 비동력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대중교통 지향형(TOD :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도시개발

■ 적용원칙

- 개선된 접근성과 환경성(Enhanced Accessibility and Environment)
 - 대중교통거점(터미널, 역 등)으로부터 보행거리 내 주거, 상업, 직장, 공원, 공공시설 설치
- 친 보행자적 공간배치(Pedestrian Friendliness)
 - 지구내에는 걸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보행친화적인 가로망 설치
- 개선된 정주환경 확보(Improved Suburban Living)
 - 질의 자연환경과 공지 보존, 대중교통 중심의 지역 재개발 촉진
- 공공안전, 치안의 개선(Public Safety)
 - 고밀도 집적 개발로 인한 안정성 있는 도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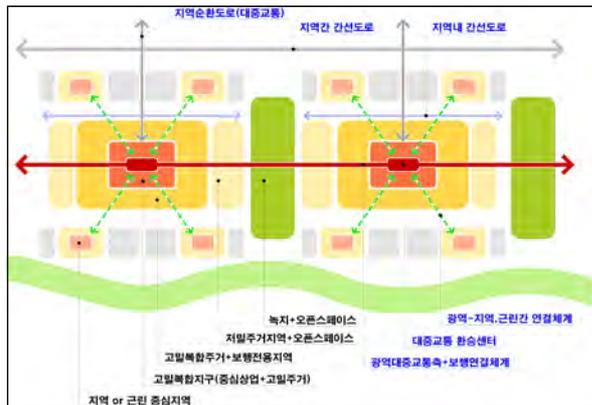
■ 세부 실천방안

○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

- 대중교통지원 시설 확보
- 비대중교통 시설의 제한
- 환승센터 주변 복합시설 입주(고밀 상업 및 주거)
- 대중교통거점주변 지원시설 배치(보행자, 자전거, 버스 및 환승이용자등을 고려한 계획)

○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강화

- 대중교통환승 효율화
 - 주요 대중교통 결절점에서 대중교통간 환승 강화(환승센터 및 환승정류장 등 환승시설 개선)
- 연계수단과의 환승 효율화
 - 자전거, 보행과 대중교통간의 환승 강화(자전거 이용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그림 II- 16) 압축형 도시공간구조상 대중교통체계 개념도

○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 기존 보행로의 정비
 - 보도의 연속성 유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편리한 이동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 보행시설 추가 확보
 - 보행자 전용공간 확대, 안전시설 및 보행 편의시설 확보, 여유있는 보도폭 확보

○ 통합적인 자전거체계 구축

- 자전거 교통활성화 및 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 쾌적성, 안정성 확보
- 대중교통수단과의 긴밀한 연계를 위한 시설 개선

■ 교통수요관리(TDM) 강화

○ 교통 및 주차 특성별로 지역을 구분

- 경우에 따라 최소한의 주차면수만 확보

○ 제도적 규제를 통한 승용차이용 감축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승용차 부제운행 확대, 혼잡통행료 부과 등

3.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3.1 기본방향

- 생활권은 균등한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생활편의시설의 이용 권역으로써 지형·지세, 도로 등에 따른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을 최대한 감안하고 기 형성된 생활권을 고려하여 구분
- 생활권별로 독립된 기능을 부여하여 특성있게 개발하고 장래 도시개발 방향에 따른 토지이용, 교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인구를 배분
- 불필요한 교통발생을 최소화하고 각 시설간 체계를 형성하여 생활권별 계층 구조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
- 생활권 계층은 초등학교 및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소생활권, 중·고등학교와 지구중심 상업 중심지로 한 중생활권, 부도심 및 도심상업을 중심으로 대생활권으로 구분
- 각 생활권은 인구규모와 면적, 도시공간적 위치,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장래 개발전략을 수립

3.2 생활권 설정기준

■ 대생활권

- 도시의 중심기능으로 행정·상업·금융·정보·문화 등의 입지가 가능한 범위로 설정하며 인구규모는 25만인 내외
- 도시생활공간의 실질적 범위로 시청·대학교·연구기관·종합병원·박물관 등의 도시공공시설과 광역편의시설을 구비한 지역범위로 설정
- 도시를 하나의 공간적 통일체 또는 하나의 동일 통합체로서 종합적으로 계획·제어 가능한 지역범위

■ 중생활권

- 도시생활편의시설과 중·고등학교 통학군의 지역중심으로서 인구규모는 5~10만인의 권역
- 지역순환교통과 같은 간편한 대중교통의 일상적 이용범위로 2~3개의 토지용도가 공존하는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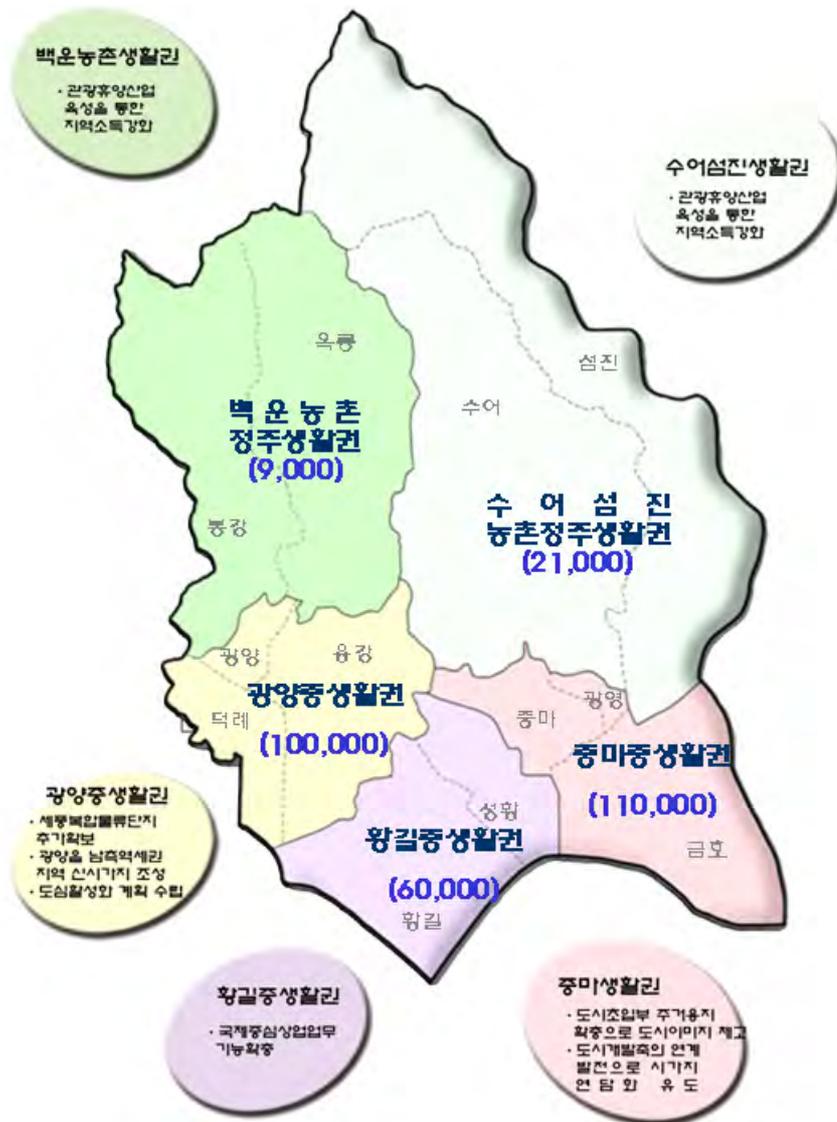
■ 소생활권

- 상업시설·기초의료시설·학군 등 하위 근린생활권의 통합으로 인구규모는 2~3만인 내외이며 소생활권 2~3개가 중생활권을 형성
- C. A. Perry의 근린생활권 형태로서 공간영역으로는 인구 2~3만인 규모의 행정동 단위로 구성

3.3 생활권 계획

가.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계획 검토

- 1995년 도·농복합도시로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됨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생활권이 통합되었음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은 근린생활권 개념에 입각한 정주단위별로 위계화시키고, 농촌지역은 기초수요이론 및 정주생활권 개념에 입각하여 생활권을 설정하였음
- 광양시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광양중생활권, 중마중생활권, 황길중생활권, 수어·섬진농촌정주중생활권, 백운농촌정주중생활권의 5개 중생활권으로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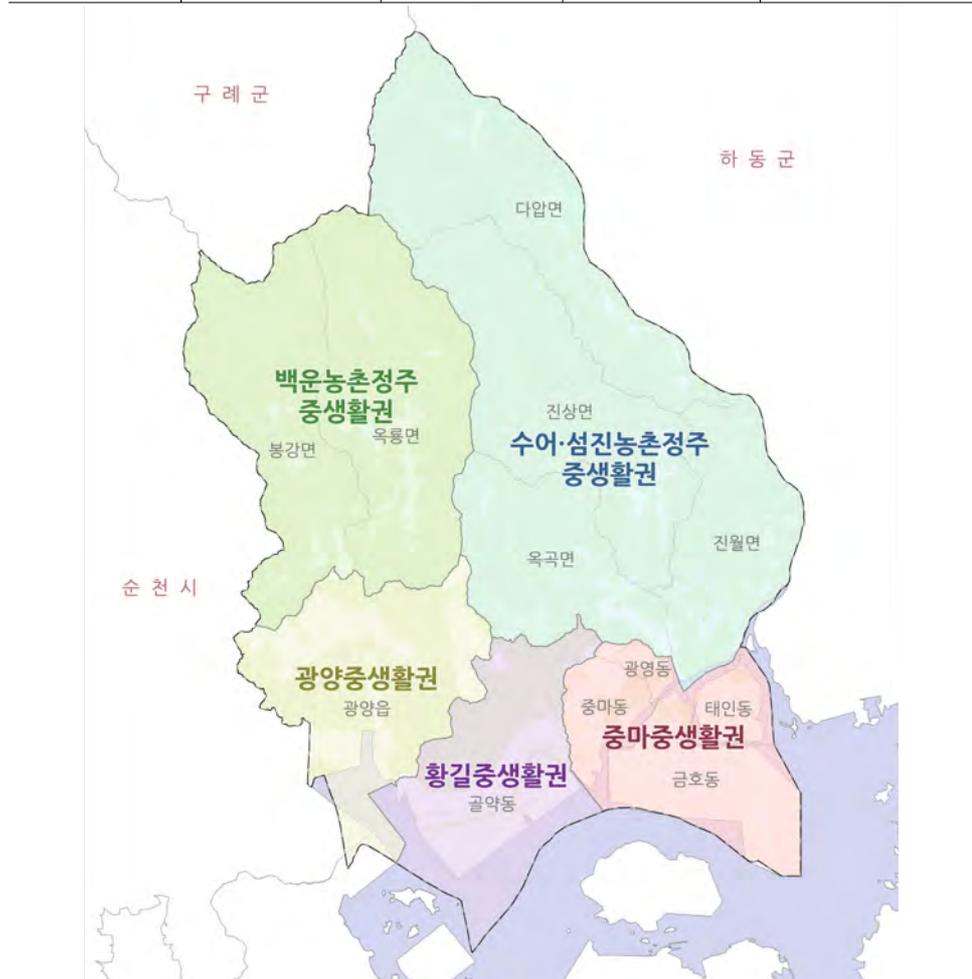
(그림 II- 17)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계획

나. 생활권 계획

- 지정 도시기본계획상 계획된 생활권을 반영하여 공간구조 개편방향(2도심 2특화거점 8지구중심 5지역중심)과 부합되는 생활권 설정
- 생활권체계는 자연적 입지조건과 도시 및 농촌지역의 독자적 기능을 고려하고, 광양시민의 생활패턴을 반영하여 5개 중생활권으로 계획

< 표 II - 24 > 생활권 구분

구 분	중생활권	범위	인구(인)	면적(km ²)
광양대생활권	광양중생활권	광양읍	48,081	54.821
	중마중생활권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태인동	83,139	40.511
	황길중생활권	골약동	2,607	36.278
	수어·섬진 농촌정주중생활권	옥곡면, 진월면, 진상면, 다압면	12,298	206.573
	백운 농촌정주중생활권	옥룡면, 봉강면	5,496	121.878



주 : 인구 및 면적은 2013년말 기준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다. 생활권별 발전방향

- 인구의 증가추이, 기존 토지이용의 실태, 도시개발수요, 도시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개발방향 설정
- 각 생활권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여 균형 있는 도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계획
- 개발의 범위와 단계를 고려하여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균형있게 배치시키고, 효율적인 이용으로 도시생활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

< 표 II - 25 > 생활권별 발전방향

생활권	개발목표	전략
광양 중생활권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기능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기능 및 지역중심 상업기능 강화 · 지역주민 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 산·학·연의 연계체계를 통한 산업효과 극대화
중마 중생활권	행정·업무·상업의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업무기능 강화로 지역경제의 중심지 · 행정기능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도모 ·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인접시군과의 연계 발전
항길 중생활권	남중 해안권 경제·산업·물류의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배후 주거·상업기능 강화 ·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건립으로 국제 중심상업·물류기능 확충
수어·섬진 농촌정주 중생활권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통합지대의 핵심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휴양산업 육성 등 동서통합지대 핵심기능 수행 · 지역특산물 육성을 통한 농어촌소득 증대 · 배후지원기능 수행을 위한 산업기능 연계
백운 농촌정주 중생활권	수려한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생태도시 기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수요 중심의 선택적 개발을 통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 · 백운산 및 백운유원지 중심의 관광·휴양산업 육성으로 소득 강화 · 역사자원의 보전·개발을 통한 지역 역사·문화 역량 고취

< 표 II- 26 > 광양중생활권 개발목표 및 전략

생활권	개발목표	전략
광양 중생활권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기능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기능 및 지역중심 상업기능 강화 · 지역주민 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 산·학·연의 연계체계를 통한 산업효과 극대화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 표 II- 27 > 중마중생활권 개발목표 및 전략

생활권	개발목표	전략
중마 중생활권	행정·업무·상업의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업무기능 강화로 지역경제의 중심지 · 행정기능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도모 ·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인접시군과의 연계 발전



< 표 II - 28 > 황길중생활권 개발목표 및 전략

생활권	개발목표	전략
황길중생활권	남중 해안권 경제·산업·물류의 중심지	· 항만배후 주거·상업기능 강화 ·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건립으로 국제 중심상업·물 류기능 확충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 표 II- 29 > 수어·섬진농촌정주중생활권 개발목표 및 전략

생활권	개발목표	전략
수어·섬진 농촌정주 중생활권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통합지대의 핵심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휴양산업 육성 등 동서통합지대 핵심기능 수행 · 지역특산물 육성을 통한 농어촌소득 증대 · 배후지원기능 수행을 위한 산업기능 연계



< 표 II - 30 > 백운농촌정주중생활권 개발목표 및 전략

생활권	개발목표	전략
백운 농촌정주 중생활권	수려한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생태도시 기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수요 중심의 선택적 개발을 통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 · 백운산 및 백운유원지 중심의 관광·휴양산업 육성으로 소득 강화 · 역사자원의 보전·개발을 통한 지역 역사·문화 역량 고취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3.4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가.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 지정 생활권계획을 유지함에 따라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도 큰 틀에서 지정계획을 유지하되 중생활권을 기준으로 설정
- 기본계획상 경직적 계획인구 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형성된 중생활권 중심의 인구배분계획 수립
- 광양중생활권 및 중마중생활권에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도시기본계획(2025년)의 인구에 증가예상되는 인구를 반영하여 목표연도(2030년) 생활권별 인구 배분

< 표 II - 31 >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구분	행정구역	현재인구 (2013년)	계획인구 (2025 기본계획)	계획인구 (2030 기본계획)	당초계획 대비증감
합계		151,621	300,000	270,000	감) 30,000
광양 중생활권	광양읍	48,081	100,000	100,000	-
중마 중생활권	중마, 광영, 금호, 태인동	83,139	110,000	105,000	감) 5,000
항길 중생활권	골약동	2,607	60,000	45,000	감) 15,000
수어·섬진 농촌정주 중생활권	옥곡, 진월, 진상, 다압면	12,298	21,000	14,000	감) 7,000
백운 농촌정주 중생활권	옥룡, 봉강면	5,496	9,000	6,000	감) 3,000



(그림 II- 18)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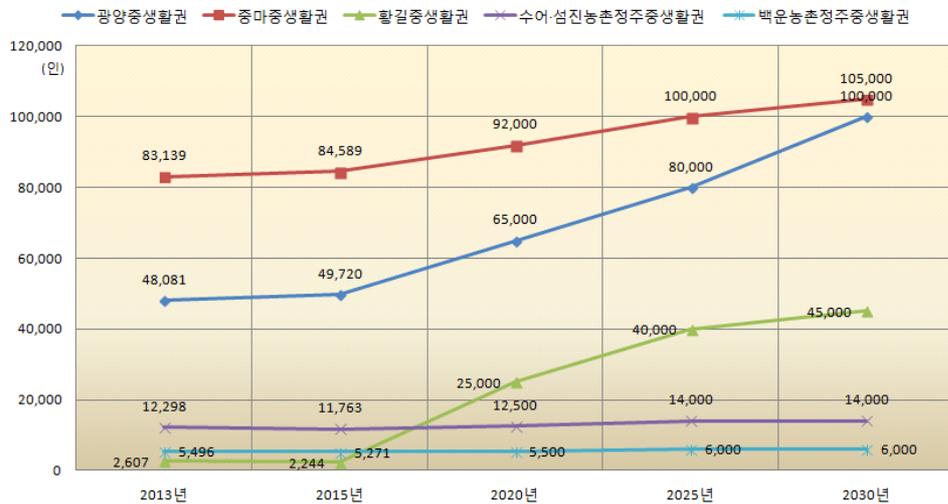
나. 단계별 생활권 인구배분계획

○ 자연적증가인구와 사회적증가인구 추정을 통한 각 단계별 계획인구를 바탕으로 단계별 생활권 인구를 배분

< 표 II- 32 > 단계별 생활권 인구배분계획

(단위 : 명)

구분	현재인구 (2013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총계	151,621	153,587	200,000	240,000	270,000
광양중생활권	48,081	49,720	65,000	80,000	100,000
중마중생활권	83,139	84,589	92,000	100,000	105,000
황길중생활권	2,607	2,244	25,000	40,000	45,000
수어·섬진농촌정주중생활권	12,298	11,763	12,500	14,000	14,000
백운농촌정주중생활권	5,496	5,271	5,500	6,000	6,000



(그림 II- 19) 단계별 생활권 인구계획 추이

제1장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 현황 및 문제점

1.1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2013년 광양시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임야 65.5%, 답 10.8%, 공장 4.7%, 전 4.1%, 대지 2.7%로 분석됨
- 2002년과 비교 결과, 임야 및 농경지가 감소하고 대지, 공장용지, 도로 등의 면적 및 비율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개발로 공장용지는 7,977km² 증가하였으며, 그 밖에 도로 3,203km², 대지 2,103km² 순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표III- 1 > 광양시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km² %

구 분	합 계	대 지	공장용지	농 경 지		임 야	하 천	도 로	기 타	
				전	답					
2002 년	면 적	446.689	10.379	13.759	19.593	52.781	303.535	12.676	13.816	20.150
	구성비	100.0	2.3	3.1	4.4	11.8	68.0	2.8	3.1	4.5
2013 년	면 적	460.061	12.482	21.736	18.930	49.599	300.959	12.635	17.019	26.701
	구성비	100.0	2.7	4.7	4.1	10.8	65.5	2.7	3.7	5.8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2003년 통계자료 오류로 2002년 자료와 비교

주 : 해면부 면적 제외

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 2013년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35.5%, 비도시지역 64.5%이며, 주거지역은 3.5%, 공업지역 9.7%이며, 농림지역은 44.8%를 차지함

< 표III- 2 > 광양시 용도지역 현황

구분	총합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소계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미지정
면적 (km ²)	497.647	176.885	17.339	2.293	48.241	84.036	24.976	320.762	90.305	222.669	3.535	4.253
비율 (%)	100.0	35.5 (100.0)	3.5 (9.8)	0.4 (1.3)	9.7 (27.3)	16.9 (47.5)	5.0 (14.1)	64.5 (100.0)	18.1 (28.2)	44.8 (69.4)	0.7 (1.1)	0.9 (1.3)

자료 : 광양시 도시과 내부자료(2013. 6)

1.2 토지이용의 문제점

■ 토지이용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지역간 격차 발생

- 중마 지역의 신도심은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편의 시설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주거환경, 교통환경, 교육환경 등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며 원도심의 활력 저하 발생

■ 원도심 공동화 현상

- 이원화된 도시공간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주거지역이 많은 광양읍 원도심이 도심기능을 상실함
- 낙후된 원도심의 인구정체, 생활환경 열악 등으로 공동화 현상 발생
- 도심으로서 특성 부족으로 토지활용에 대한 방안 부재

■ 원도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고려 미흡

- 광양읍 원도심은 근대도시공간으로서 역사성과 장소성이 높은 지역이나,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과도한 개발 추진
- 문화재 및 근대 건축물의 주변지역은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지 못하고 충분히 관리되지 못하여 해당 콘텐츠의 역사성 및 장소성 상실

■ 비효율적 토지이용 발생

- 개괄적인 토지이용의 전략이 부재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움
- 도심 내 충분한 개발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시외곽의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시가지 내의 상대적 침체로 인한 지역 쇠퇴의 원인이 됨

■ 도시주변 환경 및 녹지공간의 훼손

- 용도지역상 허용용도가 광범위하여 보전지역의 훼손을 초래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 전략의 부재로 훼손이 더욱 심화됨
- 훼손된 보전지역에 대한 복구 방안 및 장기적인 관리방안이 부재한 실정임

■ 철도 및 하천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단절 발생

- 철도와 하천으로 인한 지역간 단절 지역 발생으로 상호 연결성 결여 및 교통환경이 악화됨

■ 토지이용계획이 도시정책으로서 기능 미흡

- 도시기본계획 운영의 경직성으로 인해 도시정책과 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이 미흡함

1.3 여건변화

■ 토지이용 패러다임의 변화

- 토지이용전략이 결과지향적인 규제 중심에서 유도 중심으로 변화되며, 외곽 지역 개발이 아닌 도시성장관리로 변화

■ 고령화 사회의 도래 및 1~2인 가구의 증가

- 향후 인구추이는 65세 노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와 유년인구의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자 및 사회적 역자를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등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모델 구상 및 안전한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또한,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평형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며,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의 변화로 인해 임대주택 건립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도심의 생활환경에 대한 질적 개선 요구 증대

- 원도심의 점진적 쇠퇴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발전의 우려와 지역간 대립 및 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도심에 대한 정비 필요성 증대
-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마을만들기 등 지역 중심의 도시관리방안이 대두되고, 도시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 중심의 도시재생방안이 필요

■ 도시내 역사적 가치의 재조명

- 지역의 역사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근대문화유산의 중요성이 부각
-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의 고유 가치 창출이 불가피

1.4 개발가능지 분석

가. 개발가능지 분석의 전제

- 도시성장관리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그 다음에 보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 보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기개발지역과 아직 시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발지역으로 구분하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기개발지역을 우선 활용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은 보전용지로 지정
- 개발밀도 증가를 통한 도시개발수요의 추가적 수용이 기개발지역에서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수요에 비해 기개발지역의 추가적 수용여력이 부족하고 재개발·재정비에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개발지역을 차선 활용
- 즉, 기개발지역은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재정비를 통해, 미개발지역은 도시용 토지로 전환하는 신개발을 통해 도시개발 수요를 흡수

나. 개발가능지 분석 과정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2015)」에 따라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하여 분석
- 개발가능지 분석은 표고, 경사도, 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 생태자연도, 공원지정, 보전산지, 비행안전구역, 항만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GIS중첩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가능지 면적을 추출
- 지침의 개정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불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에 대한 검증 및 보완
- 시가화지역을 기개발지로 분류하고 자연환경, 규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가능지와 개발불능지의 면적을 추출
- 개발가능지의 분석과정
 - 1단계 : 기개발지역, 용도지역, 표고, 경사도, 식생, 임상도, 토지적성평가결과 등 개별 주제도 작성
 - 2단계 : GIS의 중첩기능을 이용하여 개발가능성에 대한 분석
 - 3단계 : 개발 잠재력에 따라 기개발·개발가능·개발억제·개발불능지로 구분

다. 개발가능지 분석

■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 개발가능지 분석은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개발가능지로 구분하며,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음

< 표III- 3 >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기개발지	· 시가화지역, 취락지구, 기타주요사업지역
개발억제지	· 보전·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비행안전구역, 향만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토지적성평가 '다' 등급
개발불가능지	· 경사도 25도이상(개발행위허가 임계치 적용) 지역, 토지적성평가 '가' 등급 및 '나' 등급(경사도 25도이상 지역에 한함)
개발가능지	·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 제외 지역, 토지적성평가 '라' 등급 및 '마' 등급

■ 개발가능지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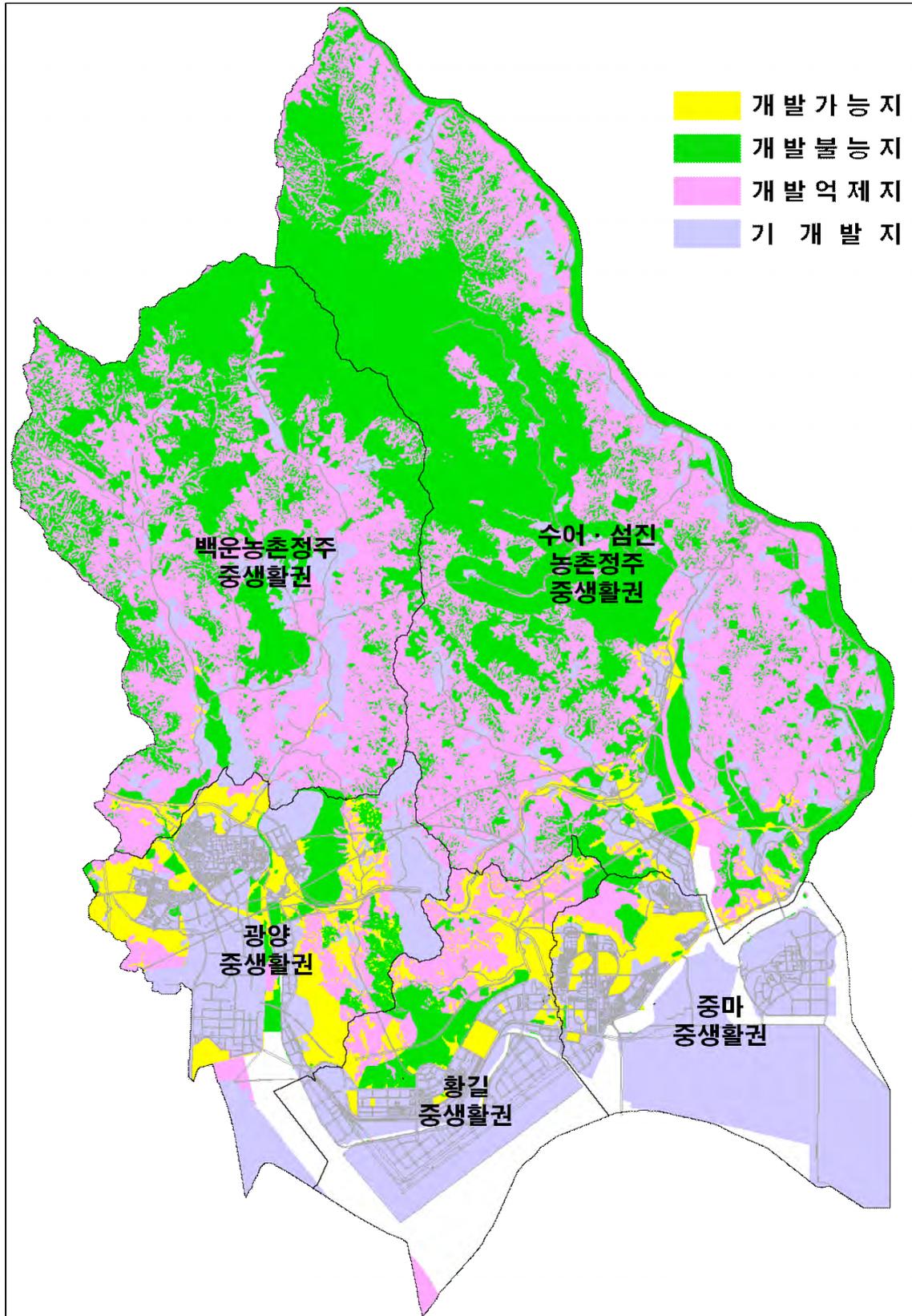
- 개발가능지 분석 결과, 기개발지는 109.846km²이며, 개발불가능지 210.290 km², 개발억제지 108.690km², 개발가능지 39.592km²로 분석되었음
- 개발가능지의 생활권별 현황은 광양중생활권과, 황길중생활권의 개발가능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마중생활권은 기개발지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개발가능지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수어·섬진농촌정주중생활권과 백운농촌정주중생활권은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불가능지의 비율이 높고 개발가능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표III- 4 > 개발가능지 분석 결과

단위 : km²

구분	합계	기개발지	개발불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
합계	468.418 (100.0)	109.846 (23.5)	210.290 (44.9)	108.690 (23.2)	39.592 (8.5)
광양중생활권	56.179 (100.0)	27.757 (49.4)	6.844 (12.2)	4.979 (8.9)	16.599 (29.5)
중마중생활권	44.899 (100.0)	38.229 (85.1)	0.924 (2.1)	1.178 (2.6)	4.568 (10.2)
황길중생활권	41.848 (100.0)	20.446 (48.9)	5.042 (12.0)	6.057 (14.5)	10.303 (24.6)
수어·섬진농촌 정주중생활권	204.257 (100.0)	14.678 (7.2)	125.260 (61.3)	57.404 (28.1)	6.915 (3.4)
백운농촌정주 중생활권	121.235 (100.0)	8.736 (7.2)	72.220 (59.6)	39.072 (32.2)	1.207 (1.0)

주 :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을 제외한 면적임



(그림Ⅲ- 1) 개발가능지 분석도

2. 기본방향 및 계획목표

2.1 기본방향

- 2025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보완
 - 장래 도시발전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발가능지는 토지이용의 관리방향을 여건변화에 맞게 재설정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환경 개선계획과 연계시켜 입체적 토지이용 확대 실시
 - 양호한 도시환경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서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기의 원활한 흐름 확보를 통해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삭막한 도시공간에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자연친화형 도시공간으로 개선
 - 역사·문화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곳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도시경쟁력 제고
- 현행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는 세부용도와 구체적인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목표년도의 도시지표 달성에 필요한 토지수요량은 생활권별·단계별 총량을 통해 운영 관리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의 운영 방안 변경
 - 도시관리계획, 사업계획 등을 통해 시가화예정용지의 세부용도와 구체적 위치를 정하도록 함

2.2 계획목표

-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계획목표를 새롭게 수립하여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장래의 새로운 변화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 도시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도시미래상 실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토지수요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토지수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토지수요관리정책의 강화
 - 도시내부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토지재활용 등 토지절약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권 공간구조의 에너지효율성 제고
 - 개발축 및 보전축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친환경적 도시개발 유도

2.3 계획이슈 및 추진전략

- 토지이용계획의 최근 이슈는 광역단위의 도시관리, 성장도시 토지이용 수요관리, 저탄소형 토지이용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과제 및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표III- 5 > 계획이슈 및 추진전략

이슈	계획과제	추진전략
광역단위 도시관리	·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토지이용체계 및 방향 제시	· 도시권 중심도시 주변지역에 거점중심지를 분산 육성
성장도시 토지이용 수요관리	·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 균형 정비 · 신개발 토지수요관리정책 강화	· 토지수요 및 개발방향을 고려한 시가지 확충(개발유도지역 선정) · 토지수요의 타당성분석 및 공급조정을 위한 관리수단마련 · 신개발 억제 및 기개발지의 재활용
저탄소형 토지이용	· 토지이용/교통/환경의 통합적 도시성장관리정책 구현 · 고밀도 집적 개발 · 직주근접의 혼합토지이용 · TOD 도시개발	· 용도지역·지구제의 관리 강화 · 도시개발사업에 직주근접 실천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3. 용도별 토지소요면적 산정

3.1 주거용지

가. 수요추정의 전제

-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계획인구와 세대당 인구로 산정된 계획가구수에 의하여 산정하되 인구밀도, 가구당면적, 공공용지율 등을 감안하여 추정
- 주거용지의 소요면적 산정은 「주택보급률과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과 「주거지별 인구밀도 배분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하고 그 결과값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소요면적으로 추정함
- 주거밀도에 대한 적용기준은 기존 2025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을 반영하여 고밀 200인/ha, 중밀 140인/ha, 저밀 70인/ha로 계획함
- 주택배분은 2013년 현재 주택 현황(2014 광양통계연보)을 참고하고, 아파트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아파트 65%, 다세대·연립 5%, 단독 30%로 적용함

2.3 계획이슈 및 추진전략

- 토지이용계획의 최근 이슈는 광역단위의 도시관리, 성장도시 토지이용 수요관리, 저탄소형 토지이용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과제 및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표III- 5 > 계획이슈 및 추진전략

이슈	계획과제	추진전략
광역단위 도시관리	·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토지이용체계 및 방향 제시	· 도시권 중심도시 주변지역에 거점중심지를 분산 육성
성장도시 토지이용 수요관리	·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 균형 정비 · 신개발 토지수요관리정책 강화	· 토지수요 및 개발방향을 고려한 시가지 확충(개발유도지역 선정) · 토지수요의 타당성분석 및 수급조정을 위한 관리수단마련 · 신개발 억제 및 기개발지의 재활용
저탄소형 토지이용	· 토지이용/교통/환경의 통합적 도시성장관리정책 구현 · 고밀도 집적 개발 · 직주근접의 혼합토지이용 · TOD 도시개발	· 용도지역·지구제의 관리 강화 · 도시개발사업에 직주근접 실천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3. 용도별 토지소요면적 산정

3.1 주거용지

가. 수요추정의 전제

-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계획인구와 세대당 인구로 산정된 계획가구수에 의하여 산정하되 인구밀도, 가구당면적, 공공용지율 등을 감안하여 추정
- 주거용지의 소요면적 산정은 「주택보급률과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과 「주거지별 인구밀도 배분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하고 그 결과값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소요면적으로 추정함
- 주거밀도에 대한 적용기준은 기존 2025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을 반영하여 고밀 200인/ha, 중밀 140인/ha, 저밀 70인/ha로 계획함
- 주택배분은 2013년 현재 주택 현황(2014 광양통계연보)을 참고하고, 아파트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아파트 65%, 다세대·연립 5%, 단독 30%로 적용함

< 표III- 6 > 주거용지 산정기준

구분		2025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2025 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기본계획
밀도 적용비율 (%)	고밀도	30	30	30
	중밀도	50	40	40
	저밀도	20	30	30
인구밀도 적용 (인/ha)	고밀도	200	200	200
	중밀도	140	140	140
	저밀도	70	70	70
가구당 면적 (㎡)	아파트	80 (60%)	90	90
	연립주택		110	110
	단독주택	250 (40%)	240	240
세대당 가구원수(인/가구)		3.0	2.5	2.3
주택보급률(%)		-	110	115

나.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

■ 주택보급률과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 주택유형별 호당 주택면적 산정을 통해 주거용지의 소요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상위계획 및 주택선호 추세를 반영하여 산정

$$\text{주거용지 소요면적} = \frac{\text{1호당 주택면적} \times \text{유형별 주택호수}}{\text{용적률} \times (1 - \text{공공용지율}) \times (1 - \text{혼합률})}$$

< 표III- 7 > 주택보급률과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 소요면적

구분	주택배분	수용주택수 (천호)	호당면적 (㎡)	용적률 (%)	공공용지율 (%)	혼합률 (%)	면적(k㎡)
계	100%	135					21.032
아파트	65%	88	90	250	30	10	5.014
다세대·연립	5%	7	110	200	30	10	0.589
단독	30%	41	240	100	30	10	15.429

주1) 주택배분은 2013년 현재 주택 현황을 참고하여 적용(「2014 광양통계연보」, 광양시)

주2) 수용주택수는 2.3인/가구를 적용하여 목표연도(2030년) 인구수 270천인을 기준으로 산정

주3) 용적률은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하여 아파트 - 제2종일반주거지역, 다세대연립 - 제1종일반주거지역, 단독 -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로 산정

주4) 공공용지율 및 혼합률은 2025광양도시기본계획상 수치 참고

■ 주거지별 인구밀도 배분에 의한 방법

- 밀도 유형별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지용지의 소요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장래 녹지공간의 확충 및 저밀도 개발에 대한 수요 증대 등을 반영하여 소요면적 산출
- 국가정책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의 용적률, 건폐율 등이 점차 낮아져 인구밀도 대비 주거면적의 확대 불가피

$$\text{주거용지 소요면적} = \frac{\text{주거용지 수용인구} \times \text{밀도별 배분율}}{\text{인구밀도}} / (1 - \text{혼합률})$$

< 표III- 8 > 주거지별 인구밀도 배분에 의한 주거 소요면적

구분	인구밀도(인/ha)	비율	인구(인)	수용인구(인)	혼합율	면적(km ²)
계			270,000	243,000		23.336
저밀	70	30%	81,000	72,900	10%	11.571
중밀	140	40%	108,000	97,200	10%	7.714
고밀	200	30%	81,000	72,900	10%	4.050

주) 타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수용인구 90%, 혼합율 10% 적용

라.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 총괄

-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기성시가지내 미개발지 및 저개발지를 최대한 고려하고 밀도상향(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하여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족하며 신규 주거용지의 개발물량은 최소화하여 과잉공급을 억제하도록 거주밀도, 주택호수, 1인당 부지면적에 의해 산정된 주거용지 소요면적의 최소값을 소요면적으로 적용
- 「주택보급률과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된 21.032km²과 「주거지별 인구밀도 배분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된 23.336km²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21.032km²로 산정함

< 표III- 9 >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 결과

구분	목표년도	인구(인)	소요면적(km ²)	비고
주택보급률과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2030년	270,000	21.032	◎
주거지별 인구밀도 배분에 의한 방법			23.336	

3.2 상업용지

가. 수요추정의 전제

- 상업용지의 소요면적 산정은 상업용지 이용인구, 1인당 이용면적, 평균층수, 건폐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함
- 적용기준은 2025년 광양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단위를 근거로 상업용지 이용인구 비율 80%, 1인당 이용면적 25m², 평균층수 3층, 건폐율 70%, 공공용지율 30%, 혼합율 15%로 계획함

나. 상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text{상업용지 소요면적} = \frac{\text{상업지역내 시설이용 인구} \times \text{1인당 이용면적}}{\text{평균층수} \times \text{건폐율} \times (1 - \text{공공용지율}) \times (1 - \text{혼합율})}$$

< 표 III- 10 > 상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인구(인)	이용인구(인)	1인당 이용면적(m ²)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용지율	혼합률	소요면적(km ²)
270,000	216,000	25	3	70%	30%	15%	4.322

3.3 공업용지

가. 수요추정의 전제

- 공업용지의 소요면적 산정은 공업지역종사자수, 1인당 부지면적, 공업용지율, 공공공지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함
- 적용기준은 2025년 광양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업용지율 80%, 공공용지율 30%로 계획하며, 부지면적 원단위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보완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 방안 연구(2015. 7, 국토연구원)」 중 전라남도 종사자 1인당 원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광양시 제조업 상위 5개업종의 평균인 430.4m²를 적용함

< 표 III- 11 > 1인당 부지면적 원단위 추정

구분	제조업 상위 5개 업종(종사자수 기준)					평균
	화학물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	조립금속	기타기계 및 장비	
1인당 부지면적 원단위(m ² /인)	537.0	918.0	197.7	344.3	154.9	430.4

나.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text{공업용지 소요면적} = \frac{\text{공업지역종사자수} \times \text{1인당 부지면적}}{\text{공업용지율} \times (1 - \text{공공용지율})}$$

< 표III- 12 >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구분	2013년 2차종사자 (인)	2030년 2차종사자 (인)	부지면적 원단위 (㎡/인)	공업 용지율	공공 용지율	면적(km ²)
총계	14,048	65,637	430.4	80%	30%	50.447

주1) 2013년 현재 2차 종사자수는 「2014 광양통계연보」(2015, 광양시) 참고
 주2) 2030년 2차종사자수는 2030년 계획인구(270천인)를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 85.0%(생잔법 추계결과 및 증가율 고려, 2030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65.0%(2013년 전남 63.6%를 기준으로 광양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및 광양시 2차산업 종사자 비율 44.0%(2013년 34.9%를 기준으로 2차산업종사자의 증가를 고려하여 추정)를 적용

3.4 용도별 토지 소요면적 종합

- 주거, 상업, 공업용지의 소요면적 산정 결과는 총 75.801km²이며, 주거 21.032km², 상업 4.322km², 공업 50.447km²로 추계되었음
-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소요면적은 2025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하여 4.592km² 증가하였으며, 2025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대비 4.731km²가 증가하였음
- 또한, 2013년 현재 용도지역과 비교한 결과, 약 7.928km²의 차이가 발생함

< 표III- 13 > 용도별 토지 소요면적 합계

(단위 : km²)

구분		계	주거	상업	공업	비고
2030년 도시기본계획	면적(A)	75.801	21.032	4.322	50.447	
	증감	-	-	-	-	
2025년 도시기본계획	면적(B)	71.209	20.049	3.646	47.514	시가화용지 (관리용지 제외) 및 시가화예정용지
	증감(A-B)	4.592	0.983	0.676	2.933	
2025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면적(C)	71.07	21.45	3.2	46.42	도시용지 및 도시화예정용지
	증감(A-C)	4.731	-0.418	1.122	4.027	
2013년 현재 용도지역	면적(D)	67.873	17.338	2.293	48.242	-
	증감(A-D)	7.928	3.694	2.029	2.205	

4. 토지이용계획

4.1 시가화용지

가. 기본방향

-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도시관리계획상 시가화지역을 시가화 용지로 반영
- 대상지역은 1)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3) 도시공원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4) 계획관리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관리용지로 계획)임

나. 시가화용지계획

■ 주거용지계획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성장 추구하고 기존도시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적 입지를 통한 주거용지를 배분함
- 도심, 부도심 및 지역중심 등의 주변은 고밀주거지로 계획하고,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용지 공급의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을 도모

■ 상업용지계획

- 기 배분된 상업용지와 신규로 개발되는 지역의 복합화를 통해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배분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통한 적정 규모를 분배

■ 공업용지계획

- 기존 노후산단의 재정비를 유도하고 추가 공업용지 수요는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수요에 맞게 공급함

■ 시가화용지 변경내역

-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는 71.269km²이며, 공업용지가 47.514km²로 전체 시가화용지의 66.7%를 차지함
- 주거용지는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불일치 지역의 현실화,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 개발계획을 반영하고, 태인동 궁기마을 일원 공업용지 변경계획을 반영하여 0.070km² 감소하였음
- 공업용지는 명당3지구, 황금산단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태인동 궁기마을 일원 공업용지 변경계획을 반영하여 1.355km²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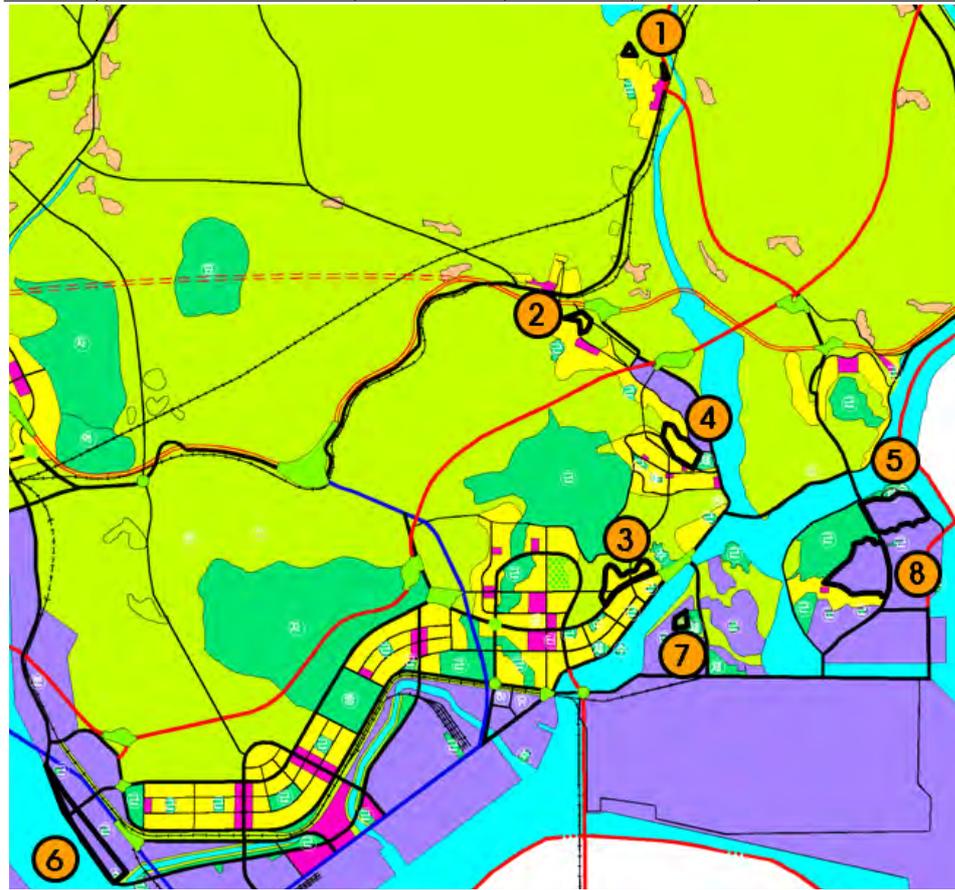
< 표Ⅲ- 14 > 시가화용지 변경내역

구분	당초(2025)	증감	변경(2030)	구성비(%)
소계	71.269	증) 1.417	72.686	100.0
주거용지	16.850	감) 0.070	16.780	23.1
상업용지	2.829	감) 0.057	2.772	3.8
공업용지	47.514	증) 1.355	48.869	67.2
관리용지	4.076	증) 0.189	4.265	5.9

주) 관리용지는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정지(느랭이골 0.189km) 반영

< 표Ⅲ- 15 > 시가화용지 세부 변경내역

구분	위치	면적(km ²)	당초	변경	비고
1	진상면 섬거리 일원	0.016	보전	주거	관리계획 반영
2	옥곡면 신금리 일원	0.055	보전	주거	관리계획 반영
3	와우지구	0.209	보전	주거	개발사업 반영
4	광영·의암지구	0.212	보전	주거	개발사업 반영
5	명당3지구	0.472	보전	공업	산업단지 반영
6	황금산단	0.367	보전	공업	산업단지 반영
7	광양제철소 체육공원	0.103	공업	보전	공원계획 반영
8	태인동 궁기마을 일원	0.562	주거	공업	공업용지 확보
		0.057	상업	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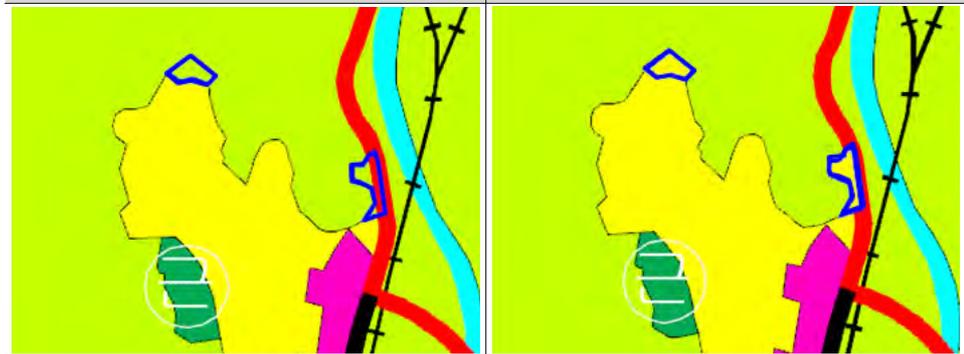


구분	위치	면적(km ²)	당초	변경	비고
1	진상면 섬거리 일원	0.016	보전	주거	관리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현황도



기정	변경
----	----



구분	위치	면적(km ²)	당초	변경	비고
2	옥곡면 신금리 일원	0.055	보전	주거	관리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현황도



기정	변경
----	----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구분	위치	면적(km ²)	당초	변경	비고
3	와우지구	0.209	보전	주거	개발사업 반영

도시관리계획현황도



기정

변경



※ 2025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 계획된 지역임(0.443km)

구분	위치	면적(km ²)	당초	변경	비고
4	광영·의암지구	0.212	보전	주거	개발사업 반영

도시관리계획현황도



기정

변경



※ 2025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 계획된 지역임(0.359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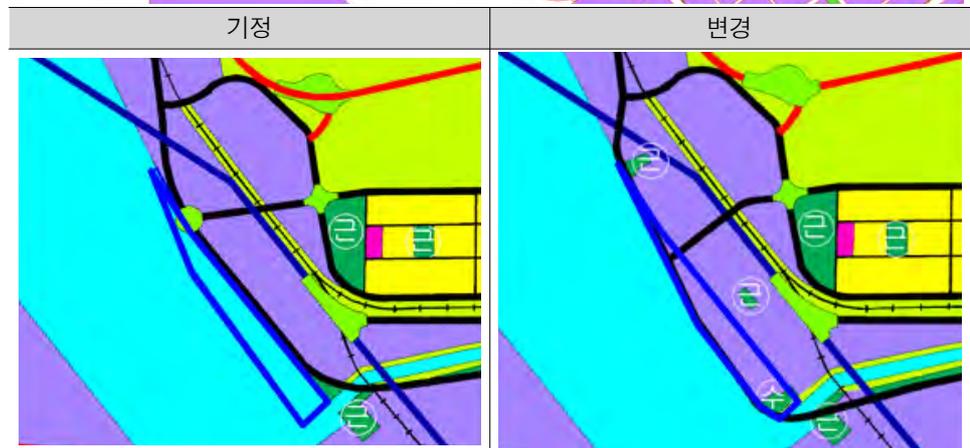
구분	위치	면적(km ²)	당초	변경	비고
5	명당3지구	0.472	보전	공업	산업단지 반영

산업단지 개발계획도



구분	위치	면적(km ²)	당초	변경	비고
6	황금산단	0.367	보전	공업	산업단지 반영

도시관리계획현황도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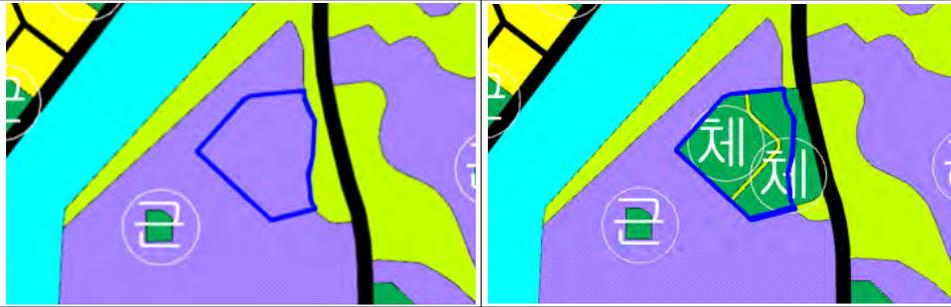
구분	위치	면적(km ²)	당초	변경	비고
7	광양제철소 체육공원	0.103	공업	보전	공원계획 반영

산업단지 개발계획도



기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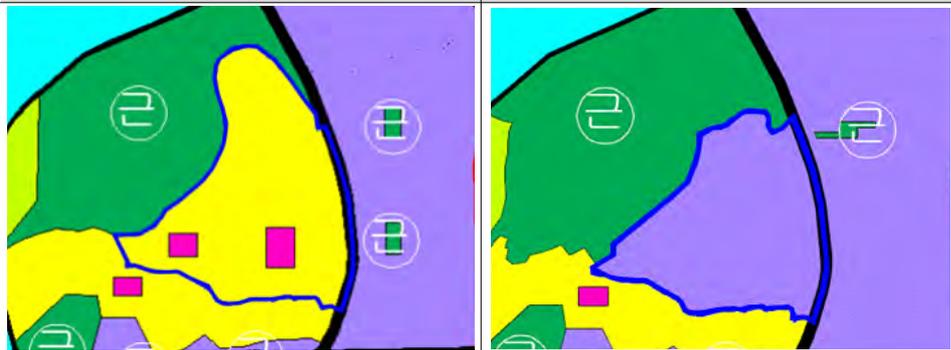
구분	위치	면적(km ²)	당초	변경	비고
8	태인동 궁기마을 일원	0.562	주거	공업	공업용지 확보
		0.057	상업	공업	

도시관리계획현황도



기정

변경



4.2 시가화예정용지

가. 기본방향

- 시가화예정용지는 장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구체적 위치는 표기하지 않음
- 시가화예정용지의 실제 개발은 목표년도 및 단계별 총량을 토지수요량 범위 내에서 지정하며,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별 총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 시가화예정용지는 향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위의 도면표시 없이 단계별 공급면적 제시
- 공간구조에 의한 개발축을 고려하여 교통비용과 기반시설 비용, 사회·환경적 비용 등의 유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순서로 단계별 개발을 유도하되, 개발수요가 있을 시 도시공간구조의 원칙하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

나.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시가화 예정용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개발수요와 연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시 탄력적으로 공급
- 2030년 토지소요면적을 기준으로 현재 용도지역 현황과 시가화용지계획 변경사항을 제외하고 2030년까지 필요한 면적을 추정한 결과, 총 7.138km²가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음(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물량 제외)

< 표III- 16 >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추정

구분	합계(km ²)	용도별 배분면적(km ²)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2030년 토지소요면적(A)	75.801	21.032	4.322	50.447
용도지역 현황(B) (2013년기준)	67.873	17.338	2.293	48.242
시가화용지계획 변경사항(C) ¹⁾	0.790	-0.141	-0.057	0.988
2030년 신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추정(A-B-C)	7.138	3.835	2.086	1.217

주1) 시가화용지계획 :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 광양제철소 체육공원, 태인동 궁기마을 일원
(진상면 섬거리 일원, 옥곡면 신금리 일원, 황금산단은 용도지역 현황(2013년기준)에 기반영되어 제외)

- 시가화예정용지계획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를 통한 압축도시 실현을 위해 토지소요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면적 7.138km² 중 4.421km²만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함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물량은 당초 2025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기이 용된 면적 0.189km²(느랭이골 개발사업)를 제외하고 11.350km²를 계획함

< 표III- 17 > 시가화에정용지 변경내역

구분	당초(2025)	증감	변경(2030)	구성비(%)
합계	15.555	증) 0.216	15.771	100.0
주거기능	3.199	감) 0.836	2.363	15.0
상업기능	0.817	증) 0.905	1.722	10.9
공업기능	-	증) 0.336	0.336	2.1
지구단위계획구역 (비도시지역)	11.539	감) 0.189	11.350	72.0

- 생활권별 시가화에정용지는 광양중생활권 4.040km², 중마중생활권 0.381km²로 계획하며, 단계별 배분계획은 다음과 같음

< 표III- 18 > 시가화에정용지 생활권별 단계별 배분계획

단위 : km²

구분	합계	광양중생활권		중마중생활권		수어·섬진농촌정주중생활권		백운농촌정주중생활권	
		광양중생활권	중마중생활권	황길중생활권	수어·섬진농촌정주중생활권	백운농촌정주중생활권	백운농촌정주중생활권		
합계	소계	15.771	4.040	0.381	-	-	-	-	
	주거	2.363	1.982	0.381	-	-	-	-	
	상업	1.722	1.722	-	-	-	-	-	
	공업	0.336	0.336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비도시지역)	11.350	11.350						
2단계 (2016~ 2020년)	소계	7.876	3.117	0.234	-	-	-	-	
	주거	1.621	1.387	0.234	-	-	-	-	
	상업	1.394	1.394	-	-	-	-	-	
	공업	0.336	0.336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비도시지역)	4.525	4.525						
3단계 (2021~ 2025년)	소계	4.649	0.646	0.103	-	-	-	-	
	주거	0.519	0.416	0.103	-	-	-	-	
	상업	0.23	0.23	-	-	-	-	-	
	공업	-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비도시지역)	3.900	3.900						
4단계 (2026~ 2030년)	소계	3.246	0.277	0.044	-	-	-	-	
	주거	0.223	0.179	0.044	-	-	-	-	
	상업	0.098	0.098	-	-	-	-	-	
	공업	-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비도시지역)	2.925	2.925						

주)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물량은 생활권별 배분없이 계획인구를 고려하여 단계별 배분계획만 수립함

4.3 토지이용계획 총괄

- 2025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조정결과 지정 토지이용계획의 시가화 용지는 총 1.417km²가 증가하여 전체 계획구역 면적 중 14.6%의 구성비로 계획
- 시가화예정용지는 2025년 15.555km²보다 0.216km²가 증가된 15.771km²로 전체 계획구역 면적의 3.2%에 해당
-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보전용지 면적은 409.190km²로 전체 계획구역 면적의 82.2%를 차지함

< 표III- 19 > 토지이용계획 총괄

단위 : km²

구분	당초 (2025)	증감	변경 (2030)	구성비 (%)	
총계	497.647	-	497.647	100.0	
시가화 용지	소계	71.269	증) 1.417	72.686	14.6
	주거용지	16.850	감) 0.070	16.780	3.4
	상업용지	2.829	감) 0.057	2.772	0.6
	공업용지	47.514	증) 1.355	48.869	9.8
	관리용지	4.076	증) 0.189	4.265	0.8
시가화 예정용지	소계	15.555	증) 0.216	15.771	3.2
	주거용지	3.199	감) 0.836	2.363	0.5
	상업용지	0.817	증) 0.905	1.722	0.3
	공업용지	-	증) 0.336	0.336	0.1
	지구단위계획구역 (비도시지역)	11.539	감) 0.189	11.350	2.3
보전용지	410.823	감) 1.633	409.190	82.2	

5.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4.1 섬진강 및 4대계곡 주변 현황

가. 섬진강 주변 현황

- 위치 : 다압면 및 진월면 일원
- 토지이용현황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 주요현황 : 매화마을 조성과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으로 개발 수요 증가

나. 4대 계곡 주변 현황

- 위치 : 성불계곡(봉강면), 동곡계곡(옥룡면), 어치계곡(진상면), 금천계곡(다압면)
- 토지이용현황
 - 성불계곡 :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 동곡계곡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 어치계곡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 금천계곡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 주요현황
 - 4대 계곡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설치를 위한 개발가용 토지 확보 필요

4.2 섬진강 및 4대계곡 주변 성장관리방안

가. 도시기본계획

-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섬진강 및 4대 계곡 주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부문별 계획에 반영함
-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섬진강 및 4대 계곡 주변 활성화 및 관리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차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개발억제구역 및 개발가능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나. 도시관리계획

-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차후 사업목적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리지역 내 3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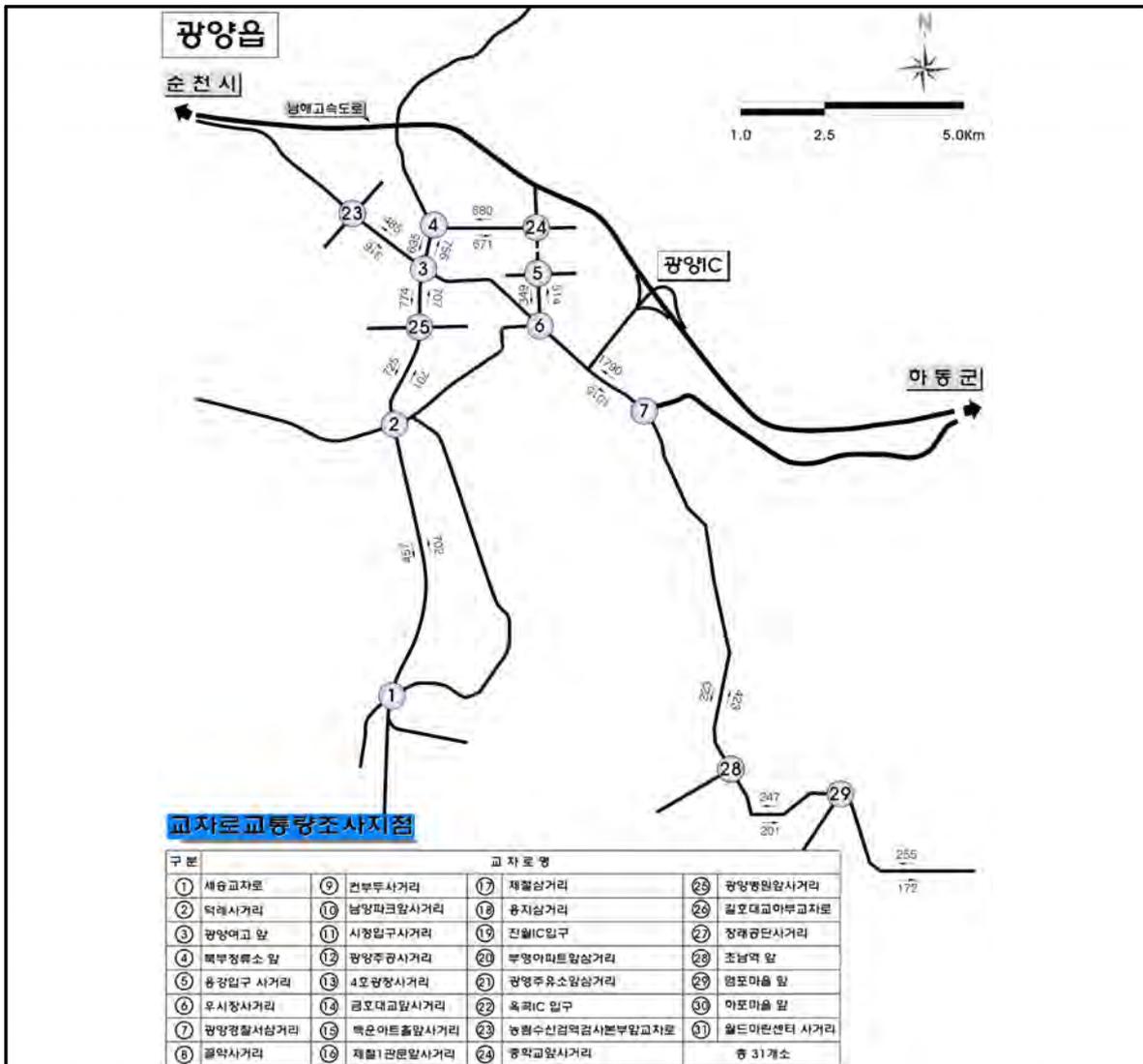
제2장 기반시설

1. 교통기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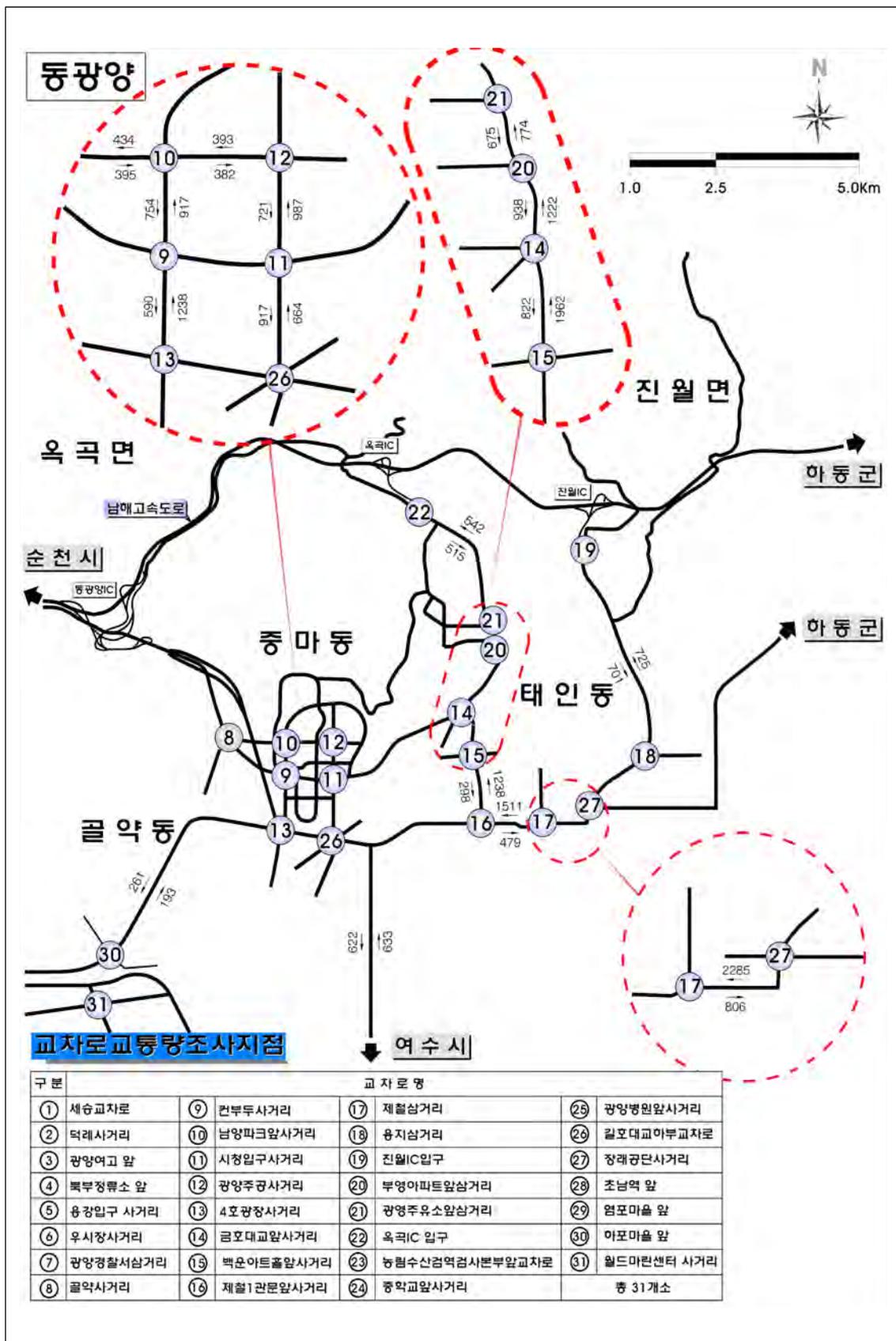
1.1 교통현황

① 가로구간

○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금호대교앞사거리 → 시청입구사거리의 평균통행속도는 16.4km/h, 서비스수준 “F” 로 가장 큰 지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 교차로는 가로구간은 20.7~54.5km/h, 서비스수준 “B”~“E”로 다소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III- 3) 가로 교통량도(광양읍)



(그림 III- 4) 가로 교통량도(중마동)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 표III- 20 > 주요 가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2013년)

가로명	구간	거리 (km)	도로 유형	평균 통행속도 (km/h)	LOS
국도 2호선	② 덕례사거리 → ⑥ 우시장사거리	1.63	II	37.9	C
	⑥ 우시장사거리 → ② 덕례사거리	1.63	II	44.3	C
	⑥ 우시장입구사거리 → ⑦ 광양경찰서삼거리	1.2	II	52.8	B
	⑦ 광양경찰서삼거리 → ⑥ 우시장입구사거리	1.2	II	27.4	D
	⑦ 광양경찰서삼거리 → ⑧ 골약사거리	8.6	II	54.8	B
	⑧ 골약사거리 → ⑦ 광양경찰서삼거리	8.6	II	47.7	B
	⑧ 골약사거리 → ⑨ 컨부두사거리	0.98	II	30.6	D
	⑨ 컨부두사거리 → ⑧ 골약사거리	0.98	II	41.8	C
	⑨ 컨부두사거리 → ⑪ 시청입구사거리	0.56	II	25.8	D
	⑪ 시청입구사거리 → ⑨ 컨부두사거리	0.56	II	20.7	E
	⑪ 시청입구사거리 → ⑭ 금호대교앞사거리	2.56	II	42.9	C
	⑭ 금호대교앞사거리 → ⑪ 시청입구사거리	2.56	II	16.4	F
	⑭ 금호대교앞사거리 → ⑮ 백운아트홀앞사거리	0.92	II	33.2	C
	⑮ 백운아트홀앞사거리 → ⑭ 금호대교앞사거리	0.92	II	23.4	E
	⑮ 백운아트홀앞사거리 → ⑯ 제철1관문앞사거리	0.43	II	21.2	E
	⑯ 제철1관문앞사거리 → ⑮ 백운아트홀앞사거리	0.43	II	23.7	E
	⑯ 제철1관문앞사거리 → ⑰ 제철삼거리	1.14	II	52.5	B
	⑰ 제철삼거리 → ⑯ 제철1관문앞사거리	1.14	II	20.9	E
	⑰ 제철삼거리 → ⑳ 장내공단사거리	1.12	II	35.5	C
	⑳ 장내공단사거리 → ⑰ 제철삼거리	1.12	II	21.4	E
⑳ 장내공단사거리 → ㉑ 용지삼거리	1.28	II	49.5	B	
㉑ 용지삼거리 → ⑳ 장내공단사거리	1.28	II	35.0	C	
㉑ 용지삼거리 → ㉒ 진월IC입구	3.8	II	54.5	B	
㉒ 진월IC입구 → ㉑ 용지삼거리	3.8	II	29.2	D	

< 표계속 >

가로명	구간	거리 (km)	도로 유형	평균 통행속도 (km/h)	LOS
지방도 861 호선	⑭ 금호대교앞사거리 → ⑳ 부영아파트앞삼거리	1.56	Ⅱ	53.0	B
	⑳ 부영아파트앞삼거리 → ⑭ 금호대교앞사거리	1.56	Ⅱ	37.9	C
	⑳ 부영아파트앞삼거리 → ㉑ 광영주유소앞사거리	0.23	Ⅱ	34.2	C
	㉑ 광영주유소앞사거리 → ⑳ 부영아파트앞삼거리	0.23	Ⅱ	34.9	C
	㉑ 광영주유소앞사거리 → ㉒ 옥곡IC입구	2.57	Ⅱ	53.4	B
	㉒ 옥곡IC입구 → ㉑ 광영주유소앞사거리	2.57	Ⅱ	54.0	B
지방도 863 호선	① 세송교차로 → ② 덕례사거리	2.46	Ⅱ	30.4	D
	② 덕례사거리 → ① 세송교차로	2.46	Ⅱ	43.7	C
지방도 865 호선	② 덕례사거리 → ㉕ 광양병원앞사거리	0.92	Ⅱ	42.7	C
	㉕ 광양병원앞사거리 → ② 덕례사거리	0.92	Ⅱ	26.1	D
	㉕ 광양병원앞사거리 → ③ 광양여고앞사거리	0.54	Ⅱ	32.7	D
	③ 광양여고앞사거리 → ㉕ 광양병원앞사거리	0.54	Ⅱ	34.9	C
	③ 광양여고앞사거리 → ④ 북부정류소앞사거리	0.32	Ⅱ	24.0	E
	④ 북부정류소앞사거리 → ③ 광양여고앞사거리	0.32	Ⅱ	25.0	E
	⑦ 광양경찰서삼거리 → ㉘ 초남역 앞	4.30	Ⅱ	55.4	B
	㉘ 초남역 앞 → ⑦ 광양경찰서삼거리	4.30	Ⅱ	46.0	B
	㉘ 초남역 앞 → ㉙ 염포마을 앞	1.70	Ⅱ	55.4	B
	㉙ 염포마을 앞 → ㉘ 초남역 앞	1.70	Ⅱ	55.4	B
	㉙ 염포마을 앞 → ⑩ 하포마을 앞	4.30	Ⅱ	54.5	B
	⑩ 하포마을 앞 → ㉙ 염포마을 앞	4.30	Ⅱ	55.4	B
	⑩ 하포마을 앞 → ⑬ 골약사거리	4.70	Ⅱ	49.8	B
	⑬ 골약사거리 → ⑩ 하포마을 앞	4.70	Ⅱ	54.6	B
-	이순신대교 → 묘도대교	8.30	Ⅰ	62.1	B
	묘도대교 → 이순신대교	8.30	Ⅰ	62.1	B

○ 2차로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수준 “B”~“C”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

< 표Ⅲ- 21 > 2차로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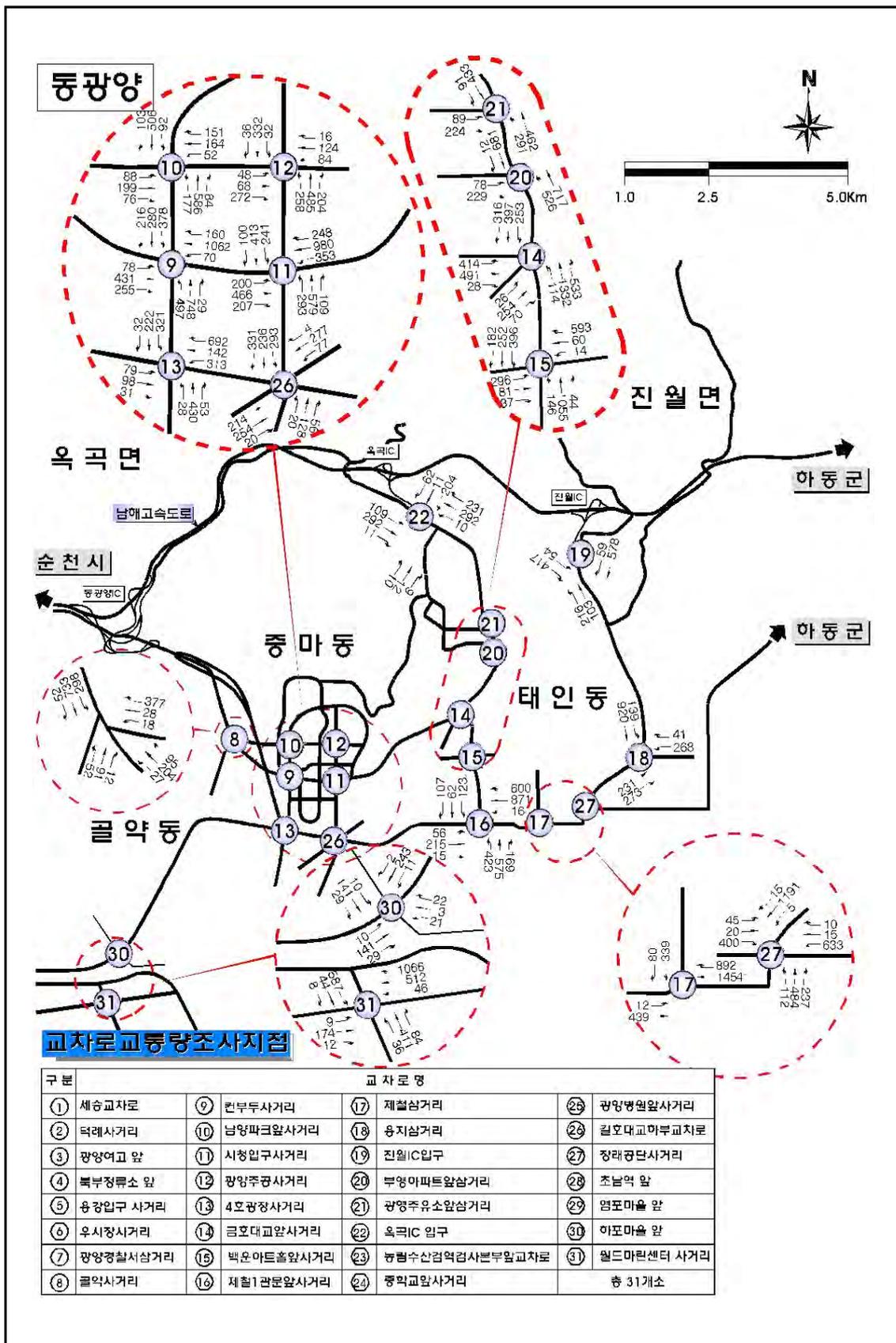
가로명(2차로)	구간	총지체율(%)	LOS
지방도865호선	④ 북부정류소앞 → 봉강면	23.6	C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㉒ 옥곡IC입구 → 하동	14.3	B
국도2호선	⑩ 진월IC입구 → 하동	14.2	B

2 교차로 서비스수준

○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백운아트홀앞사거리의 평균제어지체가 124.9 초/대, 서비스수준 “F” 로 가장 큰 지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 교차로는 지체도가 6.0~98.6, 서비스수준 “A”~“E”로 다소 양호한 것으로 분석



(그림 III- 5) 교차로 교통량도(광양읍)



(그림 III- 6) 교차로 교통량도(중마동)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 표III- 22 >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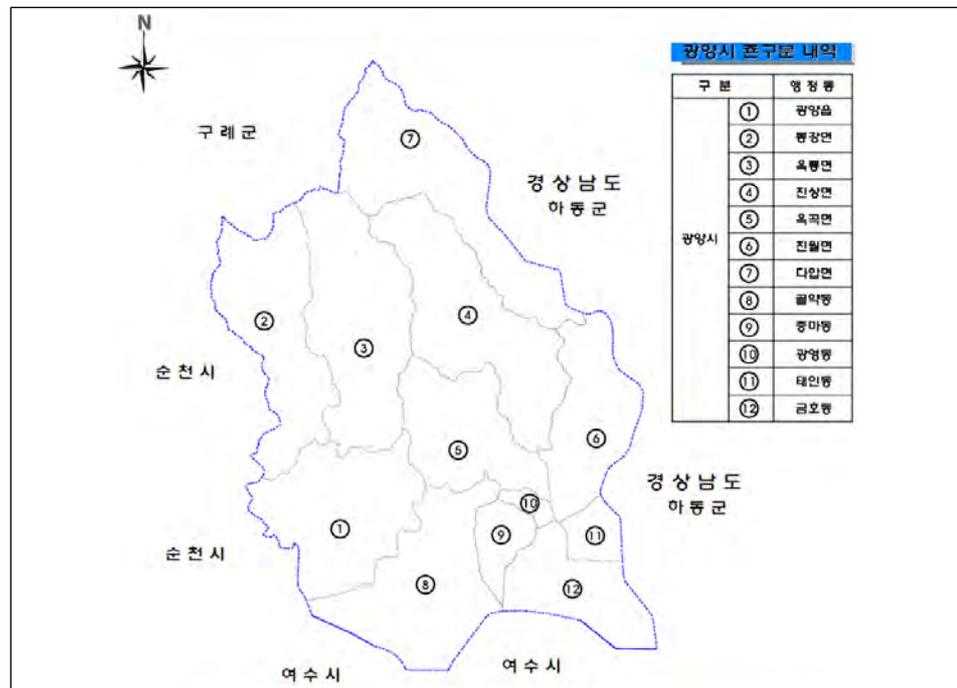
교차로명	교통량 (pcu/h)	제어지체 (초/대)	LOS	비고
① 세송교차로(상충횡수)	1,039	10.8	B	비신호
② 덕례사거리	5,034	56.4	D	4지
③ 광양여고앞사거리	2,567	53.1	D	4지
④ 북부정류소앞(평균지체)	2,165	6.0	A	로터리
⑤ 용강입구사거리	2,064	34.1	C	4지
⑥ 우시장입구사거리	3,315	60.2	D	4지
⑦ 광양경찰서삼거리	2,894	17.6	B	3지
⑧ 골약사거리	2,763	97.9	E	4지
⑨ کن부두사거리	4,204	76.5	E	4지
⑩ 남양파크앞사거리	2,278	46.3	C	4지
⑪ 시청입구사거리	4,189	57.3	D	4지
⑫ 광양주공사거리	1,959	95.7	E	4지
⑬ 4호광장사거리	2,441	46.4	C	4지
⑭ 금호대교앞사거리	4,228	92.4	E	4지
⑮ 백운아트홀앞사거리	3,156	124.7	F	4지
⑯ 제철1관문앞사거리	3,232	84.1	E	4지
⑰ 제철삼거리	3,216	25.8	B	3지
⑱ 용지삼거리	1,872	15.3	B	3지
⑲ 진월IC입구	1,427	5.3	A	3지
⑳ 부영아파트앞삼거리	2,243	89.0	E	3지
㉑ 광영주유소앞삼거리	1,590	6.4	A	3지
㉒ 옥곡IC입구	1,253	15.3	B	4지
㉓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앞교차로	924	8.7	A	4지
㉔ 중학교앞사거리	1,588	40.2	C	4지
㉕ 광양병원앞사거리	1,706	24.5	B	4지
㉖ 길호대교하부교차로	1,910	38.5	C	4지
㉗ 장래공단사거리	3,167	94.5	E	4지
㉘ 초남역 앞(평균지체)	598	9.9	A	비신호
㉙ 염포마을 앞(평균지체)	407	8.8	A	비신호
㉚ 하포마을 앞	517	11.6	A	4지
㉛ 월드마린센터 사거리	2,989	34.7	C	4지

1.2 장래교통수요 전망

①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지구(traffic zone) 체계

- 본 과업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세부 존(Zone) 구분 및 O/D통행량, 교통망 설정은 전국 251교통존 체계를 기본으로 광양시를 12개 존으로 세분화



(그림 III- 7) 교통지구 구분도

나. 통행발생량 예측

- 광양시의 1일 총 목적통행량은 2011년 현재 313,661통행에서 2030년 654,827통행으로 연평균 3.9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수단통행은 2011년 현재 377,521통행에서 2030년 832,504통행으로 연평균 4.2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

< 표 III- 23 > 광양시 총통행량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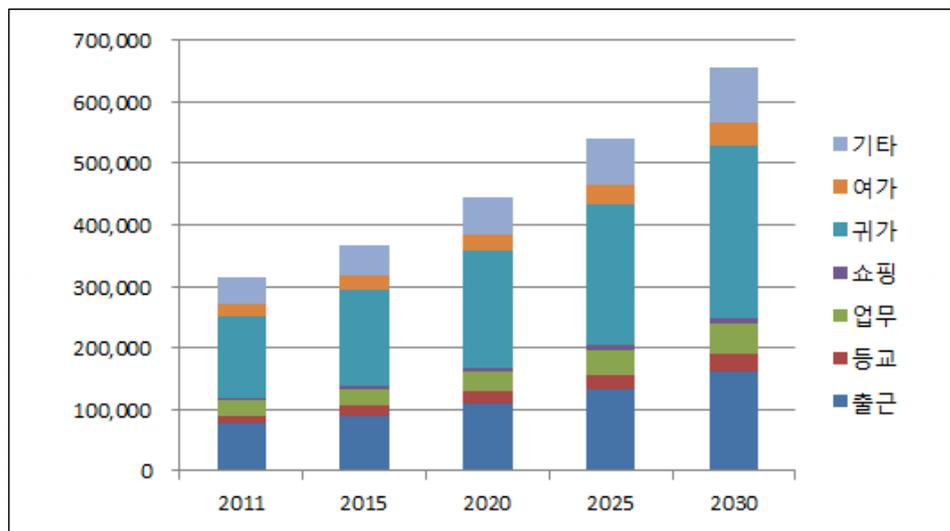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연평균 증가율
인구(인)	150,725	153,587	200,000	240,000	270,000	3.12%
목적통행(통행/일)	313,661	366,234	444,510	539,515	654,827	3.95%
수단통행(통행/일)	377,521	445,908	549,067	676,092	832,504	4.25%
인당목적통행(통행/일/인)	2.08	2.38	2.22	2.25	2.43	-
인당수단통행(통행/일/인)	2.50	2.90	2.75	2.82	3.08	-
수단통행/목적통행	1.20	1.22	1.24	1.25	1.27	-

다. 목적통행량

○ 광양시의 목적별 통행량을 보면 기타를 제외한 2030년 귀가통행의 비율은 42.6%로 예측되어 목적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30년 기준 쇼핑통행의 비율은 1.5%로 나타나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

< 표III- 24 > 수단별 통행량 예측

구분	2011		2015		2020		2025		2030		연평균 증가율 (%)
	통행량 (통행)	비율 (%)									
출근	77,019	24.6	89,928	24.6	109,148	24.6	132,477	24.6	160,791	24.6	3.95
등교	13,782	4.4	16,092	4.4	19,531	4.4	23,706	4.4	28,772	4.4	3.95
업무	23,514	7.5	27,455	7.5	33,323	7.5	40,445	7.5	49,090	7.5	3.95
쇼핑	4,771	1.5	5,571	1.5	6,761	1.5	8,207	1.5	9,961	1.5	3.95
귀가	133,687	42.6	156,094	42.6	189,456	42.6	229,949	42.6	279,096	42.6	3.95
여가	18,502	5.9	21,603	5.9	26,220	5.9	31,824	5.9	38,626	5.9	3.95
기타	42,387	13.5	49,492	13.5	60,070	13.5	72,908	13.5	88,491	13.5	3.95
계	313,661	100.0	366,234	100.0	444,510	100.0	539,515	100.0	654,827	100.0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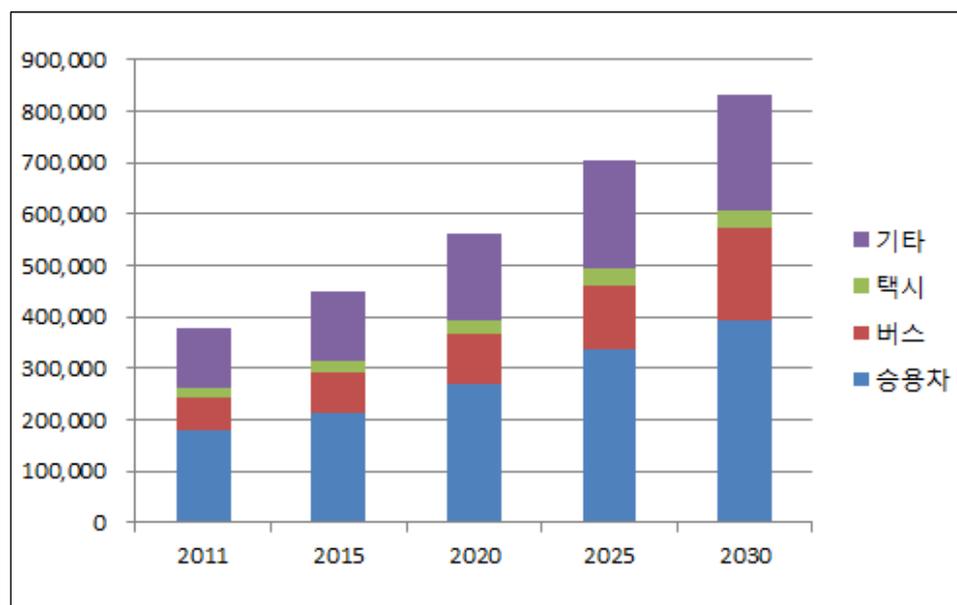
(그림III- 8) 목적통행량 (2030년)

다. 수단분담률

- 광양시의 수단별 통행량 중 2030년 기준 승용차의 비율은 47.4%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26%로 높게 나타났음. 또한 버스의 비율이 21.3%로 예측되었음. 수단별 통행량은 832,504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25%으로 예측

< 표III- 25 > 수단별 통행량 예측

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연평균 증가율 (%)
	통행량 (통행)	비율 (%)									
승용차	178,567	47.3	214,296	47.5	269,170	47.8	338,096	48.1	394,607	47.4	4.26
버스	65,689	17.4	78,805	17.5	98,941	17.6	124,224	17.7	177,323	21.3	5.37
택시	17,743	4.7	20,963	4.7	25,820	4.6	31,802	4.5	34,965	4.2	3.63
기타	115,521	30.6	136,713	30.3	168,751	30.0	208,296	29.7	225,609	27.1	3.59
계	377,521	100.0	450,776	100.0	562,682	100.0	702,418	100.0	832,504	100.0	4.25



(그림III- 9) 수단별 통행량 (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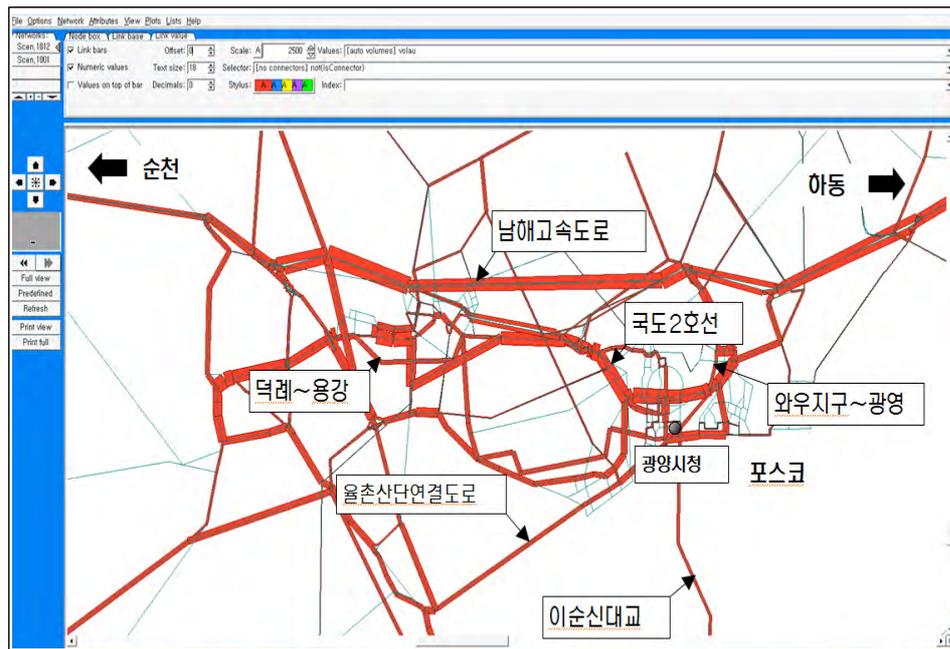
라. 노선배정

- 노선배정은 교통수요예측과정의 최종단계인 통행배정(Traffic Assignment)을 통하여 수행되며, 통행배정은 기 예측된 수단별 차량 기종점통행량을 실제 교통망에 부하시키는 과정임
- 통행배정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최소비용경로에 전량을 배분하는 All-or-Nothing 배정기법과 확률론적 입장에 기초한 확률 배정기법(Stochastic Assignment), 다중경로배정법(Multi Path Assignment) 및 평형 배정기법(Equilibrium Assignment) 등이 있음
- 평형배정기법은 시스템 전체의 통행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가로망 통행량을 추정하는 체계평형이론(System Optimum)과 최소비용원리에 근거한 경제학에서의 평형이론에 입각하여 발전된 사용자 균형(User Equilibrium)으로 구분되는데 본 과업에서는 교통계획모형인 EMME/2를 활용한 사용자평형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일반형은 아래와 같음

$$\text{Min} \sum_a \int_0^{V_a} C_a(w) dw$$

$$\text{s.t.} \sum_y T_{ijx} = T_{ij} \quad , \quad T_{ijx} \geq 0 \quad , \quad V_a = \sum_i \sum_j \sum_x T_{ijx} \delta_{ij}^{ax}$$

- 본 과업에서는 장래도로망계획에서 검토된 가로망을 장래 목표년도 가로망으로 설정한 후 이 가로망에 존(Zone)별 통행량을 배분



(그림 III- 10) 노선배정 (2030년)

② 용량분석 및 서비스수준 검토

가.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 장래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금호대교앞사거리→시청앞사거리 구간을 제외한 모든구간이 서비스수준 "A"~"E"로 가로 소통수준은 양호하며, 2차로도로는 서비스수준이 "B"~"D"로 분석

< 표Ⅲ- 26 > 장래 가로구간별 평균통행속도(2030년)

가로명	구간	현재	유지	계획	반영
		통행 속도 (kph)	서비스 수준 (LOS)	통행 속도 (kph)	서비스 수준 (LOS)
국도 2호선	② 덕례사거리 → ⑥ 우시장사거리	32.0	D	35.9	C
	⑥ 우시장사거리 → ② 덕례사거리	32.7	D	43.9	C
	⑥ 우시장입구사거리 → ⑦ 광양경찰서삼거리	51.9	B	52.4	B
	⑦ 광양경찰서삼거리 → ⑥ 우시장입구사거리	24.5	E	29.3	D
	⑦ 광양경찰서삼거리 → ⑧ 골약사거리	54.7	B	56.2	B
	⑧ 골약사거리 → ⑦ 광양경찰서삼거리	44.5	C	32.3	D
	⑧ 골약사거리 → ⑨ کن부두사거리	21.0	E	25.2	D
	⑨ کن부두사거리 → ⑧ 골약사거리	40.5	C	41.0	C
	⑨ 콘부두사거리 → ⑪ 시청입구사거리	25.0	E	23.7	E
	⑪ 시청입구사거리 → ⑨ 콘부두사거리	19.1	E	19.2	E
	⑪ 시청입구사거리 → ⑭ 금호대교앞사거리	27.8	D	26.5	D
	⑭ 금호대교앞사거리 → ⑪ 시청입구사거리	36.7	C	37.0	C
	⑭ 금호대교앞사거리 → ⑮ 백운아트홀앞사거리	27.8	D	31.8	D
	⑮ 백운아트홀앞사거리 → ⑭ 금호대교앞사거리	22.7	E	23.7	E
	⑮ 백운아트홀앞사거리 → ⑯ 제철1관문앞사거리	21.0	E	24.3	E
	⑯ 제철1관문앞사거리 → ⑮ 백운아트홀앞사거리	20.7	E	21.7	E
	⑯ 제철1관문앞사거리 → ⑰ 제철삼거리	52.1	B	52.3	B
	⑰ 제철삼거리 → ⑯ 제철1관문앞사거리	44.6	C	44.7	C
	⑰ 제철삼거리 → ⑳ 장내공단사거리	32.2	D	32.4	C
	⑳ 장내공단사거리 → ⑰ 제철삼거리	19.6	E	20.8	E
	⑳ 장내공단사거리 → ㉑ 용지삼거리	46.5	B	49.2	B
	㉑ 용지삼거리 → ⑳ 장내공단사거리	32.1	D	33.2	C
	㉑ 용지삼거리 → ㉒ 진월IC입구	54.4	B	54.5	B
	㉒ 진월IC입구 → ㉑ 용지삼거리	21.5	E	22.9	E

< 표계속 >

가로명	구간	현체계 유지시		계획 반영시	
		통행 속도 (kph)	서비스 수준 (LOS)	통행 속도 (kph)	서비스 수준 (LOS)
지방도 861호선	⑭ 금호대교앞삼거리 → ⑳ 부영아파트앞삼거리	51.9	B	50.5	B
	⑳ 부영아파트앞삼거리 → ⑭ 금호대교앞삼거리	30.8	D	29.6	D
	⑳ 부영아파트앞삼거리 → ㉑ 광영주유소앞삼거리	30.7	D	31.9	D
	㉑ 광영주유소앞삼거리 → ⑳ 부영아파트앞삼거리	33.4	C	33.8	C
	㉑ 광영주유소앞삼거리 → ㉒ 옥곡IC입구	53.0	B	53.2	B
	㉒ 옥곡IC입구 → ㉑ 광영주유소앞삼거리	53.0	B	53.7	B
지방도 863호선	① 세승교차로 → ② 덕례사거리	29.1	D	22.1	E
	② 덕례사거리 → ① 세승교차로	43.7	C	42.8	C
지방도 865호선	② 덕례사거리 → ㉕ 광양병원앞삼거리	41.7	C	42.4	C
	㉕ 광양병원앞삼거리 → ② 덕례사거리	23.9	E	20.6	E
	㉕ 광양병원앞삼거리 → ③ 광양여고앞삼거리	32.2	D	32.4	D
	③ 광양여고앞삼거리 → ㉕ 광양병원앞삼거리	34.4	C	34.6	C
	③ 광양여고앞삼거리 → ④ 북부정류소앞삼거리	20.8	E	20.3	E
	④ 북부정류소앞삼거리 → ③ 광양여고앞삼거리	24.5	E	24.6	E
	⑦ 광양경찰서삼거리 → ⑬ 골약사거리	54.0	B	54.5	B
	⑬ 골약사거리 → ⑦ 광양경찰서삼거리	33.9	C	26.7	D
	⑬ 골약사거리 → ⑯ 제철1관문앞삼거리	26.8	D	45.7	C
	⑯ 제철1관문앞삼거리 → ⑬ 골약사거리	48.7	B	48.9	B

(2차로 도로)

가로명	구간	현체계 유지시		계획 반영시	
		지체율 (%)	서비스수준 (LOS)	지체율 (%)	서비스수준 (LOS)
지방도865호선	④ 북부정류소앞 → 봉강면	24.9	C	36.1	D
국지도58호선	㉒ 옥곡IC입구 → 하동	29.7	C	23.4	C
국도2호선	⑰ 진월IC입구 → 하동	19.7	B	15.6	B

나. 교차로 서비스수준

- 장래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지체도가 9.4~98.6, 서비스수준 “A”~“E”로 다소 양호한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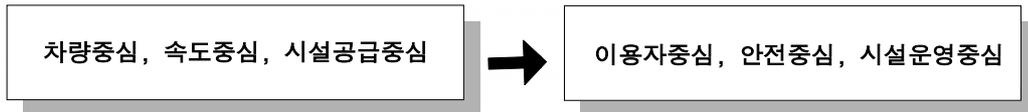
< 표III- 27 > 장래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2030년)

교차로명	도로망 현체계 유지시		도로망계획 반영시	
	제어지체 (초/대)	서비스수준 (LOS)	제어지체 (초/대)	서비스수준 (LOS)
① 세승교차로(비신호)	11.3	B	12.0	B
② 덕례사거리	69.1	D	65.5	D
③ 광양여고앞사거리	61.2	D	59.1	D
④ 북부정류소앞(로터리)	10.5	B	10.2	B
⑤ 용강입구사거리	41.1	C	36.9	C
⑥ 우시장입구사거리	74.5	E	73.9	E
⑦ 광양경찰서삼거리	31.9	C	19.5	B
⑧ 골약사거리	99.7	E	98.6	E
⑨ کن부두사거리	89.4	E	80.5	E
⑩ 남양파크앞사거리	53.4	D	51.5	D
⑪ 시청입구사거리	74.4	E	67.7	D
⑫ 광양주공사거리	95.7	E	95.0	E
⑬ 4호광장사거리	78.3	E	65.6	D
⑭ 금호대교앞사거리	98.8	E	97.5	E
⑮ 백운아트홀앞사거리	127.1	F	77.9	E
⑯ 제철1관문앞사거리	96.7	E	90.4	E
⑰ 제철삼거리	43.7	C	36.1	C
⑱ 용지삼거리	17.0	B	16.9	C
⑲ 진월IC입구	9.9	A	9.2	A
⑳ 부영아파트앞삼거리	98.7	E	83.7	E
㉑ 광영주유소앞삼거리	28.4	B	11.1	A
㉒ 옥곡IC입구	12.0	A	11.8	A
㉓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앞교차로	15.6	B	9.2	A
㉔ 중학교앞사거리	55.2	D	53.4	D
㉕ 광양병원앞사거리	27.9	B	25.4	B
㉖ 길호대교하부교차로	41.4	C	40.8	C
㉗ 장래공단사거리	97.7	E	96.6	E

1.3 교통체계 개편 방향

① 광양시 교통체계 개편 방향

- 녹색도시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차량중심, 속도중심, 시설공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이용자중심, 안전중심, 시설운영 중심으로 교통체계 개편



(그림 III- 11) 광양시 교통체계 개편 방향

② 부문별 개편 방향

■ 도로망 체계

- 도시발전 구상에 부합/광역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교통계획 수립(순천(여수)-광양-하동)
- 우회도로망 확보(지역간 통과교통과 내부교통의 상충 배제)
- 도로의 기능 및 생활권별 특성, 연계성을 고려한 가로망 체계 구축
- 장래 교통애로구간 개선을 고려한 가로망 체계 구축

■ 교통운영 체계

- 교차로 신호운영 개선방안 수립(교차로 신호 최적화 및 주요구간 연동화)
- 교통운영개선계획(TSM), 지능형 교통시스템(ITS)도입
- 생활권역내 운영계획간 유기적 연계방안 구축

■ 보행 및 대중교통

- 보행자(교통약자)중심의 도로체계 및 안전시설 확충(보행자 전용(우선)도로, 이면도로 속도저감 등)
- 친환경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전거 도로 및 안전시설 확충
- 승용차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및 정보체계 구축(BIS등)

■ 교통행정체계

- 교통전문직 단계별 채용을 통한 교통행정(계획,관리,운영)의 전문화
 -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등 광역 시도 및 자치시군별 전문인력 배치 운용중

1.4 교통시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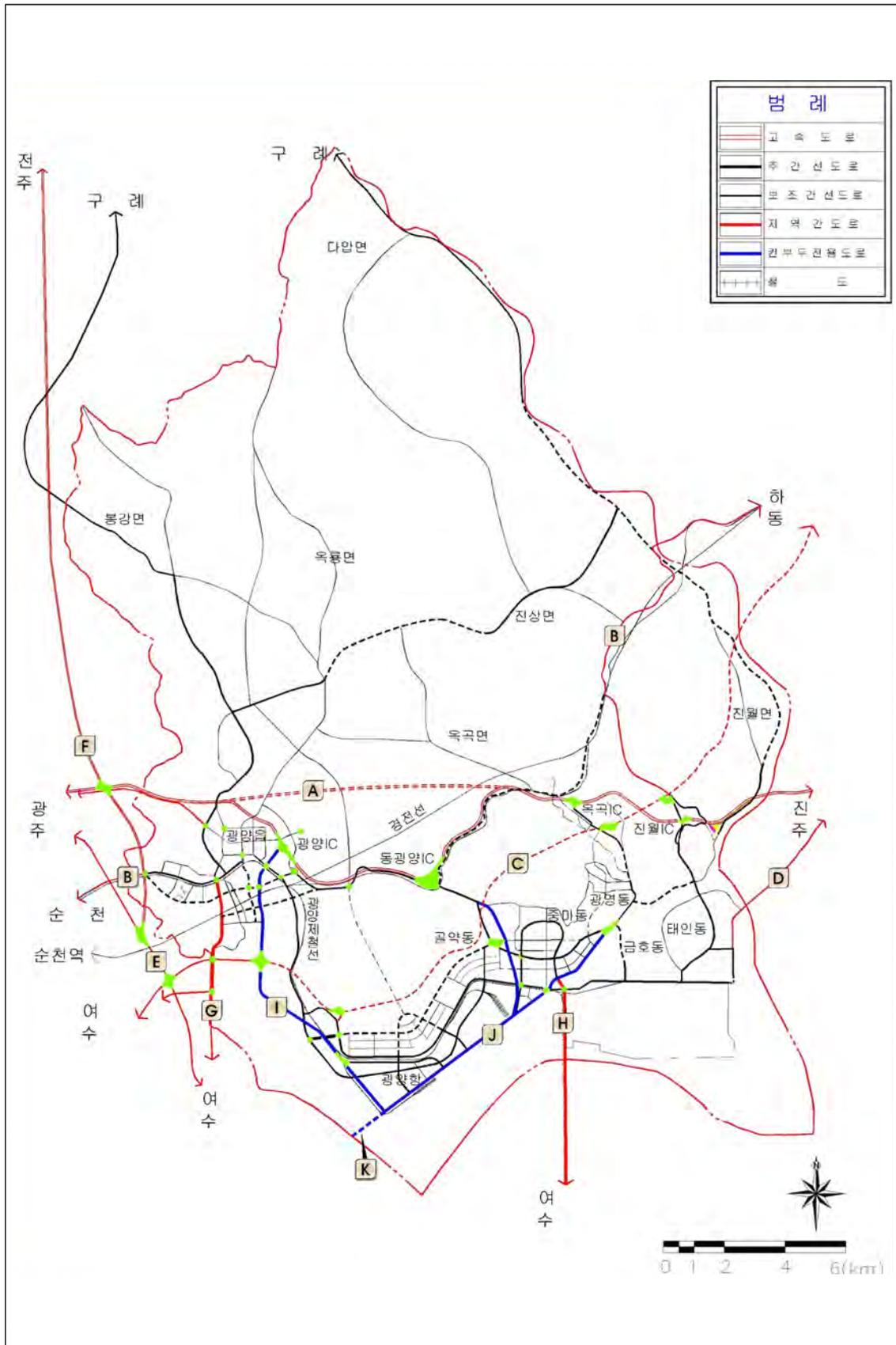
① 도로망계획

가. 광역도로망

- 광양시 주요 도로망은 일반수송과 화물수송 등 수송특성을 고려하여 광역교통축 및 화물교통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광역교통축으로는 남해고속도로, 국도2호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화물교통축으로는 광양항 컨부두 진출입을 위한 광양항 동측배후도로와 서측배후도로가 역할을 담당
- 광양시 구간의 국도2호선 우회도로(세풍~중군~진정)와 광양읍 우회도로(덕례~용강) 구간이 현재 공사중에 있어 추후 지역간 통과 교통의 도심 통과를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도로망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광양시 광역교통망체계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및 도시공간구조,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축 계획을 수립

< 표III- 28 > 광역 도로망 계획

구분	도로망	구간	유형	차로	
동서1축	A	남해고속도로	광주권~광양~부산권	신설	4
동서2축	B	국도2호선	순천~광양~하동연결	현황도로	4
동서3축	C	국도2호선우회	세풍~중군	미개설(공시중,2015)	4
			중군~진정	미개설(공시중,2018)	
			진상~하동	미개설(공시중,2018)	
동서4축	D	국도59호선	광양~하동연결	현황도로	4
동서5축	E	국도17호선 우회도로	순천~여수연결	현황도로	4
남북1축	F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광양만권~전주권	현황도로	4
남북1축	G	면도104호선	광양~울촌산단연결	현황도로	4
남북1축	H	광양~여수 연결도로	광양~여수연결	현황도로	6
화물 교통축	I	광양항 동측배후도로	광양항~동광양C연결	현황도로	4
	J	광양항 서측배후도로	광양항~광양C연결	현황도로	4
	K	울촌산단연결도로	광양항~울촌산단연결	신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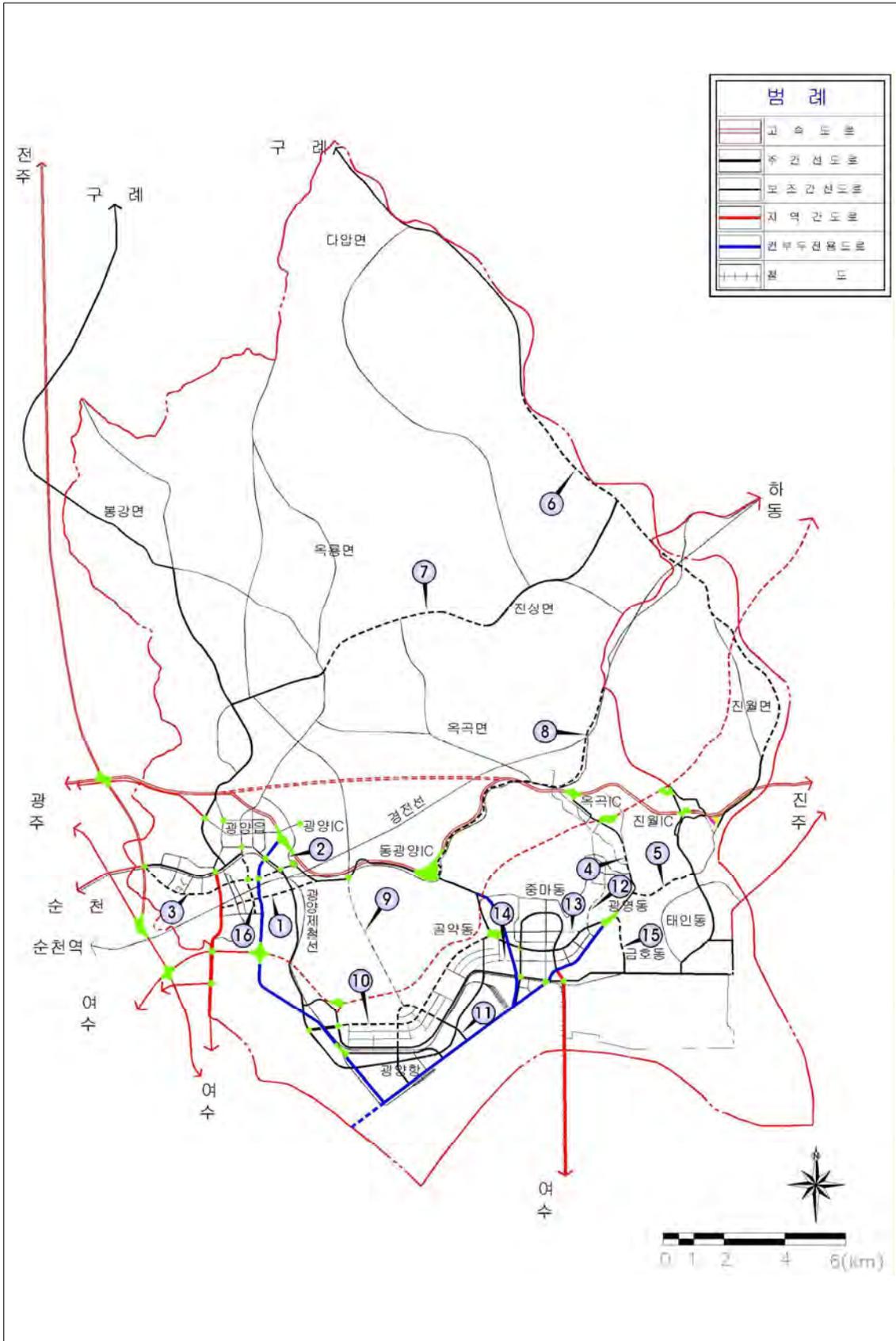
(그림III- 12) 광역 도로망 계획도

나. 간선도로망

- 간선도로망은 본 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위계획 및 교통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도시 가로망의 기능 정립 및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에 중점

< 표III- 29 > 간선도로망 계획

방향	구분	도로망	구간	유형	차로
간선	1	세풍~국도2호선	세풍~국도2호선 (대로2~대1-28)	미개설(신설)	4
				신설	4
	2	용강~국도2호선	용강지구~용강정수장	미개설(신설)	6
	3	국도2호선우회	덕례~용강	미개설 (공사중,2018)	4
	4	지방도861호선	광영~옥곡IC	미개설 (일부확장)	4~6
	5		진월~광영	미개설 (신설,공사중)	4
	6		진월~다압	확장	2→4
	7	지방도 863호선	봉강~다압 (옥룡면~진상면)	미개설(확장)	2
	8	국지도58호선	동광양IC~진상면	미개설(확장)	2
	9	시도5호선	옥룡면~국도2	미개설(연장)	2
	10	광로3-1	황금지구~중마	미개설(신설)	4
	11	광로3-2,4,5	황금지구~광양항 연결	미개설 (신설,공사중)	6
	12	와우지구~광영간	중마동(와우지구)~광영동	신설	4
	13	중마연계도로	중마동~와우지구	미개설(신설)	6
	14	성황지구연계도로	성황지구~중동	미개설(신설)	6
	15	백운로 확장	금호대교~포스코	미개설(확장)	4→6
16	신덕지구 진입로	광양읍 인동리~도월리	미개설(신설)	6	



(그림III- 13) 간선 가로망 계획도

2 보행환경

■ 기본방향

- 보행환경체계 개선을 통해 보행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동기회의 제공 및 보행서비스 향상으로 근거리 통행의 보행전환 유도
- 보행을 이동수단의 한 축으로 관리하여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녹색교통체계를 구축
- 교통약자 우선의 도로체계 확립 및 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보행환경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광양시 교통체계는 차량소통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고, 노약자 및 장애인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임
- 광양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도시부의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까지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확보되어 있으나 그 이하 도로규모 및 도시부 이외지역은 보도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임
- 보행자의 교통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된 보도는 유효보도 폭이 협소하고 보도내 불법주정차에 인해 보행연속성 단절로 일반인 및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현재 보행자 전용도로 및 보행자 우선도로등 걷고싶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추진이 미진함

< 표III- 30 > 보행환경의 문제점

문제 유형	문 제 점
보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정류장부 대기공간으로 인한 보행공간 부족 · 보도내 교통시설물, 노상적물 등 지장물에 의한 보행장애 · 불규칙 보도 및 턱낮춤, 경사에 의한 교통약자 보행 장애
보행안내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체계의 설치부족 및 설치위치 불합리 · 안내체계간 연계성 부족 · 안내체계의 일관성, 시인성, 정보제공능력 부족
보행 전용· 우선 구역(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정차에 의한 보행환경 열악 · 통과차량과의 동선과 보행동선의 상충에 따른 혼잡 · 차량통행을 우선시 하는 인식에 따른 보행사고위험

■ 보행환경 개선방안

- 보행환경 개선은 크게 보도정비 및 신설과 관련되는 시설개선과 보행자의 신속·정확한 이동을 위한 보행안내체계 개선, 보행자의 안전성·편리성을 확보하는 보행 우선구역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광양시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공간등의 보행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표III- 31 > 보행환경 개선방향

구분	개 선 방 향
보행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환경의 기본요소인 보도의 정비 · 기능적 목적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보차분리 실현 · 보행동선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한 보행시설 확보 · 보행자 안전을 위한 펜스, 육교, 지하보도 등의 설치
보행안내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계를 갖춘 보행자 안내체계 구성 · 보행자의 통행목적과 보행동선을 고려한 보행안내 정보 구축 · 보행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안내시설물 입지 선정 · 대중교통수단 이용자를 위한 교통정보 제공 · 외국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고려
보행 우선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공간내 차량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펜스, 조경, 가로등) ·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및 보행안전의 확보 · 깨끗한 보행환경의 확보와 미관향상으로 상업활동 활성화



(그림III- 14) 보행개선 설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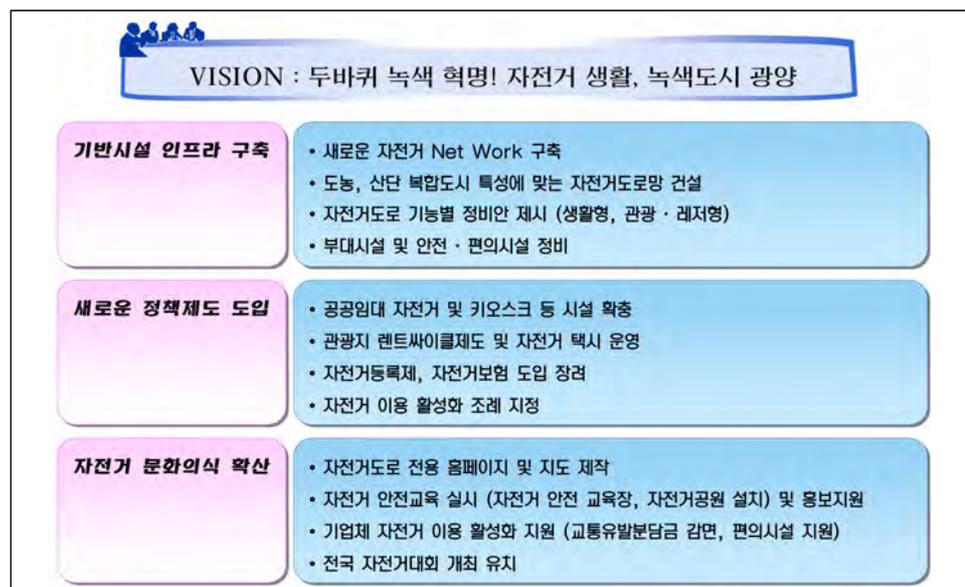
3 자전거도로

■ 기본방향

- 승용차를 이용한 근거리 교통수요의 분담과 시민건강증진,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보행과 연계되는 도로망 체계 구성
- 자전거 네트워크망 체계의 구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교통의 안전시설을 확보하여 안전성 및 기능성을 확보
- 시민의 여가활동을 증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지등 문화시설과 연계된 레저기능 강화

■ 자전거도로 추진전략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양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구축, 새로운 정책제도 도입, 자전거 문화의식 확산등 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교통으로서의 제도 및 시민이용 활성화에 정진하고 있음
- 본 검토에서는 현황 조사 및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2010, 광양시」 검토를 통해 부분별 추진계획 반영하였음



(그림 III- 15) 광양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 전략

■ 자전거 이용 시설개선

- 광양시 주변 지형 및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개선
- 자전거 ↔ 보행, 자전거 ↔ 차량간 분리를 통한 자전거도로 확보방안
- 보행공간 축소 최소화 및 차량의 자전거 이용 전환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 기타 보행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

■ 자전거 정책 및 제도의 도입

- 공공자전거 운영 및 키오스크 등 시설 확충
- 관광지 렌트사이클제도 및 자전거 택시 운영
- 자전거 등록제 및 자전거 보험 도입 장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 자전거 문화의식 확산

- 자전거도로 전용 홈페이지 및 지도 제작
-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지원
- 기업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 전국 자전거 대회 개최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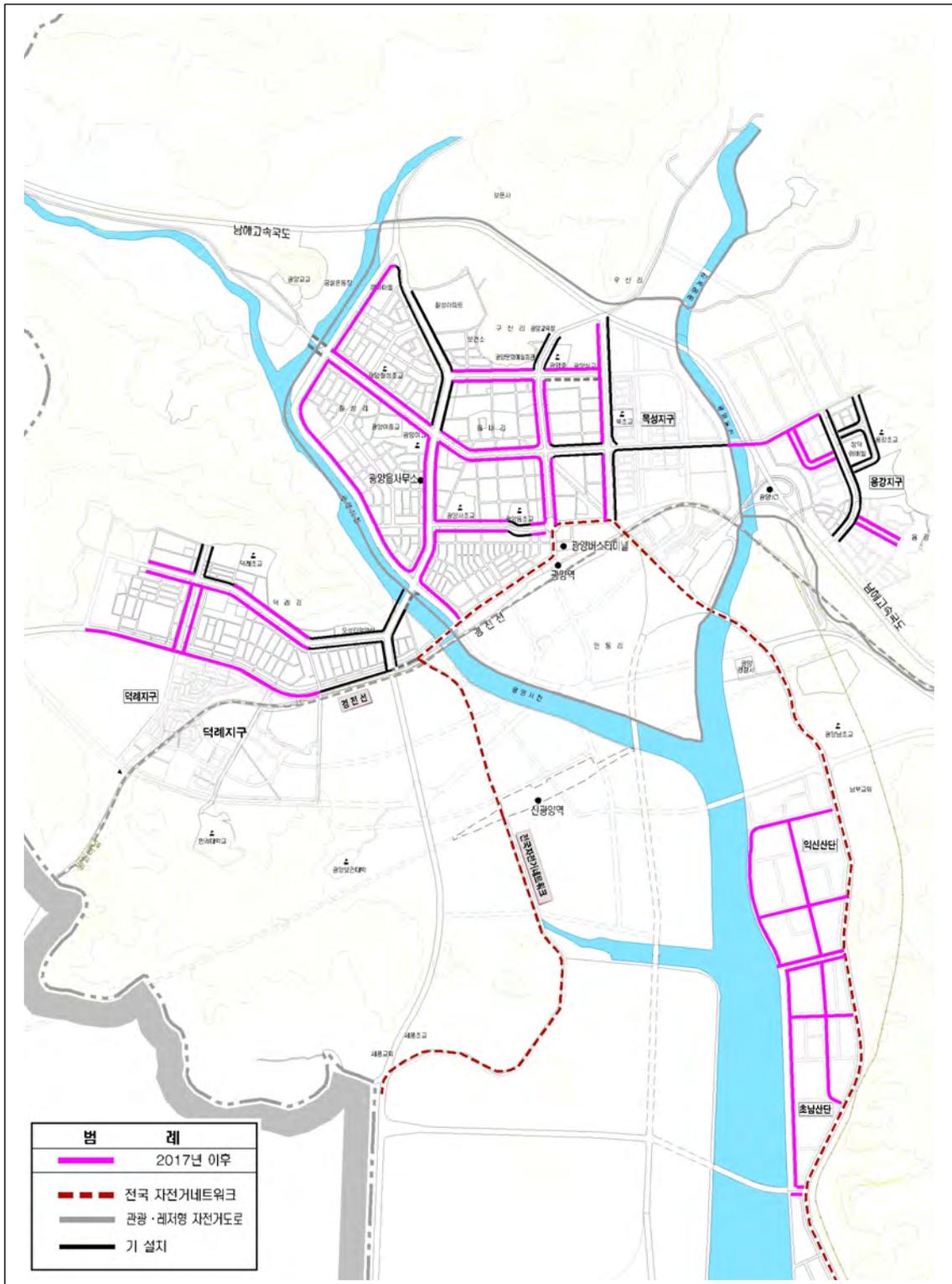
자료 : 자전거 길 디자인+시공앤드북, 2013, 안전행정부
(그림 III- 16) 자전거도로 시설개선



(그림 III- 17) 자전거도로 정책 및 제도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 광양시 자전거도로는 현재 43개노선 79.9km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총 161.67km를 설치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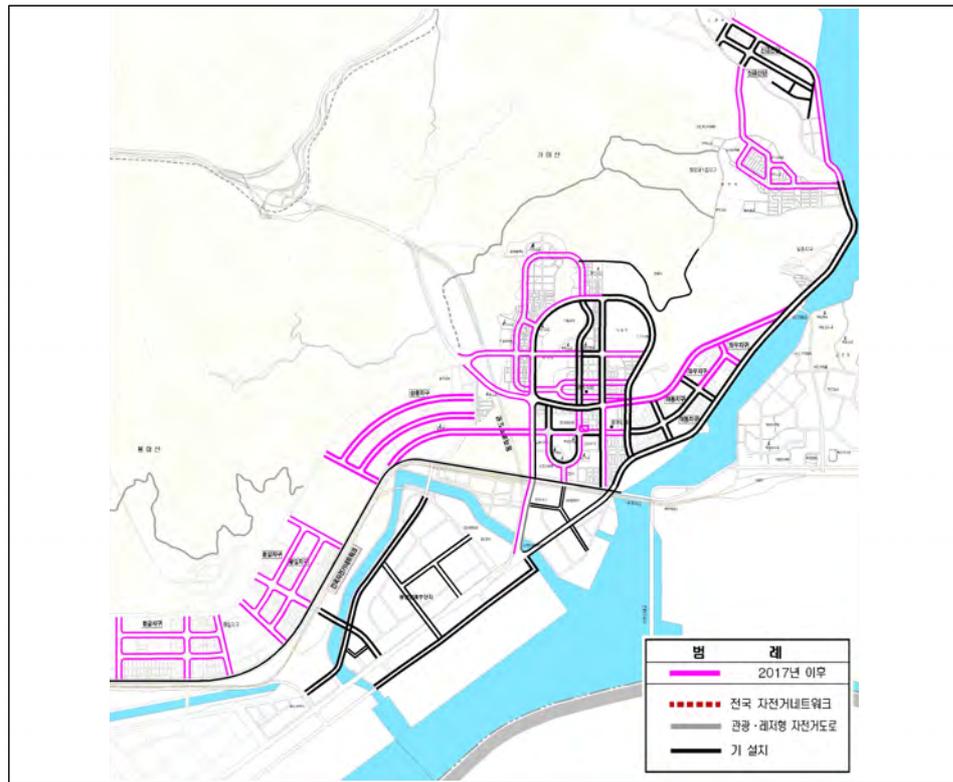


(그림 III- 18) 광양시 자전거도로 정비방안(광양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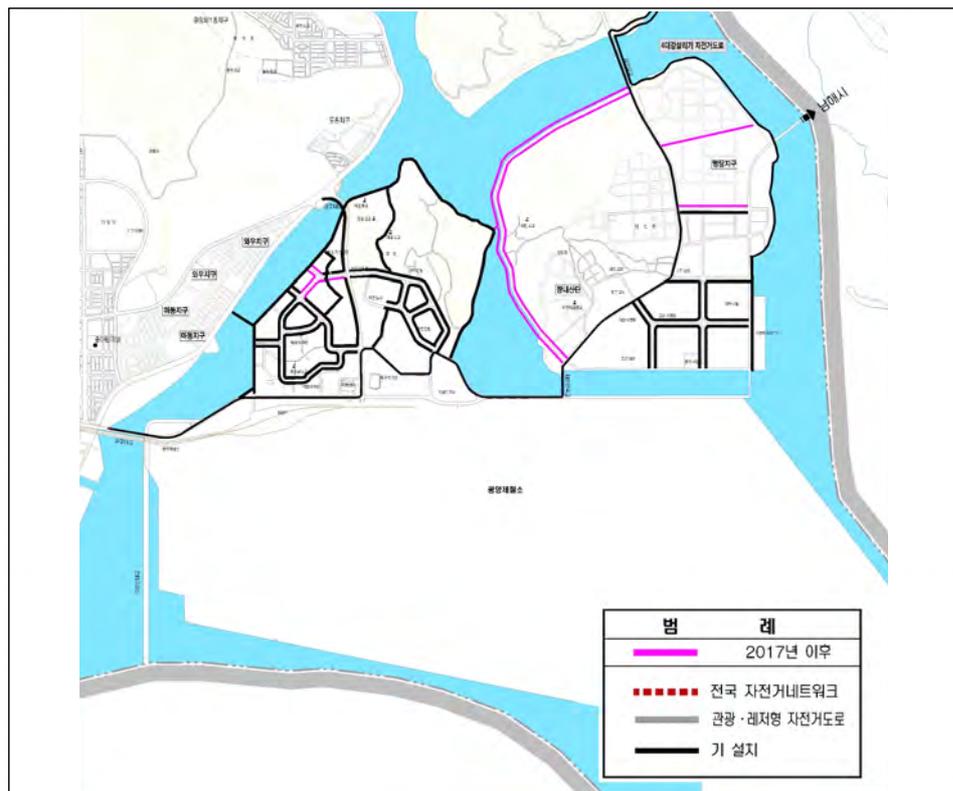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그림III- 19) 광양시 자전거도로 정비방안(중마동 일원)



(그림III- 20) 광양시 자전거도로 정비방안(태인동 일원)

4 도로교차지점

■ 기본방향

- 입체교차 전후 구간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교차로 처리방안 결정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구조상의 요소 및 교통처리 방안을 복합적으로 검토
-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급 도로와의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계획하고, 도심 내 도로의 교차는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하나, 지역특성 및 주민의 편의와 경제성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계획

< 표III- 32 > 교차로 형식 설정기준

구 분	자동차 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입체교차	입체교차	-	-	-
주간선도로	-	평면교차 주방향 입체처리	평면 또는 접속교차	접속교차	-
보조간선도로	-	-	평면교차	평면 또는 접속교차	접속교차
집산도로	-	-	-	평면교차	평면 또는 접속교차
국지도로	-	-	-	-	평면교차

자료)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2015. 7

■ 개선방향

- 주요 간선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결절점에 교통광장 설치를 통해 교통안전 및 소통에 기여하며, 장래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교통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한다. 또한 부가적으로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 예방으로 교통광장의 소통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교차하는 도로 상호간의 교통량이 신호처리 용량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지점은 입체교차 처리하며, 연속류 흐름을 원활히 함
- 광양시의 향후 추진중인 주요 간선도로 결절점에 교통광장과 입체화시설 설치를 적극 반영하여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토록 함

5 버스터미널

■ 기본방향

- 시외 유·출입을 위한 교통결절점으로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및 도시내부와의 접근성 확보
-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바람직한 도시공간구조 유도 및 도시교통망과의 조화를 통한 교통영향 최소화

■ 입지계획

- 광양시의 2도심체제의 도시공간구조 및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터미널 입지 검토
- 광양시는 「광양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2015, 광양시」의 검토를 통해 장래 광양시의 적정 터미널 입지를 계획
 - 대안 1 : 중마 버스터미널 부지
 - 대안 2 : 광양 신역사 이전지역
- 교통종합터미널 입지대안 평가결과, 장래 충분한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전철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며 장래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유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용효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대안1(중마터미널 부지)을 우수한 대안으로 선정하였음



(그림 III- 21) 광양시 터미널 입지대안

6 철도망

가. 기본방향

- 사람과 화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선체계 및 역세권 정비
- 타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 극대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공
- 경전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광양역 활성화 방안수립

나. 철도이용 활성화 방안

- 철도이용을 활성화 하고 합리적인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표Ⅲ- 33 > 환승유형별 고려사항

환승유형	필요시설	고려사항	
철도	도보	· 접근보행 공간 · 보행자 안내표지	· 보행 동선의 연속성, 쾌적성 확보 · 시인성 확보
	버스	· 버스 Shelter 및 편의시설 · 버스 도착안내시스템 · 환승정류장	· 시내버스 수요 및 용량 · 시내버스 노선별 동선체계 · 접근도로의 버스우선 대책
	택시	· 택시정류장	· 택시 동선체계 · 유출입 동선체계
	승용차	· 주차장 및 환승보행공간 확보 · kiss & ride ¹⁾ , pick up 공간	· 유료 주차장 확보방안 · 정차장 접근동선 체계
	자전거	· 자전거 통행권 확보	· 자전거 동선체계 · 자전거 연계시설(자전거 도로 정비)

주1 :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와서 대중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경우,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같이 타고 온 여행자(대중교통 이용자)만 환승을 위해 하차하는 곳

다. 폐선부지 활용방안

■ 필요성

- 경전선 폐선에 따른 도심내의 대단위 부지가 나대지로 전환됨에 따른 이에 대한 효용가치 극대화를 통해 광양시 도시발전에 기여

■ 활용방안

-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은 광양시 주변현황 및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
- 시민공원,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로 활용하여 녹색교통 확립
- 주차장 공급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

7 주차시설 계획

가. 기본방향

-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유지
- 도시권역내 주차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수립
- 주차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계획 수립
- 중·장기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

나. 주차시설 문제점

< 표III- 34 > 주차시설 문제점

구분	문제점
공급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는 전체적으로 주차시설 공급이 양호한 편이나, 도심내의 경우 주차 수요의 집중에 따른 주차시설 부족현상으로 낮은 공급율을 나타내고 있음 · 도심내 일부 노외주차장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공급부족으로 주차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음 ·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 설치 조례의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를 하고있으나 세대당 차량대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운영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수요 관리방안 미흡 : 주차시설 공급과 주차수요 효율적 관리 미비 · 주차관리 및 운영체계 미비 : 주차요금체계의 미비 및 주차장 안내체계 미비 · 불법주차 : 주차시설 부족 및 주차안내. 규제의 미흡, 주차의식 결여

다. 주차시설 개선방안

■ 주차시설 공급측면

- 장래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부설주차장 의무적 설치/확보로 발생주차수요를 당해 건축물에서 처리
-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접근성 및 이용성의 장점을 감안한 노상주차장 설치
 -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고 보행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
 - 도로용량의 여유구간 활용, 이면도로 정비
 - 도로용량 여유공간 활용방안은 시범적 시행후 확대시행
- 노외주차장 공급방안 마련
 - 학교운동장 및 공공용지 지하공간 활용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영주차장 활성화
-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의 신규개발에 따른 노외주차장 계획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주차장 이외의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타용도 혼용 억제
- 광양시 주차장 설치 조례의 강화를 통한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 주차면 확충

■ 주차시설 관리측면

○ 주차수요정책의 수립

- 주차수요 관리정책으로는 주차장의 확충으로 가능하나, 도시의 교통집중을 유발하게 되므로 토지 이용 측면과 도로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주차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표III- 35 > 주차수요 관리정책의 유형

정책방향	수요적 측면	관리적 측면
1. 도심 통행유발 억제 또는 분산	· 도심 교통유발기능 억제 · 부도심 개발과 기능 분산	· 진입도로 확장 · 우회도로 건설
2. 도심진입 및 도심내 교통량 처리	· 복합토지 이용 · 효율적 분담을 위한 정책	· Park & Ride System 도입 · 일방통행 및 신호체계
3. 교통류의 효과적 처리	· 출퇴근 시차제	· 주차장 증설

○ 주차장 안내체계 도입

- 주차장 안내 및 유도시스템은 일정 단위구역 내에 주차장의 위치, 유형, 진출입 경로, 요금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운전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주차시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불법주차 및 배회차량을 최소화 시킴

라. 향후 추진 방향

- 주차문제의 해결은 주차시설 공급측면과, 관리측면의 균형있는 제도 도입 및 장·단기 계획수립을 통해 새로운 주차문화 형성의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 광양시는 주차장 공급확대를 위해 「광양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2015, 광양시」을 통해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 표III- 36 > 장·단기 추진 방향

구분	단기적	장기적
시설공급측면	· 이면도로정비 · 국공유지 활용한 주차장 확보 · 도심지 입체주차장 건설	· 노상주차장 제한 및 축소 · 감축명령제 도입 · 환승주차장 복합 개발
시설관리측면	·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민간주차장 건설 촉진 ·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 차고지 증명제 도입 · 주차장 공동이용(유료화) · 첨단 주차안내 정보시스템 도입

8] 신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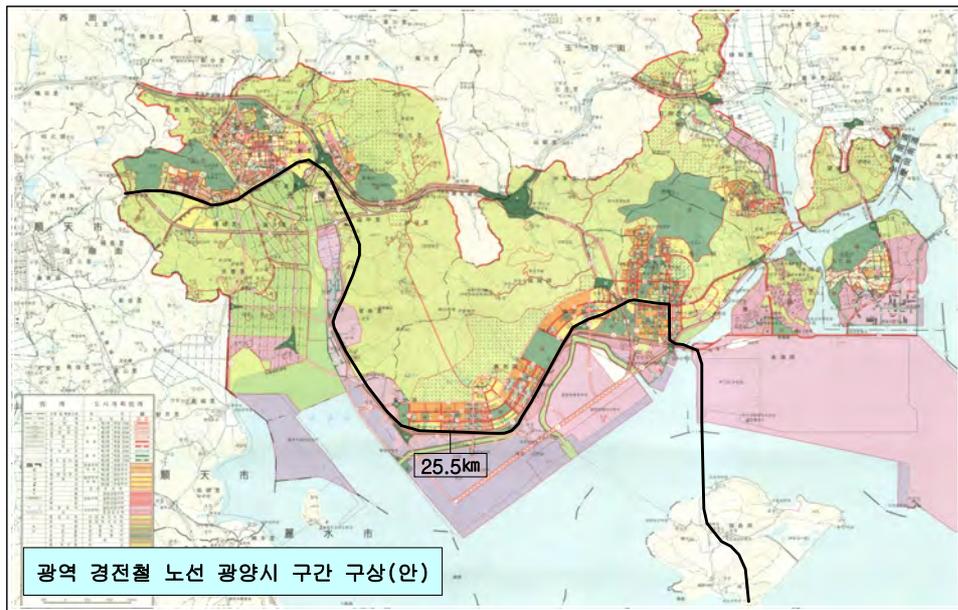
■ 광양만권 광역순환 경전철 계획

-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전라남도, 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전철 노선계획안을 반영 간선도로변 및 기존 폐철도부지 및 완충녹지 도로변에 설치하여 각 생활권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표III- 37 > 광양만권 광역 경전철 계획

구간		총 사업비 (억원)	사업 기간	시행 주체
1단계	여수~순천~광양의 기존철도 일부활용 광양~여수구간 신설	14,000	2007~ 2025	정부 전라남도
2단계	여수역, 순천역, 광양역, 각 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모도 여수공항, 각 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중마, 세계박람회장,			

■ 도입방안 검토



(그림III- 22) 광역경전철 노선(광양시 구간(안))

- 광양만권 순환 경전철 구상안은 광양, 순천, 여수의 주요 도시개발축과 산업개발축의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노선축으로 광양만권 전체의 도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재정적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용수요 및 재원조달, 도입 시스템 등 광양만권의 여건에 맞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1.5 교통운영 계획

① 교통운영 관리체계

■ 기본방향

- 광양시 교통운영 관리체계 기본이 되는 가로망 기능정립 수립
- 각 가로별 특성에 맞는 기능부여로 장래교통여건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및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가로망체계 구축
- 가로망 체계별 적정 개선방안 도출

■ 광양시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광양시의 교통소통, 대중교통, 안내체계, 교통안전시설물, 환승체계 등 교통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수립

< 표III- 38 > 광양시 교통운영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교통소통	간선도로	· 주변도시간 연결도로 부족 · 내부지역간 연결기능 미약 · 도로 위계 불합리로 미연결 도로 및 병목구간 발생 · 주요 결절점의 특정 접근로 및 이동류별 지체 과다로 인한 가로구간 정체 발생	·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건설로 통과교통 처리 · 순환도로망체계 확립 · 미연결 및 차로 불일치 구간 확충 · 이면도로 접근관리방안 도입 및 가로구간 신호최적화, 속도규제
	교차로	· 교차로 기하구조 불합리로 교통소통 저하 · 신호운영 불합리로 교통소통 저하	· TSM사업 등 개선방안 수립 · 현시 최적화 및 기하구조 개선
	이면도로	· 개별건축물 입지에 따른 동선체계 혼잡 · 이면도로내 불법주차로 인한 소통 장애	· 개별건축물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으로 혼잡요인 제거 · 이면도로 정비를 통한 주차확보 및 소통개선
대중교통	버스택시	· 시내간 순환노선 미흡 · 굴곡노선에 의한 통행거리 증가 · 외곽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 · 택시 정류장의 부족	· 연계 및 순환버스 서비스 제고 · 효율적인 노선조정을 통한 통행거리 단축 · 외곽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확보 · 택시정류장 설치
	철도	·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미흡	·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체계 수립
	기타	· 자전거 이용 시설 부족	·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시설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
안내체계	· 방향 및 방향예고표지의 불일치 · 표지판 설치위치 및 설치기준 미흡	· 방향 및 방향예고표지의 내용 일치 · 설계기준에 따른 방향 예고표지 위치조정	
교통안전시설물	· 교통안전시설 부족 및 유지관리 미흡 · 도로교통안전관련 전문인력 부족 · 자전거, 보행자 및 장애인 배려 부족	· 안전시설물 확보 및 유지관리방안 수립 · 단계적 재원과 전문인력 확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확충	

② 교통체계 개선사업(TSM)

■ 기본방향

- 기존시설 확장 중심의 장기교통계획의 한계 및 투자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시설물의 이용효율성 제고 및 이용의 극대화
- 도시계획 차원의 도시교통 대책의 문제점 극복하고 시설물의 독립적인 관리보다 종합적, 체계적 관리

■ TSM 전략 및 개선대책

< 표III- 39 > TSM 전략 및 개선대책

전략		개선대책
교통 운영	교차통제	· 버스우선신호, 신호시간 최적화, 신호등설치, 육교설치, 신호시스템 구축
	진입통제	· 일방통행제, 가변도로, 회전제한, 자동차금지구역, 미터링, 우선진입연결로,
	차로이용 통제	· 가변차로제, 다인승우선차로, 차로이용 및 회전규제, 교차로 도류화, 자전거차로 설치
	차로변 통제	· 주차제한, 버스정거장 재배치, 하역구간설치, 보도 확장, 화물차제한
	속도통제	· 속도제한(최고 및 최저)
	주차통제	· 다인승 우대주차, 주차시간길이 제한, 불법주차 단속강화
대중 교통 운영 개선	버스운영	· 노선조정, 버스스케줄 조정, 승하차시간 단축, 요금징수 단순화, 수요대응 서비스
	수단전환	· 버스정거장 재배치, 주차환승 시설, 정거장 환경개선, 환승단순화, 간·지선체계구축
	관리효율성	· 기술상의 협력, 마케팅개선, 프로그래밍 개선, 회계개선, 유지관리개선, 안전성제고
사용료 징수	도로사용료	· 시설이용료, 지역통행세, 차량보유세, 차량사용세, 혼잡세, 차등통행료
	주차요금	· 주차장사용료, 주차장 보조금 삭감, 다인승차량 차등주차요금제, 주차세
	대중교통	· 요금할인, 첨두·비첨두 차등요금, 노인 및 학생 요금할인, 정기통근자 승차권할인

③ 첨단교통체계 관리방안(ITS)

■ 기본방향

○ 광양시 ITS 적용에 있어서 5가지의 목표에 따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표Ⅲ- 40 > ITS 적용의 기본방향

구분	기본방향
교통혼잡의 효율적 완화 및 교통서비스 개선	· 교통신호 제어의 지능화, 교통류 관리를 통한 교통관리의 과학화 · 교통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교통정보화 기반 구축 · 도로용량 증대를 위한 자동운전체계 도입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 및 차량의 안전체계 확충	· 사고방지를 위한 첨단차량 안전장치의 개발 및 보급 · 도로 및 교통의 위험상황 전달체계 구축
대중교통의 정보화 및 첨단화	·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정보제공체계 구축 · 대중교통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물류수송체계의 정보화 및 관리의 과학화	· 시간절약 및 수송효율성 향상을 위한 종합물류정보체계 구축 · 화물차량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첨단관리체계 구축
ITS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산/학/민/관간 효율적 연구/개발/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조직 정비 · 효율적인 지능형 교통체계 연구개발체계 확립 · 지능형 교통체계를 위한 정보통신의 지원체계 구축

■ ITS 적용방안

< 표Ⅲ- 41 > 교통문제별 개선목표 및 적용가능 ITS 시스템

교통문제	개선목표	적용가능 ITS시스템
교통혼잡	· 도심우회도로를 통한 도심통과 수요 감소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 교통정보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교통정보 시스템
	· 주차정보 제공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량 분산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주차관리 시스템
	· 과적차량 단속을 통한 용량증대 및 환경보전	과적차량 단속 시스템
	· 유고관리를 통한 지체 감소	돌발상황 관리 시스템
	· 교통정책의 부재	가시적인 교통시스템 적극도입
	· 비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	다핵도시의 도로연계 정보체계 도입
대중교통	· 부족한 교통시설	시설공급의 한계극복방안 강구
	· 버스의 정시성 및 정보제공을 통한 서비스 향상	버스정보시스템
신호운영	· 대중교통수단간 요금체계 통합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및 수단분담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 실시간 신호최적화를 통한 교통수요 흡수	간선도로 교통신호제어
신호운영	· 과속 및 신호위반차량 단속을 통한 사고예방	속도위반 단속 시스템 신호위반 단속 시스템

4 교통수요 관리방안

■ 기본방향

- 교통수요의 분산 및 억제 유도를 통한 시설이용의 효율성 증대
-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교통재원마련 및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광양시민의 통행패턴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인식 전환 유도
- 개인교통수단의 관리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교통수요 관리방안

- 교통수요관리방안의 적용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광양시 현실에 맞도록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적용해야 함

< 표 III- 42 > 수요관리방안(TDM)의 유형 및 특성

대분류	중분류	구체적인 실행방안	특성	
통행발생 차단	출근시간 조정	· 출근일수 단축 · 재택근무	· 가장 근원적 방법 · 통행자체를 차단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기법 · 일부유형 구체적 실행시 사회 환경조성 필요 · 장시간 경과 후 효과 발생하는 문제점	
	성장관리 정책	· 특정지구 성장억제 · 상업건축 가용면적 축소 · 직주 근접 유도 · 도심기능 이전		
		조세정책		· 고액의 차량등록, 구입세 · 고율의 차량 보험료
				· 주차요금 정책 · 도심통행료, 혼잡세 징수 · 주행세, 주차세 징수
교통수단 전환 및 유도 정책	경제적 기법	· 부제운행 · 주차공간활용억제 프로그램 운영 · 교통위반시 선택적 운행정지 실시 · 기타 차량이용 억제 정책	· 가장 보편적인 방법 · 개인교통수단의 타 교통수단 전환방법 - 승용차 이용에 어려움을 주는 방법 -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방법	
		법적/제도적 기법		
				대체수단 지원정책
		통행시간/노선 재분배		
	공간적 재분배			· 지역허가제 · 미터링(차량진입 제한) · 주차금지구역 확대 · 교통방수를 통한 통행노선의 전환

5 대중교통수단

가. 기본방향

○ 압축도시(Compact City)공간구조에 부합한 대중교통체계 연계

- 압축도시(Compact City)공간구조에 따른 버스노선체계 합리화로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 제고
: 보행거리 내에 버스정류장 설치 및 간선교통과 셔틀버스 연계
- 수요 집중에 따른 적정 공급계획 수립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
: 공급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 버스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 통행속도 증진 및 정시성 확보
- 시내버스 이용시설 및 정보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 접근편의성 증진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나. 버스 운영상의 문제점

< 표III- 43 > 버스운영상의 문제점

구분	문제점
서비스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환경여건으로 운행의 정시성 저하 · 신규 산업단지, 택지개발지역, 분산된 농촌지역에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부족 · 과속 난폭운전 및 불친절에 의한 사고 위험 및 이용기피
버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운영의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부족으로 재투자 미흡 · 영세한 경영구조 및 경영 형태로 인한 경영개선 미흡
노선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거리 굴곡노선으로 인한 운행시간 증가로 이용 기피 · 노선의 도심집중에 의한 중복· 과밀노선 과다
정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 미제시 · 서비스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미흡 · 요금체계를 물가관리 수단으로 이용하여 경쟁력 저하 · 지자체의 권한이 미약하여 업체지원 및 관리 감독체계 미흡
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기반시설(차고지, 기종점 등) 입지 반대 · 불합리한 노선 개편에 대한 반대 · 무리한 노선변경 및 정류장 설치요구
교통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이용 증가로 버스 이용객 감소 및 재정악화 · 정류장 시설 및 버스이용 정보제공 미흡에 의한 이용자 불편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다. 광양시 버스이용 활성화 방안

■ 버스노선체계 합리화

- 버스노선체계 합리화는 버스를 이용하여 광양시내 전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비효율적인 굴곡·중복노선의 조정으로 통행시간 단축 및 과밀·과소노선을 해소하여 도심구간의 과도한 버스노선 집중 완화토록 해야하며, 장거리 노선 분리 및 버스유형별 연계체계 구축, 타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방안 수립이 필요함
- 또한 광양시 도시발전축인 동서축으로 발달되어 있는 노선체계를 정책적 지원을 통해 남측의 산업단지, 택지개발지역등 신개발지와 북측의 농촌지역을 연계하는 남북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편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광양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함
- 광양시의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지역특성 및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노선체계를 간선, 지선, 벽지기능의 삼원화하여 특성비교를 제시하였음

< 표III- 44 > 노선기능에 따른 특성비교

구분	차량특성	노선기능	서비스특성
간선 기능	대용량, 좌석제공 (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직행버스/ 심야좌석버스)	· 통행중심지 연계를 위한 신속성, 정시성 위주 장거리 연결/노선직선화	· 장거리 및 신속한 운행 · 간선기능 수행 (출퇴근버스, 고급직행버스)
지선 기능	수요에 따라 다양한 용량 (도시형버스/ 지역순환버스/ 마을버스)	· 지역내 접근성 위주연결 · 일정한구간내 노선굴곡허용	· 수요에 따른 탄력적 서비스 · 일부중복운행 (지역내 등하교, 출퇴근버스)
벽지 기능	수요에 따라 다양한 용량 (도시형버스/ 시외일반버스/ 공영버스)	· 버스운송업체가 비수익성을 운해를 기피하는 노선	· 버스이용자가 적고 비수익성으로 운행거리, 기·종점을 탄력적으로 운용

○ 개선방안

- 불필요한 중복노선 억제 및 버스운행 감소로 도시내 소통완화
- 굴곡노선 및 장거리 노선 조정으로 통행시간 절감 및 연료비 절감
- 도심과 외곽지역간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접근성 확보
- 타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이용 편의성 확보
- 대중교통수단 경쟁력 확보로 개인교통수단 증가 억제

■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

- 자가용 교통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을 위해서는 노선개편과 더불어 대중교통의 통행우선권 부여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이용자측면에서 편리성, 안락성, 이용편의성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버스정류장 개선
 - 버스정류장의 적정간격인 300~400m로 정류장 간격조정
 - 교차로에서 50m이상 이격설치
 - 적정위치 조정 후 버스베이 설치
- 정류장 시설물 개선
 - 버스쉘터 및 대형버스이용안내판 설치
 - 승객의 줄서기 유도시설 설치로 승하차 질서 확보
 - 기타 편의시설(좌석, 노선도, 주변 안내도, 조명등)의 집중배치로 이용자 편의 도모
- 버스전용차로제
 - 버스의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버스통행량, 차로여건등을 고려한 전용차로 도입 검토
 -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역류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등
- 버스의 고급화
 -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도입확대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및 노선 특성에 맞는 특화된 버스시스템등 도입검토

< 표III- 45 > 천연가스(CNG)버스 연차별 확충계획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NG 버스 확충	확보대수(대)	26	2	2	4	2	4
	누적대수(대)	-	28	30	34	36	40
	확보율(%)	49.1	52.8	56.6	64.1	67.9	75.5

자료 : 「광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2012, 광양시」

○ 버스안내시스템(BIS)도입 확대

- 대중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수단간 연계성 확보를 통한 이용률 향상

< 표III- 46 > 버스안내시스템(BIS)도입 현황

구분	버스차내 장치	정류소 안내기			버스정보안내기 (키오스크)
		26인치 거치형	32인치 독립형	LED 양면형	
보유현황(대)	51	56	9	10	2

자료 : 광양시 내부자료, 2015년

2. 물류기반시설

2.1 물류시설 현황

■ 물류 및 인프라 현황

- 포스코 광양제철소 입지 및 광양국가산단, 신금산당 등 산업단지 입지
- 여수공항 및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 남해고속도로,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 철도(권부두 동·서측 전용철도, 경전선 복선화, 익산~순천KTX)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광양지구, 울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

■ 항만 물동량 현황

- 연간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2013년 현재 2,275,801TEU로 전년대비 5.7% 상승

< 표III- 47 >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실적

(단위 : TEU,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	비율
총계	2,087,890	2,085,222	2,153,818	2,275,801	121,983	5.7↑
수출입	1,739,760	1,725,564	1,820,996	1,742,919	-78,077	4.3↓
수입	866,348	855,965	915,563	855,061	-60,502	6.6↓
수출	873,412	869,599	905,433	887,858	-17,575	1.9↓
환적	313,993	328,202	322,333	532,582	210,249	65.2↑
연안	34,137	31,456	10,489	300	-10,189	97.1↓

자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통계(<http://yeosu.mof.go.kr>)

- 연간 광양항 물동량 현황은 2013년 현재 239,545천톤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0%로 증가하였으며, 전국 주요항만과 비교하여 부산항에 이어 두 번째로 물동량이 많음

< 표III- 48 > 주요 항만별 물동량 현황

(단위 : 천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부산	262,070	294,334	312,040	324,858	7.4
광양	206,691	219,928	237,342	239,545	5.0
울산	171,664	193,869	196,872	191,030	3.6
인천	149,785	147,168	143,431	146,106	-0.8

자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통계(<http://yeosu.mof.go.kr>)

2.2 장래 물류 수요예측

■ 화물차 및 철도

- 총 화물차 통행량은 2011년 23,480통행에서 2030년 28,715통행으로 증가, 철도화물은 2011년 4,070.3천톤에서 2030년 5,823.1천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표III- 49 > 화물차 통행량 수요예측

(단위 : 통행, 천톤/일)

구분		2011	2015	2020	2025	2030	증가율(%)	
							'11~15	'15~30
총화물차 통행량 (통행/일)	계	23,480	24,504	26,037	27,574	28,715	1.07%	1.06%
	발생	12,110	12,627	13,405	14,187	14,765	1.05%	1.05%
	도착	11,370	11,877	12,632	13,387	13,949	1.10%	1.08%
철도 화물량 (천톤/일)	계	4,070.3	4,473.2	5,004.3	5,450.2	5,823.1	2.39%	1.33%
	발생	2,850.7	3,078.9	3,393.8	3,668.4	3,889.6	1.94%	1.17%
	도착	1,219.6	1,394.3	1,610.4	1,781.8	1,933.4	3.40%	1.65%

자료 : 2013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2014, 국가교통DB센터

■ 항만

- 항만 물동량의 장래 수요예측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2016-2020)」(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광양항 물동량을 기초로 예측하였으며, 총물동량은 2020년 293,552천RT, 2030년 337,997천RT로 예측되었음

< 표III- 50 > 품목별 물동량 전망

(단위 : 천RT/년, 천TEU/년)

구분	2015년	2020년	2030년	비 고
총물동량	272,009	293,552	337,997	
양곡	2	-	-	
시멘트	3,906	4,109	5,552	
석탄	25,519	32,919	37,254	
목재	52	403	569	
모래	900	926	1,135	
철광석	33,909	37,201	43,949	
철재	18,900	17,648	18,951	
고철	703	814	773	
자동차	12,867	18,138	18,137	
잡화	14,797	14,621	16,909	
기타광석	5,362	7,001	9,047	
화공품	1,264	1,170	873	
기타잡화	36,583	42,979	50,918	
컨테이너 (천TEU)	36,583 (2,327)	42,979 (2,722)	50,918 (3,166)	
유류	117,245	115,623	133,930	
시설소요	154,764	177,929	204,067	

자료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22호)

2.3 광양항 현황 및 문제점

- '86년 개항 이후, 광양항은 석유화학, 제철 등 배후산업단지의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항만으로 발전
 - '14년 총 2.5억톤의 화물 처리, 국내 2위(부산 3.5, 울산 1.9, 인천 1.5)이며, 특히, 非컨테이너 화물 처리는 국내 1위(철강 0.9억톤, 석유화학 1.1억톤 등)
 - '14년 기준, 광양항 기반 산업단지* 생산액 107조원, 고용 4만명, 수출액 486억불(총수출의 7.7%)로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 수행
 - *POSCO(제철), 여수국가산단(석유화학), 울촌산단(조선기자재, 철재) 등
- 최근 경제여건 악화(유가하락, 제철·조선실적 저하)로 배후산업단지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항만시설 이용실적도 정체 상황
 - 배후산단 생산은 '12년(121조원), 수출은 '13년(507억불) 이후 감소하고, 최근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도 둔화·정체 상황
- 반면, 광양만권 산단 내 녹지의 공장용지 전환('14, 66만㎡)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산업시설부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

2.4 광양항 활성화방안

■ 항만과 산업의 연계강화로 융복합 신산업유치

- 유희항만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활용
 - 광양항내 유희항만시설을 융복합형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 기업생산활동에 제공하여 기업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추진
 - 컨부두 1단계 일부, 중마일반부두 등을 우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대상으로 검토
- 제철산업의 물류 효율성 제고로 기업경쟁력 강화
 - 노후화된 POSCO내 제품부두('88완공)의 현대화 추진



출처 : 해양수산부, 광양항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 방안, 2015. 12

(그림 III- 23) 광양항 항만·산업기능 연계 클러스터 추진 대상지역

■ 광양항을 국제 자동차 환적기지로 육성

- 컨테이너 부두 일부를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로 활용
 - 급증하는 광양항 자동차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3-2단계 컨테이너 부두 4선석을 자동차 부두로 전환
 - * '09년 8만대 → '14년 81만대 → '15년 126만대(추정) → '20년 180만대
 -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국적선에게만 허용되던 자동차 운송의 연안운송을 외국적선에게 허용 추진
- 항만배후단지를 활용 자동차 환적 관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부두와 인접한 서측 항만배후단지(193만㎡)에 자동차 환적 관련 서비스(정비, 검사, 왁싱, PDI센터 등) 제공 기업 등을 유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자동차 환적 관련 부가가치 창출 방안에 대한 외국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세부 추진계획 마련

■ 항만 서비스 및 컨테이너부두 경쟁력 강화

- 선박 초대형화 대응 : 항로 안전성 제고 및 대형크레인 확보
 - 대형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항입구 특정해역 압초제거
 - 18천TEU 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입항('14 41척)에 대응하여 24열 컨테이너 크레인을 확보하여 컨부두 경쟁력 제고
- 광양항 컨테이너 기항 선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효율화
 - 수입·환적 인센티브를 유치 타깃별로 차등 제공하여 실질적인 컨테이너 선사 유치 효과 극대화
 - 컨테이너 환적기지로써 자립가능한 물동량인 300만TEU 달성까지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연장
- 항만배후단지를 통해 다양한 물류서비스 제공, 고부가가치 창출
 -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배후단지 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실적평가로 물류서비스 활성화
 - 입주기업 편의제고 및 물류기능지원을 위해 상업·주거·업무시설 도입이 가능한 2종 배후단지(29만㎡) 개발·공급

■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

- 해양레저 수요 증대에 대응하는 기반 조성
- 여수시, 남해군 등 인근 시군과 연계한 해양레저네트워크 구축
- 크루즈, 마리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대형크루즈 입항과 연계한 관광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관광산업 육성
 - 배알도 수변레저단지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개발



(그림 III- 24) 배알도 수변레저단지 조성(안)

■ 마리나 개발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레포츠형 마리나

- 동호회 및 마니아층 활동 중심의 마리나로 개발
- 내·해수면 수상레저를 중심으로 한 레포츠형 마리나로 개발

○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마리나

-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남해안과 섬진강의 특성을 이용한 마리나로 개발
- 전남권과 경남권의 거점 크루징을 연결하는 중간 기항지로 개발
- 다양한 세계박람회와 연계한 관광객 흡인 및 해양레저인구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마리나로 개발

< 표 III- 51 > 광양 마리나 개발계획(안)

구분	위치	사업내용	개발규모
섬진강 마리나	진월 망덕포구 일원	마리나 1식	104척 (해상 84, 육상 20)



(그림 III- 25) 섬진강 마리나 조성(안)

3. 정보 · 통신

3.1 현황 및 문제점

■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속도와 변화 등 장기적 예측의 어려움

- 기술진보의 속도와 폭이 넓어 사전에 변화 양상의 예측 및 대응의 어려움
- 그로 인한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 규범 및 가치관의 혼란 야기

■ 기술진보에 수반한 공공의 대비 부족

- 행정기관의 인력에 대한 정보화 교육 및 홍보 부족
- 기업체의 정보 · 통신 전략 및 정책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토로

■ 정보격차 문제 증대

-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보 접근 제한 및 제반 교육의 부재
- 소득격차에 따른 정보 격차의 증대와 불균형 문제 증대

■ 정보화 역기능 증대

- 정보통신의 발달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보급의 확대 등 긍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음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침입 및 파괴, 개인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
- 공공과 민간 정보시스템에 대한 DDos와 악성 해킹(Hacking) 공격 급증
 - 사회 정보망과 지자체의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가 사이버테러에 훼손될 우려

3.2 여건변화

■ 정보화에 의한 생활환경 변화

-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재택근무, Smart Work, 사이버 공간상에 각종 업무의 실현 및 여가문화 · 복지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Social Network Service 등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 증가
- 현재의 정보통신 기술은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개별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개별적인 기기들을 연결, 통합 사용이 증대

■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의 증대

- 도시계획, 교통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이 증대
 - NGIS(국가지리정보시스템),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 ITS(지능형첨단교통 체계), LBS(위치기반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생활환경의 변화 선도
- ‘정부3.0’ 정책의 실현으로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에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실현

■ 정보기술 강국으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 증대

- U-city, g-CRM, IT 등의 기술수출 증대
- 기업경쟁의 심화 및 산업 정보화 기반조성에 대한 공공부문 지원의 필요성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관련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 증대
-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 등 산업전반에 걸친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정보제공 및 통합관리 증대

3.3 계획방향

■ 미래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과 변화를 선도

-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회 환경 변화를 선도
- 행정시스템 고도화 및 시민 참여형 맞춤형 정보 시스템 개발로 도시행정 및 시민과의 교류 활성화 주도

■ 공공의 대처 능력 강화

- 공공주도에 의한 정보관리 원칙 확립
-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관련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 인터넷 에티켓 교육과 정보윤리 특강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실시

■ 정보통신의 역기능에 능동적 대처

- 사이버테러 발생시 즉각 조치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마비와 대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 구축
- PC 및 서버 통합보안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강화

-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정보 불균형 해소
-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저소득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 소상공인 무료 홈페이지 제작 등의 사업 실시

3.4 세부전략 및 시책

가. 정보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 정보개방에 따른 역기능 치료 및 예방

- 사이버테러 등 범죄 발생시 즉각 조치 및 복구계획 수립
 - 보안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 인력의 전문성 향상
 - 정부, 기업, 언론, 사용자, 백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민간 참여 유도
- 인터넷 중독 상담소 설립 및 정보윤리 특강 등 실시
 - 청소년 등의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소 및 정보윤리 강연회 실시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조례 재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 사이버침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소속기관 망(인터넷망, 업무용망) 분리 지속 추진
 - 예방·대응·사후관리까지의 정보보호 전주기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 정보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 정보인프라 구축 확대
 - 디지털 기회 제공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사업 추진



(그림III- 26) 정보화 교육사업 예시

-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BcN) 확대 구축
-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 통신망 교체 및 정보센터 운영
 - LAN 확장 및 통신망 교체
 - 유·무선 인터넷 접속확대
 - 행정전산망 확대
-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
 -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서울, 지방재정 등)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단계적 전환

나. 공공정부의 역할 강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다양한 생활정보 및 시민복지 정보 제공

- 문화, 지역경제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 시민에게 필요한 지역정보 및 문화, 관광, 보건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통한 시민 시정참여 증대
- 민간/공공 거버넌스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대(對) 시민 정보제공에 있어 민간과 공공간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
 - 부서별 홈페이지 콘텐츠 확충, 광양시 포털사이트 지속적 보완, 무인민원 자동 처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 무인단말기 설치 확대

■ 행정업무의 정보화

- ‘All Digital 제로스탑’ 정부서비스 완성
 - 민원 처리 전과정에 종이없는 All Digital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정보공개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
 - 민간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새로운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p>문화·관광 분야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빅데이터 기반 레스토랑 추천 서비스</p>	 <p>교통·물류 분야 주차장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 주변 의 주차장 위치·예약 서비스</p>	 <p>환경·기상 분야 날씨 방송 및 개인 맞춤형 기상 정보 서비스</p>	 <p>보건·의료분야 위치기반 병원정보 검색 및 상황별 병원 찾기 서비스</p>	 <p>식품·건강분야 회수대상 식품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냉장고</p>	 <p>교육 분야 부모들에게 자녀의 학교 소식을 모바일로 알려주는 알림장</p>
--	--	---	--	--	--

(그림 III- 27)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분야

- 민간 데이터와 내부 행정 데이터를 융·복합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과학 행정 구현
- 과학적 도시관리를 위한 기반자료 구축
 - 도시관리를 위한 기반자료의 지속적 구축
 - 과학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체계 확립
 -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 관리
 - 도시계획/주택/건축/세무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 시공간 제약없는 O2O 행정 실현
 - 정부의 온·오프라인 채널과 민간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민·관 협업형 O2O 행정서비스 발굴 및 확산
 - 모바일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현장행정 업무 환경 제공

다. 사업정보화 기반 조성

■ 신산업 창업 및 사업 촉진지원체계 마련

- 정보제공사업과 정보유통사업 육성
 - 정보제공사업(IP)과 정보유통사업(ISO) 육성
 - 기술의 최신동향 정보 제공과 기술 적용시의 문제점 정보 공유
- 유망 정보통신산업 지원체계 마련 및 벤처기업 창업 지원
 - S/W산업, 문화산업, 벤처기업 창업지원, 선정기업 관리체계 지원
 - 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 기술의 체계적인 지원
- 과학적 사회안전망 구축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공간을 위한 CCTV 고도화를 통한 안전서비스 제공
 -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종합 안전망 구축



(그림 III- 28)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개요

■ 정보화 핵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산·학·연 공동의 기술개발센터 설립 지원
 - 산·학·연 공동의 핵심기술 연구 개발센터 및 정보기술 지원센터 설립
 - 인프라·기술·서비스의 확산과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 지역대학을 활용한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
 - 지역대학 활용한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교육기관 설립으로 시민 정보 교육서비스 제공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제3장 도심 및 주거환경

1. 도시재생

1.1 현황

가.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변화

-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물리적 환경정비에서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변화
-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23)’ 수립 등 도시재생 정책 지원 강화

1.2 과제

가. 도시기능의 지속적 쇠퇴

- 중마동 신시가지 택지분양 촉진책으로 원도심 공공시설, 생활편익시설 등 중마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시 활력 저하로 도심의 기능저하와 노후화를 초래
- 재래시장 시설이 노후화되고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상권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기능 약화로 도심쇠퇴가 진행중

나. 주민, 상인, 행정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

- 주민, 상인, 행정기관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생사업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
- 이원적 도시구조로 인해 계층간, 지역간 갈등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사회적 통합이 이슈로 부각됨

다. 정책 및 제도적 지원 필요

-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원 필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23)’ 수립 등 도시재생 정책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

1.3 목표

가. 광양읍 도시기능의 종합적 정비

- 광양읍에 부합되는 산업경제 육성 및 도심재생을 위한 거점개발로 쾌적한 도심공간조성, 지역이벤트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심활성화 정비

나. 민간역량의 효과적이고 전략적 활용

- 공공·민간 주택공급의 역할 분담을 도모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방안 마련
-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주도 사업의 아이템 발굴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단위 재생계획 수립

다. 정책 및 제도적 지원

- 지자체가 중심인 주택정책 추진체계수립을 위해 법제도, 조직, 재정적 측면의 변화가 필요하며, 법제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

1.4 실천계획

가. 광양읍 도시기능의 종합적 정비

■ 역사성·문화성을 지닌 장소의 특화

- 광양읍성의 흔적 복원 및 해자흔적 조성
 - 역사의식 고취 및 관광 자원화 위해 유실된 광양읍성 복원
- 역사문화 상징가로 조성
 - 광양역사문화관-공용주차장-서울대 학술림으로 연계되는 매천로를 역사문화 상징가로로 조성
- 운동주 거리조성
 - 운동주문학관 조성 및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예술행사 추진

■ 핵심 거점공간의 활성화

- 거점공간의 물리적 복합화와 다양한 도시기능의 복합화
 - 우산공원 주변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보건소 / 청소년문화의 집) 클러스터화 및 주변 정비
 - 시외버스터미널, 유당공원 주변 공공건축물 클러스터와 정비
 - 폐가 및 나대지 등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 및 녹지기능 부여
 - 원도심내 골목길 재생 : 담장허물기, 수목식재, 그린파킹시스템, 커뮤니티시설조성 등

■ 핵심거점공간의 연계·통합화

- 도심가로경관형성을 통한 통합화
 - 가로와 건물저층부의 통합된 보행환경 조성
 - 건축물의 접지층의 개방 및 공개공지화
 - 보행자의 자유로운 출입
 - 통합된 가로디자인 요소의 적용
 - 보행공간 바닥패턴의 연속성 확보
 - 가로연속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변 건축물 정렬화
 - 안내시스템 및 가로시설물의 통합 디자인

- 보행공간 및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조성
 -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의 연결을 원칙으로 함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유효보도폭 확보, 턱 제거, 저체도 바닥포장 등을 유의함
 - 가로변 녹지선 설정, 중앙 녹지분리대 조성 등 가로변 선형 녹지축 형성
 - 가로변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 조성
 - 도심내 다양한 녹지공간 및 외부 공개공지의 연계 통합

■ 상점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 소규모 공동투자 맞춤형 테마상가 개발기법 도입
 - 적은 자본의 소액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분양받아 공동소유하고 공동으로 개발 및 관리운영하는 방식
 -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특정한 맞춤형 테마상가를 복합적으로 입체 개발할 수 있는 바, 특히 상가건물의 디자인 개념 정립과 테마상가건물내 업종별 전용 공간 등의 설계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투자자/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지주참여방식의 테마상가개발 기법 도입
 - 도심부의 도로확장등에 따라 상가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상가건설보다는 전면적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 테마상가거리 조성이 중요함
 - 기존의 도심내 노후상가의 재생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상가의 지주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테마상가를 조성하는 방식의 도입이 요구됨

○ 빈집 점포활용책으로 챌린지샵 인큐베이터 기법 적용

- 원도심내 빈 점포를 광양시가 임대 및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일정 자격의 사업도전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는 제도
- 청년 및 노인실업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경험을 축적시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로서의 기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적 도시재생기법임
- 결국 챌린지샵 상가재생기법은 쇠퇴상가의 빈점포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한 챌린지샵 조성, 신성장 비즈니스와 연계한 창조적인 사업자 선정 및 창업자금과 컨설팅 지원, 챌린지샵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 홍보 및 공공편익시설 등 종합적인 지원 육성책을 포함하는 것임

■ 친환경 도시관리

○ 녹지공간의 확충 : 광양 천개의 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도시공원에서부터 각 주택정원, 상징수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갖는 정원 조성
- 나대지나 가로변 선형을 활용한 관중심의 공원 조성사업
- 민간참여형 다양한 정원만들기 사업 실시
 - 한가구 한나무 가꾸기 운동
 - 광양시 공인 1000정원 인증제도
 -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 에너지절약형 도시디자인 적용

- 공공건축물 Passive 디자인 적용
 -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디자인 장려
- 옥상녹화 등 수직적 녹화 및 주차장 녹화
- 가로투수성 포장, 빗물 재활용 등 친환경 요소 적극 도입

나. 민간역량의 효과적이고 전략적 활용

■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주도 기반조성

- 마을만들기 정비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학습회 신설
-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주도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주민협정 도입
- 공공기관과 주민의 협력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개선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시설 확보를 위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주민참여 사업방식의 매뉴얼화

- 주민참여형 사업방식 매뉴얼화를 통해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

다. 정책 및 제도적 지원

■ 도심재생을 위한 국가정책지원사업 적극 활용

- 국가도심재생기본방침(‘14~’23)수립 등 도시재생 정부정책지원 적극 활용
 - 도시재생 위주의 도시정책 전환,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도시재생 지원확대, 지역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 도심재생을 위한 지원제도 확립

-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 도심재생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생지원조직 네트워크 형성
- 도심재생 등 핵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계획의 총괄적인 조정 및 관리를 위해 일선행정조직의 확대보강

라. 도시재생전략계획(안)

■ 비전 및 목표

-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빛과 향기가 있는 도시 광양”

■ 4대 목표

-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노후산업단지를 재정비하여 지역경제 재생을 통해 재도약 기회 마련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기회를 마련하여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도모
- 노후주택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의 생활환경 재생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 역사자원과 자연자산을 활용한 역사자원 재생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공간 창출

■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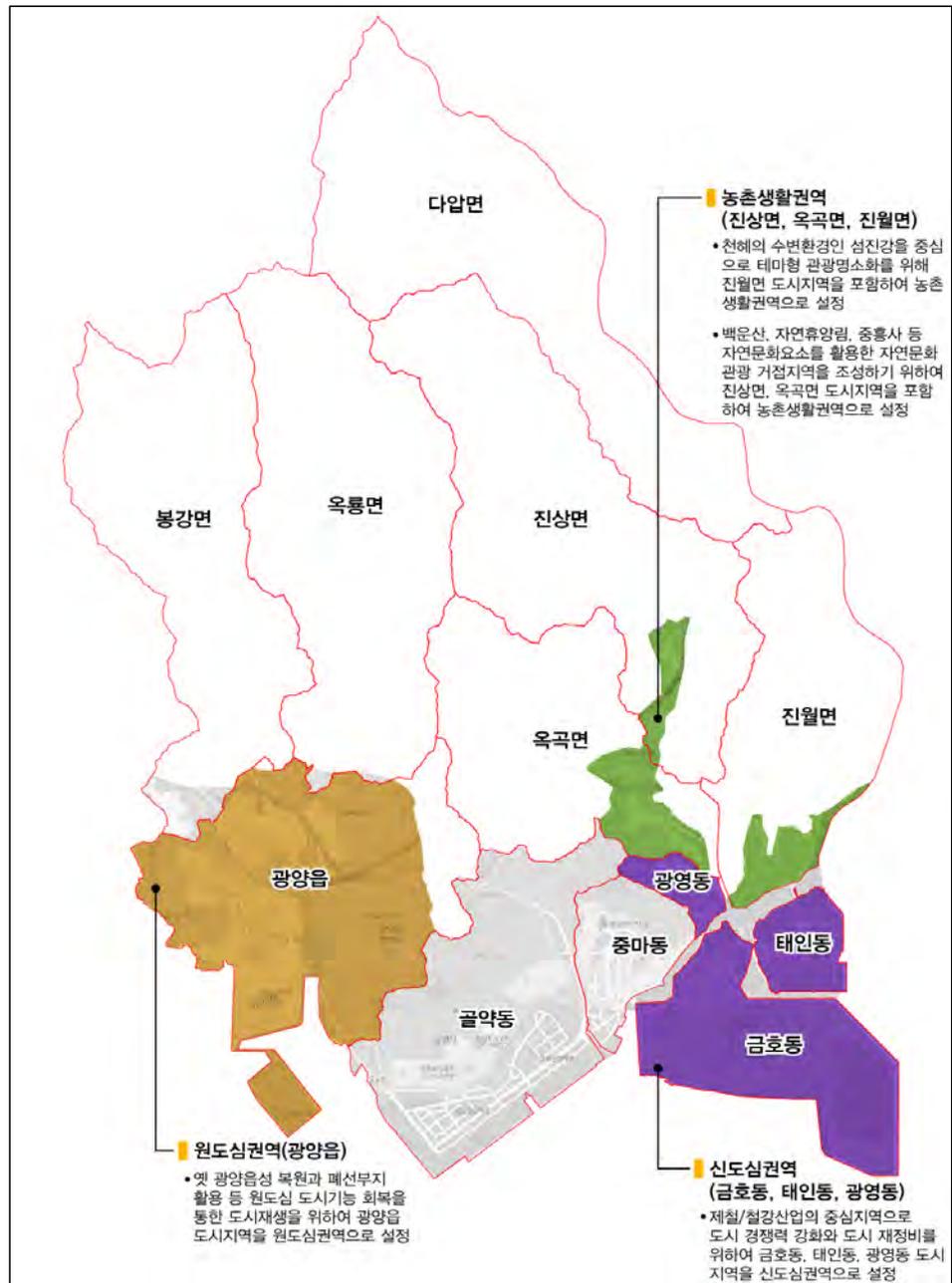
- 지역경제 재생
 - 옛 광양역 주변과 폐선부지 정비와 매천로 문화거리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 노후화 된 광양국가산업단지 재정비로 도시경쟁력 강화
- 공동체 재생
 -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력수복형 재생유도 및 연계 프로그램 지원
 - 빈집, 공터를 활용하여 지역 커뮤니티시설 확충
- 생활환경 재생
 -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 역사자원 재생

- 광양읍성 복원과 한옥마을 보전을 통한 역사적 장소자산 활용 및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의 골목투어 발굴
- 백운산, 섬진강 등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관광자원 개발

■ 도시재생 권역 설정

- 광양읍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재생권역, 금호동·태인동·광영동을 포함하는 경제재생권역, 진상면·진월면·옥곡면을 포함하는 농촌재생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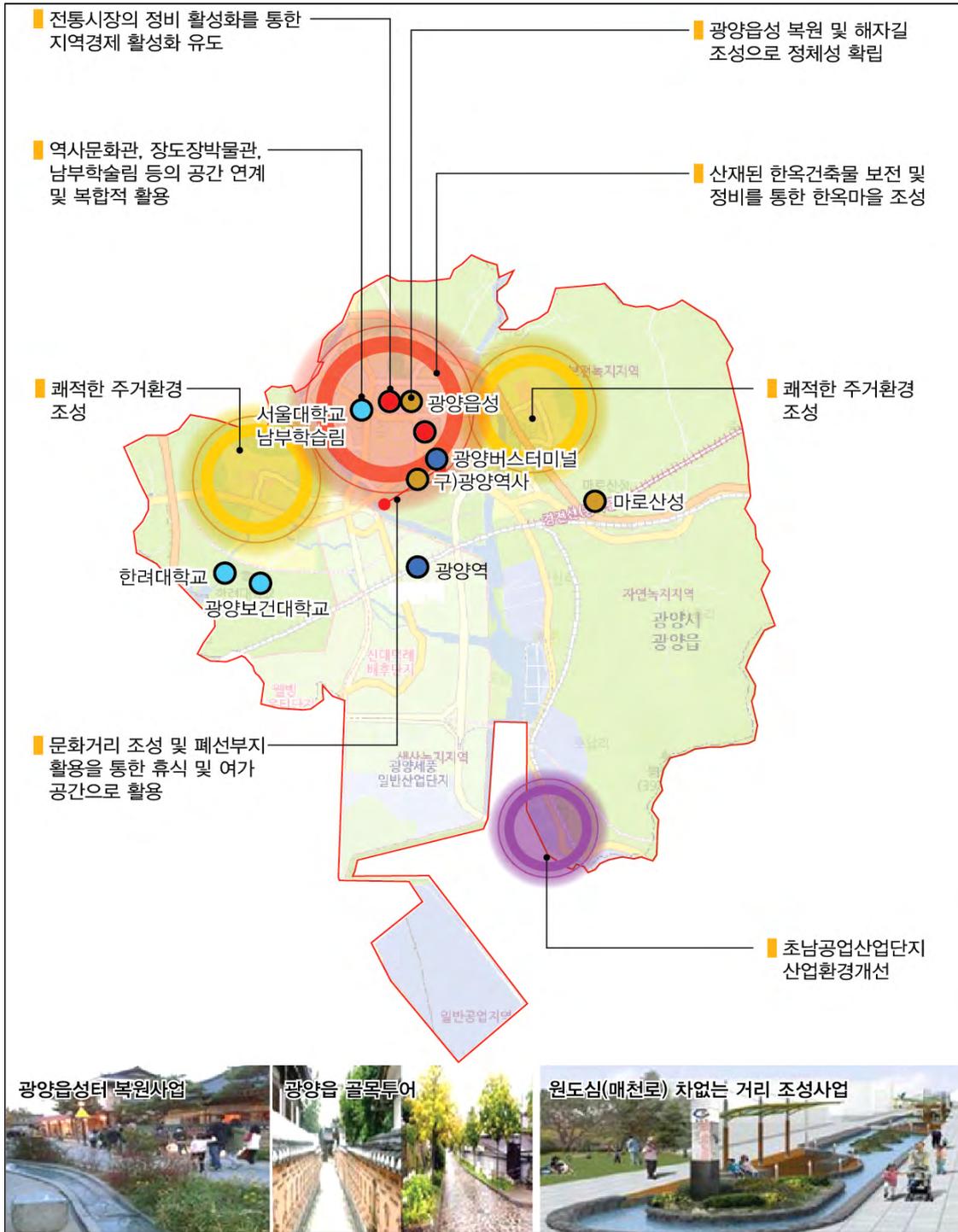


(그림 III- 29) 도시재생권역 설정

■ 권역별 도시재생 기본구상(안)

○ 원도심재생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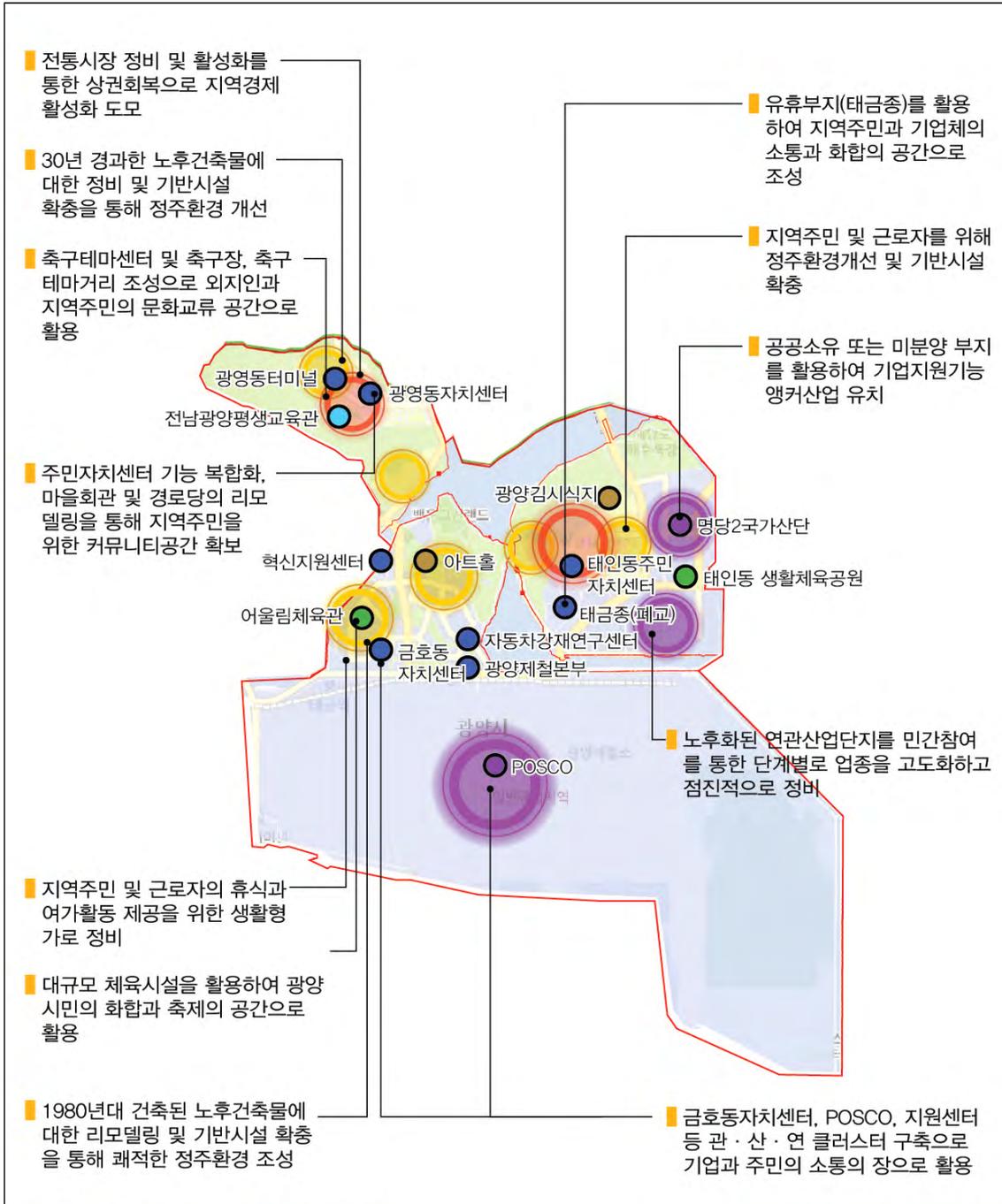
- 위치 : 광양읍
- 광양읍성 복원, 한옥 보전과 정비, 폐선부지 활용, 문화거리 조성 등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림 III- 30) 원도심재생권역 기본구상(안)

○ 경제재생권역

- 위치 : 금호동, 태인동, 광영동
- 금호동 :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 태인동 : 노후화된 연관산업단지의 재정비를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 도모
- 광영동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그림 III- 31) 경제재생권역 기본구상(안)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 농촌재생권역

- 위치 :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 옥곡면 : 농촌지역 중심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도모
- 진상면 : 농촌지역 중심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도모
- 진월면 : 농촌지역 중심기능 강화 및 관광 명소화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그림 III- 32) 농촌재생권역 기본구상(안)

■ 광양시 도시재생기본구상(안)

- 원도심재생권역, 농촌재생권역, 경제재생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재생권역별 도시재생 기본구상 제시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원도심과 농촌구상

제3편 도심 및 주거환경

2. 도심 및 시가지 정비

2.1 현황

- 중마동을 중심으로 개발이 집중되고 순천시의 택지개발사업이 동쪽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 광양읍이 위치상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짐
- 신시가지 택지분양 촉진책으로 원도심 공공시설 등 주요기증이 이전하여 기존 도심의 기능 저하와 노후화 초래
- 혼재된 토지이용과 상업·준주거용도 영세필지의 중로변 선형 입지로 교통 체증 및 주차난 심각
- 신·구 시가지간의 도시기능 불균형으로 인한 편의성, 환경성, 심미성, 문화성 등이 원도심의 쇠퇴 원인

2.2 문제점

가. 획일적인 시가화용지 확산

- 일방적인 시가화 확대를 위한 단조롭고 획일적인 주택공급의 확대로 주거 문화에 대한 질적 환경 저하
- 개발수요가 없는 곳에 획일적인 도시관리계획 적용으로 인한 미집행시설의 발생 및 부분적 난개발 가중
- 소규모의 단위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미확보로 계획된 민원발생

나. 도심 및 구시가지의 정비 필요

- 기성 시가지내 공공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악화 문제 대처
- 구릉지 부분의 난개발로 인한 노후불량 주택의 발생으로 재해 및 생활환경 서비스 질적 저하
- 4층이하의 단독주택 위주 저층개발로 인한 주거지 평면확산 초래
- 향후 신개발 주거지 조성과 더불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필요

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대책 필요

- 주택점유 형태로 볼 때 임차비율이 41.5%로 매우 높은 실정임
- 지속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2.3 목표

- 광양 미래상에 부합하는 시가지 정비로 도심경쟁력 강화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기능적인 시가지 형성
- 지역에 적합한 시가지 정비수법을 활용함
-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질서 있는 도시기능 정비

2.4 실천계획

가. 공공시설 정비

-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도·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정비를 추진함

나. 시가지정비수법의 활용

- 도시재개발, 주거지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정비 시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합한 사업방식을 검토
- 개발예정지역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으로 지정하고, 주택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 내 기반시설을 정비함
- 필요시 신개발지와 정비사업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

다. 양호한 경관의 형성

■ 지역경관을 고려한 주거환경 형성

- 도시뿐 아니라 읍·면지역까지 아파트 중심으로의 주거 획일화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유도필요
- 지역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자연경관을 고려한 주택 및 주거환경 형성 노력
-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 조성을 탈피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단독주택지와 타운하우스 등을 시범주택단지로 개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공간 개발

■ 경관관련지구와 연계

- 경관·미관지구의 지정(안) 및 관리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관고려요소 및 관리운영방안 마련

■ 경관관련제도와의 연계

- 유형별 경관사업의 선정, 경관전략·시범사업 제시
- 유형별 주민협정(안) 및 관리·운영방안 제시

■ 경관관련 제도정비

- 관련계획 및 법규와 적합성·통합성·정제성을 갖는 경관조례 수립
- 경관위원회 운영

라.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

- 도심권내 인구유출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국·공유 시설부지와 이전계획으로 확보가능한 국·공유지시설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효율적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 도심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요구되는 사회적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가지 활성화에 기여

마. 역세권 개발

- 광양역사 이전계획에 따른 신규 역사부지를 정비하여 도심활성화 마련
- 상업, 숙박, 업무, 전시, 휴식, 오락, 여가 등의 복합적 기능을 도입
- 도시개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월 및 세풍지구 일원을 역세권 계획과 연계하여 도심활성화 도모
- 도시공간구조상 광양읍 기존시가지와 역세권지역과 중심상업기능을 연계하여 도심활성화 도모

바. 신규 시가지간의 균형발전

-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시 주택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신규 시가지와 연계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조화 있는 주거지 형성
- 주택 공급시 적정 밀도계획을 수립하여 신개발과 주거지 정비사업간의 균형 있는 개발밀도를 설정하도록 유도

사. 비도시지역 취락정비

■ 노후불량 주택의 개선

- 농가주택 개량 및 신축자금의 융자 지원 확대
- 주택 증·개축시 건축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 마을만들기형 정비

- 공공기관과 주민의 협력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개선
- 비도시지역내 저층 단독주택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시설 확보를 위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취락지 정비
- 문화복지시설(광장, 집회소, 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심과 비도시지역간 대중교통체계 정비를 통해, 도심에 편중된 문화·복지 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주거환경계획

3.1 현황

가. 주택관련 지표변화

- 최근 주택공급의 증가로 인해 2013년 주택보급율은 110%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표 III- 52 > 주택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구(천인)	141,388	143,461	145,512	150,725	150,837	151,621
가구수(가구)	50,344	51,840	53,423	56,442	57,026	57,707
가구원수(인/가구)	2.8	2.8	2.7	2.7	2.6	2.6
주택수(호)	54,251	53,703	54,846	58,377	61,241	63,462
주택보급률(%)	107.8	103.6	102.7	103.4	107.0	110.0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나. 주택노후 현황

- 2010년 기준으로 198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 전체의 55.2%를 차지할 정도로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임

< 표III- 53 > 주택 노후화 현황

구분	2005년			
	합계(호)	5년이내	1985~2000년	1984년 이전
광양시	41,844	5,620	28,881	7,343
구분	2010년			
	합계(호)	5년이내	1995~2005년	1994년 이전
광양시	46,044	5,228	15,401	25,415

자료 : 전라남도 주택종합계획(2013)

다. 점유형태별 현황

- 자가의 비율은 1990년 57.7%에서 2010년 55.7%로 20년 동안 2% 감소하였음

< 표III- 54 > 주택 점유형태 현황

구분	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1990	31,810	18,361	5,505	2,801	-	4,281	862
1995	35,252	23,481	8,151	1,067	827	823	903
2000	39,780	24,042	11,037	1,620	1,101	926	1,054
2005	44,656	23,974	13,957	3,498	1,067	870	1,290
2010	49,388	27,503	12,950	6,156	871	514	1,394

자료 : 전라남도 주택종합계획(2013)

라. 주택보급률

- 2013년 광양시 주택보급률은 110.0%로 인근주변 도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택의 양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에서는 주택보급률 120%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고 있음

< 표III- 55 > 주택보급률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광양시	103.4	107.0	110.0
여수시	97.2	101.3	104.7
순천시	114.0	104.5	108.8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및 전라남도 통계연보(2014)

3.2 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계획

가. 주택수요 추정

■ 장래 주택수요 및 공급계획

- 사회적 유입인구의 증가, 가구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주택보급률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 주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목표연도인 2030년의 총 주택수는 135,000호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현재 주택수의 약 2.1배의 수치임

< 표III- 56 > 장래 주택수요 추정

구분	2013	2015	2020	2025	2030
인구(인)	151,621	153,587	200,000	240,000	270,000
가구당인구(인)	2.6	2.6	2.5	2.4	2.3
주택보급률(%)	110	110	112	114	115
가구수(가구)	57,707	59,789	80,000	100,000	117,391
총 주택수(호)	63,462	65,768	89,600	114,000	135,000

■ 주택유형별 배분계획

- 주택유형별 장래 수요는 택지개발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의 증가 및 아파트 선호도 증가에 따라 아파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2030년 아파트의 비율은 전체 주택수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표III- 57 > 주택유형별 장래수요 추정

구분	2013	2015	2020	2025	2030
총계	63,462 (100.0)	65,768 (100.0)	89,600 (100.0)	114,000 (100.0)	135,000 (100.0)
단독주택	20,654 (32.5)	21,375 (32.5)	28,672 (32.0)	35,910 (31.5)	41,850 (31.0)
아파트	36,960 (58.2)	38,474 (58.5)	52,864 (59.0)	67,830 (59.5)	81,000 (60.0)
기타	5,848 (9.2)	5,919 (9.0)	8,064 (9.0)	10,260 (9.0)	12,150 (9.0)

3.3 과제

가. 주택수요에 근거한 단계별 주택공급계획 수립

- 가족규모의 감소, 독신가구의 증가, 노령화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변화에 부응한 주택공급이 필요함
- 인구증가를 고려한 단계별 주택수 제시 필요

나.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 강구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필요

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정비방향 설정

-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를 감안하더라도 나홀로 아파트 건립방식보다는 저밀이면서 집단화된 아파트단지 조성 필요
-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주택개량 유도
-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시 입지평가제도 확립

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시 적절한 사업방식 및 전략 강구

- 주거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시대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방식 공급을 통해 주택유형, 규모 등 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신주거 모델 제시 필요

3.4 목표

가. 주택수요변화에 맞는 주택공급계획 수립

- 생활패턴 및 사회인구변화 패턴에 맞는 규모 및 유형의 주택공급
- 생활권별 인구배분과 당해 생활권의 주거용지공급능력을 감안한 주거밀도 설정

나.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 강구

-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한 지속적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대책 마련

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 기존 농어촌 생활환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리사업)
- 노인 관련시설 설치 개량 및 유지

라. 적절한 도시재개발 전략 수립

- 기존 주거지의 정비를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 형성
- 지역적·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도시재개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기존의 획일화된 주거환경 개선

3.5 실천계획**가. 주택수요변화에 맞는 주택공급계획 수립**

- 2030년의 총 주택수 135천호 중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을 60% : 31% : 9%(기타)로 설정하여 단독주택은 약 41.8천호 정도의 공급을 계획함
- 주택공급시 최저소득층, 저소득층, 중산층이상까지 다양한 평형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증대함
- Life-Cycle, 주택선호도, 규모 등을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계획 수립
- 교통이 편리한 곳에 새로 지은 아파트나, 원룸, 주상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

나.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 강구

-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택수요를 일부 입주업체가 부담토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사원아파트 및 사택단지 건설 유도
-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공동주택단지 규모를 확대하고, 소형 공동주택으로 공급
- 주택구입비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의 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
-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주거안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급확대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최소한의 주거수준 제시
 - 1인당 주거면적 : 30㎡(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20년 기준)

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 농촌 빈집 및 불량주택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에 대한 저금리 융자 및 융자금액 상환확대 마련
- 환경친화, 고품자 편의형 등 다양한 주택모델 개발과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정주 지원을 위한 단지형 주거모델 개발 추진
- 농촌 빈집관리 강화
 - 농촌 빈집정보센터의 운영을 통해 빈집통합관리체계를 마련

■ 폐가 및 공가에 대한 정비를 통한 활용방안 모색

- 귀농인 임차주택으로 활용
 -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
- 체험시설로 정비
 - 농촌 체험시설 및 황토방 등으로 정비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주민 소득사업에 활용
- 공용공간으로 활용
 - 매입 후 철거하여 지역의 공용 주차장 및 창고로 활용



(그림 III- 33) 빈집정비 사례(군산시)

라. 적절한 도시재개발 전략 수립

- 노후주택 및 불량주택의 정비 혹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정비
-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의 밀도관리 방안 수립
- 일정규모 이상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세대수 규모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주거환경 개선
-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계획적 관리기법과의 연계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유도하여 향후 합리적인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함

제4장 환경의 보전과 관리

1. 현황 및 여건변화

■ 대기환경

- 2013년 현재 광양시의 대기환경은 아황산가스 0.006ppm, 일산화탄소 0.4ppm, 이산화질소 0.018ppm, 미세먼지(PM-10) 37 $\mu\text{g}/\text{m}^3$, 오존 0.032ppm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아황산가스는 0.007ppm에서 0.006ppm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이산화질소는 0.015ppm에서 0.018ppm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 오존은 0.023ppm에서 0.032ppm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대기오염배출량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순으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과 겨울철 난방연료의 사용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 계절별 변화를 살펴보면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은 겨울철 난방연료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농도가 높은 편이며, 미세먼지는 건조한 겨울철 및 황사로 인한 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III- 58 > 광양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아황산가스(SO ₂) (ppm)	0.007	0.007	0.006
일산화탄소(CO) (ppm)	0.4	0.5	0.4
이산화질소(NO ₂) (ppm)	0.015	0.015	0.018
미세먼지(DUST) ($\mu\text{g}/\text{m}^3$)/년	44.0	42.0	37.0
오존(O ₃) (ppm)	0.028	0.023	0.032
산성비(강우산도) (PH)	5.0	5.5	5.6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 수질환경

-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과 호수로 유입되어 오염이 심각한 실정임
- 따라서, 하천의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수생 및 동·식물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하천정비가 필요함

< 표III- 59 > 광양시 하천 수질오염 현황(2014년도)

구분	동천 (삼정교)	동천 (초남교)	서천 (당저교)	서천 (지곡교)	섬진강 (죽천)
온도(℃)	17.6	16.9	19.1	17.1	17.9
수소이온농도 (pH)	7.92	8.10	8.21	7.93	8.23
용존산소 (mg/l)	9.72	9.45	10.45	9.95	10.08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1.45	1.30	1.30	1.50	1.23
부유물질 (mg/l)	1.85	7.15	1.60	3.50	2.10
대장균군 (MPL/100)	-30.00	-30.00	-30.00	-30.00	43.00

자료 : 2014년도 하천 및 해양 오염도 조사 수질 일반현황(광양시 환경과 내부자료)

■ 해양환경

- 광양만권의 해양 수질오염원 분석 및 수질오염도 변화추이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광양만 일원 9개소에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질오염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 표III- 60 > 광양만 해양수질 오염 현황(2014년도)

단위 : ℃, pH, mg/ℓ

채취지점	항 목								
	수온	pH	DO	전도도	염분	COD	SS	T-N (질소)	T-P (인)
묘도 서남방	17.98	8.67	7.55	49.47	32.34	1.71	8.03	0.54	0.03
묘도 서방	18.03	8.67	7.33	49.05	32.13	1.73	9.65	0.54	0.03
묘도 서북방	18.21	8.68	7.38	49.00	32.02	2.06	7.55	0.50	0.04
남해대교남방	18.03	8.61	6.76	50.48	33.10	1.29	7.28	0.46	0.03
낙포동 동방	17.83	8.62	7.01	49.37	32.27	1.29	7.28	0.54	0.03
광양제철남방	18.29	8.69	7.61	49.82	31.87	1.72	7.83	0.42	0.04
광양제철동방	17.92	8.55	7.26	42.71	27.50	1.65	11.95	0.52	0.03
지진도 동방	17.94	8.63	7.03	48.79	31.86	1.40	8.38	0.48	0.03
화동화력 앞	19.77	8.58	6.59	50.56	33.16	1.16	7.98	0.38	0.03

자료 : 2014년도 하천 및 해양 오염도 조사 수질 일반현황(광양시 환경과 내부자료)

■ 폐기물 관리

- 쓰레기 배출량은 점점 증가 추세로 전량 수거 되어 매립, 소각, 재활용을 통해 전량 처리 되고 있음

< 표III- 61 >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지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소	1	1	1
면적(km ²)	188,000	188,000	188,000
매립고(m)	97	101	106
총매립용량(톤)	3,145,291	3,145,291	3,145,291
기매립량(톤)	779,011	833,891	897,745
잔여매립 가능량(톤)	2,366,280	2,311,400	2,247,546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 상수도

- 2013년 상수도 보급률은 94.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표III- 62 > 광양시 상수도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도시내 총인구(명)	152,169	152,224	152,995
급수 인구(명)	140,270	142,842	142,842
보급률(%)	92.2	93.8	94.3
시설용량(m ³ /일)	55,100	55,100	55,100
급수량(m ³ /일)	47,547	48,342	47,891
1일1인당 급수량(ℓ)	382	379	370
급수전수(수도전)(개)	14,801	15,319	15,600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 하수도

- 2013년 하수도 보급률은 92.1%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표III- 63 > 광양시 하수도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총인구(명)	152,167	152,224	152,995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종말처리인구(명)	136,314	136,915	138,349
하수처리구역내 -폐수종말처리인구(명)	2,673	2,567	2,500
하수처리구역외 -인구(명)	13,180	12,742	12,147
보급률(%)	91.3	91.6	92.1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 에너지

- 2013년 광양시의 현재 전력 사용량은 6,310,951MWh이며, 이 중 산업용 전력사용량이 5,767,497MWh로 전체의 91.3%를 차지함
- 최근 5년간 전력사용량을 보면 2013년의 전력사용량은 2009년의 전력사용량의 약 77.4%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용 전력사용량의 증가폭(88.5%)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표III- 64 > 광양시 전력사용 현황

(단위 : MWh)

구분	합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업용
2009	3,557,340	152,287	37,179	308,916	3,058,958
2010	3,972,017	164,630	40,905	338,127	3,428,355
2011	5,177,297	168,817	43,023	343,109	4,622,348
2012	5,447,105	174,078	44,582	341,332	4,887,112
2013	6,310,951	178,447	43,529	321,478	5,767,497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 2013년 광양시의 유형별 가스공급량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량 40,746,000m³, 프로판 가스 4,100t, 부탄 15,301t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가스의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표III- 65 > 유형별 가스공급량

구분	도시가스		프로판		부탄	
	판매소수	판매량 (1,000m ³)	판매소수	판매량(t)	판매소수	판매량(t)
2009	1	27,585	25	4,475	13	11,773
2010	1	28,217	25	4,468	13	11,736
2011	1	33,162	25	4,119	13	15,339
2012	1	38,621	25	3,697	14	12,887
2013	1	40,746	22	4,100	14	15,301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 광양시의 2013년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78.7%로 전라남도 평균인 50.5%를 상회하고, 도내 주요도시 중 제일 높게 나타남

< 표III- 66 > 전라남도 주요도시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2013년도)

구분	보급률(%)	도시가스 수요가구수(개소)	공급권역 총가구수(개소)
전라남도 전체	50.5	308,875	611,717
광양시	78.7	45,438	57,707
목포시	73.2	72,732	99,334
여수시	55.3	63,282	114,364
순천시	69.8	72,943	104,507
나주시	23.2	9,514	41,094

자료 : 전라남도 통계연보(2014)

2.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2.1 기본방향

가. 대기환경

- 광양만권 광역적 대기환경 관리 체계 추진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선진화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동차공해 저감대책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저감을 위한 관리 및 지도 강화
- 청정연료 및 저황유 보급 확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전략 강구
- 대기질 정화에 대한 도시의 자정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나. 수질환경

- 과학적인 수질관리 및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 수립
- 섬진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 등 장기적 물관리 대책 수립
- 환경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처리 능력의 배양
- 수질규제기준의 엄격한 적용
- 시민과 함께 하는 친수·친녹 공간 조성
- 수질감시 및 수질사고 대처를 위한 수질관리시스템 확립
-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을 통한 오·폐수 배출량의 감량화
- 하수관거계통 정비 및 환장에 의한 하수 차집을 개선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다. 해양환경

- 지속적인 해양오염원 관리를 통해 해양오염원 원천적 차단
- 생태적으로 건강한 연안해역 조성
- 인접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연계한 해양환경관리 체계 구축
- 환경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으로 해양환경보호와 동시에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

라. 폐기물 관리

-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자원화율 증대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 분리수거방식의 정착화로 재활용물질, 가연성물질과 불연성물질을 분리수거
- 불연성물질은 매립하되 압축하여 쓰레기를 감축
- 자원화할 수 있는 종이, 플라스틱, 금속류 등을 회수하여 폐자원의 재활용 추진
- 산업폐기물은 별도 설치하여 매립
- 완벽한 폐기물처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

마. 상수도

-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확보
- 상수도 운영에 대한 선진화·효율화 체계 정비
- 장래 인구계획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급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상수 공급

바.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운영·관리의 선진화
- 노후하수관거의 지속적 정비로 환경개선과 효율성 증진
- 산업단지내 자체 폐수처리시설 건설계획 수립으로 폐수의 자체처리 유도
- 신개발지의 분류식 배제방식 채택 및 기존 시가지 내 분류식 관거의 지속적 보급 확대
- 비도시지역내 마을하수도의 지속적 확충으로 환경보호 및 관광기능 강화 실현

사. 에너지

- 에너지 수요증대에 대비한 LNG 등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및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추세를 감안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모색
- 도시가스 배급망의 순차적 확대로 대기환경개선과 정주환경의 질제고
- 에너지 이용효율 극대화와 에너지 절약기술 발굴 및 홍보
- 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모색

2.2 실천전략

가. 대기환경

■ 대기환경의 개선 및 관리

- 대기오염원 자체에 대한 관리
 - 대기오염물질을 특성별로 검토하여 각종 발생원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 수립
 - 이산화탄소와 오존의 저감방안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방안 마련
 - 가정용 난방연료로 청정원료보급을 확대하여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예보제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대기오염 감소의 기반이 되는 시가지내 공원·녹지공간 확충
- 녹색교통(자전거도로)과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차량의 배기가스 감소
- 주요 간선도로와 통과도로변에 완충공간 확보를 통한 영향 최소화
- 대규모 건축 및 개발사업 시행시 비산먼지 발생규제 강화

■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 및 처리 강화

-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 저유황 및 청정연료 사용 및 보급 확대
 - 친환경적 교통기반 구축
 -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천연가스 버스 도입
 - 매연관리감독 강화(매연신고 및 점검 관리)
- 오염물질 처리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감독 강화
 - 소음·진동발생이 많은 간선도로, 공업지역변에는 충분한 폭원의 완충녹지 계획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지역은 방음시설을 설치

■ 강화된 대기환경기준 설정

- 고속도로 및 국도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대기오염기준 마련
- 정부의 대기환경기준 강화정책에 맞게 지속적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함

■ 주거환경 악화요인에 대한 대처

- 소음, 진동, 악취 등 주거환경 악화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
- 시가지지역과 인접한 악취발생원에 대한 충분한 완충지대 확보
- 간선도로의 사업 시행시 환경부기준에 부합하는 환경대책 마련

■ 광역적(광역권) 대기환경 개선

○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환경부 고시 제2015-194호)을 중심으로 광양만권의 광역적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대상지역 :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 관리대상 오염물질 : 오존(O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산화질소(N2)
- 개선목표 : 오존(O3) 1시간 평균치 0.02ppm(광양시 기준, 2020년말까지)
-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 자동차 관리대책
 - 교통수요 관리대책
 -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배출시설 관리대책
 - VOCs 관리강화
 -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 표III- 67 > 광양만권역 대기환경 실천계획 세부 삭감내역

단위 : 톤/년

구분	세부사업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질소산화물(NOx)
계		21,257	32,305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 도시녹화 및 대기 정화식물 식재 - 대기환경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개선 - 환경친화적(에너지 절약형) 건물 보급 확대	-	150
자동차 관리대책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추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설정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화물자동차 과적·과속 단속 -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단속 및 저공해화	21	761
교통수요 관리대책	-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 -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전기자전거 운행(공공업무용) -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	24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선박부분 배출규제 강화	95	5,137

(표 계속)

구분	세부사업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질소산화물(NOx)
배출시설 관리대책	-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의 계속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에너지 목표 관리제(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강화 -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시행(저 NOx 버너 설치 확대)	205	26,065
VOCs 관리강화	- 배출저감 30/50 프로그램 추진 -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 환경친화형 페인트 및 유기용제 보급	20,936	-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10% 절약운동 추진 - 소각시설 및 불법 소각행위 관리 강화	-	168

자료 :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환경부 고시 제2015-194호)

나. 수질환경

■ 수질보전대책 및 방안마련

- 하수관리의 체계적 정비 및 관련시설의 조속한 건설 추진
 - 하수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수처리장의 조속한 건설로 처리율 제고
- 발생하는 오염수의 특성에 적합한 대책 강구
 - 지역특성과 업종특성을 고려하여 폐수특성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도입
-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수질관리대책 마련 및 개발부담금 강화
 - 지하수시설의 체계적 관리운동을 위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 지하수 개발부담금 강화를 통해 수질환경 개선 추진
 - 빗물자원 활용 및 중수도 계획 등 대체 수자원 확보
- 오염물 총량관리제도 관리감독 강화
 - 오염물 총량관리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단계적 수질향상 도모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 및 처리강화

-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한 실천운동 전개 및 환경감시체제 도입
- 산단내 폐수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개별사업장에 자동감시체제 구축
- 축산농가의 방류수 기준강화 및 공동처리시설 확대, 보급
- 광양시내 기업들이 환경경영체제인 ISO14000인증을 획득하도록 제도 및 행정지원

■ 비점오염원의 조사 및 관리강화

- 비점오염물질 발생억제
 - 강우시 비점오염물질화 되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나대지에 식생 조성, 우수발생량 저감, 환경친화적 경작실시, 축산분뇨·축사관리 철저, 사업장의 원료·생산품 보관 철저 및 건설공사장의 철저한 관리 등의 노력필요
- 지표면 오염물질 제거
 - 거리·도로, 하천바닥, 지붕, 주차장, 광장 등 지표면상의 오염물질은 주기적(강우전 및 겨울철에 내린 눈이 녹기전)으로 제거하여 비점오염물질 유출 예방
 - 이를 위해 특정일을 비점오염물질 제거의 날로 정해 골목길, 가로·도로상의 퇴적된 오염물질을 주민들의 협조하에 제거(내집앞 청소 등의 홍보 필요)
- 강우유출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 억제
 - 강우유출수의 하천 직접 유입은 지표면상의 오염물질을 바로 하천에 유입시키게 하므로 강우를 저류하거나 지하로 침투 유도
 - 하천으로 직접 유입 억제는 홍수예방, 소하천의건천화 방지차원에서도 중요
- 강우유출수내 오염물질 최소화
 - 광장, 공사지역, 공장, 주택단지, 농지, 합류식하수관거(마을하수도포함) 및 우수관거 등의 강우유출부에 저류시설, 침투시설, 연못 등 적절한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및 해당 지역(시설)의 소유자에게 설치 권장
 - 경작지, 축산지역에 강우유출수에 있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 하천변에 주차장 시설 등을 위한 콘크리트 피복 등을 제한 및 식생 조성
 - 비점오염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 연구 추진

■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 계획

- 산업체에 대해 GIS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업체별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강화
- 시민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시민 스스로 수질개선에 동참하고, 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수질오염 감소 기여

■ 하천별 관리기구 운영 및 친수공간 조성

- 섬진강변 광역적 수질관리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 수계에 대한 자체적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관리계획을 수립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의해 섬진강 수계의 목표수질 및 허용부하량 관리
- 체계적인 하천정비계획 수립으로 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의 자정능력 제고
-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하천 자정능력 향상

다. 해양환경

■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확충

- 해양수질, 해양저토, 어패류 등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 섬진강 수계와 연계한 환경측정 시스템 구축
- 해양투기방지 협약(런던협약/런던의정서) 등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시행
 - 런던협약(87개국, '93.12월 가입), 런던의정서(45개국, '09.1월 가입)

■ 해양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

- 인접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광역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연안해역 정화작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교육·홍보
 - 광양항을 중심으로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추진
(2009년부터 부산남항, 용호만, 여수신항, 울산 방어진항 추진)

■ 환경친화적 항만의 계획 및 설계

- 항만구조물의 환경친화적공법에 의한 설계와 시공
- 항만시설 배치계획 또는 조정시에 환경요소 강화
- 항만시설 주변 친수, 문화시설 조성으로 관광기능 확충
- 환경친화적 항만 계획을 통해 해양 관광 활성화에 기여 및 경관 개선

■ 연안정비를 통한 해안침식 방지

-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안침식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연안회복탄력성 유지·개선 방안 마련
- 연안침식 예상지역에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연안정비사업 우선시행
- 항만구조물의 환경친화적공법에 의한 설계와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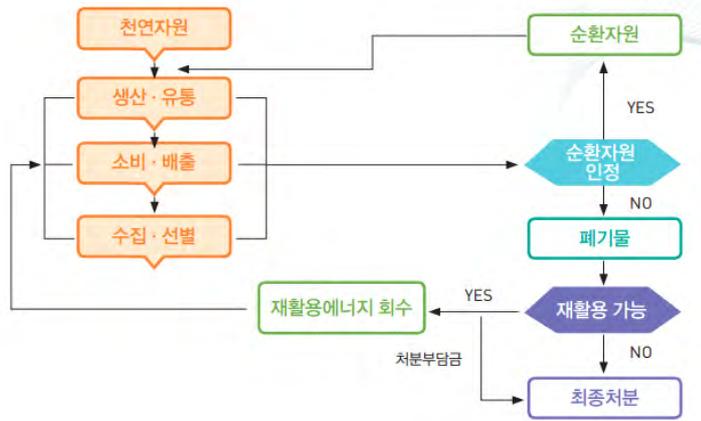
라. 폐기물 관리

■ 자연순환형 폐기물 관리

-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으로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 처리
-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자원화율 증대
 - 공정개선, 환경 친화적인 원료 사용 등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추진 등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

○ 폐기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

-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에서 ‘기후변화, 원자재·에너지 고갈’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대두됨



(그림 III- 34) 자원순환체계 구축 개념도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생활 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분리수거 체계화, 총량제 개선등을 통해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 극대화
 - 세분화, 조직화된 분리수거체계 정비
 - 재활용업체에 대한 세재감면, 인센티브 혜택
 - 기업자금 지원
 - 신기술과 판로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
- 폐기물 발생, 수거 및 운반, 중간처리, 최종 처분 등의 시스템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 지정폐기물 철저히 관리하여 발생량을 저감하고, 공동처리시설 확충하는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유도
 - 지정폐기물의 안정화, 무해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 감염성 폐기물 배출원과 수거, 처리업체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관심
 - 건설폐기물 재활용재의 활용방안 모색

■ 예방 및 참여

- 환경친화적 소재의 사용 및 재활용의 제고, 유해물질의 감축 등 환경부하를 줄이는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사후적인 사회비용을 절약하고 생산과 소비양식 그 자체가 환경친화적이 되도록 유도
- 오염을 야기한자가 오염방지비용 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

-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유기적인 협조 요망
- 녹색소비생활 가이드 맵(Guide Map) 제작 및 배포
 - 마을단위 수거보상제 도입 및 수거보상비 현실화
 - 부녀회 등 마을 공동체 조직 활용
-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행위 근절
 -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및 활용
 - 마을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처리구간을 설정하여 자율적인 감시 및 처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에서 마을단위 지원사업 시행시 반영

마. 상수도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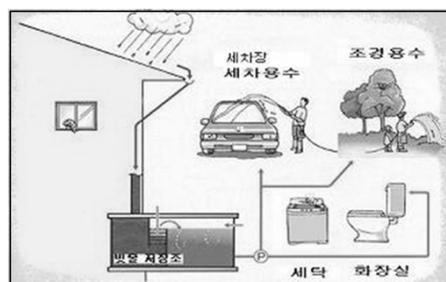
- 용도별 용수수요량을 추정, 수요에 따른 급수시설의 확충
- 급수량 증가에 따른 시설용량의 확장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
- 수돗물의 살균을 위해 투입되는 염소가 수돗물의 유기물이나 화학물질과 반응하여 클로로포름(Chloroform)이라는 발암성 물질을 생성하므로 유입수의 오염농도를 저감토록 함
- 원활한 상수공급과 재원조달을 위해 장기상수도채권을 발행하고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 재무회계방식을 도입
- 상수관 설비자재의 품질검사를 통해 유입으로 인한 상수원수의 수질악화는 현재의 처리기술인 생물학적 처리누수율을 방지함과 아울러 15년 주기의 수선적기를 염수하되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알루미늄관으로 교체토록 유도

■ 물 절약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몽

- 시민들이 물 사용 습관을 개선하여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계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

■ 빗물자원 활용

- 가용 수자원의 고갈과 장래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 빗물자원의 환경친화적 이용 검토·반영하여 가용 수자원을 활용하고 물 부족문제에 대처 진



용수수요는 하천방안을 최대한추

(그림 III- 35) 빗물이용 사례

■ 중수도 계획

- 향후 예상되는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중수도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권장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해당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함
 - 생활용수의 경우 기존 시가지에 중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향후 조성될 도시계획지역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서 상수도 사용량을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가정용수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중수도 보급

< 표III- 68 > 중수도 개념 및 효과

사용효과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 배출량 감소로 인한 하천 수질개선 · 상수도 사용량의 절감과 수자원의 보존 · 용수절약 의식고취 및 친환경적 이미지 향상 · 중수도의 공급은 장래 확장계획에 의한 확장단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를 고려하여 수세용수 및 청소용수, 조경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내 주요도로에 중수도 관로를 계획 	

■ 상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 전망

- 2013년 현재 94.3%인 상수도보급률을 2030년까지 98.0%로 계획하고 1인 1일급수량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총수요량을 추정
- 일최대수요량은 2030년 100,548m³/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현재 일최대 수요량의 약 2.1배에 해당하므로, 수요에 맞는 장기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이 필요함

< 표III- 69 > 상수보급률 및 급수량 전망

연도	인구			일최대수요량	
	계획인구(인)	보급률(%)	급수인구(인)	1인1일급수량(ℓ)	총수요량(m ³ /일)
2013	152,995	94.3	144,255	370	47,891
2015	153,587	95.0	145,908	380	55,445
2020	200,000	96.0	192,000	380	72,960
2025	240,000	97.0	232,800	380	88,464
2030	270,000	98.0	264,600	380	100,548

주 : 상수보급률은 2015년말 현재 수립중인 '광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0년 상수보급률 98.1%를 반영하여 98.0%로 계획함

바. 하수도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하수도 공급 및 운영

- 생활하수는 신설관 및 미비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기존에 매설된 차집관거를 통하여 하수전량을 처리장에서 처리 후 방류토록 함
- 산업폐수의 경우 대규모 공장은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 공장은 집단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폐수를 1차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처리하여 방류토록 함
- 하수관거는 차집관거를 부설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토록 함

< 표III- 70 > 계획오수량(생활오수량) 전망

구분	단위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계획인구	인	151,621	153,587	200,000	240,000	270,000
하수처리구역내 인구	인	140,849	142,068	186,000	228,000	261,900
하수보급률	%	92.1	92.5	93.0	95.0	97.0
1인1일급수량	ℓ/인·일	370	380	380	380	380
1인1일오수량	ℓ/인·일	324	330	330	330	330
오수량	톤/일	49,564	46,882	61,380	75,240	86,427

주 : 하수보급률은 '광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2015)' 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0년 하수보급률 97.1%를 반영하여 97.0%로 계획하며, 1인1일오수량은 2013년 현재 급수량 대비 오수량 비율 87.5%를 적용하여 산정함

■ 하수처리장 계획

-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지속적인 관리 및 처리용량 가중 억제
 -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적운전을 위한 운전조건 도출하고 광역처리방식을 지양하며, 수계별 또는 소구역을 단위로 하는 분산방식을 도입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발생원에서 직접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기존 처리시설 처리용량 부족 가중 억제
- 하수처리수를 고도처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 모색 및 도입을 적극 유도하여 주변지역의 중수도로 활용하고 환경용수 재이용 방안 수립
- 기존 하수처리구역의 개발계획 및 확장으로 인한 계획 목표연도의 하수량 증가에 대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

■ 마을하수도

- 마을하수도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업무의 이원화로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문제 개선
- 마을하수도시설 적정 운영체계 구축 및 소요비용 지원
- 수질기준 초과 마을하수도에 대한 점검 강화 및 기술지원 강화

사. 에너지

■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 가스·석유판매시설에 대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에 의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지도와 불법행위 근절
- 전력, 도시가스, 유류,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국내외 상황 고찰, 수요관리, 수급 및 유지관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대책 수립
- 청정연료 사용 확대와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및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체계 형성

■ 가스공급 관리

- 도시가스(LNG)공급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수급계획 마련
- 개별공급에서 집중·단체공급으로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 공급 효율성 증대
- 도시가스 공급은 초기 설비투자가 막대하므로 주거밀도가 높은 아파트단지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공급망을 확충하고, 서민층 연료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원도심지역 공급망을 확충
- 유류 및 가스공급시설은 주요시설물 및 건축물 밀집지역, 교통혼잡지역, 변화가 등 고밀도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배치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채광/태양광/태양열/지열/폐기물에너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Sunshine Village)
- 고효율 집열기, 솔라지붕(Solar-Roof) 등 태양열 및 태양광 시스템의 도입 의무화 → 공공기관, 의료 및 학교시설, 업무시설 등
 -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법적 의무화
 - 3천㎡ 이상 연구소·업무시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의무화
- 공원, 가로등, 안내판 등에 태양열 전지 활용
- 지열발전을 이용하여 지역에너지 및 생활에너지로 활용
- 폐기물을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발전 및 난방열로 사용도입 검토

■ 공공시설에 대체에너지시설 설치 확대

-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등 대체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의 활성화 추진

■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및 교육·홍보 강화

- 에너지가격 안정정책과 원활한 수급대책 마련
- 에너지 절약시책 및 계몽방법 연구
- 난방구조 개선 등 열손실을 줄이는 방안의 강구
- 무공해 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통한 무공해 도시건설 유도

제5장 경관 및 미관

1. 현황 및 여건변화

■ 산림경관

- 광양시의 자연경관 체계는 백운산과 섬진강이 형성하고 있으며 광양시는 배산임해형 도시로 백운산을 필두로 수려한 자연경관 보유
- 중마동의 경우 기존 시가지 가야산을 배후로 하는 산림경관축을 형성하고 있고, 광양읍은 서산 및 마로산과 비봉산으로 둘러싸여 파노라믹 (panoramic) 산림경관이 형성됨

■ 수변경관

- 섬진강과 진상면 어치에서 발원하는 수어천, 광양읍 지역을 흐르는 동천과 서천 등 4개의 수계로 구분됨
- 북고남저의 지형으로 대부분의 수계는 북→남으로 흐르며 백운산 중심의 상류 저수지와 계곡들과 하류 남해안 중심 하구와 해안 등의 경관자원 분포
- 섬진강 및 동천, 서천은 도시공간에 시각적 개방감을 주고 있으며, 향후 녹지 경관축과 연계성을 구축하여 광양시의 대표 수변경관으로 형성

■ 농산어촌경관

- 농어촌 취락지는 공공 편익시설의 부족과 주거의 노후화·고령화로 정주성이 떨어짐
- 백운산, 섬진강 등 수려한 자연경관 보유
-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상업시설이 입지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로 인한 경관저하가 진행중임

■ 시가지경관

- 광양의 시가지는 전통적인 도시구조인 구시가지와 8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개발된 신시가지, 광양만 배후지역으로 확연히 구분됨
- 광양시의 시가지는 자연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도시간 단절로 불균형적인 시가지 경관을 형성함

■ 해안 산업시설 경관

- 해안에 위치한 항만·산업시설과 이순신대교는 광양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 요소로 작용하므로 중·원경의 조망관리 필요
- 해안시점과 백운로와 제철로 등 주요가로시점에서 조망되는 광양시의 해안 경관은 주로 컨테이너 부두와 광양제철소, 여수산단이 산업 경관축을 이루고 있음
- 특히, 이순신대교 건설에 의한 도시진입의 조망점이 형성됨에 따라 중마권역의 차폐경관 및 스카이라인이 도시이미지의 문제점으로 대두됨

■ 가로경관

- 현재 광양시 도시구조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간선도로망은 동서축 5개노선(남해고속도로, 광양-하동간 국도 59호선, 국도2호선, 국가지원 지방도58호선, 지방도 840호선)과 남북축 3개 노선(지방도 861, 863, 865호선)으로 구분
- 동광양지역과 광양읍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간선도로는 통합로와 국도2호선이 주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나 통합로는 광양항 배후단지가 미조성되어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이 미미
- 주요분기점과 인터체인지 및 진입부에 대한 경관조성 미흡

■ 역사문화경관

- 국가지정 문화재 5점, 지방지정 문화재 10점, 문화재 자료 5점, 총 20점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음
- 광양시의 역사문화자원은 광양읍 백운산자락, 성불계곡과 동곡계곡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음
- 관리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이 부족한 편임

■ 야간경관

- 지역별 특색이 배제된 채 일률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일부상업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어두운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도심부를 제외한 외곽지역의 어둡고 단조로운 경관 형성
- 상업지역의 과도한 상업성·홍보성 네온사인과 현란한 조명으로 혼란스러운 야간경관 형성
- 미(美)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기능 중심의 야간경관 연출
- 주요하천 및 친수공간의 야경이나 랜드마크에 대한 야간경관형성이 미흡
- 공원 등 시민휴식공간에 야간조명 미설치로 인한 안전성 미흡
- 광양시만의 지역적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은 야간경관 연출 및 특성화 공간에 대한 야간경관 특화 부재

2.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2.1 기본방향

- 광양시의 기존 이미지와 자연, 문화, 산업적 강점과 함께 도시전략적 측면의 비전을 근간으로 한 이미지를 도출하여 상위계획의 방향과 일관된 계획이 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함
- 광양의 이미지를 자연환경적 측면, 이미지 조사 측면, 계획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는 전남의 남부에 위치한 공간적 입지를 가지며, 산악지 및 해안에 둘러싸인 경관 형성
- 이미지조사 측면에서는 주변도시와 세계의 소통 거점으로서 교류가 활발한 미래형 항구 도시임
- 계획 전략적 측면에서는 국제무역 거점의 메카라 할 수 있음
- 여러 측면에서 광양시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광양은 ‘자연에 스며든 국제 항구도시’라 할 수 있음
- 도시와 문화, 자연, 역사가 어우러진 광양시의 정감있는 표현으로 사람, 행복, 미래, 사랑 등의 의미를 ‘햇살’의 은유적인 의미로서 ‘광양을 가득채우는 햇살’이 표현되는 ‘매력도시 광양’으로 설정함



(그림 III- 36) 광양시 경관 미래상

2.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2.1 기본방향

- 광양시의 기존 이미지와 자연, 문화, 산업적 강점과 함께 도시전략적 측면의 비전을 근간으로 한 이미지를 도출하여 상위계획의 방향과 일관된 계획이 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함
- 광양의 이미지를 자연환경적 측면, 이미지 조사 측면, 계획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는 전남의 남부에 위치한 공간적 입지를 가지며, 산악지 및 해안에 둘러싸인 경관 형성
- 이미지조사 측면에서는 주변도시와 세계의 소통 거점으로서 교류가 활발한 미래형 항구 도시임
- 계획 전략적 측면에서는 국제무역 거점의 메카라 할 수 있음
- 여러 측면에서 광양시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광양은 ‘자연에 스며든 국제 항구도시’라 할 수 있음
- 도시와 문화, 자연, 역사가 어우러진 광양시의 정감있는 표현으로 사람, 행복, 미래, 사랑 등의 의미를 ‘햇살’의 은유적인 의미로서 ‘광양을 가득채우는 햇살’이 표현되는 ‘매력도시 광양’으로 설정함



(그림 III- 36) 광양시 경관 미래상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2.2 경관 목표

■ 전원도시 : 광양의 자연이 랜드마크가 되는 경관계획

- 수변, 산악, 해안경관의 청정자연 보존과 자연친화형 개발 유도
- 자연경관과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그린투어리즘 비즈니스 창출

■ 전통도시 : 전통적 도시의 정체성과 매력이 넘치는 경관계획

- 역사적 정체성과 향토문화가 묻어나는 경관 형성
- 시가지 기반 정비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도시경관재생

■ 항만도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거점도시를 향한 경관계획

- 광양만 거점도시와 햇살의 도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경관 연출
- 광양만의 중심지로서 상징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경관 연출

■ 교육·문화도시 : 해안조망·친수문화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 도시진입 조망경관 개선과 해안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도시형성
- 공원 및 녹지 확보를 통한 산업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2.3 실천전략

가. 도시이미지 형성 전략

■ 전원도시

- 매화마을 / 축제문화 확대조성
- 자연환경·농촌문화를 활용한 체험마을 조성
- 백운산과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 보전

■ 전통도시

- 역사자원의 복원 / 전통문화 환경 조성
- 다양한 주거유형의 생활공간 정비
- 전통시장과 연계된 상업시설 활성화

■ 항만도시

- 광양만 배후단지의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
- 자연경관의 보전 및 활용, 자연성 훼손 최소화
- 해안경관을 보전하는 스카이라인 형성

■ 교육·문화도시

- 이순신대교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 산업·상업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풍부한 문화가 형성되는 친수공간 조성

나. 경관운영 전략

■ 경관운영의 체계



(그림 III- 37) 경관운영 체계

■ 경관 보전·관리·형성 전략

- 경관 운영에 있어 보전·관리·형성의 세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여 효율적인 경관계획 수립
- 광양시의 풍부한 자연환경 및 우수한 경관자원 보전
- 유형별·요소별·공간별 경관설계지침에 의한 체계적인 경관 관리
- 경관 전략·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이미지 구현
-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협정 사업과 시민 참여를 위한 유도와 지원 방안 마련

< 표 III- 71 > 경관 보전·관리·형성 전략

구분	전략구상
보전	· 우수한 조망경관(백운산, 구봉산, 가야산, 섬진강, 동천, 서천 등) 보전 · 전통·문화 축제(매화축제, 전어축제, 광양불고기 축제 등) 보전
관리	· 구도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시설의 요소별 경관설계지침 제시 ·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제시 · 위해경관(고속도로, 공장, 아파트, 산업단지 등) 정비
형성	· 경관전략사업(국제테마마을, 테마거리, 특화시설, 랜드마크 개발, 진입·상징가로 조성 등) · 경관시범사업(진입부, 주요가로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등) · 경관협정사업(옥외광고물, 마을가꾸기, 테마가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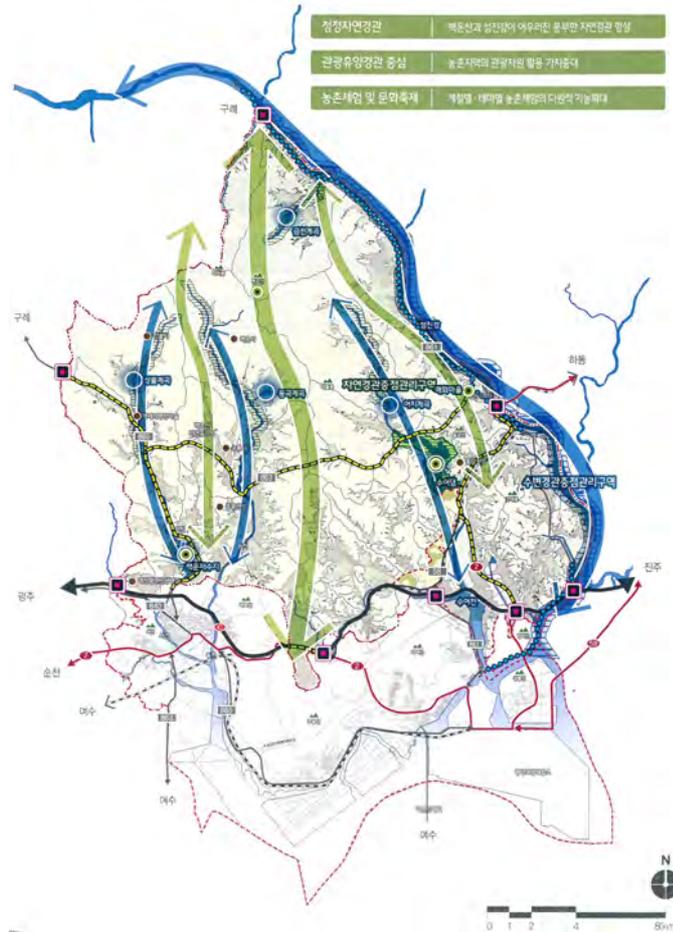
3. 경관구조구상

3.1 경관권역구상

가. 전원도시권역

■ 백운 · 수어섬진생활권(Amenity)

- 우수한 자연경관 보전 및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관 구축
-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농촌체험문화 네트워크 형성으로 광양시의 전원 어메니티 증진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농촌 및 전원 고유의 풍경을 위한 경관관리
- 넓고 불량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인공시설물 정비를 통해 취약지 경관 개선
- 경관형성 및 활용의 주체인 주민 경관협정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경관 조성
- 경관형성계획의 장기적인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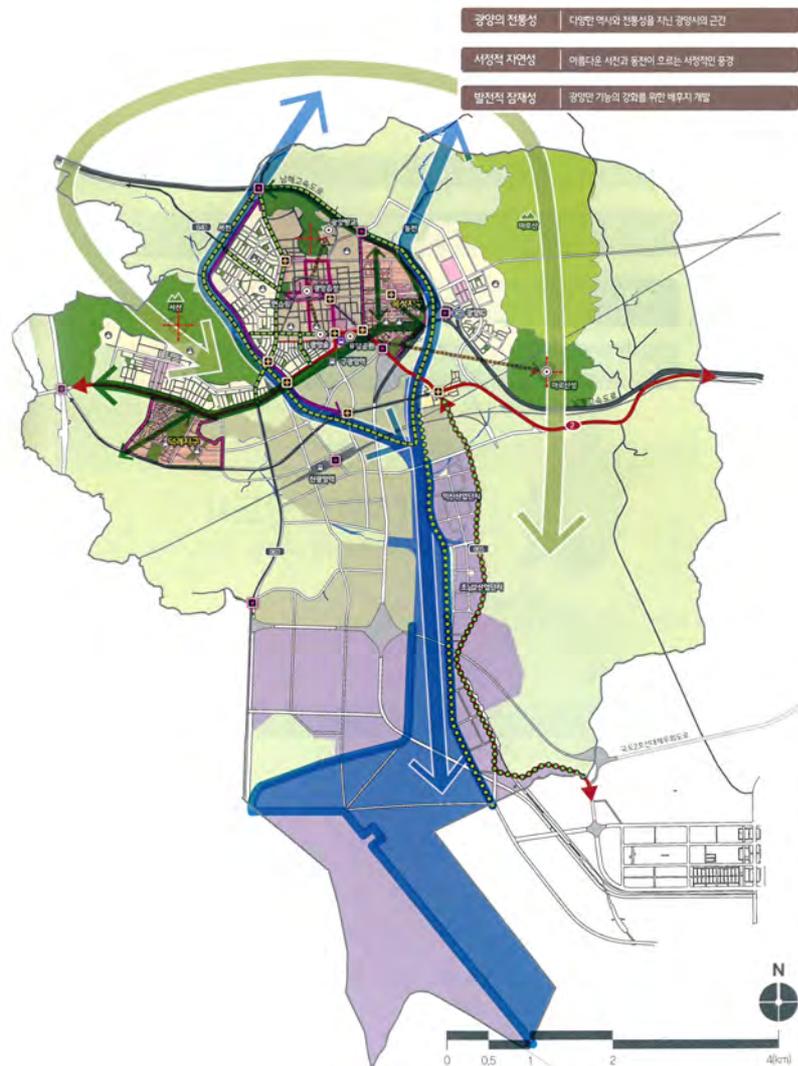


(그림 III- 38) 전원도시권역 경관계획도

나. 전통도시권역

■ 광양생활권(Tradition)

- 도심지역에 부합되는 산업경제 육성 및 도심활성화를 위한 거점개발 및 쾌적한 도심공간조성
- 녹지의 적극적인 도입, 공공공간 확보, 전신주 지중화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
- 걷고싶은거리,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 매력있는 도심환경 조성
- 기존시가지의 기능 혼재 및 노후 주거환경 불량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
- 투자대비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업을 발굴 추진하면서 투자재원 확보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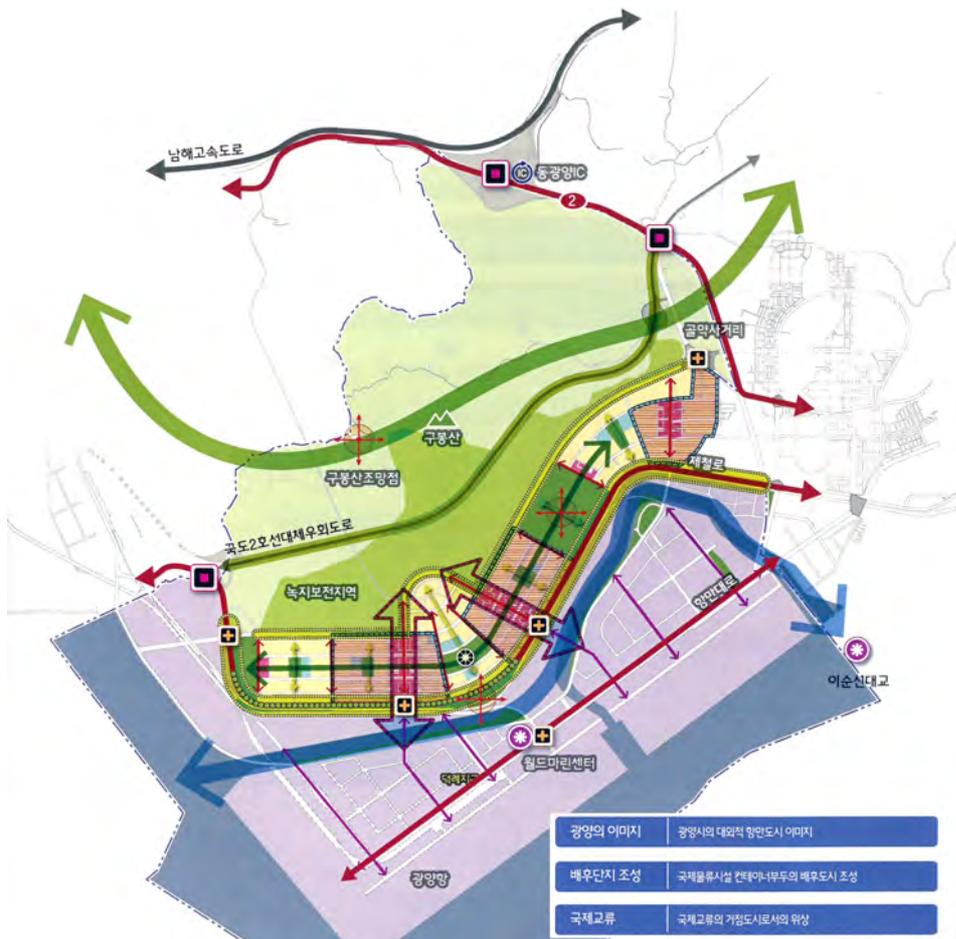


(그림III- 39) 전통도시권역 경관계획도

다. 향만도시권역

■ 황길생활권(Global)

- 황금·황길지구 개발로 인한 대규모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권역으로 계획적인 접근 필요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계획과 연계한 일관성 있는 향만 배후지 경관 조성
- 동북아 교류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이 드러나는 국제적 수준의 도시경관 형성
- 해안측 조망을 고려한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공간 구성으로 향만도시의 특색있는 경관형성
- 자연지형, 자연경관 경계부 및 완충공간의 중점적인 계획으로 무분별한 도시확장 방지
- 풍부한 녹지도입, 문화가 형성되는 공공공간 확보, 전신주 지중화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
- 도시개발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계획과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광양시의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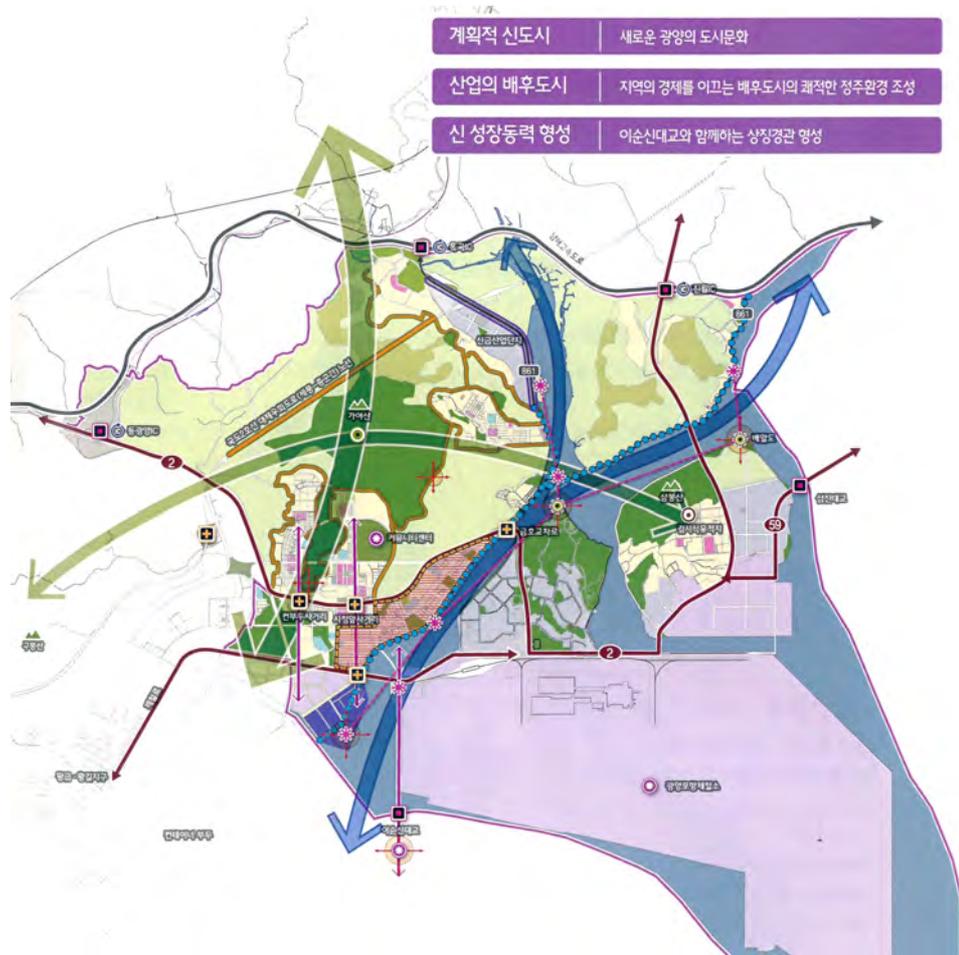


(그림 III- 40) 향만도시권역 경관계획도

라. 교육·문화중심도시권역

■ 중마생활권(New urban)

-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산업 배후지의 정주성을 강화하여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
- 자연경관 연결부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관 구축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 방지
- 걷고 싶은 거리,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 매력있는 도심환경 조성
- 녹지시설 확충, 문화가 형성되는 공공공간 확보, 전신주 지중화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
- 산업시설로 인한 단절된 해안 접근성을 강화하여 이순신대교와 함께 해안 관광 경쟁력 증대
- 공동주택 중심 주거지 개발로 인한 단절된 조망 경관의 장기적인 관리 및 유도/규제를 통한 단계적인 도시조망경관의 개선



(그림 III- 41) 교육·문화중심도시권역 경관계획도

3.2 경관축계획

가. 산림녹지축 : 자연경관의 보전과 체험문화 경관창출

- 광양시의 자연 골격을 이루고 있는 백운산 녹지축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관리
- 절대적 보전구간 및 부분적 개발허용 구간을 통해 산악경관의 형태 유지관리
- 녹지축상 연결한 도로 및 개발지에 의한 녹지축 단절 최소화
- 도시지역내 공원, 가로수, 주거지 내 식재공간 순환 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의 연계성 확보
- 백운산을 중심으로 하천변 개방된 공간을 감싸 안고 있는 표고 80m이상 산지 및 구릉지, 산림 녹지축 등의 자연성 보호
- 수변축과 함께 조망되는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인접지역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경관 연출

나. 수변경관축 : 수변경관의 자연성 회복과 친수성 확대

- 광양시가 친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자연중심 공간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 섬진강의 수려한 상징적 자연경관의 보전과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광양시의 명소로 조성
- 수변내 조망공간, 이용시설, 수변공간 접근로 등을 확보하여 생활속 수공간으로 창출
- 동·서천, 수어천, 섬진강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구간을 설정하여 과도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
- 수계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자연생태보존구간, 친수형구간으로 구분하여 통합적인 중점경관관리
- 천변 인공시설의 개선 및 다양한 시설확보 등으로 하천의 이용률 향상 및 아름다운 수변경관 창출
- 수계축 조망 및 생태적 환경의 보존, 관광레저 연계축 확보와 편의시설 및 안내체계의 구축 등으로 자연경관 활용기회 증대
- 수변 및 산악경관의 녹지시설, 조망공간 형성 등으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다. 도심연결축 : 광양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도시문화 연결축

■ 상징가로축 경관

- 가로축 선형을 따라 시각적인 초점이 형성되는 공간에 상징적인 랜드마크 경관 형성
- 양측으로 시가지와 자연경관이 조망되는 도로로서 건축물 외관 및 색채관리, 자연요소를 도입한 광양시 도시이미지 형성
- 조형구조물, 가로시설물 도입과 야경연출로 상징로 형성

■ 생활가로축 경관

- 보행중심의 생활가로 경관 조성
- 거주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쾌적하고 풍성한 공간으로 조성
- 생활가로변으로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 및 건축물의 정비로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 가로축의 자연성 부각을 위한 초화류 화단 및 가로수길 조성
- 걷고싶은거리 조성으로 개성있는 테마가로경관 연출
- 가로경관(건축물,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전신주지중화 등)의 정비로 활력 넘치는 상업지 경관 형성
- 상업 가로축을 따라 차폐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가로계획

■ 중경가로축 경관

- 광양시의 대표적인 하천경관의 상징적 이미지 부여
-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활동적인 수변경관 창출
- 수변축과 함께 조망되는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인접지역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경관 관리
- 주요 자전거 거점을 연결하는 그린웨이(Green way) 조성
- 하천을 따라 형성되는 자연경관 조망 보호
- 다양한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여 특징적인 경관 연출

3.3 경관거점계획

가. 도시진입거점

- 광양시의 경관특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진입경관 형성
- 광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 및 형태, 색채 등으로 정체성 있는 진입부경관 조성
- 과도한 디자인과 직설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경관자원과 연계성 있는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 조형물 설치

나. 도시주요거점

■ 주요 결절부

- 인지성과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징경관 연출
-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섬과 각각부 공지를 활용한 조경식재로 자연성과 인지성 확보

■ 주요 거점부

- 거점부 주변 가로시설물과 옥외광고물 인공구조물의 외관 정비로 명쾌하고 정돈된 가로경관 연출
- 현황에 따른 적합한 편의·안전시설 확충

다. 자연경관거점

- 우수한 자연경관의 자연성 및 조망 보호
-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연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
- 동·서천변 경관요소 지역주민의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관 연출
- 자연경관의 개방감 확보 및 인접 시설물 정비

라. 역사·문화거점

- 진입문주 등 시각의 흐름을 문화 관광 거점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진입경관 형성
- 주민의 쉼터로 이용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원 조성
-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안내시설물 및 이정표 설치

3.4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

가. 경관중점관리구역의 목적 및 범위

■ 목적

- 경관관리구역은 특히 중점적인 경관보전·관리·형성이 필요한 구역으로 중점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해당 경관자원이 지니는 자연성, 우수한 조망경관, 공간적 상징성 및 장소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 범위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포함하거나 그 일부에 설정
- 구역 설정 시 필요한 경우 중첩하여 설정 가능
- 경관설계의 방향이나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관설계지침 작성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계획 방향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행 수단(지역·지구·구역의 지정, 경관사업의 추진, 경관협정 등) 제시

나.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운영방안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공간적인 구성방향과 개별요소를 제시할 수 있는 경관관리 설계 지침 제시
- 제시된 설계지침 경관심의 및 경관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관리 및 운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지구·구역의 운영,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구체적인 실행수단과 연계 되도록 구성
-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에 앞서 경관중점관리구역이 우선적으로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다. 경관중점관리구역 설정

■ 수변경관중점관리구역(섬진강유역중점관리구역)

- 시가지와 인접한 수변공간인 하천 및 녹지 경관관리
 - 섬진강, 수어천, 동·서천 등

■ 자연경관중점관리구역

-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공간의 경관관리
 - 백운저수지, 수어댐 등
- 자연경관내 입지한 인공시설 경관관리
 - 4대 계곡

- 백운산 산림·녹지, 시가지 인접 산림·녹지의 경관관리
 - 산림녹지

■ 시가지경관중점관리구역

- 모범적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 계획도시지구

■ 전통문화중점관리구역

- 시가지내 불량 경관관리, 역사경관 및 인접시설 관리
 - 광양읍 원도심

■ 경제자유구역 경관중점관리구역

- 국제적 항만경관형성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 경제자유구역

수변경관중점관리구역

- 삼진강, 수어천 동·서천** 시가지와 인접한 공간 하천 녹지 경관관리
- 수변경관 주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옥외광고물 관리
 - 수변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시설 중점관리
 - 하천변 상업시설 규제

자연경관중점관리구역

- 백운저수지 수어댐**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공간의 경관관리
- 수변경관 주변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옥외광고물 관리
 - 산악경관과 어우러진 자연 경관 보전

4대 계곡

- 자연경관내 입지한 인공시설 경관관리
- 자연경관 보전 및 자연경관내 경관개선
 - 이질적인 경관 완화를 위한 상업시설의 중점관리

산림녹지

- 백운산·산림 녹지 시가지 인접 산림녹지
- 산능선 및 자연경관 보호 및 부감형 조망권 보호
 - 안전 및 편의 시설 확충 조망경관 제공

시가지경관중점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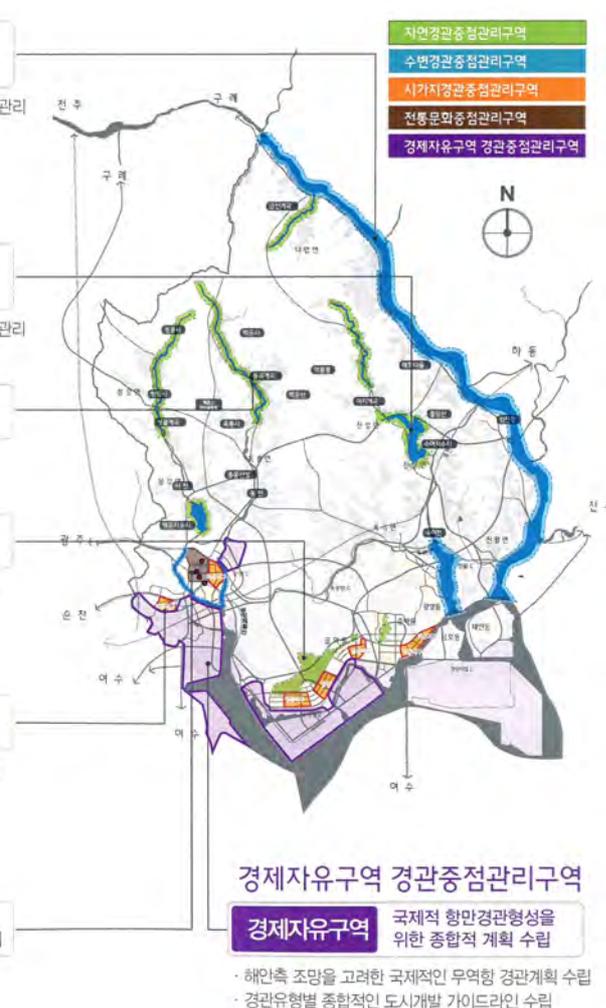
- 계획도시지구** 모범적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 건축물 용도에 대한규제 (특정경관계획 수립 필요)
 - 국도변 일정거리 이내의 건축물 형태 및 색채, 옥외광고물 관리

전통문화중점관리구역

- 광양읍 원도심** 시가지내 불량 경관관리 역사경관 및 인접시설 관리
- 역사문화 자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벨트 조성
 - 지역박물관과 연계된 역사탐방루트 개발

경제자유구역 경관중점관리구역

- 경제자유구역** 국제적 항만경관형성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 해안축 조망을 고려한 국제적인 무역항 경관계획 수립
 - 경관유형별 종합적인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그림 III- 42) 경관중점관리구역 설정

라.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방안

■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방안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관중점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그림 III- 43)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방안

■ 운영방안

- 중점관리계획구역을 중심으로 향후 계획 및 개발시 광양시의 도시이미지 형성의 지대한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있는 주요구간을 검토하여 경관·미관지구 범위를 선정
- 경관관련 지구 선정 및 지정을 통해 광양시가 최우선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
- 중점관리구역의 경관사업시행시 광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기존에 수행된 계획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업성과 적용성에 대한 시행착오를 분석하여 기존 계획의 수정을 수반해야 함
- 중점관리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경관심의대상으로 지정
- 중점관리구역은 특정경관계획 및 상세계획을 시행하여 가이드라인 구축
- 특정경관계획 설계완료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유도

- 심의 신청시 심의 기준 및 광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준수하여 심의도서 작성
-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광양시의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별도의 경관계획에 따라 운영함

< 표Ⅲ- 72 > 중점관리구역 운영방안

구분	대상지검토	경관사업도출
전통문화 중점관리구역	유당공원, 광양숲, 광양향교, 광양읍성터 등	역사공간 복원 및 확장 사업
시가지경관 중점관리구역	목성지구, 황금·황길지구, 마동지구, 와우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별 상세계획 및 특정경관계획 실행
산업경관 중점관리구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수변경관 중점관리구역 (섬진강유역 중점관리구역)	섬진강 전역, 수어댐, 서천, 동천 등	수변경관의 보전/행위규제, 관광활성화 사업, 섬진강 하류(남도천) 가치 창조사업
자연경관 중점관리구역	4대계곡, 구봉산, 백운산 등	자연경관의 보전 / 행위규제, 관광활성화 사업

제6장 공원 · 녹지

1. 현황 및 여건변화

가. 광양시 공원·녹지 현황

- 현재 광양시의 도시관리계획상 공원결정 면적은 10.856km²로 생활권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146개소에 9.090km², 주제공원(체육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이 19개소에 1.765km²가 결정되어 있음
- 2013년 인구 151,621인 기준 1인당 공원면적은 71.6m²로 법정 기준치인 6m²를 상회하나, 공원의 조성률이 낮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은 미약한 실정임
- 공원시설의 변화추이를 보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의 각종 개발사업을 통하여 대폭 증가된 양상을 보임

< 표III- 73 > 광양시 도시공원 결정 현황

(단위 : km)

구분	합계		광양 중생활권		중마 중생활권		항길 중생활권		수어섬진 농촌정주 중생활권		백운 농촌정주 중생활권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65	10.856	68	3.357	62	5.551	19	1.676	15	0.219	1	0.053
근린공원	44	8.840	14	2.221	15	4.962	11	1.528	4	0.128	-	-
어린이공원	73	0.162	37	0.097	31	0.057	5	0.008	-	-	-	-
소공원	29	0.088	12	0.023	7	0.034	1	0.009	9	0.022	-	-
체육공원	6	0.409	-	-	5	0.357	-	-	1	0.052	-	-
수변공원	6	0.175	-	-	4	0.140	1	0.018	1	0.017	-	-
역사공원	5	0.793	4	0.740	-	-	-	-	-	-	1	0.053
문화공원	2	0.388	1	0.276	-	-	1	0.112	-	-	-	-

자료 : 광양시 도시과 내부자료(2016.6 기준)

< 표III- 74 > 1인당 공원면적

인구(명)	공원면적(km ²)	1인당공원면적(m ²)
151,621	10.856	71.6

나. 문제점 및 여건변화

■ 공원녹지 네트워크 단절

- 백운산을 중심으로 북측에 산림자원 및 4대계곡 등 양호한 자연환경 요소가 산재해 있음
 - 4대 계곡 : 성불계곡(봉강면), 동곡계곡(옥룡면), 어치계곡(진상면), 금천계곡(다압면)
- 주요 거점녹지와 자연자원 간의 연계체계가 미흡하며, 분절적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음

■ 공원·녹지 수요 및 요구 증대

-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인해 구도심 지역의 공원·녹지 수요 증대
- 여가시간 증가로 레크레이션 등의 활동 장소로서 공원녹지 수요 증대

■ 삶의 질 제고와 생태도시 실현에 대한 요구 증대

-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역사와 전통문화, 자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확산되고 있음
- 다양한 문화활동과 연계된 녹지환경의 창출 및 생태도시 실현의지 증대

■ 생태하천에 대한 관심과 복합 수변공간 수요 증대

- 자연생태환경의 조성 및 유지·복원에 대한 관심 증가
- 수변공간의 다기능 이용 및 활용성 증대
 - 도심지역 :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활력 있는 수변공간 조성
 - 교외지역 : 천변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조망시설, 휴식시설 등 조성
 - 수변도시 : 재생 및 도시계획과 연계된 수변공간 통합 디자인

■ 관리·행정상의 문제

- 공원지정시 보상민원의 발생으로 신규 공원지정이 어려워 신규 근린공원의 대부분이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지역에 의해 확보
- 도시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재원의 부족 및 과도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미조성공원이 산재
- 장기 미집행시설인 공원·유원지·녹지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및 비용 확보 방안의 부재
- 일몰제의 시행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유원지·녹지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단계별 대책 마련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의해 장기미집행시설은 20년이 지난 시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단,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해제)

2.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2.1 기본방향

가. 공원의 활용성 및 접근성 제고

-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공원의 신규 조성과 더불어 기 조성된 공원의 활용성 및 접근성 제고
- 공원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환경을 위해 균형있는 공원·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
-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공원시설 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공원·녹지의 연결체계 구축

- 백운산, 구봉산, 가야산 등의 산림을 거점으로 형성된 녹지축 설정 및 도시내 주요 공원들을 특성화하여 공원·녹지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
- 도시내 주요거점 녹지와 외곽산림축·하천축의 연계를 통해 생태 연결통로를 확보하고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
- 도로변 녹화, 옥상녹화, 자투리 토지 공원화,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원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원과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보

다. 매력적인 수변공간 조성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조성으로 이용성 및 접근성 제고
- 섬진강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동서통합지대 거점으로 육성하여 영·호남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

라. 기결정된 도시공원의 정비

- 국가보조의 실질적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 확대와 다양한 재원의 발굴, 민자 유치 확대와 민간참여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자원 확충 방안 강구
 - 2014년 3월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민간 공원개발 인센티브 확대 및 추진 절차 간소화방안 마련
- 기존 도시계획의 비합리성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미집행된 공원·녹지시설에 대한 공원의 존치필요성과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합리적인 정비방안 모색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공원의 해소를 위해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적 방안과 함께 비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의 공원화, 이전적지 공원화 등을 통해 신규 도시공원을 확충

2.2 실천전략

① 생활과 녹지가 어우러진 도시

가. 균형적인 녹지공간 조성

■ 미조성 공원·녹지의 적극적인 시행

- 지정공원면적에 비해 실제 이용가능공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시가지에 기 지정된 근린공원의 조속한 개발로 공원·녹지공간의 확보
- 기 결정된 도시공원의 적극적 개발을 유도하되, 생활권별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도가 높은 공원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공원 소외지역의 해소

- 공원 유치권 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소외지역 해소 방안 검토
- 공원의 추가 확보와 더불어 학교 공원화, 공공기관 쉼터 조성, 포켓파크 등 유사 공원 개념의 도입으로 소외지역의 적극 해소 도모

나. 공원의 양적 확충

■ 공원화 가능시설 및 부지에 대한 적극적 공원녹지 확보

- 공공시설, 민간 기부채납부지, 폐철도 등 이전적지와 공여부지를 활용한 적극적 공원개발
- 도심내 자투리 공간, 보호수 주변 부지를 활용한 휴게쉼터 조성 등의 소공원화

■ 개발사업 등에서 녹지 확보를 통한 녹지공간 마련

-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사업지에 대한 공원녹지 확보율 지정을 통한 녹지 확보
-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지정시 법정 비율 이상의 공원·녹지 확보

다. 재정비를 통한 공원의 질적향상 도모

■ 공원 활용도 증대방안 마련

- 옥외활동 욕구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공원계획으로 활용도 증대 도모
- 지역주민과의 협업, 현상공모 등의 기법을 도입하여 차별화된 공간으로 계획

■ Universal Design 도입

-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사용이 편리한 디자인 계획
-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공간개념과 시설 및 수목의 도입으로 편의성 증진

■ 공원의 입체화 및 민원발생 해소

- 공원공간의 입체화를 도모하여 토지매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
- 공원·녹지 기금의 조성 과 각종 세제지원으로 민간 참여방안 수립
- 도시자연공원의 해제, 구역경계 조정, 구역변경 등을 통해 비합리적인 토지 규제 등을 해소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

라. 민간참여형 공원조성사업 시행

■ 사전계획단계에서의 주민참여

- 녹지조성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사업시행시 계획단계에서 주거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공모전 등 시행
 -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반영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내가 만들어가는 녹지’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관심과 참여도 향상
 - 화단만들기, 타일에 의한 벽화, 포장(鋪裝)만들기 등 시민 참여에 의한 공원시설의 정비 및 운영
- 녹지실명제 도입
 - 개인소유의 토지를 기부·임대할 경우 기부자실명을 이용한 녹지조성 및 각종 혜택제공

■ 운영·관리단계에서의 참여

- 그린오너(Green Owner)제, 1人1木 가꾸기 운동 등 민간에 의한 공원 및 녹지 관리를 통한 관심 유도
 - 공원·녹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소유의 주체가 누구이든지 실제로 해당녹지를 가꾸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 기업(Green Owner) 등의 실명이 지정되고 이들에 의해 공원·녹지가 가꿔지는 제도
-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무, 숲, 꽃 등을 가꿈으로써 환경보전에 동참하도록 하며 녹지행정 및 관리에 자발적 참여
 - 기존 단체(노인회, 부녀회, 보이즈카웃 등)들을 적극 활용
 - ‘시민 나무 한 그루 가꾸기 운동’, ‘시민 나무 한 그루 관리 운동’ 등 적극 도입
- 공원이용에 대한 자원봉사제도 활용
 - 공원 내에서 놀이나 레크레이션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나 조언을 할 수 있는 가이드 육성을 도모하여, 시민에 의한 공원이용을 촉진시키고 각종 단체와 제휴를 도모함

■ 기업참여제도(기업공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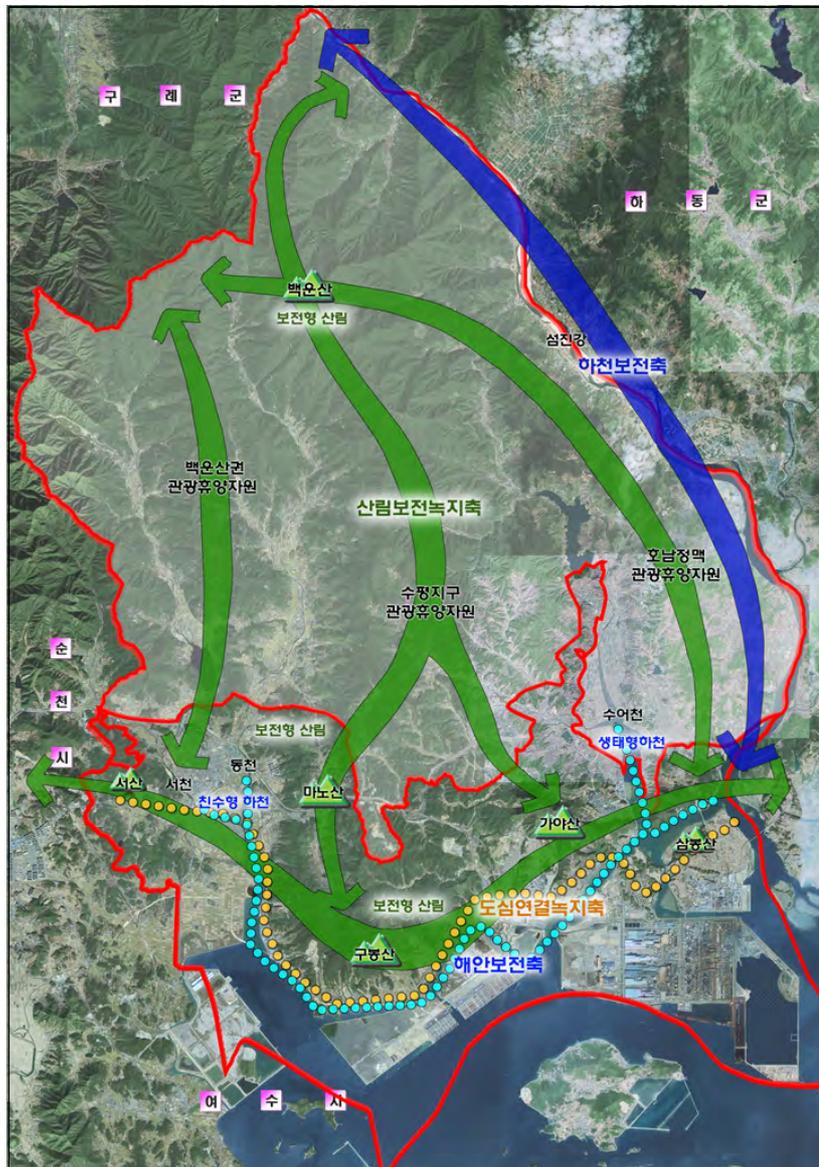
- 기업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녹지조성에 따른 기부금을 내거나, 공공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세제감면혜택 등의 다양한 특혜 제공
 - 기업·지방자치단체·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모델로 발전
 - 시는 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 기업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등 공원 조성
 -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 2015년 10월 현재까지 기업(단체)공원 조성 실적은 22개소(39,475㎡)이며, 1,999백만원의 국·도비 및 시비 절감 효과 발생
- 민자 유치의 확대 및 민간참여 방법의 다양화로 미집행공원의 해소 기대

②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

가. 공원·녹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광양시 공원녹지축 설정

- 공원·녹지가 가지는 효과를 극대화하여 녹지가 풍부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공원녹지축 설정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광양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종4축, 횡1축의 광역녹지축을 설정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집단적 보전녹지로 설정
-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지역의 녹지축은 공원·녹지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개발법, 산림법 등 개별법에 의한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광양읍 지역과 동광양 지역을 연계하여 녹지축 설정



(그림 III- 44) 광양시 녹지축 설정

■ **공원·녹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하천, 오픈스페이스, 녹지로의 유기적 공간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된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수립
- 공원·녹지공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존 공원·녹지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이용성 증대 및 주요 간선도로변(국도2호선, 지방도861호선, 지방도 863호선, 지방도 865호선 등) 녹지축 강화
- 간선도로, 산림, 공원, 가로수, 하천변, 산업단지 인근 녹지 확보 및 연결을 통해 광양시의 공원·녹지 공간의 회복을 도모

■ **광양 8대 연결 녹지축 조성**

- 광양 8대 연결 녹지를 벨트화로 녹지의 생태적 연결성 강화
- 주거와 산업 공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 구축

< 표III- 75 > 광양 8대 연결녹지축 사업

구분		추진계획	비고
광양 5대축	광양 구역사	경전선 폐선부지	
	광양 신역사	철로변 녹화	
	인덕천	해안 방풍림	
	세풍독	해안 방풍림	
	서측배후도로	가로수 식재	
중마 3대축	중마 시가지변	시가지변 녹화	
	광양항 배후단지	배후단지 녹화	
	동측연결도로	도시숲 및 가로수	

나. **주요 공원의 특성화**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특성화**

- 도시자연공원구역 각각의 지역적 특성, 역사성, 입지여건 및 인근지역과의 연계성 등에 따라 특성화 방향을 수립
- 시민의 공원이용의 다양성과 지역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 도시공원의 특성화**

- 주변지역 및 이용환경에 따라 테마화가 가능한 공원들을 설정하고 주제를 부여하여 특성화 도모
- 지역간 균등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어메니티 향상에 기여

■ **지역별 거점공원의 조성 및 육성**

- 각 지역별(생활권별) 중심공원을 조성하여 개발 이용성을 증진시키고 지역별 다양한 주제를 지닌 특색 있는 공원 조성
- 거점역할을 하는 지역별 공원들을 상호 연계하여 공원이용의 네트워크 구축

다. 산지관리방안

■ 산지관리 목표

- 산업과 생태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형(ESSD) 산지관리체계 구축

■ 산지관리 전략

- 산림경관·유역맞춤형 산지관리
 - 광양시 해안권역 산업지역의 친환경적 산지관리체계 정립
 - 광양시의 도시형과 도시주변형 산지 재해관리 철저, 해안권역의 개발사업에 의한 훼손관리와 재해관리 철저
- 산줄기 연결망 산지관리체계 구축
 - 호남정맥에서 사지지맥 여수지맥으로 이어져 해안까지 연결되는 지맥의 연결성 보존
 - 쫓비산 일원 관광서비스시설의 훼손관리 철저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에 의해 단절된 호남정맥의 연결망 최대한 보존
-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구축
 - 구봉산 연접 도시주변 유역의 재해안전성 고려
 - 광양시 도시형과 도시주변형 산지의 산림 복지서비스를 극대화
- 산지의 녹색서비스기능 강화
 - 경제자유구역 주변산지의 녹색에어컨 생성산지 지정 및 관리
 - 광양시의 급경사지 및 재해 1등급지 관리 철저

3 매력적인 물의 도시

가. 하천변을 활용한 녹화수변공간 조성

■ 친수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공원화 계획 수립

-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통해 쾌적한 수변공간을 유지하고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가치가 높도록 친수 공원화 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의 개발을 위해 지역별·입지적·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친수공간을 창조함

■ 하천녹화를 통한 친수공간의 조성

- 하천변 녹화계획을 통해 연속적인 녹지흐름을 유지하고 하천과 구릉지, 공공장소와의 결절점에 친수공간 조성

■ 친수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 보행계획 수립

- 친수공간 접근로를 도로로 단절되지 않도록 구상하며, 장애인, 유아, 자전거 이용자 등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접근 보행계획 수립
- 하천 및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친수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보행연결도로와 보도육교·계단형 호안 등을 계획

나. 수변공간의 명소화

■ 수변공간을 관광자원으로 조성 및 활용

- 선진국의 공원이 관광자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듯 광양시 공원의 관광 자원화
- 풍부한 녹음과 자연, 편리한 이용, 여유로운 공간의 구상 등 다중 이용공간으로 조성

■ 수변공간과 도시내 관광·문화 자원과의 연계 도모

- 관공서, 도서관, 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공원 설치를 유도하고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며, 각종 이벤트 개최를 통해 공원 활용도 증진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공원테마상품의 개발로 지역 상징성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공원·유원지계획

3.1 공원

가. 공원 지표 설정

-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 제시한 2020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인 12.5㎡/인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었으며, 기존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 해제지역(비도시지역), 근린공원(도시지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지역)으로 변경함
- 당초 2025도시기본계획에서 1인당 공원 면적은 24.0㎡/인(도시자연공원 포함시 78.8㎡/인)이며,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48.9㎡/인으로 산정되었음(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시 78.3㎡/인)
- 또한, 목표연도까지 실제 조성가능한 공원조성 지표는 2015년 기준 28.1㎡/인에서 2030년 22.0㎡으로 제시함

< 표III- 76 > 공원조성 지표

구분	1단계 (2013~2015년)	2단계 (2016~2020년)	3단계 (2021~2025년)	4단계 (2026~2030년)
기본계획상 공원 면적(km ²)	13.211			
공원조성면적(km ²)	4.315 ¹⁾	4.624	5.284	5.945
공원조성률(%)	32.7	35.0	40.0	45.0
계획인구(인)	153,587	200,000	240,000	270,000
1인당 공원면적(m ²)	86.0	66.1	55.0	48.9
1인당 공원조성 면적(m ²)	28.1	23.1	22.0	22.0

주1) 2015년 공원조성면적은 광양시 도시과 내부자료(2016. 7. 기준) 참고

나. 수변공간의 명소화

■ 수변공간을 관광자원으로 조성 및 활용

- 선진국의 공원이 관광자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듯 광양시 공원의 관광 자원화
- 풍부한 녹음과 자연, 편리한 이용, 여유로운 공간의 구상 등 다중 이용공간으로 조성

■ 수변공간과 도시내 관광·문화 자원과의 연계 도모

- 관공서, 도서관, 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공원 설치를 유도하고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며, 각종 이벤트 개최를 통해 공원 활용도 증진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공원테마상품의 개발로 지역 상징성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공원·유원지계획

3.1 공원

가. 공원 지표 설정

-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 제시한 2020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인 12.5㎡/인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었으며, 기존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 해제지역(비도시지역), 근린공원(도시지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지역)으로 변경함
- 당초 2025도시기본계획에서 1인당 공원 면적은 24.0㎡/인(도시자연공원 포함시 78.8㎡/인)이며,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48.9㎡/인으로 산정되었음(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시 78.3㎡/인)
- 또한, 목표연도까지 실제 조성가능한 공원조성 지표는 2015년 기준 28.1㎡/인에서 2030년 22.0㎡으로 제시함

< 표III- 76 > 공원조성 지표

구분	1단계 (2013~2015년)	2단계 (2016~2020년)	3단계 (2021~2025년)	4단계 (2026~2030년)
기본계획상 공원 면적(km ²)	13.211			
공원조성면적(km ²)	4.315 ¹⁾	4.624	5.284	5.945
공원조성률(%)	32.7	35.0	40.0	45.0
계획인구(인)	153,587	200,000	240,000	270,000
1인당 공원면적(m ²)	86.0	66.1	55.0	48.9
1인당 공원조성 면적(m ²)	28.1	23.1	22.0	22.0

주1) 2015년 공원조성면적은 광양시 도시과 내부자료(2016. 7. 기준) 참고

나. 공원 변경내역

- 도시자연공원 폐지에 따라 근린공원 신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있으며,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신규 공원지정이 있음
- 또한, 서산공원 공원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서산공원을 통과하는 광양-완주간 고속국도의 서측을 제척함

< 표III- 77 > 공원 변경내역

구분	당초(2025)		증감		변경(2030)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합계	51	23.651	18	-10.440	69	13.211
도시자연공원	4	16.453	-4	-16.453	-	-
근린공원	43	5.386	8	4.778	51	10.164
묘지공원	1	1.390	-	-	1	1.390
체육공원	3	0.422	5	0.235	8	0.657
수변공원	-	-	6	0.238	6	0.238
역사공원	-	-	3	0.762	3	0.762

- 근린공원 8개소, 체육공원 3개소, 수변공원 6개소, 역사공원 2개소 등 총 19개소의 공원이 신설되었고, 도시자연공원 1개소가 폐지되었음
-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2개소, 역사공원으로 1개소가 변경되었고,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1개소,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2개소가 변경되었으며, 근린공원 명칭변경 2개소, 면적변경 1개소 등 총 8개소가 변경되었음

< 표III- 78 > 공원 세부 변경내역

구분	기정	변경	공원명	위치	기정(km ²)	증감(km ²)	변경(km ²)	비고
합계					18.093	감)10.440	7.653	
변경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서산공원	덕례리	3.187	감) 1.515	1.672	비도시지역 1,381천m ² 추가해제 134천m ²
변경	도시자연공원	역사공원	마노공원	용강리	4.800	감) 4.101	0.699	도시자연공원 구역 2,767천m ² 비도시지역 1,334천m ²
폐지	도시자연공원	-	구봉산공원		5.180	감) 5.180	-	도시자연공원 구역 5,180천m ²
변경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가야산공원	광영동	3.286	감) 0.198	3.088	도시관리계획 반영
변경	근린공원	체육공원	광영근린공원 → 광영체육공원	광영동	0.020	감) 0.001	0.019	도시관리계획 반영

< 표 계속 >

구분	기정	변경	공원명	위치	기정 (km ²)	증감 (km ²)	변경 (km ²)	비고
변경	근린 공원	체육 공원	옥곡근린공원 → 의암체육공원	광영동 산53-3 →옥곡면 신금리 산66-14	0.040	증) 0.012	0.052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	근린 공원	근린 공원	도이근린공원 → 성황근린공원	성황동	0.440	-	0.440	명칭변경
변경	근린 공원	근린 공원	성황근린공원 → 도이근린공원	도이동	0.070	-	0.070	명칭변경
변경	근린 공원	근린 공원	태인근린공원	태인동	1.070	감) 0.162	0.908	도시관리계획 반영
신설	-	수변 공원	배알도 수변공원	배알도 해수욕장 일원	-	증) 0.076	0.076	
신설	-	수변 공원	길호 수변공원	길호공유수면	-	증) 0.028	0.028	
신설	-	수변 공원	삼화섬 수변공원	삼화섬 일대	-	증) 0.014	0.014	
신설	-	수변 공원	다압수변공원	다압면 금천리	-	증) 0.017	0.017	섬진강변 공원화사업
신설	-	역사 공원	매천역사공원	석사리	-	증) 0.010	0.010	
신설	-	근린 공원	명당근린공원	태인동	-	증) 0.011	0.011	명당지구
신설	-	역사 공원	도산풍수공원	옥룡 도선국사	-	증) 0.053	0.053	도선국사 역사공원
신설	-	근린 공원	세풍1근린공원	광양읍 세풍리	-	증) 0.065	0.065	세풍산단
신설	-	근린 공원	세풍2근린공원	광양읍 세풍리	-	증) 0.013	0.013	세풍산단
신설	-	근린 공원	세풍3근린공원	광양읍 세풍리	-	증) 0.011	0.011	세풍산단
신설	-	근린 공원	세풍4근린공원	광양읍 세풍리	-	증) 0.015	0.015	세풍산단
신설	-	수변 공원	황금수변공원	황금동	-	증) 0.017	0.017	황금산단
신설	-	근린 공원	황금1 근린공원	황금동	-	증) 0.016	0.016	황금산단
신설	-	근린 공원	황금2 근린공원	황금동	-	증) 0.009	0.009	황금산단
신설	-	체육 공원	태인체육공원	태인동	-	증) 0.027	0.027	명당3지구
신설	-	체육 공원	-	금호동	-	증) 0.064	0.064	포스코 주택단지
신설	-	체육 공원	-	금호동	-	증) 0.073	0.073	포스코 주택단지
신설	-	수변 공원	와우수변공원	마동	-	증) 0.086	0.086	와우유원지 변경
신설	-	근린 공원	중동공원	중동	-	증) 0.100	0.100	도시관리계획 반영

다. 생활권별 공원계획

- 공원계획을 생활권별로 보면 중마중생활권이 29개소(5.608km²)로 가장 많으며, 백운농촌정주중생활권이 1개소(0.053km²)로 가장 적음
- 목표연도의 1인당 공원면적은 수어섬진농촌정주중생활권이 58.1m²로 가장 많고, 백운농촌정주중생활권이 8.8m²로 가장 적음

< 표III- 79 > 생활권별 공원계획

구분	개소(개)	공원면적(km ²)	2030년 계획인구(인)	1인당 공원면적(m ²)	비고
합계	69	13.211	270,000	48.9	
광양중생활권	13	4.406	100,000	44.1	
중마중생활권	29	5.608	105,000	53.4	
항길중생활권	18	2.330	45,000	51.8	
수어·섬진농촌정주중생활권	8	0.814	14,000	58.1	
백운농촌정주중생활권	1	0.053	6,000	8.8	

3.2 유원지

■ 유원지 현황

- 2025 광양 도시기본계획상 광양시의 유원지는 총 3개소(마동유원지, 와우유원지, 백운유원지)로 총 4.216km²가 지정되어 있음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유원지 3개소의 면적은 총 2,160km²로 도시기본계획상 면적과 상이함

< 표III- 80 > 유원지 현황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도시기본계획상 면적(km ²)	시설결정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4.216	2,160,147		
1	마동유원지	마동저수지	0.320	305,690	91.10.12	
2	와우유원지	와우마을 북측	0.231	261,430	09.07.13	
3	백운유원지	백운저수지 일대	3.665	1,593,027	09.07.13	



(그림III- 45) 유원지 결정 현황(도시관리계획)

■ 유원지 변경 필요성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양성 우려

- 마동유원지는 결정된 지 24년 경과되었으나, 토지매입이 80% 이상 완료되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우려가 적음
- 와우유원지와 백운유원지는 2009년도에 결정되었으나, 사업조성에 대한 비용 부담과 민자유치의 어려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와우유원지 기능 재검토 필요

- 와우유원지는 와우제를 중심으로 시민의 휴식 기능 위주로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사실상 수변공원 기능과 가까움
- 또한, 반경 1km내에 마동유원지가 입지하고 있어 마동유원지 조성 완료시 와우유원지의 기능 및 효율성이 저하됨

○ 마동유원지내 (가칭)창의예술고 입지로 인한 유원지 변경

- 마동유원지내 광양커뮤니티센터 인근 부지 일원(약 73,000㎡)에 (가칭)창의 예술고(3개학년 9학급 180명 규모) 입지로 인해 유원지 제척 필요

■ 유원지 정비기준

-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미집행시설로 존치될 우려가 있어 장기미집행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정비
- 기조성된 시설은 존치하고, 미조성구역을 제척하여 사업부담 감소 및 장기미집행 방지

■ 유원지시설 해제지역 관리방안

- 유원지 시설결정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의 경우는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적정 용도지역으로 변경

■ 유원지 변경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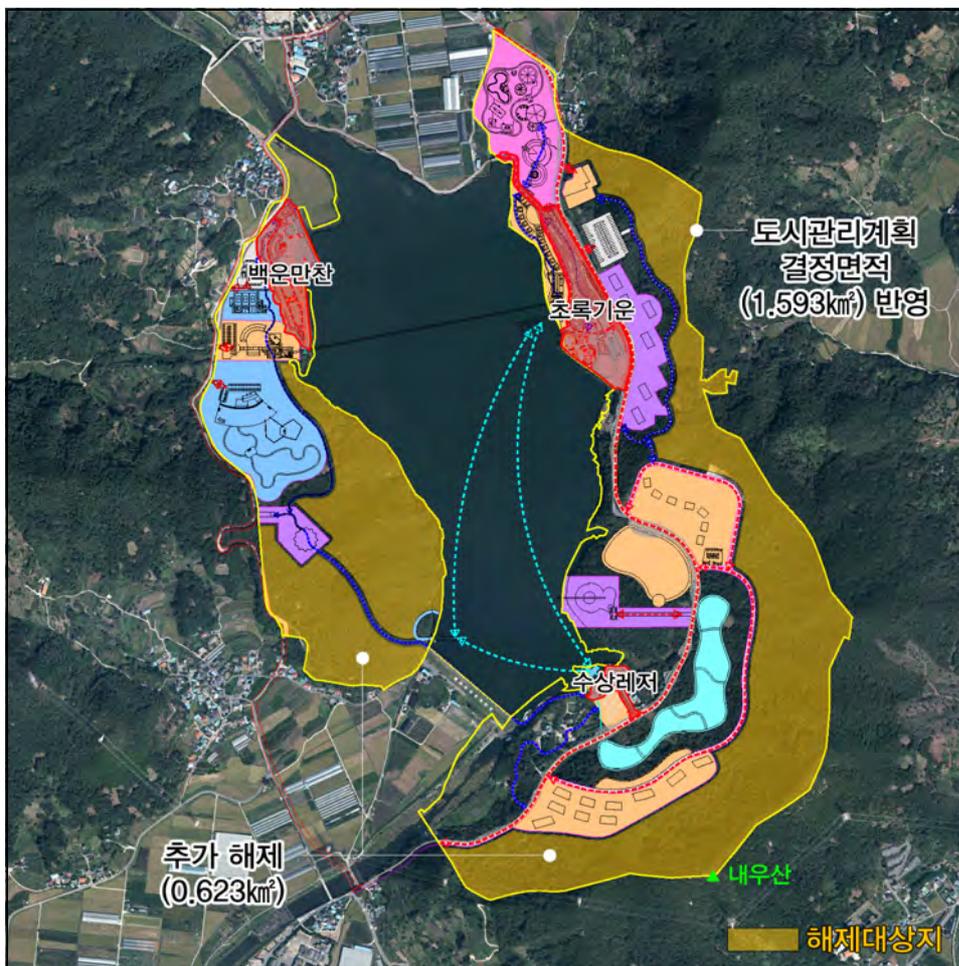
- 유원지 3개소 중 2개소 변경 및 1개소 폐지(와우유원지를 수변공원으로 변경)

< 표III- 81 > 유원지 변경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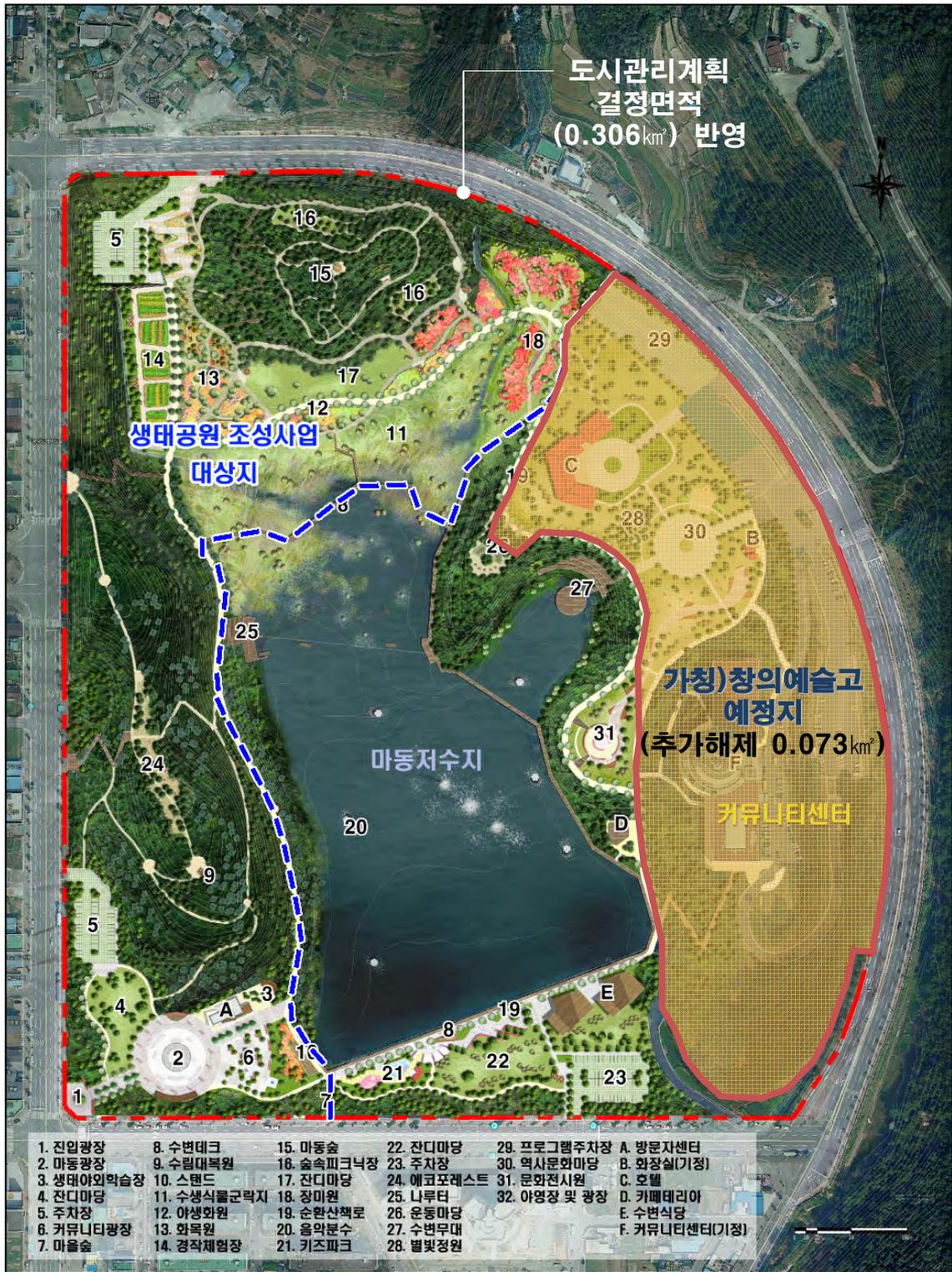
구분	유원지명	위치	기정(㎢)	증감(㎢)	변경(㎢)	비고
합계			4.216	감) 3.013	1.203	
폐지	와우유원지	와우마을 북측	0.231	감) 0.231	-	0.145㎢ 해제 및 0.086㎢ 수변공원으로 변경
변경	백운유원지	백운저수지 일대	3.665	감) 2.695	0.970	도시관리계획(1.593㎢) 반영 및 추가 해제(0.623㎢)
변경	마동유원지	마동저수지	0.320	감) 0.087	0.233	도시관리계획(0.306㎢) 반영 및 추가 해제(0.073㎢)



(그림 III- 46) 와우유원지 변경안



(그림 III- 47) 백운유원지 변경안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그림 III- 48) 마동유원지 변경안

3.3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

- 지역에 있어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새로운 공원·녹지로서 인식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의 거점공원으로 자연보호 및 보전, 또는 복원 및 재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생활권 공원 및 주제공원 등으로 변경 및 해제 추진
-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의 토지이용현황, 시설률, 환경등급 등을 검토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존치여부를 검토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 표 III- 82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역

구분	구역의세분	구역명	위치	면적(km ²)	비고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마노	용강리	2.767	마노도시자연공원 해제에 따른 신규 지정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	구봉산	황길동	5.180	구봉산도시자연공원 해제에 따른 신규 지정

3.4 총괄 변경내역

< 표 III- 83 > 공원 및 유원지 세부 변경내역

일련 번호	구분	기정	변경	공원명	기정 (천m ²)	증감 (천m ²)	변경 (천m ²)	비고
1	변경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서산공원	3,187	감) 1,515	1,672	비도시지역 1,381천m ² 추가해제 134천m ²
2	변경	도시자연공원	역사공원	마노공원	4,800	감) 4,101	699	도시자연공원 구역2,767천m ² 비도시지역 1,334천m ²
3	폐지	도시자연공원	-	구봉산공원	5,180	감) 5,180	-	도시자연공원 구역5,180천m ²
4	변경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가야산공원	3,286	감) 198	3,088	도시관리계획 면적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목성지구 근린공원	99	-	99	목성 지구단위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덕례지구 근린공원	80	-	80	덕례 지구단위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덕례지구 근린공원	32	-	32	덕례 지구단위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광양항 서측배후부지 근린공원	273	-	273	광양항배후부지 개발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광양항 서측배후부지 근린공원	12	-	12	광양항배후부지 개발계획 반영

< 표 계속 >

일련 번호	구분	기정	변경	공원명	기정 (천㎡)	증감 (천㎡)	변경 (천㎡)	비고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근린공원	192	-	192	광양항배후부지 개발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근린공원	45	-	45	광양항배후부지 개발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마동지구 근린공원	20	-	20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마동지구 근린공원	17	-	17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와우지구 근린공원	18	-	18	와우 지구단위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와우지구 근린공원	25	-	25	와우 지구단위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원앙지구 근린공원	23	-	23	원앙 지구단위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춘지구 근린공원	16	-	16	도춘 지구단위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금호4 근린공원	102	-	102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금호2 근린공원	9	-	9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금호3 근린공원	19	-	19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장내산단 근린공원	7	-	7	장내산단 개발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공단근린공원	9	-	9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명당산단 근린공원	10	-	10	명당산단 개발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명당산단 근린공원	24	-	24	명당산단 개발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태인동 근린공원	181	-	181	태인동 공원개발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망덕근린공원	391	-	391	-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우산근린공원	291	-	291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유당근린공원	29	-	29	
5	변경	근린공원	체육공원	광영근린공원 → 광영체육공원	20	감) 1	19	도시관리계획 반영
6	변경	근린공원	체육공원	옥곡근린공원 → 의암체육공원	40	증) 12	52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마동근린공원	430	-	430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천변근린공원	90	-	90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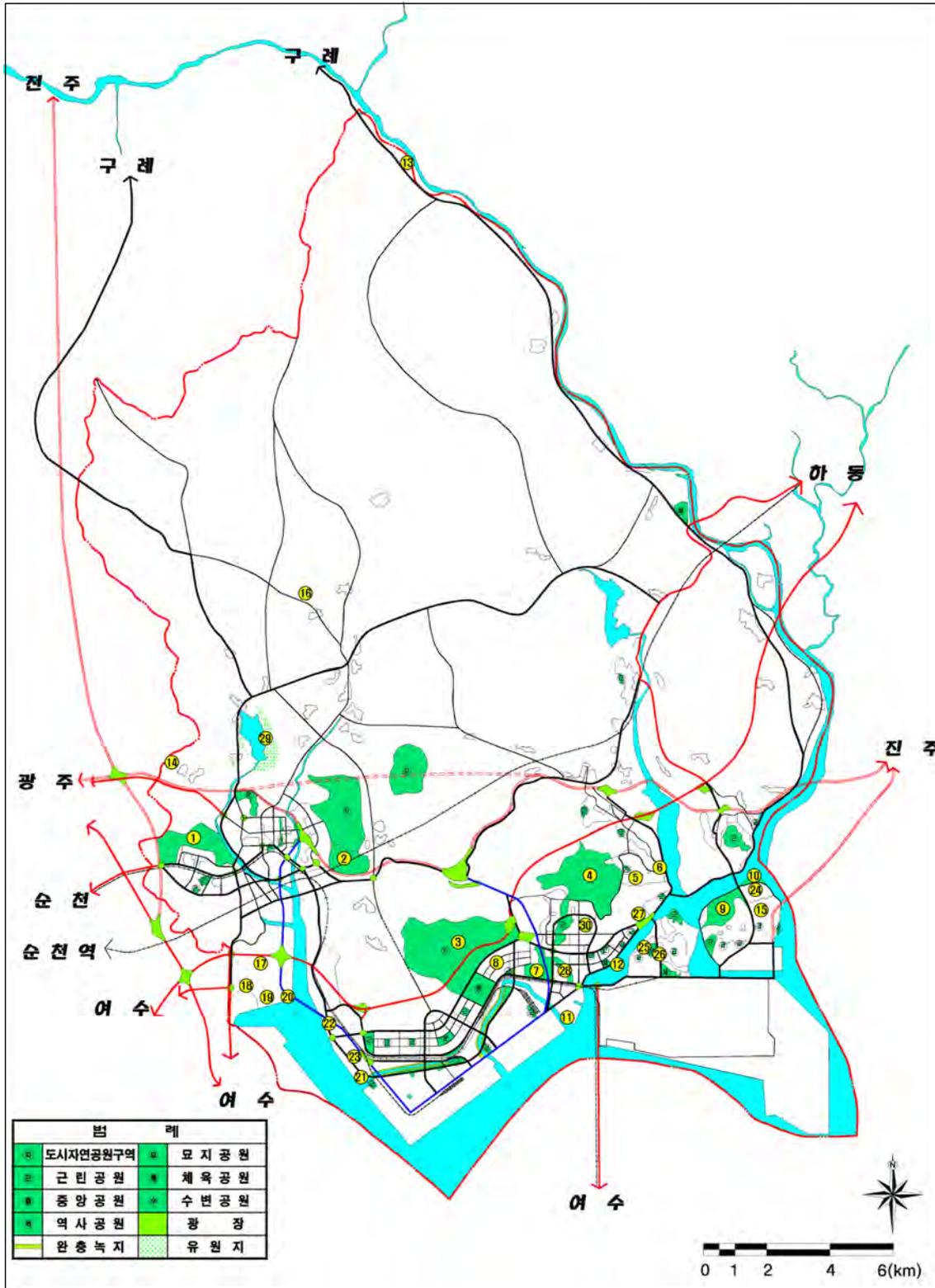
제3편 부문별 계획

< 표 계속 >

일련 번호	구분	기정	변경	공원명	기정 (천㎡)	증감 (천㎡)	변경 (천㎡)	비고
7	변경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이근린공원 → 성황근린공원	440	증) 38	478	도시관리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공단근린공원	40	-	40	
8	변경	근린공원	근린공원	성황근린공원 → 도이근린공원	70	감) 27	43	도시관리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중앙근린공원	630	-	630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통사근린공원	50	-	50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황길근린공원	130	-	130	
9	변경	근린공원	근린공원	태인근린공원	1,070	감) 162	908	도시관리계획 반영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평촌근린공원	50	-	50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고길근린공원	30	-	30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황금근린공원	152	-	152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진상근린공원	37	-	37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장동근린공원	51	-	51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신금근린공원	37	-	37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진월근린공원	11	-	11	
-	기정	근린공원	근린공원	『컨』 부두배 후부지내 근린공원	73	-	73	
-	변경	근린공원	묘지공원	국립묘지공원	1,390	-	1,390	
-	기정	체육공원	체육공원	신원체육공원	218	-	218	스포츠마케팅사업 활성화
-	기정	체육공원	체육공원	마동지구 체육공원	48	-	48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반영
-	기정	체육공원	체육공원	금호1 체육공원	156	-	156	
10	신설	-	수변공원	배알도 수변공원	-	증) 76	76	배알도수변공원
11	신설	-	수변공원	길호수변공원	-	증) 28	28	길호공유수면
12	신설	-	수변공원	삼화섬 수변공원	-	증) 14	14	삼화섬 일대
13	신설	-	수변공원	다압수변공원	-	증) 17	17	섬진강변 공원화사업
14	신설	-	역사공원	매천역사공원	-	증) 10	10	석사리
15	신설	-	근린공원	명당근린공원	-	증) 11	11	명당지구
16	신설	-	역사공원	도산풍수공원	-	증) 53	53	도선국사 역사공원

< 표 계속 >

일련 번호	구분	기정	변경	공원명	기정 (천㎡)	증감 (천㎡)	변경 (천㎡)	비고
17	신설	-	근린공원	세풍1 근린공원	-	증) 65	65	세풍산단
18	신설	-	근린공원	세풍2 근린공원	-	증) 13	13	세풍산단
19	신설	-	근린공원	세풍3 근린공원	-	증) 11	11	세풍산단
20	신설	-	근린공원	세풍4 근린공원	-	증) 15	15	세풍산단
21	신설	-	수변공원	황금수변공원	-	증) 17	17	황금산단
22	신설	-	근린공원	황금1 근린공원	-	증) 16	16	황금산단
23	신설	-	근린공원	황금2 근린공원	-	증) 9	9	황금산단
24	신설	-	체육공원	태인체육공원	-	증) 27	27	명당3지구
25	신설	-	체육공원	-	-	증) 64	64	포스코 주택단지
26	신설	-	체육공원	-	-	증) 73	73	포스코 주택단지
27	신설	-	수변공원	와우수변공원	-	증) 86	86	와우유원지 변경
28	신설	-	근린공원	중동공원	-	증) 100	100	도시관리계획 반영
-	폐지	유원지	유원지	와우유원지	231	감) 231	-	145천㎡ 해제 및 86천㎡ 수변공원으로 변경
29	변경	유원지	유원지	백운유원지	3,665	감) 2,695	970	도시관리계획 (1,593천㎡) 반영 및 추가 해제(623천㎡)
30	변경	유원지	유원지	마동유원지	320	감) 87	233	도시관리계획 (0.306km²) 반영 및 추가 해제(0.073km²)



(그림 III- 49) 공원 · 녹지계획도

제7장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

1. 현황 및 여건변화

1.1 방재 및 안전현황

가. 재해관련지구지정 현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 광양시 관내 지정된 재해관련지구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총 12개소이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III- 84 >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

연번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 정 사유	지정 일시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계		12개소						정 비 4 미정비 8
1	광양마산지구	광양읍 구산리 473 일원(마산마을)	침수위험지구	나등급	49,700	상습 침수	2009.05.20	정비 완료
2	광양익신지구	광양읍 용강리 820-21 일원(익신마을)	침수위험지구	나등급	181,727	상습 침수	2006.03.15	미정비
3	광양도월지구	광양읍 도월리 571-28 일원(도청, 월평마을)	침수위험지구	나등급	855,861	상습 침수	2006.03.15	미정비
4	옥곡명주지구	옥곡면 신금리 1280-2 일원(명주마을)	붕괴위험지구	가등급	2,921	급경사지 붕괴위험	2010.05.14	정비 완료
5	옥곡원월지구	옥곡면 원월리 25-3 일원(옥곡역 주변)	침수위험지구	다등급	40,764	상습 침수	2006.03.15	미정비
6	진월월길지구	진월면 월길리 209-5 일원(가길마을)	침수위험지구	다등급	320,671	상습 침수	2006.03.15	정비 완료
7	진월선소1지구	진월면 선소리 258-10 일원(무접섬)	붕괴위험지구	가등급	20,494	급경사지 붕괴위험	2012.08. 1	미정비
8	진월망덕지구	진월면 망덕리 55-1 일원(외망마을)	붕괴위험지구	가등급	49,000	급경사지 붕괴위험	2010.05.14	부분정비 완료
9	다압신원2지구	다압면 신원리 산 80-2 일원(신원검문소)	붕괴위험지구	가등급	8,224	급경사지 붕괴위험	2010.05.14	미정비
10	중마와우지구	마동 137-231 일원(와우마을)	침수위험지구	나등급	6,466	상습 침수	2006.03.15	미정비
11	진월외망지구	진월면 망덕리 4-54 일원(외망마을)	침수위험지구	나등급	38,130	상습 침수	2015.10.14	미정비
12	태인궁기지구	태인동 896-161 일원(궁기마을)	침수위험지구	가등급	200,000	상습 침수	2015.10.14	미정비

자료 : 광양시 내부자료(2015.10.기준)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현황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급경사지는 총 11개소가 있음

< 표 III- 85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현황

순번	지구명	위치	급경사지 현황		비고
			등급	면적(m ²)	
1	송보지구	마동 1018-2	D등급	16,078	
2	용강지구	광양읍 용강리 779-1	E등급	3,739	
3	마동3지구	마동 1063	D등급	16,859	
4	신원2지구	다압면 신원리 산 80-2	D등급	8,224	
5	동곡2지구	옥룡면 동곡리 615	E등급	2,528	
6	동곡3지구	옥룡면 동곡리 산83	E등급	119,008	
7	하운지구	옥룡면 운평리 31-10	D등급	42,343	
8	산남지구	옥룡면 산남리 산 112	D등급	10,004	
9	하조지구	봉강면 조령리 산 142-8	D등급	2,842	
10	마동2지구	마동 890-6	D등급	3,171	
11	마동4지구	마동 1089	D등급	31,871	

자료 : 광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013.10, 광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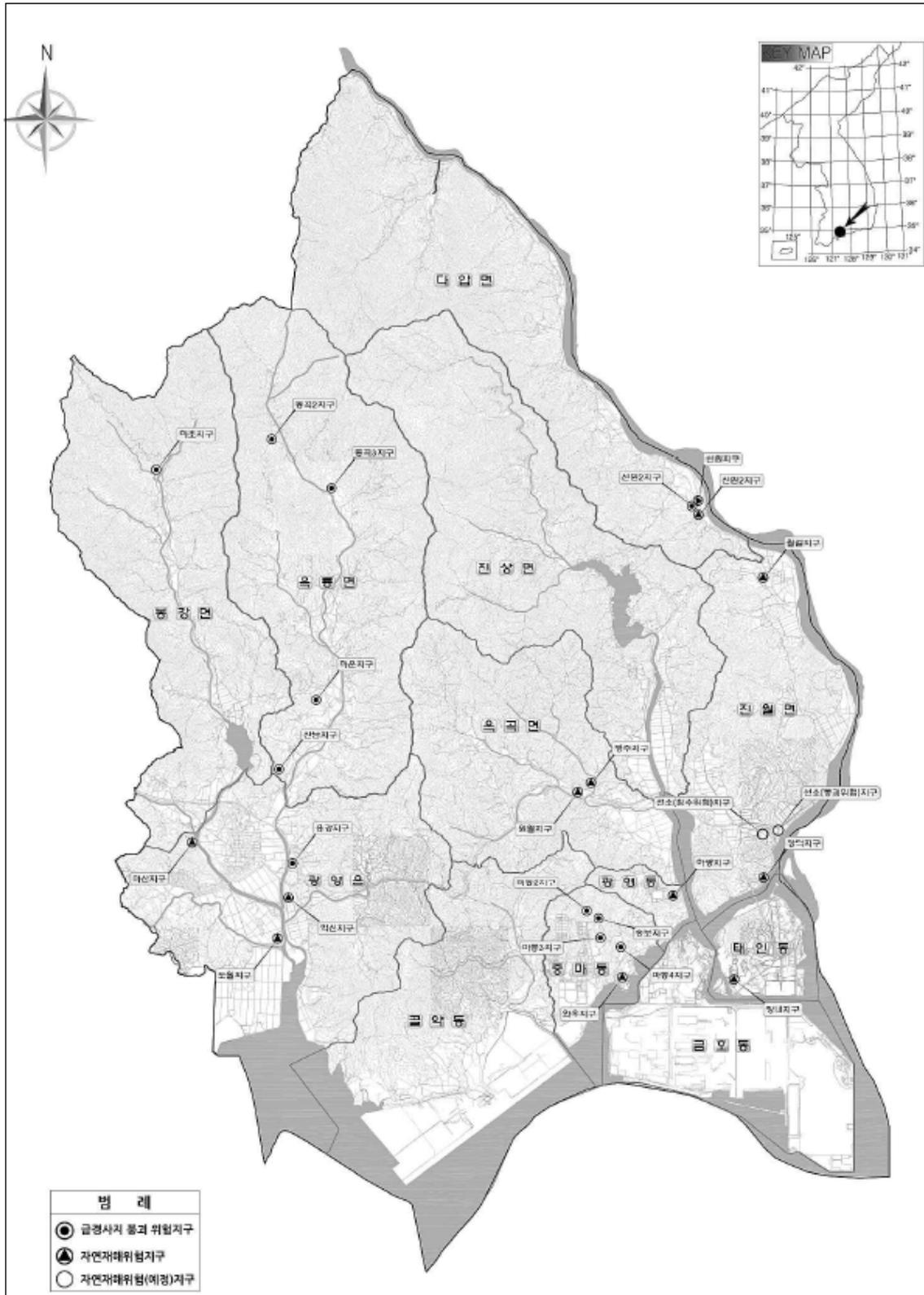
■ 자연재해위험(예정)지구 현황

○ 자연재해위험(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진월면 선소리 일원 2개소이며, 향후 관리계획이 필요함

< 표 III- 86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현황

순번	위치	지정내용			피해 주기	위험요인
		유형	등급	면적(m ²)		
1	진월면 선소리 812-69	침수위험 지구	다	845,365	1년	· 진월천(소) 및 섬진강 국가하천이 인접한 지역으로 하천홍수위 (EL. 1.83m)보다 낮은 저지대 (EL.1.0m)로 집중 호우 시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임
2	진월면 선소리 258-10	붕괴위험 지구	가	19,846	1년	· 급경사지(60%)로 형성된 산 비탈면에 주택 14동 (거주 29명)이 밀집되어 있고 우기 및 해빙기시 토질 점착력 약화로 인한 산사태, 낙석등의 발생으로 인명 및 사유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임

자료 : 광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013.10, 광양시



(그림 III- 50)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위험지 위치도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나.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시설물 현황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광양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시설 중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표III- 87 >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구분	치수시설물				이수시설물		기타시설물
	제방(m)	호안(m)	배수구조물(개소)	낙차공(개소)	양수장(개소)	취수보(개소)	교량(개소)
지방하천	105,171	109,922	250	54	-	98	163
소하천	66,464	96,580	521	395	7	295	852

자료 : 광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013.10, 광양시

■ 댐 및 저수지 현황

- 광양시 관내에 소재하는 댐은 진상면에 위치한 수어댐 1개소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음. 수어댐은 여천·광양 중화학 산업단지에 공업용수와 여수·순천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74년 착공, 1978년 완공한 중심코아형석괴댐(ECRD)임
- 수어댐의 유역면적은 490ha, 저수지의 상시만수위는 EL.64.0m, 계획홍수위는 EL.66.2m이며 상시만수위를 기준으로 한 저수지의 면적은 1.54km² 이고, 총저수용량은 28,100천톤이며 유효저수용량은 22,000천톤임

< 표III- 88 > 관내 댐 현황

명칭	읍면동	하천	제당(m)		유역면적(ha)	형식	유효저수량(천톤)	설치년도	관할기관
			길이	높이					
수어댐	진상면 섬거리	수어천	437.0	67.0	490	ECRD	22,000	1978	수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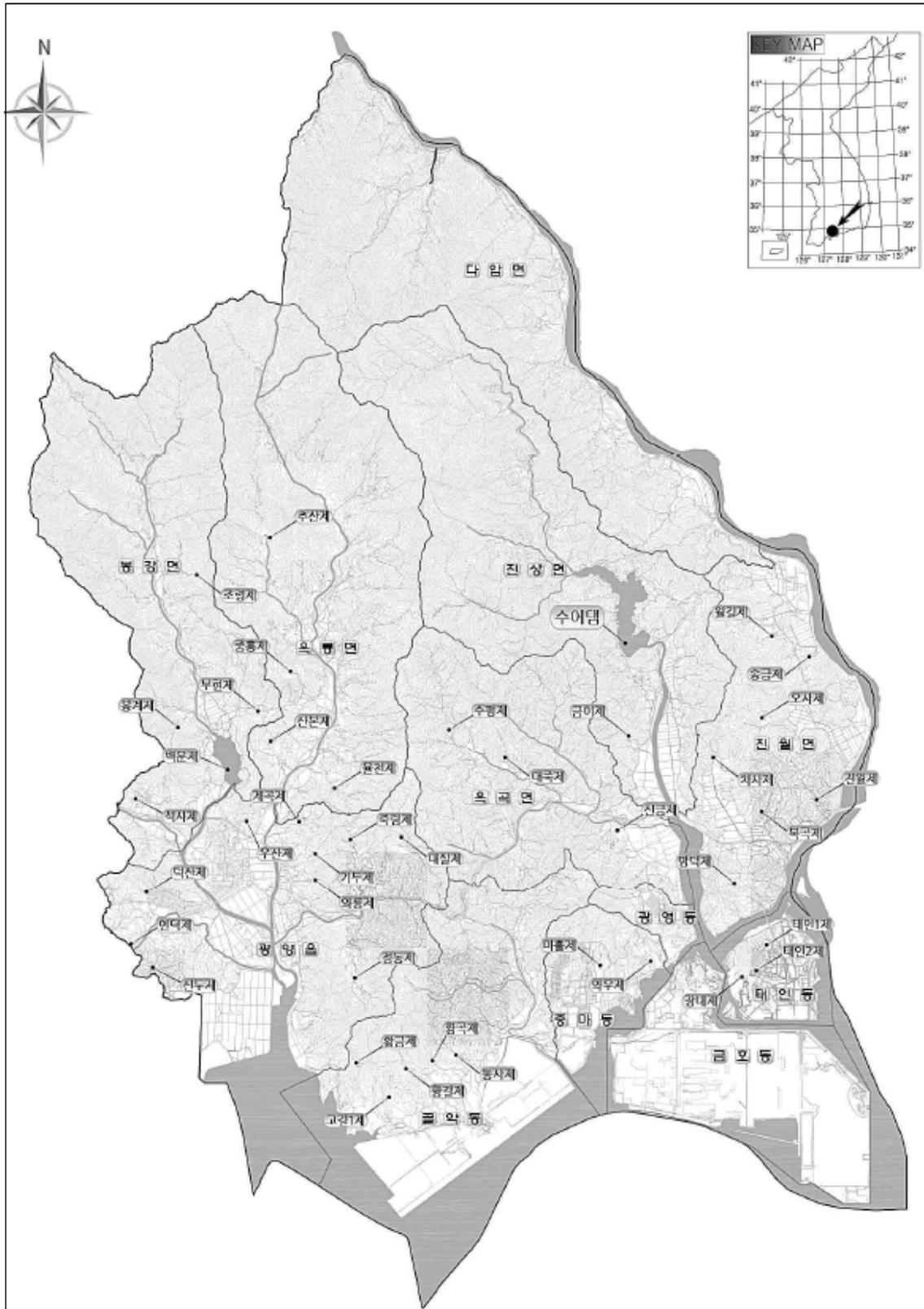
자료 : 광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013.10, 광양시

- 광양시 관내 저수지는 총 40개소이고 관할기관별로는 광양시 관할 30개소,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10개이며, 주요 저수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표III- 89 > 관내 주요 저수지 현황

읍면동	명칭	제당(m)		유역면적(ha)	형식	유효저수량(천톤)	설치년도	관할기관
		길이	높이					
봉강면 지곡리	백운제	316	19	0	토언제	4,541	1967	농어촌공사
진월면 차사리	차사제	280	13	198	토언제	479	1978	농어촌공사
옥곡면 신금리	신금제	511	9	170	토언제	393	1967	농어촌공사

자료 : 광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013.10, 광양시



(그림 III- 51) 댐 및 저수지 위치도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다. 풍수해 현황

■ 연도별 풍수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를 통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광양시의 최근 10년간 주요 풍수해의 인명피해현황을 조사하였음
- 광양시의 최근 10년간의 인명피해현황을 보면, 2002년 6명, 2003년의 1명의 사망·실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재민은 2002년 259명, 2011년 352명이 발생하였음

< 표III- 90 > 최근 10년간 광양시 인명피해 현황

연도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망 · 실종	소계	7	6	1	-	-	-	-	-	-	-	-
	사망	3	2	1	-	-	-	-	-	-	-	-
	실종	4	4	-	-	-	-	-	-	-	-	-
부상		2	-	-	-	-	-	-	-	-	-	2
이재민	세대	328	100	36	1	-	1	-	-	28	21	141
	명	846	259	113	4	-	2	-	-	62	54	352

자료 : 광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013.10, 광양시

- 최근 10년간 광양시에서 피해규모가 컸던 재해는 하천재해와 사면재해이며, 하천재해(813건)에서 약 1,733억원, 사면재해(334건)에서 약 140억원이 발생되었고 특히 하천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 중 90.23%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2002년 하천재해에서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행정구역별로는 전체 피해액 기준으로 볼 때, 옥룡면(227건) 약 814억원, 진상면(203건) 약 296억원, 봉강면(159건) 약 295억원으로 크게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검토됨

라. 방재 관련계획

■ 2008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보고서(2008년, 소방방재청)

- 2008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광양시는 재난피해규모 5등급, 재난저감능력 3등급으로 안전도 등급은 3등급에 해당하며,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자체중 가장 높게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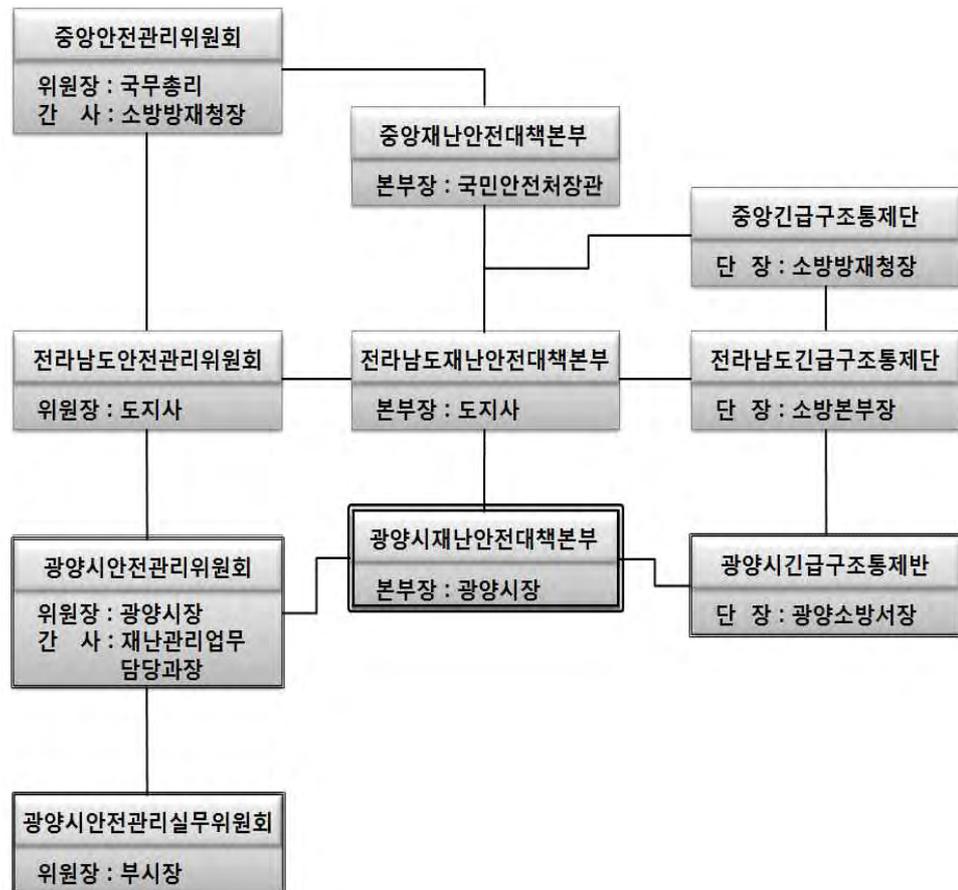
< 표III- 91 > 광양시 안전도 등급현황(2008년)

시도	시군구	재난피해규모		재난저감능력		안전도 등급
		변환점수	등급	변환점수	등급	
전라남도	광양시	492	5	746	3	3

자료 : 광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013.10, 광양시

■ 안전관리계획(2013년, 광양시)

-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 집행계획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업무 계획 등을 종합한 광양시 안전관리 계획임
- 광양시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III- 52) 광양시 재난안전관리체계도

■ 침수흔적조사

-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재해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등을 제작하는데 활용됨
- 기후변화·극한기상 등의 자연재해 경감 및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침수피해가 발생시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함

< 표 III- 92 > 연도별 침수흔적도 작성 현황

침수년도	읍면동	지구명	면적(ha)	침수원인	비고
계	-	5개소	28.51	-	
2009년	마동	마동지구	2.85	7월 호우	
	옥곡면	의암지구	7.73	7월 호우	
	옥곡면	금촌지구	12.94	7월 호우	
2010년	마동	와우지구	4.55	7월 호우	
	중동	홈플러스지구	0.44	7월 호우	

자료 : 광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013.10, 광양시

1.2 문제점 및 여건변화

■ 다양한 재해에 대한 고려 미흡

-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대부분이 여름·가을철 태풍에 의한 풍수해 피해인 관계로 대부분의 방재대책이 수해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기후 변화 재해를 고려하지 못함

■ 사전방재 개념 미흡

- 재난 발생시 대응 및 복구계획에 치중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재시스템 구축 미비

■ 도시계획시설 설치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고려 미흡

-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제한, 방재대책마련 등의 기준 미흡
- 재해에 영향을 가중시키는 시설물, 재해저감에 효과적인 시설물 등의 특성을 고려한 방재기준 미비

■ 재해대응조직의 미비

- 예측불가능이라는 재해의 특성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대응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재해관리업무의 분산으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부족
- 재해에 대응하는 총괄기능 미흡으로 사전방재 및 초기대처 어려움

■ 사이버 재해 대응 미흡

- IT기술에 기반한 도시행정 및 금융시스템의 보안에 대한 사이버 재해에 대비 필요
- 물적·자연적 재해에 치중한 대응책으로 사이버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며 기술력의 한계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즉각 대응 어려움

2.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2.1 기본방향

■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 안전한 도시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측면에서 접근하여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도모

■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및 개발체계 구축

- 사전예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에 대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하여 추후 개발사업 시행시 활용

■ 인위재해, 사회적 재해를 포괄하는 방재계획

-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범죄와 테러 등 다양한 재해를 포함한 대책 마련 필요
-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계획 수립시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해를 고려한 계획 수립

■ 체계적인 방재 기법 적용

-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표준운영절차)계획을 수립하고 내진설계를 강화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 환경설계) 제도 도입을 통한 주거환경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2.2 실천전략

① 종합적인 방재·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종합정보 구축을 통한 재해예방 및 예측

- 홍수, 산사태 등 재해가 빈발한 지역에 대하여 재해발생시 기상조건, 지형, 피해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한 종합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도시방재계획에서 재해예방 및 예측자료로 활용
- 위험징후 감시, 예방·대비, 대응, 복구 및 심리기법, 교육단계에 이르기까지 제측센서, 지능형 CCTV, 시뮬레이션 기법, ICT 등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

■ 재난대응 시스템 및 전문 조직 구축

- 재난 발생시 단계에 따른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에 따라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휘명령체계 및 재난통신망 구축
- 재난대응 훈련·매뉴얼 정비 등 재난대비 및 재난대응역량 강화, 지역 내 민관 간 협업기능 강화,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문 조직 구축



(그림 III- 53)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 도시 기후변화 재해대응체계 마련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재해 취약등급(I ~ IV등급)을 고려한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배치
- 재해취약지역의 영향저감을 위하여 토지이용-기반시설-단지조성-건축물을 연계한 다중재해방어 체계와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가 위험을 분담하는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 표 III- 93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등급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방향

등급	도시계획 수립방향
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대책(보전, 이격, 이주, 전환, 지반고 등) · 도시 중요기반시설(공공청사, 소방서, 대피소 등) 설치 제한 · 재해취약시설, 재해시 주변지역 영향 시설 등은 행위 협의 후 설치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방재지구 지정 검토 · 방재시설 기준 강화 및 확충 ·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을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극 도입
I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취약시설, 재해 시 주변지역 영향시설 등은 행위 협의 후 설치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방재지구 지정 검토 · 방재시설 기준 강화 및 확충 ·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을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극 도입
II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을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 · 현행 방재기준에 적합한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IV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을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 · 현행 방재기준에 적합한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 재해취약지역(I·II 등급지)에 대해 향후 개발사업 추진시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기법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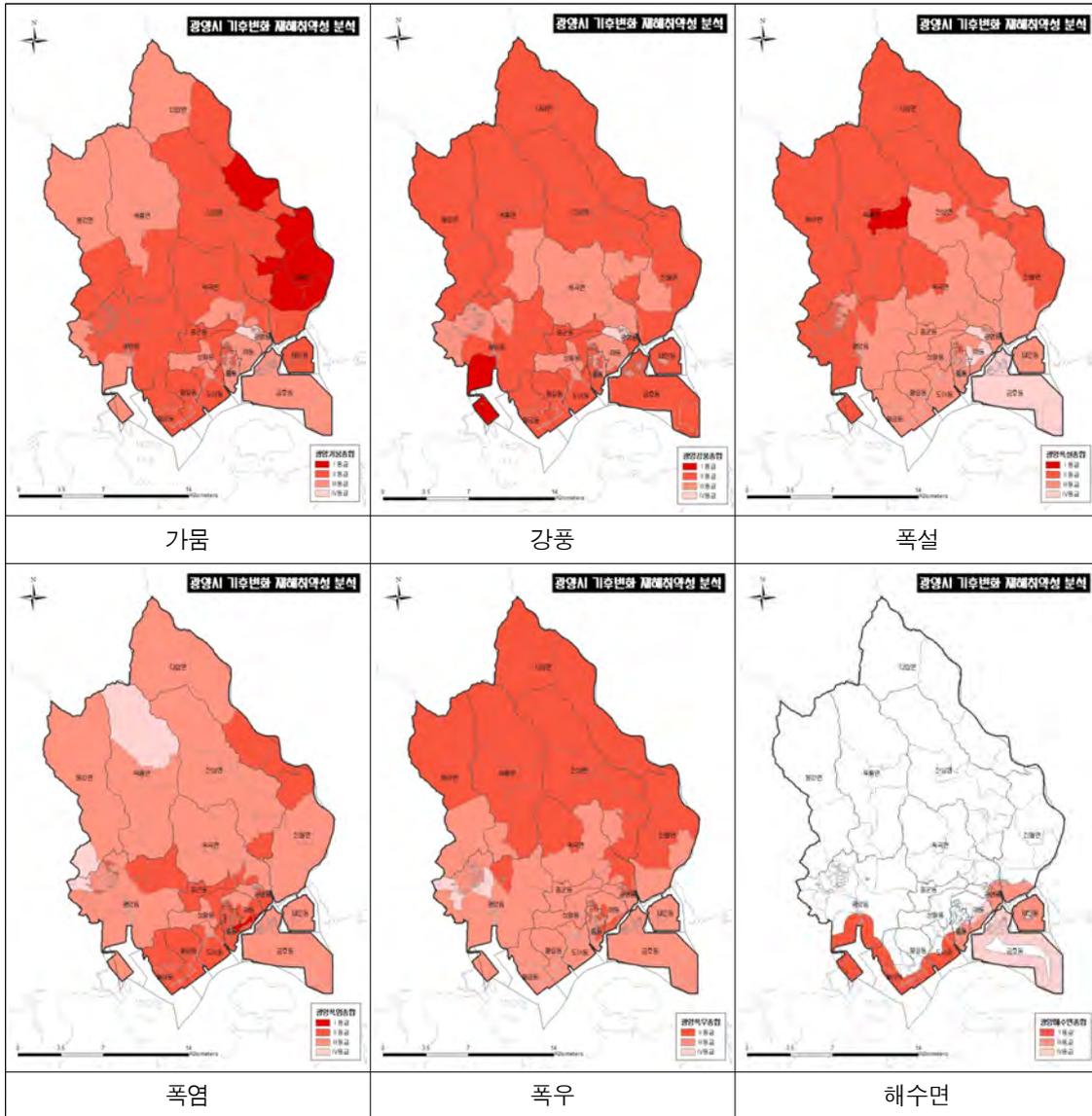
< 표III- 94 > 토지이용계획별 적용 가능한 저영향개발(LID)기법

토지이용	저영향개발(LID) 기법 및 적용방안
자동차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가능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녹지가 있는 도로 : 식생수로, 침투도랑 - 완충녹지가 없는 도로 : 침투통, 침투트렌치, 수목여과박스 적용방안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지 인근 등 사람의 동선이 많은 곳은 물고임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시간 경과후 자연배수 또는 전량 침투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함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가능 기법 : 투수성 포장, 투수블럭 적용방안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에 적용하며,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에도 적용이 가능함 - 보행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면 투수포장 보다는 부분포장을 우선 고려함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가능 기법 : 투수성 포장, 투수블럭 적용방안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부지는 투수성 포장 및 투수블럭 등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보행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면 투수포장 보다는 부분포장을 우선 고려함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가능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류지, 침투저류지,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적용방안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일부 지역에 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공원에서의 우수유출수에 대한 저류 기능 및 친수공간 조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자료 :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 2013.7, 환경부



(그림 III- 54) 저영향개발(LID)기법 사례



(그림 III- 55) 광양시 재해취약성 등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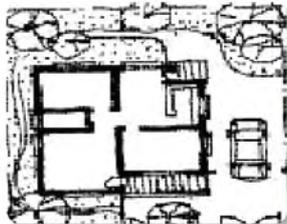
② 체계적·효율적인 방재·안전시설 계획

가. 원도심 방재계획

-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안전한 도시공간 형성
- 생활권별 중심지에 설치되는 공공시설 설계 시 보다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재해 발생 시 대피 장소로 활용
- 도로시설물의 설치시 보행안전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정기점검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
- 원도심의 화재 발생 및 확산 위험성 · 건물 도괴 위험성 · 비상시 대피 곤란 방지를 위해 미개설도로 확장 사업 추진

나. CPTED를 이용한 범죄예방

-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프로그램 활용
- 개발계획 단계부터 범죄예방 개념을 적용하고, 지속적이면서도 주기적인 환경 정비

<p>자연감시</p>	 <p>〈개방형 개구부〉</p>	 <p>〈담장 허물기〉</p>	 <p>〈야간의 활동을 위한 조명〉</p>
<p>접근통제</p>	 <p>〈출입구 수의 최소화〉</p>	 <p>〈침입통제 시설 설치〉</p>	 <p>〈건물 이격공간 접근통제〉</p>
<p>영역성 강화</p>	 <p>〈공·사적 영역 사이 완충공간〉</p>	 <p>〈완충공간 형성을 위한 디자인〉</p>	 <p>〈이해하기 쉬운 안내표지판〉</p>
<p>활동의 활성화</p>	 <p>〈다양한 활동을 유도 하는 공간계획〉</p>	 <p>〈가로 활성화를 위한 시설계획〉</p>	 <p>〈환경정비와 연계된 보행 공간 계획〉</p>
<p>유지관리</p>	 <p>〈낙서로 훼손된 벽 방지〉</p>	 <p>〈가로정비〉</p>	 <p>〈내구성 있는 재료선택〉</p>

(그림 III- 56) CPTED 개념도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다. 연안 방재계획

-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안침식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연안회복탄력성 유지·개선 방안 마련
-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연안정비사업 우선시행

< 표Ⅲ- 95 > 연안정비사업의 종류

구분	연안보전사업	친수공간조성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등의 영향으로 붕괴되었거나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사업 · 노후하거나 불량한 시설의 대체를 위한 개축, 증축, 신설하는 사업 ·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침수 등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 · 기타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연안 시설물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의 지리적 여건상 친수연안의 조성이 바람직한 사업 (해안정비, 해안환경의 정비에 수반되는 친수연안 조성 사업) · 연안경관 보전 및 시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해변공원, 해변산책로, 기타 친수 레크레이션 공간 시설)
사례		

자료 : 2015년도 연안정비사업 실무편람, 2015.12, 해양수산부

라. 재해위험지구 관리방안 강화

- 재해취약성 사전조사, 재해 위험도 평가 후 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 수립·시행 및 재해위험지구별 행동매뉴얼 마련 등 재해위험지구 체계적 관리
-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 수방기준 및 내풍 설계기준 검토·보완,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 재난관리 책임기관별 비상대처(추진) 계획 수립 등 태풍 피해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재해위험 현황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재해 저감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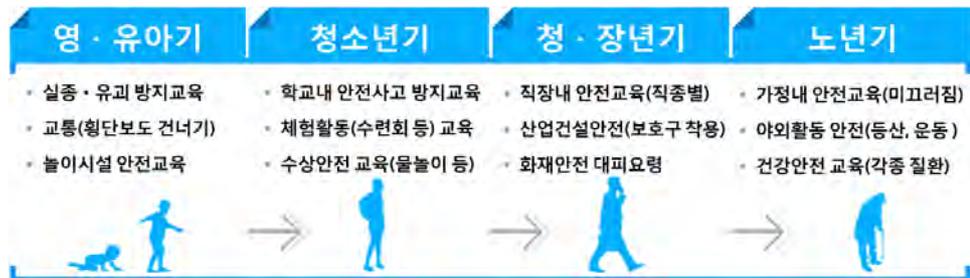
마. 지하공간 관리방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1.7. 제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활용

③ 주민 자율적인 재해·안전관리

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

- 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두가 자신의 나이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재난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테마별 안전체험시설 확충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그림 III- 57) 안전체험시설 예시

나.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안전공동체 만들기, 신고체계 개선 등을 통한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지역기반 자원봉사단체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다. 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복지 강화

- 취약계층 생활안전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정보 공유체계 구축
-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설비 확대, 안전매뉴얼 보급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설비 강화 및 교육훈련 활성화
- 기초생활수급가구, 독거노인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

제8장 경제 · 산업개발

1. 현황 및 여건변화

■ 철강과 항만을 축으로 성장 중인 산업 · 물류형 기업도시

- 단일제철소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연관기업 위치
 - 세계 최대 규모의 부지(약 17.6km²)와 단일 고로(高爐, 6,000m³) 보유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단지 등 총 8,879천m²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동북아 물류 허브

■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부가가치농업 실현 및 청정에너지 확충 여건 양호

- 연누적 일사량이 4,619.6MJ/m²로 전남(4,551.4MJ/m²) 및 전국평균(4,474.0MJ/m²)에 비해 각각 1.5%, 3.3% 높음(국립기상연구소, 2013)
- '11년에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으며, '13년에는 전국 3대 건강도시로 선정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설 하우스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중심의 자본·기술 집약적 농업으로 부가가치 제고 가능
- 광양항 3단계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컨테이너부두 및 동측 배후물류단지에 5.1MW 규모의 태양광 시설 설치

■ 최적의 항만물류 입지여건 불구 물동량 둔화, 체선율 증가

- 광양항은 방파제 없이도 연간 정온수역 유지가 가능하고, 20m이상의 항로 수심, 16m이상의 안벽수심 등 최적의 물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
- 전국 4대 항만 중 체선율이 가장 높으며, 이에 따른 체선비용도 142.6억원에 이룸
 - 주요 항만 체선율(%) : 부산항 0.34, 인천 1.3, 울산 4.4, 광양 5.2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진행의 부진

- 2014년말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면적은 총 77.71km²임
 - 지구별 경제자유구역 지정 면적(km²) : 광양 13.64, 울촌 27.81, 신덕 14.10, 화양 9.99, 하동 12.17
- 지난 5년(2008~2012년)간 정부 지원액은 인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1/3 수준인 1,189억원에 그침
 - 기반 시설 지원액도 1,180억원으로 부산·진해(3,158억원), 인천(2,323억원)에 비해 낮음
- 황금산단, 세풍산단 등의 착공 지연

■ 철강산업에 대한 경제 · 산업 의존도가 높아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

- 세계경제 침체, 중국 철강생산 증가 등의 여파로 광양제철소 매출이 줄어들어 따라 지방세 수입 감소
- 미래소재·에너지산업, 관광산업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필요

2.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2.1 기본방향

가.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경제 도시 실현

■ 기존사업 고도화-신성장동력 창출의 Two-Track 전략으로 접근

- 기존 경제성장의 양대 동력인 철강과 물류의 고도화
- 미래소재, 에너지 등 광양에 특화된 미래성장동력 창출

■ 미래소재·에너지 거점 조성

- 중마동-광양항 동측배후단지-명당지구를 잇는 트라이앵글 탄소밸리 구축
 - 탄소소재 신뢰성평가·인증센터 유치
 - 소재·환경·에너지 분야의 특화 연구기관 유치
 - 명당지구, 동측배후지에 탄소 기반의 고부가가치 후방산업 육성
- 광양만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사업 추진
 - 부생가스 이용 수소에너지 타운 조성
 - 광양항을 태양광발전 기반의 친환경 그린포트로 육성

나. 미래의 희망이 깃든 농업·농촌 실현

■ 자본집약적 농업 육성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 고품질 매실생산기반 구축 및 광양매실 브랜드가치 제고
 - 관수시설, 관정개발을 통해 고품질 매실 생산기반 구축
 - 빛그린매실사업단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 매실 R&D 연구를 위한 농진청 산하의 국립매실연구소 건립
- 월예전문단지(파프리카, 토마토) 수출품목 육성 지원
- 지역특화 품종 육성을 통한 고소득 전략품목 육성
 - 알스트로메리아 : 신육성품종 실증시험포 운영, 유통관리, 일본수출시장 개척 등
 - 표고버섯 : 재배단지(10천㎡) 조성, 유통센터 건립 등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열대 작물 발굴 및 실용화
 - 망고 : 실증시험관 운영, 자동생산시설 설치, 실증재배 등
 - 채소(오크라 등 6종) : 실증재배, 대량 생산체계 구축 등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

■ 농촌의 다원적 기능 향상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4개 권역(금천, 도선국사, 국사봉, 섬진강 끝들)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

■ 백운산·섬진강권 6차산업단지 조성

- 고로쇠를 테마로 백운산권 6차산업단지 조성
 - 권역내 주요 이용·체험시설 : 도선국사 테마마을, 백운제 등
- 매실을 테마로 광양 섬진강권 6차산업단지 조성
 - 권역내 주요 이용·체험시설 : 매화마을, 청매실농원, 매화랜드 등
-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협의체 구성, 코디네이터 육성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2.2 실천전략

가.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 필요성

-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글로벌 명품도시로서의 여건 및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 인구 증가는 2011년 이후 사실상 정체 상태
- 글로벌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투자기업유치, 정주기반 조성, 교육환경 개선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도시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추진사업

- 전략적 투자유치
 - 광양항 배후단지(제조, 조립, 가공, 수출·입 등), 초남·신금·명당지구(제철, 향만 등), 세풍산단(기능성 화학소재 등) 등 입지별 특화전략산업 육성
 - 수도권 대기업 대상 권역별 투자설명회, 국내 U턴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 육성
- 투자유치 서비스 개선
 - 산단내 진입·간선도로 조기 개설 및 기반시설 설치
 - '광양 산업체 u-지원 시스템' 활성화 및 One-Stop 기업상담 운영
 - 관내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조사결과 행정 반영

나. 탄소밸리 구축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육성

■ 필요성

-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미래 가치창출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 발굴·육성 필요
- 고강도 초경량의 탄소소재는 항공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탄소산업은 연평균 8~9%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세계 탄소산업 시장 규모 : '10년 약 2,500억달러 → '30년 2조7,000억달러 전망
- 중간재, 복합재 등 고부가가치 탄소산업을 광양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 마련
 - 우리나라는 탄소소재 원료(석탄, 석유)는 수입하고, 탄소소재 수요(자동차, 철강 등)는 많지만, 탄소소재(중간재 및 복합재) 제조공정·기술이 없는 실정
 - 산자부(당시 지경부)는 6대 탄소소재를 중심으로 탄소산업 발전 전략 수립(6대 C-소재 : 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활성탄소, 카본블랙, 인조흑연)
 - 탄소섬유를 기반으로 탄소산업을 육성 중인 전주시와 차별화된 전략 추진

■ 추진사업

- 연구기관 및 평가·인증센터 유치(중마동&명당지구)
 - 신소재·환경·에너지 분야로 특화된 세계수준의 연구기관 유치
 - '미래소재융·복합연구센터(가칭)' 운영
 -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광양만권내 산업체 등과 공동 R&D 체제 구축
 - 탄소소재 신뢰성평가·인증센터 유치
 - 탄소소재의 표준화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인프라 구축
 -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후방산업 육성(명당지구&동측배후지)
 - 흑연소재 공장 유치, 침상코크스 제조 공장 건설 예정 등 탄소소재 양산체제 구축 중
 - 해외 메이저 기업과의 합작투자(탄소소재 생산량 기준 세계 5대 기업 : 도레이(일본), 데이진(일본), 졸텍(미국), 미쓰미시레이온(일본), SGL 그룹(독일))
 - 탄소소재 활용 제품 기업군 유치
- < 표III- 96 > 탄소소재 활용 제품 예시

구분	활용제품
흑연	철강, 반도체, 항공기·로켓, 이차전지, 레저용품 등
침상코크스	활성탄소, 탄소섬유, 인조흑연의 중간원료
활성탄소	커패시터, 흡착탑 등
탄소섬유	항공기·로켓, 자동차, 풍력발전기 등

○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세풍산단)

- 광양제철~여수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기초소재 산업벨트를 활용한 미래형 소재산업 R&D 및 생산집약지로 육성
- 중간재, 복합체 등 고부가가치 탄소 신소재 산업과 연계 육성하고 관련 연구기관 유치 및 중소·중견기업을 첨단소재부품기업으로 육성
- 화학소재 산업과 해양자원을 연계한 해양바이오신소재산업 육성
- 신소재산업과 금형·주조·열처리 등 신제조기반기술을 활용한 뿌리산업 육성
- 국내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부품소재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또는 중소기업 단지형 외투자역' 지정 추진

다. 광양만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필요성

-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에서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계획 발표
 - 3~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으로 확대시킬 계획
- 광양시는 태양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높고, 제철소 배출 부생가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의 적지임
 - 광양시의 연누적 일사량은 전국평균에 비해 3.3% 높음
 - 제철소 배출 부생가스(H₂, CO)는 발전뿐 아니라 석유화학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사용 가능

■ 추진사업

- 광양항 'Green Solar Port' 육성
 -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및 물류단지 지붕 등에 태양광 집광판 확대 설치(현재 5.1MW 규모의 태양광 시설 설치)
 -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시스템 도입 등 차별화된 친환경 항만 조성
-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
 - 광양(철강)-여수(석유화학) 양 산단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약 4km)을 구축하여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H₂, CO₂등)를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
 - ※ H₂는 고급 휘발유 제조용 촉매, CO는 폴리우레탄, 옥소알콜로 사용 가능
 - 5년간 최대 2,000억원(민자)을 투자하여 연간 1,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발생
 - ※ 생산비 절감(1,062억원/년) : 연료로 사용되거나 폐기되던 부생가스를 생산 과정에 투입함으로써 기대되는 생산원가 하락
 - ※ 물류비 절감(195억원/년) : 탱크로리 대신 배관수송을 통한 운송비 절감
- 광양만권 그린수소 산업화 센터 구축
 - 국내 수소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광양, 여수산단에 고순도 수소 생산단지 조성
 - ※ 고순도 수소는 전자, 반도체, LCD/LED 등 첨단산업에 활용되고 있지만, 생산 설비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라. CCS(CO2 포집·저장) 핵심거점 육성

■ 필요성

- 전국 최다 CO2 배출지역으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필요
- CCS(CO2 Capture & Storage)는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그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CCS는 발전소나 제철소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발생원으로부터 CO2를 포집·수송·저장하기 때문에 현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다량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블루맵 시나리오에 따르면, CCS가 2050년 전세계 CO2감축량의 19%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2030년까지 CCS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시행으로 CCS 투자가치 증대
- CCS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그림 III- 58) CCS기술 개념도

■ 추진사업

- 남해안 퇴적분지내 CO2 해저지중저장소 탐사·선정
 - 광양만권과 근거리에 있는 남해안 퇴적분지를 대상으로 CO2 해저지중저장을 위한 후보지를 탐색한 후 최적지 선정
 - ※ 50억톤의 CO2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동해 울릉분지는 광양제철소에서 원거리(70km 이격)에 위치
 - ※ 광양만권과 근거리에 위치한 남해안 퇴적분지를 대상으로 CO2 저장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탄성과 및 시추자료 분석 등 심층적 조사 수행
- 1만톤급 CO2 포집-수송-저장 통합 기술 실증
 -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CO2 포집 최적 상용화 기술 확보
 - 압축 또는 액화된 CO2를 선박이나 파이프 라인을 통해 저장지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CCS 연관기업 유치
 - 국내 CO2 배출기업, 설계·시공 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 CCS 기술선진국인 미국, 노르웨이, 영국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유치 추진

마. 백운산·섬진강권 6차산업단지 조성

■ 필요성

-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산업의 필요성 대두
 -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가치 및 일자리 창출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발표



(그림 III- 59) 6차산업 시스템 구축방안

- 산업화가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여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
 - 농식품부에서 조사·발굴한 광양시의 6차산업화 가능 향토자원 : 매실(기 산업화), 백운제, 꽃감, 밤, 고사리, 고로쇠
- 광양시 3대 권역 중 백운산권(고로쇠), 섬진강권(매실)의 향토자원을 이용해 6차산업화단지 조성

■ 추진사업

- 백운산 고로쇠 6차산업단지 조성
 - 고로쇠 생산 품질 향상·인증 및 소비자 맞춤형 제품 제공으로 백운산 고로쇠 명품 브랜드 육성
 - 도선국사 테마마을 : 유적지 체험, 도선향토음식체험, 다도체험 등
 - 백운제 테마공원 : 백운만찬공원, 초록기운공원, 수상레저공원 등
- 섬진강 광양매실 6차산업단지 조성
 - 매실나무 적기전정을 통한 명품 광양매실 생산으로 품질고급화
 - 청매실농원 : 매실체험, 문학동산, 전망대, 매화문화관 등
 - 매화랜드 생태학습장
- 백운산·섬진강권 6차산업단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 6차산업화 협의체(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 등) 구성 및 공동사업(R&D, 품질관리, 마케팅·홍보 등) 자금 지원
 - 6차산업 코디네이터 육성 및 귀농·귀촌 희망자 6차산업화 교육 확대

바. 역대부농 200호 육성

■ 필요성

-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역대부농 꾸준히 증가세
 - 풍부한 일조량, 높은 기온, 풍부한 수원, 비옥한 토지 등 최상의 농업 환경 보유
 - 경쟁력 있는 매실, 파프리카 등의 집중 재배로 2013년 역대부농 급증
 - ※ 역대 부농 추이(농가) : ('10)72 → ('11)79 → ('12)83 → ('13)107
- 고소득 농업인을 현 수준보다 2배 정도 늘리기 위해 비교우위 품목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을 발굴해 신소득원으로 육성
 - 협소한 농지면적을 고려해 IT 기술 등과 연계한 자본집약적 농업 추구

■ 추진사업

- 파프리카, 애호박, 토마토 육묘장 설치
 - 재배면적이 높은 파프리카, 애호박, 토마토를 대상으로 우량종묘 생산 공급
 - 육묘장 시설, 베드, 온·습도조절장치 등
- 원예전문단지 수출품목육성 지원
 - 파프리카 원예전문단지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 양액재배시설, 시설복합환경제어 시설, 에너지절감 시설 등 설치
- 생강 소득작목 특화
 - 사질토(옥룡면 추동)에 생강단지를 조성하여 소득작물로 육성
 - 종강보급, 유통망 구축 등
-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개발·육성
 - 아떼모야, 망고, 용과 등 아열대과수 실증시험관 운영
 - 재배하우스 시설 설치, 실증시험 등 시범사업 추진
 - 천혜향, 블루베리 등 아열대과수 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 및 묘목 지원



(그림 III- 60)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예시

3. 동서통합지대 구상에 따른 대응방안

3.1 현황

가.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 개요

■ 추진배경

- 영·호남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
-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과제로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정
 - 섬진강 양안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여 산업육성과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통해 동서 간 갈등에너지를 통합의 발전시너지로 전환하여 국민대통합과 국토 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 첨단지식기반산업 및 문화관광부문의 교류협력, 인프라건설 등의 분야에 대해 동서화합의 상징성이 높은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

■ 비전 및 목표

- 비전 : 동서통합의 협력적 상생 시너지를 품은 「남해안 창조경제 신성장거점」
- 목표
 -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의 상징지대
 - 신성장을 견인하는 창조경제의 선도지대
 -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행복지대
- 추진전략
 - 다양하고 특색있는 동서연계형 문화·관광지대 조성
 - 경쟁력 높은 동서연계형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 육해공의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복합적 연계 활용
 - 소통과 화합의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 동서통합지대 맞춤형 추진체계 강화

■ 사업추진 방향

- 물적 사업 중심인 기존 계획(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경자구역 개발계획 등)에서 제시하지 못한 동서 간 연계사업 중심으로 계획 수립
- 공간적으로 공유지역과 배후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 구상
 - 공유지역 : 섬진강 양안, 광양만 해상(동서통합지대의 중심지역, 통합 상징성이 높은 문화관광산업, 신산업 육성 및 인적 교류, 연계 촉진)
 - 배후지역 : 여수, 순천, 진주, 사천(경제분야 중심의 교류·협력 추진)



(그림 III- 61)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도

나. 광양시 관련 주요사업 검토

○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 중 광양시와 관련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각 사업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함

< 표 III- 97 > 광양시 관련 주요 세부 사업계획 검토

추진전략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역	광양시 대응방안
섬진강 양안의 문화관광기반 확충	섬진강 화합의 길 조성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광양, 하동, 구례	나루터, 보트캠핑장, 래프팅장, 강수욕장, 마리나, 쥘와이어 등
		섬진강 하늘길 동서케이블카 설치	광양, 하동	L=3.5km, 승강장 3개소
	섬진강 문화예술회랑지대 조성	광양, 하동	문화예술 교류센터, 박물관, 음식체험관, 판소리 전수관 등	
	섬진강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	광양, 하동, 구례	섬진강 경관 및 생태보존계획수립 및 조례 제정 등	
미래 소재산업 거점 구축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 육성	광양만권	미래형 신소재 산업클러스터 조성 (신규 산업용지 지정 등)	
	광양 신소재관련 연구기관 유치	광양	광양연구소 유치	
동서교류축진 교통인프라 확충	동서통합대교 건설	광양, 하동	L=372m, B=13.5m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재개통	광양, 하동	L=524m, B=11(2차로)	
동서주민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협력 강화 및 시설 개선	하동, 광양, 구례	섬진강 권역 봄꽃축제 교류 협력사업	

3.2 과제

- 투자유치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강구해야 함
- 그간 동서통합지대내 지자체들간에 공동발전을 위한 적극적 협력이 부족하였는바, 동반성장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 연계전략 구사가 필요함
- 동서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문화와 첨단산업 융합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지역발전모델로 발전시켜야 함

3.3 목표

- 동서통합지대는 광양만권의 기존 제조업과 첨단기술(IBEC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생태계 개편과 함께 새로운 경제거점 형성
- 섬진강, 백운산, 지리산, 남해안 일원의 풍부한 역사·문화·경관·자연자원을 토대로 품격있는 문화예술회랑지대로 발전하기 위해 관광거점공간 조성 및 관련시설 클러스터화, 그리고 주변 타 지역과 연계발전전략을 강구함
- 광양만권 주변지역(여수, 순천, 하동, 남해, 사천, 진주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내생적 발전역량을 강화함

3.4 실천계획

가. 섬진강 양안의 문화관광기반 확충

■ 섬진강 화합의 길 조성

-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기반 조성
 - 뱃길과 둘레길, 자전거길 등 다양한 ‘길’을 연결시켜 통합적 관광루트로 조성함
 - 뱃길 포구로부터 내륙 관광거점지로의 연계통로를 확보함

■ 섬진강 문화예술회랑지대 조성

- 섬진강변 핵심 관광거점공간 조성
 - 섬진강변을 따라 일어나고 있는 꽃축제, 체육축제, 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내방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핵심 관광거점공간 조성이 시급함
- 축제, 체육행사 등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주변지역과 연계화 추진
 -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와 연계된 테마로드를 광양으로 연장시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야 함
 - 마라톤 축제나 걷기축제 등을 개발하여 주변 지역들과 연계형 축제가 되도록 함
 - 장터 개설 등 하동지역과 광양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유사업을 적극 개발함



(그림 III- 62) 문화예술회랑지대 구상

나.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 육성

■ 광양 탄소 신소재산업 육성

- 조선산업과 연계한 탄소섬유 및 탄소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장비구축이 중요함
- 세풍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그래핀(Graphene: 강도, 열전도율, 전자이동도 등 여러 특성이 뛰어난 신물질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태양전지,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핵심소재), 탄소섬유(Carbon Fiber: 석유정제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주원료로 만든 섬유소재로 가볍고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고강도, 고탄성, 경량화 소재로 활용)에 대한 R&D센터 및 상용화사업 지원
- 이를 통해 남해안권 항공기 및 해양플랜트 제조에 필요한 첨단소재를 공급토록 함

■ 광양 신소재관련 연구기관 유치

- 동서통합지대 산업 재활성화를 위하여 핵심역할을 담당할 세계수준의 R&D 연구기관 유치
- 지식산업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재편을 준비하여 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 지향적 산업구조 이행 촉진

■ 산업측면에서 주변 지역과 협력적 시너지 발생 유도

- 그간 동서통합지대에 속한 시군들은 식품을 제외하고는 관련성이 적었으나, 지리적 특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섬진강 양안지역(광양, 구례, 하동), 광양만 해상지역(광양, 여수, 남해)을 중심으로 하면서 배후지역(여수, 순천, 진구, 사천)을 연결해 신산업 유치 및 연계를 촉진함
- 자원-시설간 연계사업으로 인적·기술 네트워크 형성, 테스트베드 조성, 연계 인프라 조성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다. 동서통합대교 건설

- 동서통합대교는 섬진강 문화예술회랑을 연계하는 기능의 다리로서 다압면 관동마을-하동군 하동읍 흥용마을 구간을 연결
- 광양쪽 연결지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광양만의 독특한 문화예술회랑지대로 발전시킴

4. 전남 동부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대응방안

4.1 전남 동부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개요

■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한 지역행복생활권의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및 지역발전 추진전략 마련
- 지역행복생활권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지역행복생활권 발전방향 및 추진체계 마련

■ 계획의 범위

- 계획 기간 : 2014 ~ 2018(5년)
- 공간적 범위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내용적 범위
 - 생활권의 비전 구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적인 사업계획
 - 생활인프라, 일자리 및 경제활동,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5대 분야 중 중점 추진사업 기획·발굴
 - 생활권사업 추진체계 및 지자체 재정투자계획 등

■ 산업측면에서 주변 지역과 협력적 시너지 발생 유도

- 그간 동서통합지대에 속한 시군들은 식품을 제외하고는 관련성이 적었으나, 지리적 특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섬진강 양안지역(광양, 구례, 하동), 광양만 해상지역(광양, 여수, 남해)을 중심으로 하면서 배후지역(여수, 순천, 진구, 사천)을 연결해 신산업 유치 및 연계를 촉진함
- 자원-시설간 연계사업으로 인적·기술 네트워크 형성, 테스트베드 조성, 연계 인프라 조성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다. 동서통합대교 건설

- 동서통합대교는 섬진강 문화예술회랑을 연계하는 기능의 다리로서 다압면 관동마을-하동군 하동읍 흥용마을 구간을 연결
- 광양쪽 연결지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광양만의 독특한 문화예술회랑지대로 발전시킴

4. 전남 동부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대응방안

4.1 전남 동부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개요

■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한 지역행복생활권의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및 지역발전 추진전략 마련
- 지역행복생활권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지역행복생활권 발전방향 및 추진체계 마련

■ 계획의 범위

- 계획 기간 : 2014 ~ 2018(5년)
- 공간적 범위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내용적 범위
 - 생활권의 비전 구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적인 사업계획
 - 생활인프라, 일자리 및 경제활동,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5대 분야 중 중점 추진사업 기획·발굴
 - 생활권사업 추진체계 및 지자체 재정투자계획 등

■ 기본구상

- 비전 : 푸르른 생태자원과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활기찬 동부경제권, 풍요로운 행복생활공동체 조성
- 목표
 - 교통 여건 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인재 양성
 - 생태·문화역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 의료·복지의 양적·질적 향상

4.2 전략별 사업계획 (연계협력사업)

가. 교통 여건 개선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

■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 사업내용
 - 광역 시내버스 운행,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도입, 택시 광역미터제 추진
- 기대효과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버스 수송분담률 제고
 - 이용객 편의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읍면 미니복합타운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농어촌 읍면소재지의 기능별 시설 통합,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농어촌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행정서비스 효율 증대
 -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 확대를 통해 전남 동부권 인식 제고 및 살기 좋은 고장으로 홍보 효과

■ 『파도따라 나루찾아』 두바퀴길 조성 사업

- 사업내용
 - 여자만 갯노을길(L=80km) 관광루트 보수 및 신설, 두바퀴길 편의시설 확충사업
- 기대효과
 - 전남 동부권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체류 기간 증대 및 관광객 유인
 - 단일한 길, 단일한 관광명소가 아니라 다양한 길, 다양한 관광명소 결합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

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전남 동부권 임업·조경협동조합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운영

- 사업내용
 - 전남 동부권 임업·조경협동조합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운영, 임업·조경협동조합 설립 지원,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컨설팅팀(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전남 동부권의 산림자원 활용성 극대화 및 주민소득 제고,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지원 모범사례로 정착 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확대 추진 가능

■ 건강기능차(茶) 6차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7T(茶)-6次토피아 조성, T(茶)종합연구소 건립, 4계절 T(茶)-축제 콜라보레이션 브랜드 구축
- 기대효과
 - 건강기능성차의 6차산업화로 브랜드파워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농촌체험관광, 음료제조업 성장 등 차산업생태계 건강성 확보

■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로 일자리 증대

- 사업내용
 - 농어민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 확대, 귀촌 전문인력 활용 창업컨설턴트 양성 사업 추진, 창의혁신 BSR(Brain Storming Room) 운영
- 기대효과
 - 전남 동부권 창조경제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확대
 - 새로운 유형의 창업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및 일자리 확대

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

■ 전남 동부권 글로벌 우주과학인재캠프 운영

- 사업내용
 - 우주와 항공 테마 글로벌 우주과학인재캠프 운영, 동부생활권 명품 아카데미 교육특구 지정, 동부권 과학기술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일자리 연계 및 평생교육 지향 교육특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명품교육도시 조성
 - 자유학기제를 활용해 과학 미 외국어 체험 기회 제공으로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기여

■ 전남 동부생활권 통계협의체 운영 및 통계전문인력 양성

- 사업내용
 - 전남 동부생활권 통계협의체 구성 및 운영, 통계 교육 및 컨설팅, 통계분기예보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지역통계에 대한 정보 확산으로 경제활력 제고
 -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정책 추진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정책효과 극대화

라. 생태·문화·역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 광양만권 대기질 스마트 모니터링 사업

- 사업내용
 - 광양만권 대기환경종합관리센터 설치, 대기환경측정망 확충, 생활밀착형 대기오염신호등 설치·운영
- 기대효과
 - 대기환경의 광역적 데이터관리 및 분석을 통한 광역적 정책수립 및 추진 효율성 제고
 - 주민에게 깨끗한 대기환경 제공 및 건강권 확보

■ 광양만권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여수·순천·관양 산업단지 EIP 확장 및 생태산업개발 추진,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조기 구축, 광양만권 산단-지역간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기대효과
 - 원료 및 부생물질 교환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통한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놓아놓까지 확대

■ 동부생활권 광역관광 프로젝트 추진

- 사업내용
 - 동부생활권 광역관광 전담기구 설치, 동부권 통합관광 교통카드제도 도입, 동부권 5개 시·군 서비스대상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
- 기대효과
 - 설립된 전담법인을 통한 동부권 관광산업 발전,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도시경쟁력 강화
 - 공동 관광 홍보, 관광지 개발, 관광 현안문제 등 유기적 대처로 관광객 유치

마. 의료·복지의 양적·질적 향상

■ 광역의료복지 연계체제 구축

- 사업내용
 - 5개 시군 소재 의료기관간 협진체계 구축, 동부권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융합형 광역의료복지 연계망 구축
 - 노인 대상 통합형 의료복지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 동부권 치매네트워크 시범사업

- 사업내용
 - 중증 치매환자를 치료할 동부권 치매거점병동 설치, 순천의료원에 동부권 치매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부여
- 기대효과
 - 치매질환 대상자의 기능별 단계에 맞는 예방적 치료환경 조성
 - 기존 시설과 자원과 치료공간 연계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 전남 동부권 명품 생태·치유벨트 조성사업

- 사업내용
 - 치유벨트 순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의료·휴양), 민박·게스트하우스 서비스업 연계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사업(교육), 자연휴양림·국민여가캠핑장 운영사업(특화자원 공동활용)
- 기대효과
 - 산림 휴양림을 활용한 세계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생태 교육 및 홍보의 장으로 활용
 - 동부권 관광자원과 연계해 치유·휴양 거점으로 도약하여 관광객 유치 등 시너지 효과 창출

제9장 관광

1. 현황 및 여건변화

1.1 현황

■ 국내·외 환경

- 국내 관광수요의 확대 전망에 따른 유인 전략 마련 필요
- 중화권 시장의 성장과 방한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일본 방한 관광수요의 유치 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
-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특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발굴 필요
- 국제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명소화 필요

■ 지역 환경

-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이 높은 교통의 요충지
- 풍부한 일조량과 따뜻한 기후조건으로 국내 최대의 매실 생산지역
- 광양 제철소와 광양컨테이너부두가 자리한 전남도의 대표 공업도시
- 지속적인 2·3차 산업화로 두터운 경제활동 인구 보유

■ 관광 환경

- 산업자원 경관과 역사문화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
- 풍부한 주변 관광시장 확보로 높은 성장 잠재력
- 시장검토를 통한 대상지 유인 전략 필요
- 대표관광자원인 청매실농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편중 추세
-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필요

■ 관련계획

- 남중권 중심으로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추진
- 문화예술·녹색생태 등 테마관광 활성화
- 문화·인재·자원·기술이 융합되는 남해안권 발전의 중추 거점
- 향토자원의 복·융합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 관광개발 추진을 위한 관련 법규 검토로 실현가능성 확보

1.2 계획과제

■ 대표 관광상품의 부재 : 주변도시 경쟁우위 상품 개발

- 기존 관광도시로서 부족한 지역 관광의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광양시만의 관광 브랜드를 설정
- 주변도시의 관광상품과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다른 곳이 아닌 광양으로 관광객을 유인함

■ 관광 수요 지향형 상품 확충 필요 : 관광객들이 찾는 상품으로 변화

-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원재료(raw material)를 잘 가공하여 관광객들이 찾는 상품으로 변화시킴
- 새롭고 트렌디한 요소로 기존자원의 이미지를 일신시키고 관광객이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로 보유자원을 변화시킴

■ 관광 수용력 확대 필요 :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

- 관광자원 및 상품 계획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관광객 수용을 위해 먹거리, 살거리, 잘거리 등의 부족한 상주 관광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전략을 마련함.

■ 자원간 연계 이용 체계 개선 필요 : 지역 균형 발전 유도

- 현재 지역적, 계절적으로 편중되고 있는 관광객들을 광양시 전체로 분산시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자원간 연계 이용 체계를 개선함
- 단위 사업을 연계하여 관광상품의 가치 상승을 유도함

2.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2.1 기본방향

■ 동·서 통합지대의 새로운 관광명소 “新 관광도시 광양!”

- 광양시가 보유한 백운산, 섬진강 등의 뛰어난 자연자원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산업자원 및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등의 가치성을 부각시키고, 동·서 통합지대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 하는 “新 관광도시 광양”이라는 비전 설정
- 설정된 비전을 통해 현재 약 260만 명의 관광 총량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도심 관광 유입율과 숙박율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향점 설정

1.2 계획과제

■ 대표 관광상품의 부재 : 주변도시 경쟁우위 상품 개발

- 기존 관광도시로서 부족한 지역 관광의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광양시만의 관광 브랜드를 설정
- 주변도시의 관광상품과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다른 곳이 아닌 광양으로 관광객을 유인함

■ 관광 수요 지향형 상품 확충 필요 : 관광객들이 찾는 상품으로 변화

-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원재료(raw material)를 잘 가공하여 관광객들이 찾는 상품으로 변화시킴
- 새롭고 트렌디한 요소로 기존자원의 이미지를 일신시키고 관광객이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로 보유자원을 변화시킴

■ 관광 수용력 확대 필요 :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

- 관광자원 및 상품 계획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관광객 수용을 위해 먹거리, 살거리, 잘거리 등의 부족한 상주 관광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전략을 마련함.

■ 자원간 연계 이용 체계 개선 필요 : 지역 균형 발전 유도

- 현재 지역적, 계절적으로 편중되고 있는 관광객들을 광양시 전체로 분산시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자원간 연계 이용 체계를 개선함
- 단위 사업을 연계하여 관광상품의 가치 상승을 유도함

2.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2.1 기본방향

■ 동·서 통합지대의 새로운 관광명소 “新 관광도시 광양!”

- 광양시가 보유한 백운산, 섬진강 등의 뛰어난 자연자원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산업자원 및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등의 가치성을 부각시키고, 동·서 통합지대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 하는 “新 관광도시 광양”이라는 비전 설정
- 설정된 비전을 통해 현재 약 260만 명의 관광 총량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도심 관광 유입율과 숙박율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향점 설정

- 또한, 지역의 품격 높은 문화가 교류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강화시키며,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인간 중심의 공간으로 광양시의 관광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 63) 관광비전

2.2 개발 목표

■ 산업관광 명소 육성 : 철을 품은 감성도시(산업관광의 새로운 명소 광양시)

- 광양시의 가장 큰 관광의 문제점인 도심권 관광객 집객력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광양시의 제철도시 이미지를 예술과 감성을 활용한 관광이미지로 변화시켜, 산업 부산물인 철과 예술의 결합을 통해 예술 관광명소로 개발함

■ 에코 레저 도시 육성 : 백운산/섬진강 중심의 녹색 성장 교육·체험 중심지

- 광양시에는 백운산 및 섬진강 등 뛰어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주변 경쟁자원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레저기능을 강화한 에코레저 도시로 육성함
- 이를 통해 근교 및 수도권에서도 방문할 수 있는 녹색 성장 교육·체험 중심지로 개발함

■ 감성 휴양 명소 육성 : 매화와 윤동주 콘텐츠를 활용한 감성 휴양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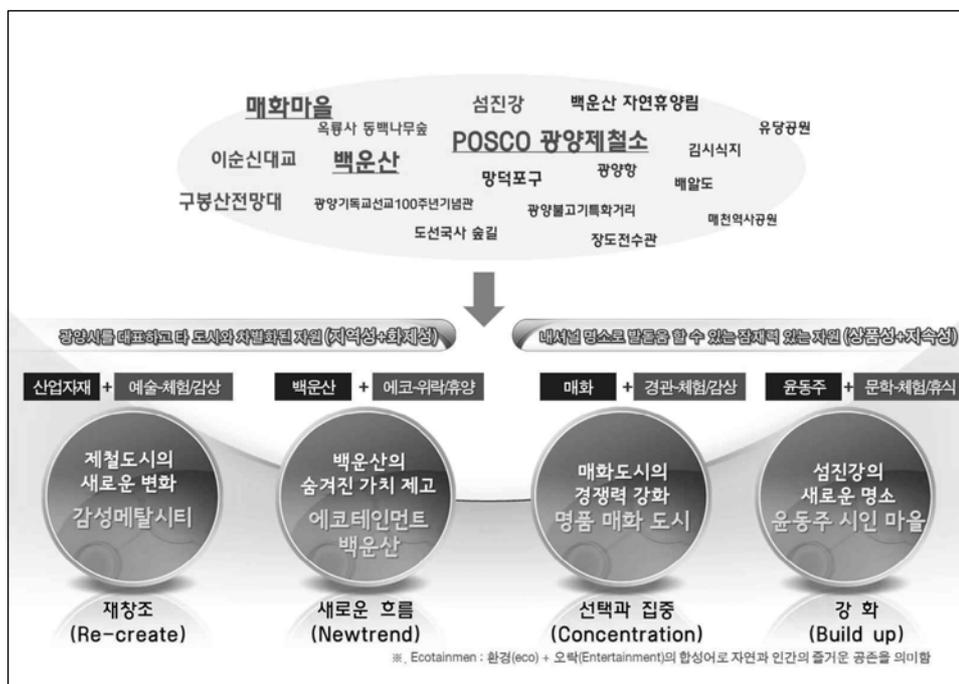
- 국내 제1의 매화 관광지와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인 1위인 윤동주 시인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광양을 감성 휴양 명소로 개발함

2.3 실천전략

가. 꼭 봐야하는 상품 만들기 = “스타상품을 발굴하자!”

■ 핵심사업

- 광양시는 남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산업, 농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한 공간별 핵심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
- 광양시의 많은 자원들 가운데 광양시를 대표하고 타 도시와의 차별화된 자원과 국가적인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핵심사업의 소재로 활용함
- 첫째, 산업도시의 소재를 활용해 감성형 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핵심 사업으로 ‘감성메탈시티’사업을 제시함
- 둘째, 백운산의 숨겨진 가치를 제고하는 “에코테인먼트 백운산”사업을 제시함
- 에코테인먼트(Ecotainment) = 에코(Eco) +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자연과 인간의 즐거운 공존을 의미함.
- 셋째, 국내 최고의 매화자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세계적인 매화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명품 매화도시’사업을 제시함
- 넷째, 숨겨진 광양의 가치 있는 자원인 ‘운동주’의 콘텐츠를 활용한 섬진강의 새로운 명소 ‘운동주 시인마을’사업을 제시함



(그림 III- 64) 광양시 4대 핵심사업

■ 산업 및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광양 관광브랜드 구축 및 킬러 콘텐츠형 사업 발굴

- 각 핵심 사업은 아래와 같은 세부 사업으로 구분되며, 4대 핵심사업 내 총 2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됨
- 핵심 사업별로 ‘감성메탈 시티’사업 내 ‘구봉산 메탈아트 봉수대 특화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 ‘에코테인먼트 백운산’사업 내 ‘백운산 에코레저체험단지’를 비롯한 5개 사업을 발굴함
- ‘명품매화도시’사업 내 ‘아름다운 매화마을’을 비롯한 4개 사업, ‘윤동주 시인마을’ 사업 내 ‘시가 있는 망덕포구 만들기’사업 외 5개 사업을 발굴함

< 표III- 98 > 핵심사업별 20개 주요사업

핵심사업	주요사업	비고
계		20개 사업
감성메탈 시티 광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봉산 메탈아트 봉수대 특화사업 · 황금 테마마을 · 점동 아트빌리지[아름다운 예술(호수)마을] · 로봇 스테이션 · 아트텔 사업 · 감성벤치(예술 조형 벤치) 사업 	6개 사업
에코테인먼트 백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운산 에코레저 체험단지 · 백운산 힐링스테이 사업 · 백운산 숲 유치원 브랜드화 사업 · 옥룡사 역사관광지 · 월애 테마빌리지(거점체류단지) 	5개 사업
명품매화도시 광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매화마을 · 광양 섬진강 매화길 · 사군자 수변 정원 · 도심 매화공원 및 매화길 조성 	4개 사업
윤동주 시인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있는 망덕포구 만들기 사업 · 배알도 수변 레저단지 · 섬진강 공공예술 사업 · 호남정맥 끝 명소화 사업 · 섬진강 하늘길 동서 케이블카 사업 	5개 사업

나.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상품 만들기 = “보유자원 가치를 증대시키자!”

■ 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상품화

- 기존자원 목적지 정체성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면, 새롭고 트렌디한 요소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춘천물레길, 나오시마 베네세, 가평 자라섬 등은 자신의 새롭고 트렌디한 요소 도입을 통해 성공적 관광개발 사례를 보이고 있음

-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백운산, 섬진강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단순 경관감상, 단체 견학 등의 단조로운 형태의 관광상품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객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요소를 파악하여 신규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신규 관광 트렌드인 감성충족, 쉬과 치유, 재밌고 유익한 체험, 지역민과의 만남(6차산업)등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기능을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결합하여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어야 함

■ 보유자원에 새로운 관광 트렌드 접목

- 공급자 관점의 일방적인 관광자원의 개발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접목시켜 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킴
- 감성, 휴식, 재밌는 체험, 지역민과의 교류 등 관광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기능을 보유자원과 접목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함

■ 6개 주요 사업 도출

- 광양시가 보유한 주요 자원을 소재로 관광객 요구에 부합하는 기능이 반영된 ‘이순신대교 씨사이드 파크(해변공원)’, ‘기독교 마을 정원’, ‘매실 막걸리 체험단지’, ‘섬진진지 두꺼비 테마공원’, ‘동·서천 이야기가 있는 갈대 숲’ 등 6개 신규 사업을 도출함

< 표III- 99 > 보유자원 가치 증대를 위한 주요사업

전략	주요사업	비고
보유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자! [관광객이 좋아하는 상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순신대교 씨사이드 파크(해변공원) · 기독교 마을 정원 · 매실막걸리 체험단지 · 섬진진지 두꺼비 테마공원 · 섬진강 강수욕장 · 동·서천이야기가 있는 갈대 숲 	6개 사업

다. 오래 머물 수 있는 상품 만들기 = “체류형 명소로 도약하자!”

■ 관광객 선호 숙박시설 부족

- 주변 유동관광객이 방문하여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체류시설 기반 구축을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의 증대 및 소비 유도 전략이 필요함
- 현재 광양시의 숙박시설 유형을 살펴보면 모텔이 전체의 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 광양시에 부족한 관광객 선호 숙박시설의 확충 및 기존 모텔시설들에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리모델링 전략을 제시함

■ 단계별 관광객 선호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체류의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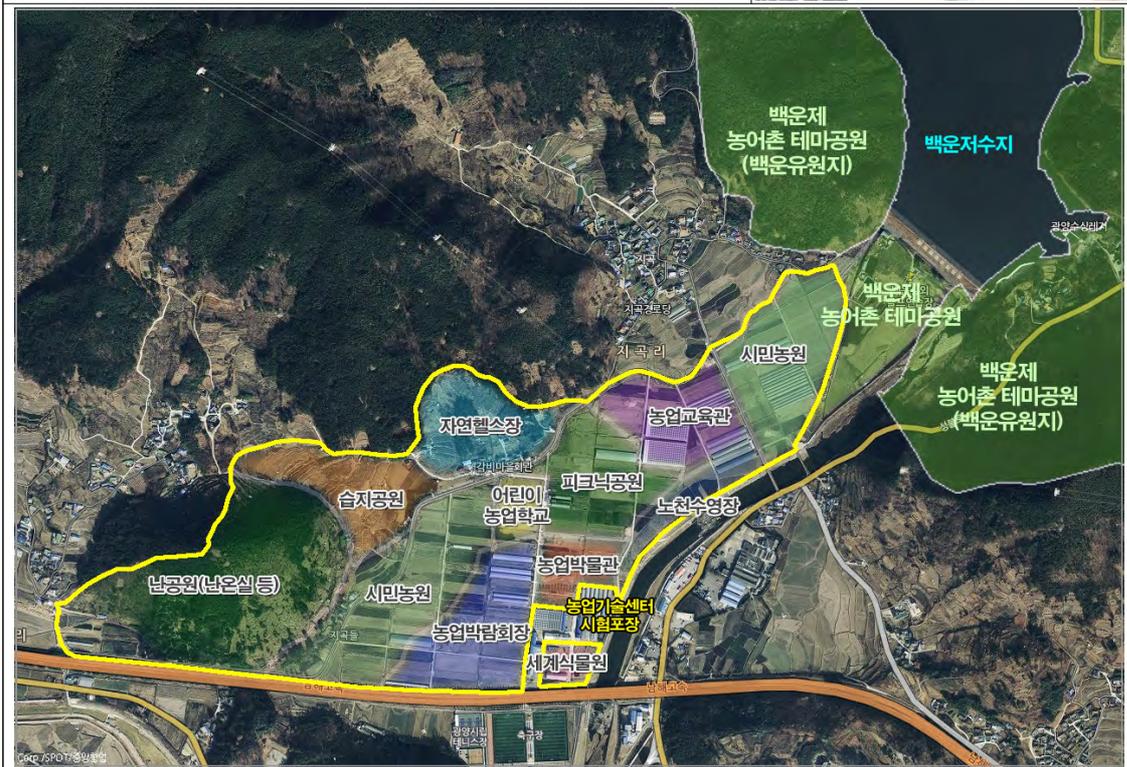
- 기존시설(모텔 등)의 리모델링사업과 함께, 소규모 예산과 지역주민연계를 통해 추진 가능한 ‘스쿨핑 사업’, ‘섬진강 매화캠핑장’, ‘전지역관광 명소화사업’과 장기적으로 ‘섬진강 매화 가족 리조트’ 등의 민간사업자 유치 사업, ‘농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도출함

< 표III- 100 > 체류형 명소 도약을 위한 주요사업

전략	주요사업	비고
체류형 명소로 도약하자! [오래 머물게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쿨핑 사업(학교캠핑+지역교류센터) · 섬진강 매화캠핑장 · 전지역 관광명소화사업(1마을1명소화) · 섬진강 매화 가족 리조트 · 광양항 친수공간 테마파크 · 광양 농업 테마파크(봄꽃박람회 개최) 	6개 사업

■ 봄꽃 박람회 개최

- 위치 : 매화마을 및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 목적
 - 국내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꽃축제인 매화축제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열리는 광양 꽃 축제를 연계하여 봄꽃 박람회 개최
 -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주변에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친환경 체류형 휴양레저관광허브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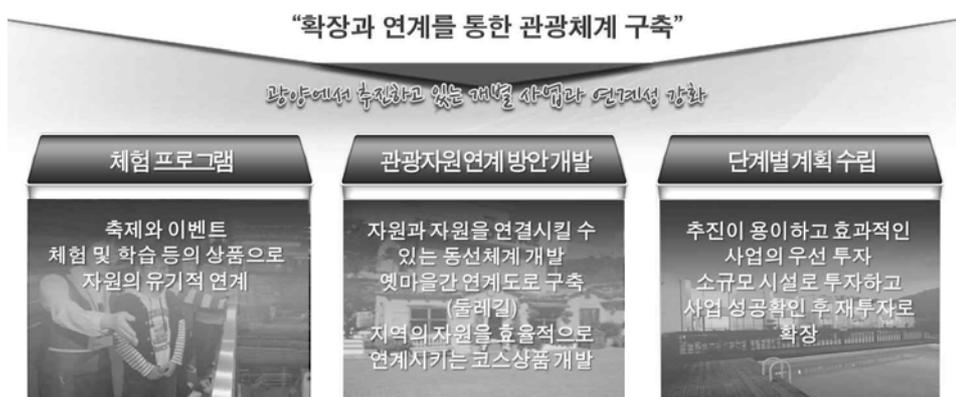


(그림III- 65) 광양 농업 테마파크 조성사업(봄꽃박람회 개최)

라. 지역 균형적 발전전략 제시 = “지역 및 자원간 관광연계시스템을 구축하자!”

■ 관광자원의 연계 방안 개발

- 자원과 자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동선체계 개발 및 코스 상품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섬진강, 백운산 등산로, 경전선 폐선, 옛 마을간 연계 도로 등을 활용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완성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함
- 이런 관광자원 연계사업을 통해 마을 축제 및 이벤트 등의 체험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그림III- 66) 지역간 관광 연계시스템 구축 방안

- 주요 사업으로는 ‘섬진강 물레길’, ‘동·서통합자전거길’, ‘동·서화합 힐링 관광벨트’사업을 제시함

< 표III- 101 > 지역간 관광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사업

전략	주요사업	비고
지역 및 자원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자! [광양시 구석구석 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 물레길 · 동·서통합 자전거길 · 동·서화합 힐링 관광벨트 	3개 사업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마. 관광진흥계획

■ 광양시만의 관광 상품 확충

- 광양시의 지역문화와 보유자원들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추진력 확보와 지역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음.

■ 관광안내시스템 확충

- 관광안내 시스템 확충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스마트투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역주민 스토리텔러 육성 사업을 진행함

■ 연계관광 활성화

- 관광코스 개발 등 지역 내 연계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자원들과 관련 산업 부문들의 이용확대를 도모함

< 표III- 102 > 관광진흥계획 도입사업

전략	주요사업
축제·이벤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축제의 개선 및 통합방안 · 신규 축제 개발 · 매화나무 심기 캠페인
관광코스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별 관광코스(역사, 교육, 문화예술, 자연체험) · 대상별 관광코스 등
안내체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 휴게소 관광홍보 강화 · 디지털 키오스크 설치 · 지역주민 관광아카데미 운영 · 지역주민 스토리텔러 육성사업 · 스마트투어 어플리케이션
홍보·마케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 관광 SNS 구축 · 블로그 기자단 모집 · 트립어드바이저 관광지/숙박/음식점 등록 · 여행사 인센티브 개선계획
관광 상품 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먹거리 개발계획 · 외래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 관광기념품 개발 · 크루즈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바. 전략별 도입사업 종합

- 전략별 도입사업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기존 추진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전체 개발비전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 총 52개 사업을 선정함

< 표III- 103 > 전략별 도입사업의 종합

전략	주요사업	비고
	계	52개 사업
스타상품을 개발하자! [꼭 봐야하는 상품 만들기]	감성메탈시티 광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봉산 메탈아트 봉수대 특화사업 · 황금 테마마을 · 점동 아트빌리지[아름다운 예술(호수)마을 · 로봇 스테이션 · 아트텔 사업 · 감성벤처(예술 조형 벤치) 사업 	6개 사업
	에코테인먼트 백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운산 에코레저 체험단지 · 백운산 힐링스테이 사업 · 백운산 숲 유치원 브랜드화 사업 · 옥룡사 역사관광지 · 월애 테마빌리지(거점체류단지) 	5개 사업
	명품매화도시 광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매화마을 · 광양 섬진강 매화길 · 사군자 수변 정원 · 도심 매화공원 및 매화길 조성 	4개 사업
	운동주 시인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있는 망덕포구 만들기 사업 · 배알도 수변 레저단지 · 섬진강 공공예술 사업 · 호남정맥 끝 명소화 사업 · 섬진강 하늘길 동서 케이블카 사업 	5개 사업
보유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자! [관광객이 좋아하는 상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순신대교 씨사이드 파크(해변공원) · 기독교 마을 정원 · 매실막걸리 체험단지 · 섬진진지 두꺼비 테마공원 · 섬진강 강수욕장 · 동·서천이야기가 있는 갈대 숲 	6개 사업
체류형 명소로 도약하자! [오래 머물게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쿨핑 사업(학교캠핑+지역교류센터) · 섬진강 매화캠핑장 · 전지역 관광명소화사업(1마을1명소화) · 섬진강 매화 가족 리조트 · 광양항 친수공간 테마파크 · 광양 농업 테마파크(봄꽃 박람회 개최) 	6개 사업
지역 및 자원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자! [광양시 구석구석 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 물레길 · 동·서통합 자전거길 · 동·서화합 힐빙 관광벨트 	3개 사업
관광진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축제·이벤트 계획(3개 사업) · 관광코스 계획(1개 사업) ·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5개 사업) · 홍보·마케팅 계획(4개 사업) · 관광상품 개발계획(4개 사업) 	17개 사업



제10장 사회 · 문화

1. 현황 및 여건변화

■ 문화 · 복지 · 의료시설 부족

- OECD 선진국의 의료수준과 비교해서 부족한 시설을 활용하고 의료시설의 선진화 및 보급 확대에 소외계층 최소화
- 문화시설 이용인구의 인접 시군으로의 유출 방지대책 마련 필요

■ 공공지원 및 연계협력 부족

- 동사무소를 문화복지 중심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나, 체계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광양시의 풍부한 문화재를 활용한,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운영중이나, 이용률이 저조함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경제활동 장려정책이 미흡함

■ 광양시 지역성 부족

- 광양의 교육시설, 기업체 및 산업단지 등의 시설과 이에 따른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추었으나 고등교육 및 연구시설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연구시설 확충과 적극적인 산·학·연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저출산 고령화시대 도래

- 저출산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의 확대와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의 사회정책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
-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에 국한되어 제공된 복지서비스가 지역민 전체의 복지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
- 또한, 고령층의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다양한 레저문화시설 수요의 증가,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에 의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민족의 유입으로 이에 따른 새로운 생활문화 양식의 접근성이 확대됨
- 단일민족이었던 과거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의 형성으로 이질적 문화를 포용하는 사회로 전환 필요

■ 사회 불평등의 심화

- 노력과 능력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 사회이나 자본주의에 기초한 우리 사회 경제 체계에서 기회의 불평등 현상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함
- 사회적·경제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사회경제 환경을 조성

2.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2.1 기본방향

가. 앞서가는 문화복지기반 구축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문화복지 기반 조성
-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문화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한 경쟁력있는 스포츠·문화산업 육성
-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으로 평생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기회 증진

나. 풍부하고 역사깊은 문화교육기반 구축

-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역사공간 창출
- 도심내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
- 콘텐츠시티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 교육·연구시설 유치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로 인재양성 도모

다. 함께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 구축

- 커뮤니티시설 중심의 지역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소통 기회 확대
- 소규모 마을축제 등 주민주도의 문화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의식 향상
- 주민교류 확대를 통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행정체계 구축
- 지역주민이 다양한 지식에 접근가능한 문화네트워크 형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사회 불평등의 심화

- 노력과 능력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 사회이나 자본주의에 기초한 우리 사회 경제 체계에서 기회의 불평등 현상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함
- 사회적·경제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사회경제 환경을 조성

2.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2.1 기본방향

가. 앞서가는 문화복지기반 구축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문화복지 기반 조성
-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문화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한 경쟁력있는 스포츠·문화산업 육성
-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으로 평생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기회 증진

나. 풍부하고 역사깊은 문화교육기반 구축

-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역사공간 창출
- 도심내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
- 콘텐츠시티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 교육·연구시설 유치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로 인재양성 도모

다. 함께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 구축

- 커뮤니티시설 중심의 지역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소통 기회 확대
- 소규모 마을축제 등 주민주도의 문화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의식 향상
- 주민교류 확대를 통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행정체계 구축
- 지역주민이 다양한 지식에 접근가능한 문화네트워크 형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2.2 실천전략

① 앞서가는 문화복지기반 구축

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 여성 임신·출산 지원 및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고학력 여성 취업자들의 결혼 시기 연장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출산장려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방과 후 보육시설 등 아동보호 기능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확충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활동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채용 장려 및 인센티브 부여

■ 노인복지인프라 구축 및 노인권익 증진

-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비도시지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급증하는 노인인구가 생활할 수 있는 문화 복지환경 조성
- 노인인구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마련하여 고령화시대의 노인 자립도 향상
- 의료정보, 응급정보에 대해 주민들의 접근을 향상시켜 다양한 건강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질병 등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 교육의 질적 제고

- 저출산 시대 도래에 따른 잉여 교육시설의 재구성과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자녀 양육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공교육 프로그램 신설·제공

■ 광양시 의료시설 확충 필요

- 광양읍권 종합병원 유치
 - 현재 중마동에 종합병원 1개소(사랑병원)가 있으며, 추후 인구 증가에 따라 광양읍권 종합병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의료서비스 개선
-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 성장기 어린이에 맞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여 취약한 의료 기반시설 확충
 -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소아과의원(현재 36개소)의 승격으로 추진하고 추후 인구증가(15세 미만 인구 2013년 26천인 → 2030년 40.5천인)에 따라 어린이 전문병원 추가유치 검토

- 장기적으로 교육·의료·문화 등 기반 확충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효과 기대



(그림 III- 68) 어린이전문병원 예시

나.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정책 및 경쟁력있는 스포츠산업 육성

■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문화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 단일민족의 개념에서 벗어난 다문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 확충
- 다문화적 문화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공연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 마련

■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스포츠·문화산업 육성

- 개발여건 및 수요에 기반한 집객력 있는 “미래지향 복합형 체육시설 기능 강화 및 추가 조성”



(그림 III- 69) 종합스포츠타운 기본구상

○ 성황근린공원(단기)

- 성황근린공원과 인접한 중마권의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하며 시설의 이용률이 높은 주요시설 도입
- 도입되는 시설의 집약화를 통하여 시설 간 유기적 연계성을 높이고 시설 배치 및 이동 동선에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함
- 주요시설 조성과 시설을 집약화 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함
- 주요도입시설 : 다목적문화체육관, 야구장, 풋살경기장, 주차장 등

○ 광양공설운동장(장기)

- 기 조성되어 있는 종합운동장, 축구전용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에 문화·예술 등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능 강화 및 확장
- 광양공설운동장은 지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공성을 띄며 추가시설 도입 시 공공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함
- Trend를 반영한 체육시설과 연계 가능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여 시설 활성화를 유도함
- 주요도입시설 : 게이트볼장, 축구장, 풋살경기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복합문화센터, 글램핑, 캠핑장, 쥘라인, X-게임장, 인라인, 다목적광장 등



(그림 III- 70) 성황근린공원 구상안



(그림 III- 71) 광양공설운동장 구상안

○ 기타시설

- 골프시설 이용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관외 지역으로 골프이용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동부권 거점 골프장 유치 및 조성

다. 정보산업 발달에 따른 교육수준 향상

■ 정보매체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

- 다양한 정보매체의 접근성 증가 및 전자정보공개 확대로 평균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정보수요 증가가 예상됨
- 정보매체를 통한 정보전달 방법의 다양화로 온·오프라인의 평생교육시스템을 통해 평생교육대상 확대 및 기회 증진

■ 도서관 등 시설 활용방안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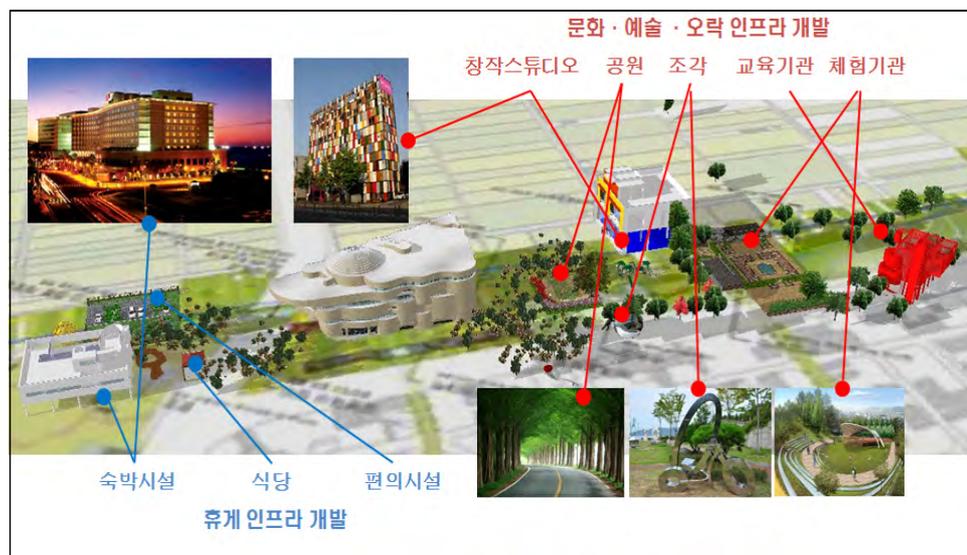
- 지역별 도서관 확충, 대학인프라 활용 등 교육시설 집중 지원으로 주민 교육수준 향상 및 의식수준 제고

② 풍부하고 역사깊은 문화·교육기반 구축

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역사공간 창출

■ 문화재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문화기회 확대

- 문화예술 및 교류의 중심지인 원도심의 활성화를 통해 광양 시민과 방문객, 여가와 교육,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광역 문화거점으로 육성
- 원도심에 산재해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무계획적인 증·개축 및 훼손을 지양하고 역사성을 가진 복원, 발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인근 지역의 정비를 통해 지역적·인지적 연계성을 확보
- 전남도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전남의 예술적 재창조 및 전남 거점 문화복지기반 구축
 - 전남 동부지역의 창조적 문화예술 교류 및 발전 거점으로 기능과 역할을 특화
 - 전남의 지역성과 장소성의 확장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진흥을 창출
 - 지역사회와 세계 동시대미술을 매개하여 전남의 문화관광 랜드마크로서의 위상 확립



(그림 III- 72) 전남도립미술관 구상안

■ 생활권별 문화거점 지정 및 육성

- 생활권 중심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원 등의 지역문화시설의 외관을 정비하고 가치를 재정립하여 지역성을 살리도록 함
- 문화의 집 등 주민자치센터와 공동 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 등을 지역복합커뮤니티센터로 전환하여 집적의 효과를 기대
-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학교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교양 교육기능 강화

- 중심지 위계에 따라 문화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차별화를 통해 시설을 특성화하고 상위 중심지 또는 교통 결절점인 경우 복합화 및 대형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거점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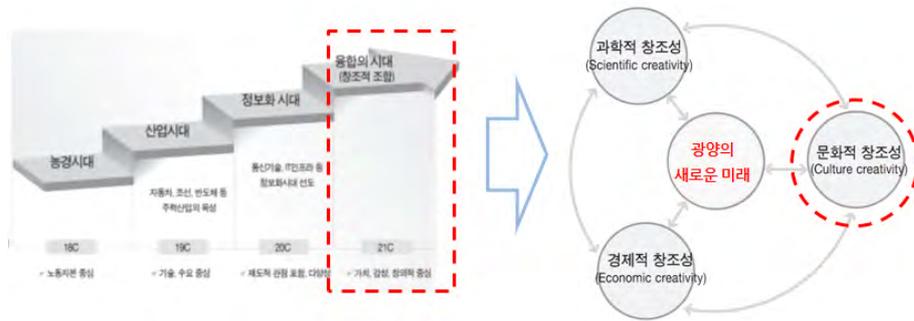
■ 도심 유희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 문화예술 교류의 중심지인 중앙로 활성화를 통해 광양 시민과 방문객, 문화와 교육, 전통과 현대가 조화하는 융합공간으로 조성
-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가진 지역 유희시설을 정비하여 새로운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
- 도심의 유희공간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창작예술인이나 단체의 예술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각종 문화단체의 열린공간으로 운영하여 시민공원화를 유도

나. 문화예술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 광양시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시티 기반 조성

- 콘텐츠란 ‘창조성’이 내포하고 있는 융합·다양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무형의 결과물로 정의됨



(그림 III- 73) 콘텐츠의 의미

- 역사, 예술, 미디어콘텐츠를 통합하여 콘텐츠시티 기반 조성
 - 문화·예술·산업이 연결되는 콘텐츠 개발
 - 권역별 핵심 콘텐츠로 거점 확보 및 주변 콘텐츠와 연계
- 광양시 주요 콘텐츠를 중심으로 7개 콘텐츠권역 설정
 - 도선국사 콘텐츠권역
 - 광양읍 콘텐츠권역
 - 구봉산 콘텐츠권역
 - 중마 콘텐츠권역
 - 망덕포구 콘텐츠권역
 - 백학동 콘텐츠권역
 - 섬진강 콘텐츠권역

< 표III- 104 > 7개 콘텐츠 권역 설정

구분	위치	콘텐츠 거점	개념도
도선국사 콘텐츠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운산 일원 · 도선국사마을 일원 · 백운산자연휴양림 일원 · 하조마을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선국사 인성교육 테마공원 	
광양읍 콘텐츠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읍 일원 · 동천, 서천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상상놀이터 	
구봉산 콘텐츠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봉산 일원 · 용장마을 일원 · 점동마을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봉산 약속의 공원 	
중마 콘텐츠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순신대교 일원 · 광양항만 일원 · 광양시청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 미디어파크 	
망덕포구 콘텐츠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덕포구 일원 · 망덕포구 해변 일원 · 태인동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 해양레저타운 	
백학동 콘텐츠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학동 일원 · 어치계곡 일원 · 수어저수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생태 테마공원 	
섬진강 콘텐츠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진강변 일원 · 매화마을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계절매화마을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 7개 콘텐츠 권역별 세부 콘텐츠 개발로 콘텐츠시티 실현

< 표III- 105 > 7개 콘텐츠 권역별 세부 콘텐츠 개발

구분	콘텐츠 개발 세부내용
도선국사 콘텐츠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강, 바다를 보며 걷는 ‘도선국사길(120km)’ 연계 개발 : 도선국사 이야기길 / 도선국사 하늘길 / 동서천 생태길 · 산, 강, 바다를 보며 걷는 ‘도선국사길(120km)’ 중 백운산 하늘길을 View Tower point로 명소화 · 도선국사 ‘인성교육 프로그램운영’ : 어린이, 공무원, 회사원 인성교육의 장 · 도선국사마을 체험 확대: 매실막거리체험 / 매실막거리 판매장 / 두부축제 / 사또 주막 개발 · 월애(초암마을) / 신재 최산두 / 광양만 스토리텔링 · 하조마을 힐링교육 체험
광양읍 콘텐츠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읍 동서통합 남도순례길(LF아울렛과 도립미술관, 사라실예술훈) · 자연미술관, 광양읍 공공예술프로젝트(아트파크) · 서천변 미니골프 테마콘텐츠, 파빌리온 공원화 · 서천 불고기 특화거리에서 불고기파크로 명소화 · 옛 골목길 명소화, 몽마르뜨언덕, 가로수 공방길, · 남부 학습림 “어린이 정원” · 광양 스토리텔링 지도 개발
구봉산 콘텐츠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봉산 스카이트레킹(전망대, 스카이로드,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별빛광장, 숲놀이터 등), 구봉산 키즈테마파크, 구봉산 황금테마파크 · 꽃 테마파크, 구봉산 힐링테마공원 · 이벤트 축제 - Happy Promise Day
중마 콘텐츠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 미디어파크(수변공원, 경관보도교 랜드마크화, 체육공원 정비, 마동지구 수변정비, 금호지구 수변정비) · 이순신대교 유람선, 와우생태문화공원, 커뮤니티센터 수변야외극장 · 광양항 수변공원 : 수변 문화공간 “대한민국의 샌프란시스코” · 등자룻 장군 평화공원 조성사업 · 동주 & 형주 문화의 뜰(가제)
망덕포구 콘텐츠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알도 마리나 · 배알도 테마공원 · 섬진강 해변카페 · 선소체험공원
백학동 콘텐츠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생태테마공원 · 어치 자연치유공원
섬진강 콘텐츠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계절 매화마을 · 섬진강 하늘길 · 섬진강 이야기마을 · 섬진강 아름다운 길 · 4계절매화공원 · 섬진강 강수욕장

■ 광역적 문화사업추진 시스템 구축

- 광양의 문화예술 지원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적인 사업추진시스템 구축
- 대규모 문화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광양시 및 인접시군의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지원하고, 중남권으로 권역 확대 도모

■ 문화부족지역의 지원시스템 마련

- 문화시설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필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거점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인근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상호협력적 지원시스템 마련
- 비도시지역 등 낙후지역의 기본적인 문화수요를 고려하여 역사문화마을 또는 전원마을사업과 연계된 지원시스템을 통해 인적·물적 한계를 가진 저밀지역의 시스템 운영의 편의성 및 실효성 도모

■ 역사·문화·관광 Network조성을 통한 시스템화

- 광양시의 풍부한 문화·역사·관광 자원 및 신규 추진 예정인 레저·스포츠시설을 연계한 Network 형성
- 지역별 강점을 살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권역별 특화를 도모하고 집적효과 창출

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광양시 정체성을 살린 청소년 프로그램**

- 지역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광양의 정체성을 살린 청소년 프로그램 등 운영
- 기업체 탐방, 실습 등의 기회 확대와 청소년 교육 및 세미나 실시

■ 주요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지식네트워크 구축

- 광양시의 우수인력 및 지역내 문화예술인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수준을 제고
- 광양시 주요기관, 연구소, 기업 등의 지식 네트워크 구축

■ 교육·연구시설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동서통합지대 산업 재활성화를 위하여 핵심역할을 담당할 세계수준 R&D 연구기관 유치
- 동서통합지대 지식산업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재편을 준비하여 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이행 촉진

- 신소재산업 관련 교육·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양호한 교육·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인접 산업단지내 기업과 연계를 통한 클러스터 형성
- 신소재 관련산업 특화연구소를 설치하여 전문공학석사(PSME)를 양성하고 세계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육성
- (가칭)창의예술고 설립을 통해 전남 동부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③ 함께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 구축

가. 지역조직의 네트워크화 및 주민활동 지원

■ 커뮤니티시설 중심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 지역 소생활권별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 다양한 지역커뮤니티 또는 동호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협력을 통한 소통의 기회 확대

■ 주민주도의 문화활동 기회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

- 주민을 중심으로 소규모 마을축제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주최하고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시민의식 향상



(그림III- 74) 주민주도형 마을축제 예시(대전 유성구)

- 주민의 참여연대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자발적 지역자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주민교류 확대를 통한 유연한 행정체계 구축

- 주민들의 교육문화의 기회 확대를 통해 주민교류를 확대하여 개방적이고 유연한 행정체계 구축
-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교육 등 주민의식제고 및 계획주체로서의 협력자 양성
- 장기적으로 공공·민간·시민단체·주민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행정체계 기반 마련

나. 창의행정 인프라 구축

■ 지식교류 문화 및 창의 아이디어 수용

- 지역주민이 도서관 등의 시설을 통해 다양한 지식에 접근가능한 문화네트워크를 형성



(그림 III- 75) 광양 도서관 현황

-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지식 및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장애인 복지 등 사회약자 지원 시스템 구축

-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계획 수립 및 무장애(Barrier Free) 도시조성 추진 등 도시디자인 개선
- 복지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노인 및 장애인의 경제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취업교육 시스템 등을 마련
- 아동 및 청소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빈곤아동 자활자립을 지원
-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방안에 맞춰 행정지원체계 구축



(그림 III- 76)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방안(보건복지부)

3. 성과지표

■ 의료보건시설 계획지표

구분	단위	2013	2015	2020	2025	2030
종합병원	개소	1	1	2	2	2
병·의원	개소	54	55	60	75	100
요양병원	개소	1	1	2	3	3
병상수	병상	692	768	1,053	1,333	1,588
1병상당 인구수	인	219	200	190	180	170
의사수	인	154	162	222	300	386
의사1인당 인구수	인	985	950	900	800	700
계획인구	천인	152	154	200	240	270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기준

주 : 의사수는 한의사 포함, 인구수는 2013년 주민등록 인구(151,621인)

■ 교육시설 계획지표

구분	단위	2013	2015	2020	2025	2030	
초등학교	학교수	개교	30	29	32	35	38
	학급수	학급	429	424	448	455	494
	학급당학생	인	21.8	21.4	21.0	20.0	20.0
중학교	학교수	개교	12	14	16	18	20
	학급수	학급	210	190	272	288	320
	학급당학생	인	32.2	29.8	29.0	28.0	28.0
고등학교	학교수	개교	8	8	10	12	14
	학급수	학급	197	195	230	264	294
	학급당학생	인	33.5	31.3	31.0	30.0	30.0
전문대, 대학교	개교	2	2	3	3	3	
계획인구	천인	152	154	200	240	270	

자료 : 전남 교육통계(2014) 기준

■ 문화·체육·복지시설 계획지표

구분	단위	2013	2015	2020	2025	2030	
문화	공연시설	개소	2	2	2	3	3
	전시시설	개소	-	-	1	2	2
	지역문화복지시설	개소	6	6	8	9	10
	문화보급전수시설	개소	2	2	3	4	5
	도서관	개소	3	3	4	5	6
	박물관	개소	-	-	1	1	1
체육	종합운동장	개소	1	1	1	3	3
복지	아동복지시설	개소	-	-	1	2	2
	노인복지시설(주거)	개소	2	2	3	4	5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2	2	4	4	5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기준

제11장 저탄소 녹색도시 구상

1. 저탄소 녹색도시의 개요

1.1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

- ‘저탄소 녹색도시(Low - Carbon Green City)’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의 적용,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말함
- 한편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물·자원순환구조 등과 같이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함
- 이러한 ‘저탄소 녹색도시’는 기존의 생태계보전, 자연공생, 청정환경을 내세웠던 ‘친환경도시’와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자립, 자원순화개념의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탄소저감, 탄소흡수, 신재생에너지 개념의 ‘탄소저감도시’의 개념을 총괄한 개념이며,
-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의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완화 등 가능한 발생되는 탄소를 저감시키고 발생된 탄소를 최대한 흡수하고자 하는 개념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음

1.2 저탄소 녹색도시 국내 추진동향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2009.7) 수립

- 녹색성장의 개념 : 경제·환경의 조화·균형 성장



(그림 III- 77) 녹색성장의 개념

- 비전 :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그림III- 78) 녹색성장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10.1)

○ 제정사유

-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
-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주요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국가전략 수립·시행
-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마련
- 녹색산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지원
-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 설정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운영
- 녹색국토 조성,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녹색성장 교육·홍보 등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실현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14. 6) 수립

- 비전 :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정책목표
 -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 5대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

정책방향	중점과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체계적 이행 · 배출권거래제 정착 및 탄소시장 활성화 · 장기 국가 감축목표 수립 · 탄소흡수원 확충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 에너지 시설 안전성 확보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융합 녹색기술 개발 · 녹색창조산업의 육성 · 자원순환 경제구조 정착 · 규제 합리화 및 녹색인재 양성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친환경 생활기반 확대 · 녹색 국토공간 조성 · 녹색 복지 및 거버넌스 기반 확충
글로벌 녹색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협상 효과적 대응 · 녹색성장 지역협력 확대 및 국제적 확산 · 개도국 협력 확대 및 내실 제고 · GGGI/GCF와의 협력 및 지원 강화

○ 주요사업 추진 로드맵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홈페이지)

제1편 계획의 개요

제2편 비전과 발전구상

제3편 부문별 계획

1.3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의 개요

가. 수립원칙

- 도시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간구조, 교통체계, 환경의 보전과 관리, 에너지 및 공원·녹지 등 도시계획 각 부문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수립
-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형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한계자원인 토지, 화석연료 등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 태양력,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분석·반영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 수립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하여 지역의 지리적, 사회·경제여건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계획의 수립 여부 및 계획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수립

나.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적용 내용

-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장래예측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교통체계,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환경보전과 관리, 환경친화적·에너지 효율적 개발, 대기환경 및 수환경의 보전, 폐기물, 에너지, 공원·녹지, 방재 및 안전,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등의 각 부문별 계획이 포함

2. 현황 및 여건변화

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온실가스 배출 증가

- 2013년 현재 광양시의 대기환경은 아황산가스 0.006ppm, 일산화탄소 0.4ppm, 이산화질소 0.018ppm, 미세먼지(PM-10) 37 $\mu\text{g}/\text{m}^3$, 오존 0.032ppm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아황산가스는 0.007ppm에서 0.006ppm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이산화질소는 0.015ppm에서 0.018ppm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 오존은 0.023ppm에서 0.032ppm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여건 형성 미흡

- 온실가스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부문에 수송, 에너지산업, 가정 및 상업 등에 소요되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체에너지의 활용이 시급하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이 미약한 실정
- 한편 화석에너지의 사용이 근본적으로 감축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체계 등에 대한 여건도 미흡한 실정

1.3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의 개요

가. 수립원칙

- 도시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간구조, 교통체계, 환경의 보전과 관리, 에너지 및 공원·녹지 등 도시계획 각 부문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수립
-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형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한계자원인 토지, 화석연료 등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 태양력,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분석·반영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 수립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하여 지역의 지리적, 사회·경제여건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계획의 수립 여부 및 계획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수립

나.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적용 내용

-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장래예측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교통체계,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환경보전과 관리, 환경친화적·에너지 효율적 개발, 대기환경 및 수환경의 보전, 폐기물, 에너지, 공원·녹지, 방재 및 안전,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등의 각 부문별 계획이 포함

2. 현황 및 여건변화

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온실가스 배출 증가

- 2013년 현재 광양시의 대기환경은 아황산가스 0.006ppm, 일산화탄소 0.4ppm, 이산화질소 0.018ppm, 미세먼지(PM-10) 37 $\mu\text{g}/\text{m}^3$, 오존 0.032ppm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아황산가스는 0.007ppm에서 0.006ppm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이산화질소는 0.015ppm에서 0.018ppm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 오존은 0.023ppm에서 0.032ppm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여건 형성 미흡

- 온실가스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부문에 수송, 에너지산업, 가정 및 상업 등에 소요되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체에너지의 활용이 시급하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이 미약한 실정
- 한편 화석에너지의 사용이 근본적으로 감축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체계 등에 대한 여건도 미흡한 실정

나. 대내외 여건

■ 기후변화 위기의 심화

-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지속
 - 개도국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전세계적인 에너지사용 증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 증가 전망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피해 확산
 - 전세계적으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 횟수와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호우·폭염 등 이상기온 빈발, 해수면 상승, 자연생태계 급변 등 한반도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심화

■ 에너지 문제의 경제적·환경적 의의 증대

- 세계 에너지 소비 지속 증가 전망
 - 세계인구의 증가 및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이 에너지 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
- 에너지 가격의 상승 추세 지속
 - '95년 이후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 예상
- 원전 및 재생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증대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세계적으로 탈(脫)원전 흐름 시작
 - 세계경제 위축과 태양광·풍력 부품 공급과잉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진행
- 우리경제의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적 시스템 지속
 -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증가 및 냉난방 수요 급증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 증가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83% 수준

■ 창조경제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

-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한 창의성 기반의 경제·산업 생태계 부상
 - 주요 선진국은 새로운 시장·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ICT, 문화·예술 등 자국의 강점을 활용한 창조산업을 집중 육성
 - 지속적으로 성장(연평균 14%)하고 있는 ICT 기반 산업융합시장 중에서 친환경·신에너지 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
- 녹색산업 육성에 기반한 경제전략 수립 국제적 확대 추세
 - 최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녹색산업을 경제회복 및 성장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선택

○ 산업구조 변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

- 에너지·자원집약적인 업종에 기초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
- 노동집약적 산업('60~'70년대)에서 자본집약적 산업('80~'90년대)를 거쳐 기술·지식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업그레이트 필요

○ 新성장전략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 부상

- 경제성장률 하락, 중산층 지위 하락, 경제양극화 심화 등 위기극복을 위해 과학기술 ICT 역량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전략 추진
- 기술간 융합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녹색기술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 중의 하나

■ 포용적 성장 패러다임의 확산

○ 환경적·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포용적 녹색성장' 개념 부각

-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환경보호와 더불어 사회적 통합 및 형평성 제고 추구
- 환경 및 사회 측면 이슈가 지역·국가별 비전 및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등에 핵심적 내용으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서의 '녹색성장' · 생산과 소비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의 조화를 추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중요 전략수단으로서의 '녹색경제' · 환경·경제·사회적 측면 간 불균형성을 보완함으로써 포용적 녹색성장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성장 및 발전을 육성하고 인류 복지 및 후생에 기반이 되는 자연자원과 환경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성장' ·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투자혁신 및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리스크와 생태적 영향을 저감시킴으로써 인류 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녹색경제' · 저탄소 경제성장, 효율적 자원활용, 사회적 포용성 달성

(그림 III- 79) 녹색성장 개념의 변화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연생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대

- 2000년 중반 이후 소득양극화 심화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여건 악화
-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취약계층 및 환경서비스 사각지대 존재

3.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3.1 기본방향

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실현방안 강구

-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 협약 및 방안, 정부(환경부, 산통부 등)에서 발표한 관련 계획 및 지침, 그리고 광양시의 기후변화와 도시개발 특성을 포괄하여 광양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실현방안 제시

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향 제시

-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의 부문별 방향 제시

< 표III- 106 >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향

부문	대응방향
도시공간구조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와의 연계 강화 ·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이 가능한 공간구조로의 개편 유도 · 신규개발지는 기존의 녹지축·보전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함 ·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을 하는 산림녹지를 최대한 보전
토지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소비 절감,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특성에 따른 입지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제시
교통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교통결절점과 연계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버스(BRT등), 지하철, 경전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 확대 · 자전거 및 보행 등 비동력 교통수단 활성화
도심 및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특성 및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한 목표와 전략 제시 · 녹색 건축물과 그린홈 도입의 적극 검토 · 건축물 주변부 식재 등 미기후 향상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제시
환경의 보전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 감축계획을 포함한 환경보전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 에너지수요관리계획,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방지에 따른 대책 · 청정연료 및 저유황유 보급 확대, 저공해 자동차 보급, 진단 에너지 공급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 ·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도심 열섬현상 완화 ·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폐기물의 감량화, 재이용 및 재활용 방안 강구 · 에너지수요관리방안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공원·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바람통로계획과 연계한 공원녹지체계와 수변공간계획 등 수립
방재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집중호우, 열파, 한파, 해수면 상승 및 하천 범람 등에 대한 영향평가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한 적응계획 제시
경제·산업·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전략과 방안 검토

3.2 추진전략

가. 현안지역과 부문에 우선적으로 적용

- 온실가스 배출량과 열대야 일수가 많아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녹색도시화 방안 우선 적용
- 온실가스배출에 영향이 많은 부문(예 : 교통) 및 온실가스 감축에 취약한 부문(예 : 공원녹지)에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저탄소녹색화의 효과 체감 극대화

나. 공간유형별 적용

- 지역 내외부의 녹지현황, 개발밀도, 주요기능의 유무 등 개발지역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녹색도시화방안 적용
- 마을, 도심지,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 지역상황에 부합된 녹색도시화방안 적용으로 적지성과 형평성 확보

다. 거점지역에 집중 적용

-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활동이 활발하며, 도시이미지화에 중요한 지역에 집중 적용
- 생활권 중심지, 광양의 대표지역에 녹색도시화를 통해 파급효과의 극대화 도모

3.3 기후변화 대응계획

가. 도시공간구조

■ 생활권과 연계된 다핵거점형 공간구조 구축

- 생활권(통근, 통학, 도시서비스 이용동선 등 고려)과 부합된 도시공간구조와 거점 설정으로 직주근접을 통한 지역간 교통발생 최소화와 화석연료 소비 최소화 도모
- 중심성이 강한 지역(도심, 지역중심)에 자족기능(산업, 서비스, 문화 등)을 강화하여 도심기능의 분산을 도모하며 도심 집중화에 따른 환경적 문제 완화
- 생활권 거점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을 집중 배치하여 다핵 거점형 도시공간구조 강화 도모

■ 기존 지역거점과 대중교통축을 연결한 저탄소형 개발축 설정

- 기존의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개발축을 연결하여 신규거점 확보에 따른 환경훼손 등의 영향 최소화
- 기존 대중교통축과 연계하여 도심 및 지역 중심을 설정하고 이를 거점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교통거리 및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도모

■ 보존축과 녹지축의 강화 및 우선 적용

- 신규 개발보다 도시재생에 주력하여 기존 도시공간의 집중화 및 확산 최소화
- 도시 전체적으로 산지, 해안 및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보존 및 녹지축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설정하며, 단절된 부분은 보완하여 녹지축이 강화되도록 도모
- 기성시가지 내부는 녹색 도시구조로 리모델링 및 재구조화하여 녹색교통 및 녹색공간의 균형적 배치와 저탄소화 도모

나. 토지이용계획

■ 도시재생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

- 노후불량 주거지역, 상업지역, 기능 쇠퇴지역 등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신규 토지이용의 최소화로 환경보존과 에너지소비 절감
- 밀집시가지의 재정비시 고밀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고 녹지율을 향상시키며, 인접녹지와 연계하여 바람길 형성 등 열섬현상 완화 도모
- 기존 녹지의 개발용도로의 전환 억제와 국공유 이전적지의 녹지대 조성 및 보전

■ 신규개발시 토지이용 고도화로 에너지 절약형 토지이용 도모

- 기본적으로 신규개발로 인한 녹지훼손과 에너지 사용이 억제되도록 신개발 지역의 규모를 최소화
- 일정규모 이상의 신시가지와 도시재정비사업시 대중교통이용 효율을 감안하여 대중교통 결절지 주변에 토지이용 집적화하여 새로운 토지의 사용을 줄이고 자동차 이용의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도모
- 시가지 재정비나 신개발의 경우 고층고밀의 복합용도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광양시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구도심과 도시외곽에 위치한 전원지역의 경우 저층복합개발을 도모하는 등 지역에 따라 차별적 토지이용 도모
- 산업단지, 항만, 관광단지 등의 개발시 입지와 개발규모 설정시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집약적 토지이용 도모

■ 녹지면적 확대와 시가화에정용지의 관리

- 시가지 정비시 거점 녹지의 확보와 단절된 녹지체계의 회복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도모
- 이전적지 등 도시정비지역에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시내 거점녹지로서의 역할 도모
- 임해지역과 하천변에 위치한 공업지역 등 녹지취약지역에 바람길 형성과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근린공원, 완충녹지 등 집중 공급 및 체계화
-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산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지역의 확보를 감안하여 시가화에정용지 확보
- 시가화에정용지 개발시 녹색도시계획 지침에 의거하여 친환경적 도시공간 형성을 위한 계획적 개발 유도

다. 교통체계 및 기타 기반시설계획

■ 저탄소 대중교통의 도입과 체계 구비

-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교통수단의 이용 저감을 위해 도시철도와 신교통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기반 구축
- 도시재정비와 신개발시 지역여건(지형, 기능)에 따라 신교통, 자전거 등 저탄소 교통수단 도입과 보행활성화를 위한 생활가로체계 개선
- 대중교통이용율 제고로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거점지역에 대중교통의 광역, 도심, 시가지 환승거점 조성

■ 교통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해 도로망확충과 관리방안 강구

- 교통정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간선 가로망의 확충, 도로폭 및 노선의 정형화 등 도모
- 교통소통 원활화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교통수요 관리방안(TDM)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함으로써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 지역의 특수여건에 부합된 녹색교통계획 반영

- 물류수송교통의 저탄소화를 위해 항만·물류센터와 철도 연계 강화
- 항만물류교통의 시가지 통과로 인한 온실가스영향 감소를 위해 항만배후수송망 구축
- 녹색항만 조성을 위한 녹색에너지 인프라 설치 등 기존 항만의 재정비
- 경사지, 도로개설과 확장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단거리 신교통수단(자동보도, 에스컬레이터, 경량모노레일 등) 도입

■ 미래도시를 위한 첨단인프라의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도모

-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을 융합한 U-City 구축으로 불필요한 교통 발생과 토지이용 수요의 최소화 도모
- IT와 접목된 전력시스템(스마트그리드)의 도입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신교통수단, 전기차 또는 수소차의 실용화와 연계된 인프라시설(전기, 수소충전소) 도입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도시기반 형성

라.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 저탄소형 도심 및 시가지 정비

- 신규개발, 도심 및 주거지정비시 녹색공간 확대 및 바람길 확보를 전제한 압축개발로 지역거점 강화와 도시생태 재생
- 대중교통환승센터와 역세권지역의 토지이용고도화로 저탄소 시가지 형성
- 노후불량주거지와 상업지역에 친환경적 도시재생 방안 적용
- 원도심과 경관우수지역의 경우 고유의 이미지, 문화·관광자원을 고려하여 저탄소형·보전형 정비 도모
- 시가지정비 시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적용, 즉 도심내 보행우선 구역과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으로 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바람길 형성이 원활하도록 도시정비시 도심부, 산지와 하천변 고층고밀 개발을 가능한 억제하고 바람길 방향이 차단되지 않도록 건축 유도, 시설물 배치

■ 도시 주요시설의 저탄소 친환경적 정비

- 주요 공공시설, 교육·문화·체육시설이 해당지역의 녹색거점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신축과 재정비시 녹색건물화 뿐 아니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옥상조경, 벽면녹화, 우수저류시설 등 설치 등
- 대규모 공공 이전적지를 녹색거점(공원, 저습지 조성)으로 조성하여 온실가스 흡수와 대기온도 저하 도모

■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로서의 재생과 신규 조성

- 노후 주거단지의 녹색단지로의 재생(녹색에너지, 녹색 주택, 녹색인프라 등 적용)
- 도시재정비시 현지개량방식의 적용을 통해 철거와 신축에 의한 에너지소비량 저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
-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자립형 저탄소 마을 조성 및 그린홈 보급계획 반영
 -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마을은 도시형(환경부), 농어촌형(농수산부), 도농복합형(안행부), 산촌형(산림청) 등이 있으며 시범사업 후 적용범위 확대 계획

마.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의 지속적 추진

-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방안은 근본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도시공간구조적 해법, 교통수요관리방안 뿐 아니라 저탄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친환경 경교통수단(그린카)과 신교통을 도입하여 대기질 개선 방안 검토
-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활성화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통, 가정, 산업 차원에서의 도시 인프라 구성 필요
-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방안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녹색산업구조로 전환하며 생태산업단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 가정 및 상업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과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탄소제로 주택, 건물 등으로 도모
- 한편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녹지가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녹지대의 경우 온실가스 흡수율이 높은 수종으로 정비
- 주요 시설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적용

■ 수환경과 폐기물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 도시내 하천 등 수환경을 활용하여 도심열섬현상을 완화하도록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복개하천은 생태하천으로의 복원방안을 도모
- 우수관, 저류지, 하수종말처리장 등으로 구성되는 물순환체계를 구축하여 하천생태계의 재생과 수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
- 물순환시스템은 자연순응형으로 조성하며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와 대기온도 저하의 효과를 극대화
- 폐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하여 지역단위의 폐기물 재활용 거점 조성 과 산업화 연계
- 신개발지와 도시재정비시 생태면적률을 높여 토양과 녹지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대기온도 저하를 도모

■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보와 공급확대

- 지역적 특성에 부합된 신재생에너지의 발굴과 보급 확대 도모
 - 폐기물 소각열의 유효 활용
 - 해상풍력단지 조성
 - 해양온도차 발전 등

- 용도별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도시 인프라 구비
 -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통한 주택, 건물, 차량 등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 도시가로 시설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용(가로등, 조명 등 등)
 -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건물의 단열, 냉난방, 조명, 공조시스템 등 적용)
 - 그린홈 보급사업 확대 등

바. 공원 녹지계획

■ 온실가스 흡수를 위한 녹지의 적극적 확보와 효율적 배치

- 공원면적의 확대(도시공원의 확대 지정)와 녹지지역의 보전과 지속적 녹화로 실질적 녹지율 증대
- 시설녹지 중 미조성 녹지의 녹화를 통한 녹지율 제고,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수종의 식재를 통한 녹지화 효율 제고
- 열섬현상 완화 및 예방을 위해 가용지가 없는 시가지부분은 다양한 방식(옥상녹화, 학교숲, 쌈지공원 조성, 벽면녹화 등)의 녹화 추진
- 하천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내 대기순환을 촉진하는 과정을 통한 열섬현상 완화

■ 도심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녹지거점 조성

- 도심지 개발시 공원 및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도심 부적격시설 이전적지를 개발할 경우, 기성시가지 내 공원·녹지와 연계된 공원 또는 시범 녹화조성지역으로 조성

■ 도시녹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녹지네트워크 구축

- 해안, 하천, 주요 구릉지를 연계한 녹지의 네트워크화로 바람길을 조성하여 도심열섬현상 완화와 에너지 절감 도모
 - 녹색네트워크 구축
 - 대규모 거점녹지 및 명품공원 조성
 - 생활권 녹지의 확대(국공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한 도시 숲 조성, 학교숲, 담장 허물기사업, 마을 숲 조성사업, 생활권 녹화사업, 기반시설 녹화사업, 가로수 녹지량 확대)
- 녹지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미연결 부분에 다양한 형태(쌈지공원, 가로수식재, 법면 및 벽면녹화, 학교숲, 공공시설 외부공간 등)로 녹지공간 확보
- 미조성된 가로수를 광양시 기준에 따라 보완 식재하고 도심의 일정폭원 이상의 도로에서는 2열로 식재하는 등 녹음량을 2배로 확대하여 단절된 녹지네트워크의 보완

사. 경제·산업계획

■ 신재생에너지 거점 육성

-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선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거점 육성
- 신성장동력으로서 인접 지자체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부품, 설비 관련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 표III- 107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화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태양광	· 결정질실리콘 태양광발전 시스템 원가 절감 및 비결정질전지·인공 광합성 원천기술 확보 ·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 기술개발
풍력	· 육상풍력 발전단가 저감 및 해상풍력 시장 적기 진입을 위한 기술 개발
태양열·지열	· 보급형 제로에너지 태양열주택 표준화 및 지열발전플랜트 상용화 기술 확보
바이오	· 바이오에너지(바이오디젤, 바이오수소) 자원 개발 및 생산기술 개발·실용화를 통한 수송용 바이오연료 생산 효율 제고 · 미세 조류 이용 등 비식용작물 대체 기술 확보
폐기물	· 폐기물에너지 플랜트 실증,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의 바이오가스화 · 고형연료(RDF) 제조 · 친환경 안전 가스화기술 개발 추진
가축분뇨	· 축사악취제거, 축산분뇨퇴액비화, 에너지화, 토양환원 등 축산분뇨자원화분야 육성
수소연료전지	· 연료전지 가격 저감, 성능 및 수명 향상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자료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국무총리실, 2014. 6.

■ 미래지식산업으로서 저탄소산업의 도입 추진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위해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광양지역의 잠재력(역사, 문화, 자연 등)에 기반한 미래지식산업의 도입 추진
- 우수한 자연 및 해안도시로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저탄소 문화·관광 거점도시로의 발전 추구
- 기존의 탄소배출산업을 탈피한 새로운 저탄소 관광상품(저탄소 호텔, 음식점, 관광음식, 교통수단 등)을 발굴

■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 개선과 생태산업단지화 추진

- 기존 노후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기후친화산업(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하는 동시에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의 전환 도모
- 기존 산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에너지효율화 사업(ESCO 사업, 고효율기기제품 사용, 공정개선 등)과 담수화설비 등의 저탄소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
- 주요 공단의 생태산업단지화 및 주변지역의 녹색환경정비로 산업경쟁력 제고

제12장 계획의 실행

1. 재정 현황

■ 광양시 재정규모

- 2013년 현재 광양시 재정규모는 총 628,449백만원 중 일반회계가 518,906백만원으로 82.6%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109,543백만원으로 17.4%를 차지함

< 표III- 108 > 광양시 세입현황(2013년)

구분		금액(백만원)	구성비(%)
합계		628,449	100.0
일반회계	소계		518,906
	자체수입	계	213,585
		지방세	110,484
		세외수입	103,101
	의존수입	계	305,321
		지방교부세	145,32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2,890
		보조금	140,110
		지방채	7,000
	공기업 특별회계		88,295
기타 특별회계		21,248	3.4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 세입·세출 결산 추이

- 최근 3년간 세입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일반회계 4.0%, 특별회계 0.8%로 나타났으며, 세출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일반회계 2.4%, 특별회계 18.0%로 나타남

< 표III- 109 > 광양시 결산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감률
세입	계	567,810	583,836	595,376	628,449	3.4
	일반회계	460,809	454,963	487,519	518,906	4.0
	특별회계	107,001	128,873	107,857	109,543	0.8
세출	계	445,692	449,834	467,723	501,660	4.0
	일반회계	405,119	387,289	410,924	435,075	2.4
	특별회계	40,573	62,545	56,799	66,585	18.0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 재정자립도 변화추이

- 재정자립도(결산기준)는 2010년 46.1%에서 2013년에 41.2%로 최근 3년간 약 4.9% 감소하였음

< 표III- 110 > 재정자립도 변화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입	460,809	454,963	487,519	518,906
자체수입	212,475	205,271	206,547	213,585
재정자립도(%)	46.1	45.1	42.4	41.2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주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일반회계 세입

■ 1인당 재정규모 변화추이

- 1인당 재정규모는 2010년 3,902,150원에서 2013년 4,144,868원으로 약 6.2% 증가하였음

< 표III- 111 > 1인당 재정규모 변화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규모(백만원)	567,810	583,836	595,376	628,449
인구수(인)	145,512	150,725	150,837	151,621
1인당 재정규모(원)	3,902,150	3,873,519	3,947,150	4,144,868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2. 재정계획

2.1 기본방향

- 도시성장과 더불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체징수에 의한 재정자립도를 제고
-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부서·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 절감
-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과표의 현실화 추진, 선택적 지방세 감면 혜택의 부여,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해 지방세 재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시의 재정을 보완
-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지방물가 안정화에 재정지원을 강화
-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 확충과 주민안전 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재정자립도 변화추이

- 재정자립도(결산기준)는 2010년 46.1%에서 2013년에 41.2%로 최근 3년간 약 4.9% 감소하였음

< 표III- 110 > 재정자립도 변화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입	460,809	454,963	487,519	518,906
자체수입	212,475	205,271	206,547	213,585
재정자립도(%)	46.1	45.1	42.4	41.2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주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일반회계 세입

■ 1인당 재정규모 변화추이

- 1인당 재정규모는 2010년 3,902,150원에서 2013년 4,144,868원으로 약 6.2% 증가하였음

< 표III- 111 > 1인당 재정규모 변화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규모(백만원)	567,810	583,836	595,376	628,449
인구수(인)	145,512	150,725	150,837	151,621
1인당 재정규모(원)	3,902,150	3,873,519	3,947,150	4,144,868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2. 재정계획

2.1 기본방향

- 도시성장과 더불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체징수에 의한 재정자립도를 제고
-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부서·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 절감
-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과표의 현실화 추진, 선택적 지방세 감면 혜택의 부여,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해 지방세 재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시의 재정을 보완
-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지방물가 안정화에 재정지원을 강화
-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 확충과 주민안전 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2.2 총 재정전망

- 재정전망은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1~2015)」을 반영하도록 하며, 2015년 이후는 세목별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산출

< 표III- 112 > 총 재정규모 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합계	628,449	660,831	1,016,770	1,297,685	1,656,212
일반회계	518,906	520,471	800,809	1,022,058	1,304,434
특별회계	109,543	140,360	215,961	275,627	351,778

주 : 2015년 재정규모는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및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1~2015)

2.3 1인당 재정규모 전망

- 1인당 재정규모는 2013년 4,144,868원에서 2030년에는 6,134,118원으로 약 48.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표III- 113 > 1인당 재정규모 전망

구분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재정규모(백만원)	628,449	660,831	1,016,770	1,297,685	1,656,212
인구수(인)	151,621	153,587	200,000	240,000	270,000
1인당 재정규모(원)	4,144,868	4,873,852	5,083,852	5,407,022	6,134,118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2.4 자원확보방안

- 광양시의 재정자립도는 41.2% 수준으로 자체수입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정구조의 건전성과 도시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재정자립도 향상 및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수입의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국세 및 지방세 이전이 예상되는 세목에 대하여 효율적 이용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예산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규모 조정
- 대규모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 등의 운영에 따른 산업체, 물류업체, 운송업체 등 신규 법인설립운영 등 지방세수 증대효과 기대
-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세외수입 확대, 지방공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자체 자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자본 유치, 국가자원 확보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함

< 표III- 114 > 자체재원 확보방안

부분목표		세부내용
자체 재원 확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중 낭비적, 소모적 요소를 극소화 중기 재정계획의 적극적 활용과 장래 재정계획 수립 지역동향 파악을 위한 지역통계 작성
	지방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세행정의 효과적 운영과 증장기적 지방세제 개혁
	세외수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료 및 수수료의 효율체계 조정 잠재된 재산발굴 및 이용과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지방공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기업법 적극 활용 상수도사업의 경영능력 제고 지방공영사업의 타당성 및 증장기 운영계획 수립
	지방채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채 발행규모 확대 및 지방채 발행제도 개선
	재정지출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적극화 시민참여와 시민운동을 통한 지출요인 감소
민간자본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섹타 방식 도입 및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자본의 적극적 유치 	
국가재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과 교부세 확대 노력 지방잉여세 제도개선과 국고보조금 확대 	

3. 투자계획

3.1 기본방향

- 장기적 계획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발생할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 계획 수립
- 민간참여의 확대에 의한 자원조달방안의 다원화
- 투자우선순위와 합리적 결정에 의한 투자효율의 극대화 추구

3.2 투자우선의 원칙

-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사업에 최우선으로 투자
- 도시성장과 인구정착에 기여하고 도시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지역적 특성 및 자원확보를 고려하여 자원조달이 용이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
- 주민욕구를 충족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 소득 향상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국가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사업
-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재사업

< 표III- 115 > 투자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우선순위 결정내용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생활 지원과 관련된 최소한의 필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초사업 · 도시의 안전을 위한 방재사업으로 당장 착수되거나 완공되어야 할 시급한 사업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달성과 지자체의 계획 목적달성을 위한 노후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 기타 도시의 편익증진, 복지수준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활수준 향상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확충하거나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사업
4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상태에서 추진할 수 없거나 장기적인 수요충족을 위한 사업

3.3 부문별 투자계획

■ 중점 투자 부문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투자확대를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확충
- 상습침수지역의 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의 신설 및 개량
- 대기질,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복지부문 중점 지원
-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공급 확대
-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및 장비 보강 개선

■ 도시계획시설 부문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미개설 도로의 개설에 중점 투자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민자 활용 및 민관 공동 투자

■ 환경개선 부문

-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하수시설의 개량
- 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 및 민간대행으로 인력과 장비 감축
- 광역적 차원의 대기질 및 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 투자

■ 공원녹지 부문

- 미집행공원의 시설 확충과 시설물 유지 관리
- 민자유치를 통한 공원시설 확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색있는 공원 설치를 위한 투자

■ 보건사회 부문

- 주민복지 향상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라 각종 복지시설에 중점투자
-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 도모
- 저출산에 대비하여 모자보건 분야에 투자 확대

■ 문화체육 부문

- 국민의 소득증가로 여가선용 및 문화공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확보
- 문화체육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통해 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안정 기여

■ 방재안전 부문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재난유형별 방재사업에 적극적 투자로 사전 예방
- 안전교육·홍보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회 비용 감소 유도

■ 행정 부문

- 행정전산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행정시스템 개선에 투자

3.4 단계별 투자계획

- 재원별 투자계획은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추정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약 26.4%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표III- 116 > 단계별·부문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율(%)
합계	660,831	1,016,770	1,297,685	1,656,212	100.0
일반공공행정	27,931	42,975	54,849	70,002	4.2
공공질서 및 안전	25,471	39,190	50,018	63,837	3.9
교육	10,346	15,919	20,317	25,930	1.6
문화 및 관광	38,202	58,779	75,018	95,744	5.8
환경보호	83,101	127,861	163,187	208,272	12.6
사회복지	90,289	138,921	177,302	226,287	13.7
보건	10,023	15,422	19,682	25,120	1.5
농림해양수산	59,680	91,825	117,195	149,573	9.0
산업·중소기업	16,058	24,707	31,533	40,245	2.4
수송 및 교통	49,247	75,773	96,707	123,426	7.5
국토 및 지역개발	174,207	268,039	342,093	436,607	26.4
예비비	9,680	14,894	19,009	24,261	1.5
기타	66,598	102,465	130,775	166,908	10.1

주 :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1~2015) 내용을 토대로 추정